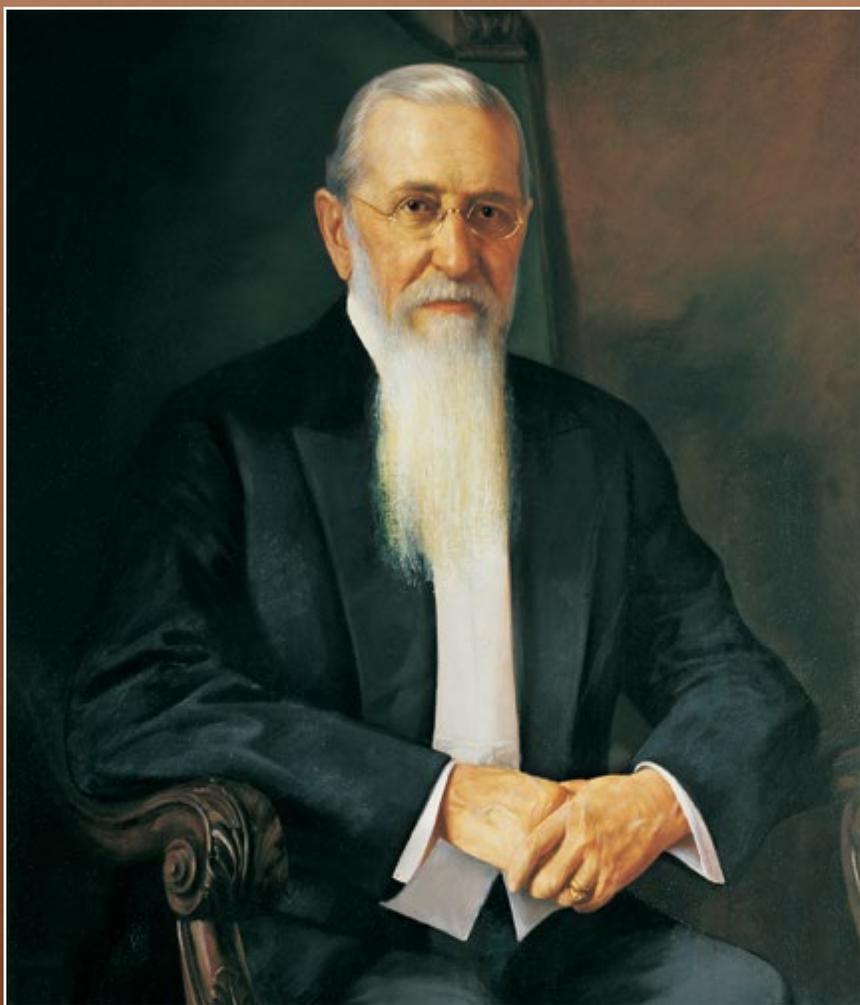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발행

이 책에 관한 의견과 제언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urriculum Planning, 50 East North Temple, Floor 24, Salt Lake City, UT 84150-3200
USA.

E-mail: cur-development @ldschurch.org

먼저 여러분의 성명, 주소, 워드 및 스테이크 명칭, 그리고 책의 제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책의 장점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요셉 스미스

복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미주리 주 인디펜덴스

30쪽: 그림: 서트클리프 모드즐리, 메리 필딩 스미스
돈시 코베트 가족 제공

51쪽: 그림: 델 파슨,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 델 파슨

146쪽: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힐러로드 프레드릭스 보호 국립 역사 박물관

233쪽: 제20워드 합창단
허락을 받아 게재함, 유타 주 역사 학회, 판권 소유

274쪽: 그림: 글렌 에스 홉킨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 글렌 에스 홉킨스

© 199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한국에서 인쇄 11/99

영어 승인: 10/96

번역 승인: 10/96

Translation of 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Joseph F. Smith

35744 320



목 차

제목	페이지
소 개	v
역사적인 사건 요약	viii
조셉 에프 스미스의 성역	xi
1 내 구주 살아 계시다	1
2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	11
3 참되고 충실하며 진지한 기도	21
4 어머니의 고향	31
5 경전의 영감과 신성함	39
6 신앙: 모든 의의 근본	49
7 회개와 침례에 관한 영광스러운 사업	59
8 성 신	67
9 선교 사업에 대한 우리의 의무	76
10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육체적 사망에서 구속하심	86
11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한 자를 영적 사망에서 구속하심	95
12 그리스도의 대업에서 용감함	104
13 속지 않기 위해 진리에 충실함	113
14 충실한 시민이 됨	122
15 어린 아이의 구원	128
16 신권, 신성한 통치권	137
17 생명과 구원의 위대한 계획	147
18 정숙과 순결	155
19 절약, 번영의 기초	163
20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하나가 됨	173

21	상호부조회: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신성한 조직	183
22	우리 영혼 안의 사랑	192
2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음	201
24	감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을 지지함	210
25	교회 대신권의 회장	221
26	안식일을 준수함: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	230
27	우리의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	241
28	학대는 그릇된 것임	249
29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음	257
30	영의 속삭임에 따름	265
31	십일조의 범을 지킴	275
32	순종을 통한 자유	283
33	자녀: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	295
34	신성한 주님의 성전	305
35	진리를 추구함	313
36	지혜의 말씀:회원들의 신체적, 영적인 건강을 위한 율법	323
37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	331
38	교회에서의 봉사	339
39	가정의 밤을 통해 가족을 강화함	345
40	아버지와 아들	353
41	교회의 유익을 위해 계속되는 계시	362
42	우리 자신을 정복함	371
43	가정의 가장	381
44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함	389
45	복음은 고난의 시기의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줌	399
46	성전 봉사를 통하여 돌아가신 조상들을 구속함	407
47	고결성:온마음을 다해 우리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함	416
48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음	425
	색인	433



소 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 네 분의 대관장단 보좌 교회 총관리 역원직에서 52년간 봉사했으며, 교회 대관장으로서 17년 동안 봉사했다. 그는 설득력있고 부드럽게, 그리고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쳤다.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하도록”(*데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93년 2월 6일자, 2쪽) 당부하기도 했다. 그의 성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이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갖고 있다. “저는 … 제 마음속에 영을 받아왔으며,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앞에서 … 나의 구속주는 살아 계(시)다네 … 사실을 알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복음 교리*, 406쪽)

오늘날 그의 메시지와 설교는 우리가 영원한 진보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이고 거룩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임무는 “선을 행하고 죄악을 멈추는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로움, 순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고양시키고, 우리 자녀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 주님의 말씀(과) … 사랑을 심어 주는”(*복음 교리*, 130-31쪽) 것이라고 스미스 대관장은 말씀했다. 그는 또 “말일성도가 되려면 세상적인 목표와 쾌락을 포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실함과 강직한 성품과 진리에 대한 사랑과 원리에 대한 충실 그리고 진리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필요로 합니다.”(“편집자란: 대중성이 아닌 원리”,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6년 7월, 733쪽)라고 말씀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회 회원들이 복음 교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좀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시리즈를 마련했다. 본서에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한 바 있다. “말일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으로 어떤 일에 대해 깊이 숙고하며 자신들이 받아들인 삶의 행로와 원리들을 신중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일관성있고 공정하고 의로

우며 모든 면에서 주님께 용납될 수 있는 것들과 철저하게 보조를 맞추며, 곧게 걸어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10년 10월, 3-4쪽)

본서의 각 장은 다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각 장의 초점을 간단히 요약하는 말씀; (2)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스미스 대관장의 생애와 사상에서 발췌한 실례로 각 장의 가르침을 예시함; (3)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그의 여러 메시지와 설교에 나오는 중요 교리를 예시함; (4) “학습을 위한 제언”. 개인적인 검토 및 연구, 토론, 질문을 통해 현재의 우리 삶에 적용하기 등을 권장하고 있음.

본서 사용법

개인 학습을 위하여. 본서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역설한 복음 원리에 대해 각 회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각 회원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사려깊게 학습함으로써 이러한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증거를 얻을 수가 있다. 본서는 또한 각 회원의 복음 관련 장서에 첨가되어 가족의 교육 및 가정에서의 학습을 위한 중요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안식일 모임에서의 토론을 위하여. 본서는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안식일 모임의 교재이다. 교사는 교재 내용 및 관련 성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반원 토론을 독려하기 위해 해당 장이 끝날 무렵 질문을 유도해야 한다. 스미스 대관장 말씀의 학습에 앞서 먼저 그 질문들을 검토해 보는 것은 그의 가르침에 의미를 더해 줄 것이다.

안식일 모임은 복음 원리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개인적 사례 및 진리에 대한 간증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교사가 겸손하게 영을 구하면서 공과를 준비하고 인도하면, 전체 반원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교사는 반원들에게 모임에 공과 책을 가져오도록 권고하고 공과 내용대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반원들이 이 공과를 미리 읽고 준비한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반원들이 이 장을 미리 읽음으로써, 그들이 서로 가르치며 선도할 준비가 갖추어 질 것이다.

회원들은 본교재의 자료들을 보충할 목적으로 추가로 주해서나 참고 서적을

살 필요가 없으며, 회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지도 않는다. 교리 학습을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성구들을 살펴보라고 반원들에게 권한다.

본교재는 어디까지나 개인 학습과 복음 참조를 위한 것이며, 상당수의 단원이 한 시간에 모두 다루기엔 분량이 너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 대관장의 충만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러분이 학습을 통해 하나님의 겸손하고 충실하며 용기있는 예언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 대해 알게 되길 바란다. 또한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의를 사랑하기 때문 의를 선택하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훌륭한 선택이기 때문에 의를 선택하라”(데저렛 뉴스:주 2회 간행물, 1893년 2월 6일자, 2쪽)는 그 분의 권고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스미스 대관장이 아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에 대해 증거할 때 여러분도 그와 동참 하길 기원한다. “회복된 교리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확고하고 강력하게 해주며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사명을 의심의 여지없이 믿게 해줍니다.”(데저렛 뉴스:주 2회 간행물, 1893년 2월 6일자, 2쪽)



역사적인 사건 요약

본서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가르친 복음 원리들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당대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지어 이해하기 위해, 그의 생애의 몇몇 기념비적인 일들을 다음에 수록해 보았다. 이것들은 그가 남긴 가르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본 약사에는 그의 사생활 중 일부 중요한 사건들은 생략되어있는데, 가령 그의 결혼이나(당시에 교회 내에서 행해지던 복수 결혼) 인봉된 자녀들의 출생과 죽음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 1800년 2월 9일: 조셉 에프 스미스의 부친 하이람 스미스, 버몬트 주 던브리지에서 출생
- 1801년 7월 21일: 모친 메리 필딩, 영국의 호니던에서 출생
- 1837년 12월 24일: 하이람 스미스와 메리 필딩,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결혼
- 1838년 11월 13일: 조셉 에프 스미스,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출생
- 1844년 6월 27일: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5세: 팔호 안 숫자는 조셉 에프 스미스의 나이를 가리킴)
- 1846년 9월~1848년 9월: 메리 필딩 스미스의 가족,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손수레 여행 주(7~9세)
- 1852년 5월 21일: 조셉 에프 스미스, 히버 시 김볼 부대관장에게 침례 받음(13세)
- 1852년 9월 21일: 메리 필딩 스미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13세)
- 1854~1857년: 하와이 샌드위치 제도에서 선교 사업(15~19세)
- 1860~1863년: 영국에서 선교 사업(21~24세)
- 1864년: 에즈라 티 벤슨 및 로렌조 스노우 장로와 함께 하와

- 이에서 특별 선교 사업(25~26세)
- 1865~66년: 유타 준주 의회 의원. 1867~70년, 1872년, 1874년, 1880년, 1882년에도역임
- 1866년 7월 1일: 사도 및 대관장단 보좌에 성임됨(27세)
- 1867년 10월 8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성별됨(28세)
- 1874~75년, 1877년: 유럽 선교부 부장 2회 역임(35~36세, 38세)
- 1877년, 8월 29일: 브리감 영 대관장,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별세(38세)
- 1880년 10월 10일: 존 테일러 대관장의 제2보좌로 지지됨(41세)
- 1887년 7월 25일: 존 테일러 대관장, 유타 주 케이즈빌에서 별세(48세)
- 1889년 4월 7일: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제2보좌로 지지됨(50세)
- 1890년 9월 24일: 성명서 접수; 교회가 선언문 1을 받아들임(51세)
- ~10월 6일:
- 1893년 4월 6일: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 솔트레이크 성전 헌납(54세)
- 1898년 9월 2일: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별세(59세)
- 1898년 9월 13일: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의 제2보좌로 지지됨(59세)
- 1901년 10월 10일: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별세(62세)
- 1901년 10월 17일: 교회 대관장으로 성임 및 성별됨(62세)
- 1901년 11월 10일: 특별 대회에서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됨(62세)
- 1906년 7~9월: 교회 대관장으로는 최초로 재임 중 유럽 여행(67세)
- 1909년 11월: 대관장단, “인간의 기원”이라는 교리 해설 발표(70세)
- 1911년: YMMIA(청남 상호 향상회), MIA(상호향상회) 스카우트라는 소년단 프로그램 채택(72세)

- 1912년: 솔트레이크시티 그래니트 세미나리에서 최초의 세미나리 휴식반 시작
- 1913년: YWMIA(청녀 상호향사회), 캠프파이어 걸스 하계 프로그램 채택; 1914년, 연중 실시되는 비하이브 걸스 프로그램으로 대체됨(74세)
- 1913년 7월 27일: 앨버타 성전 부지 헌납(74세)
- 1915년 4월 27일: 대관장단, 교회 회원들에게 정규 가정의 밤을 갖도록 권장(76세)
- 1915년 6월 1일: 하와이 성전 부지 헌납(76세)
- 1916년 6월 30일: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교리 해설 발표(77세)
- 1918년 10월 3일: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받음, 후에 교리와 성약 138편으로 편입(79세)
- 1918년 11월 19일: 솔트레이크시티 비하이브 하우스에서 별세(80세)
- 1918년: 연말 통계:회원-495,962명; 스테이크-75개; 와드-839개; 선교부-22개

조셉 에프 스미스의 성역

조셉 에프 스미스는 교회의 제6대 대관장이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개인적으로 알았던 마지막 대관장이다. “제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습니다. 저의 전 생애는 이런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대저렛 뉴스 : 주 2회 간행물, 1882년 4월 25일자, 1쪽)라고 그는 말한 바 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찾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분들을 섬겼다. 복음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축복을 받은 그는 영원한 진리의 원리로 사람들을 인도했으며, 20세기 초 반대자들로부터의 공격도 차분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는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전파하는 자”(복음 교리, 369쪽)가 되길 원했고, 다음과 같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목격한 순종에 대해 열심히 가르쳤다. “영의 속삭임에 순종하려는 모든 사람들은 ... 여느 사람보다 더 명확하고 값지며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대회 보고, 1902년 4월, 85~86쪽)

신앙으로 다져진 유년기

조셉 에프 스미스는 박해와 가난의 와중에서 1838년 11월 13일 미주리 주 파 웨스트 켈드웰읍에서 메리 필딩과 하이람 스미스의 첫째 아이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기 두 주 전 그의 부친은 폭도에게 잡혀가 부당하게 투옥되었다. 하이람 스미스와 그의 동생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포함해 몇몇 사람은 리버티 감옥에서 4개월간 모진 옥고를 치뤄야 했다. 메리는 “그의 무척이나 자상하고 친절한 보살핌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들이 잔인하게 남편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저는 남편 대신 대가족을 돌보는 일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갑자기 혼자 떠맡아야만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개종한 메리는 하이람 스미스가 첫번째 아내인 제루샤와 사별한 후 그와 결혼했다. 그녀는 스미스가의 다섯 자녀를 정성껏 돌보았는데 “이어서 나의 사랑스런 아기 조셉 에프가 태어났습니다.”(밀레니얼 스타, 1840년 6월, 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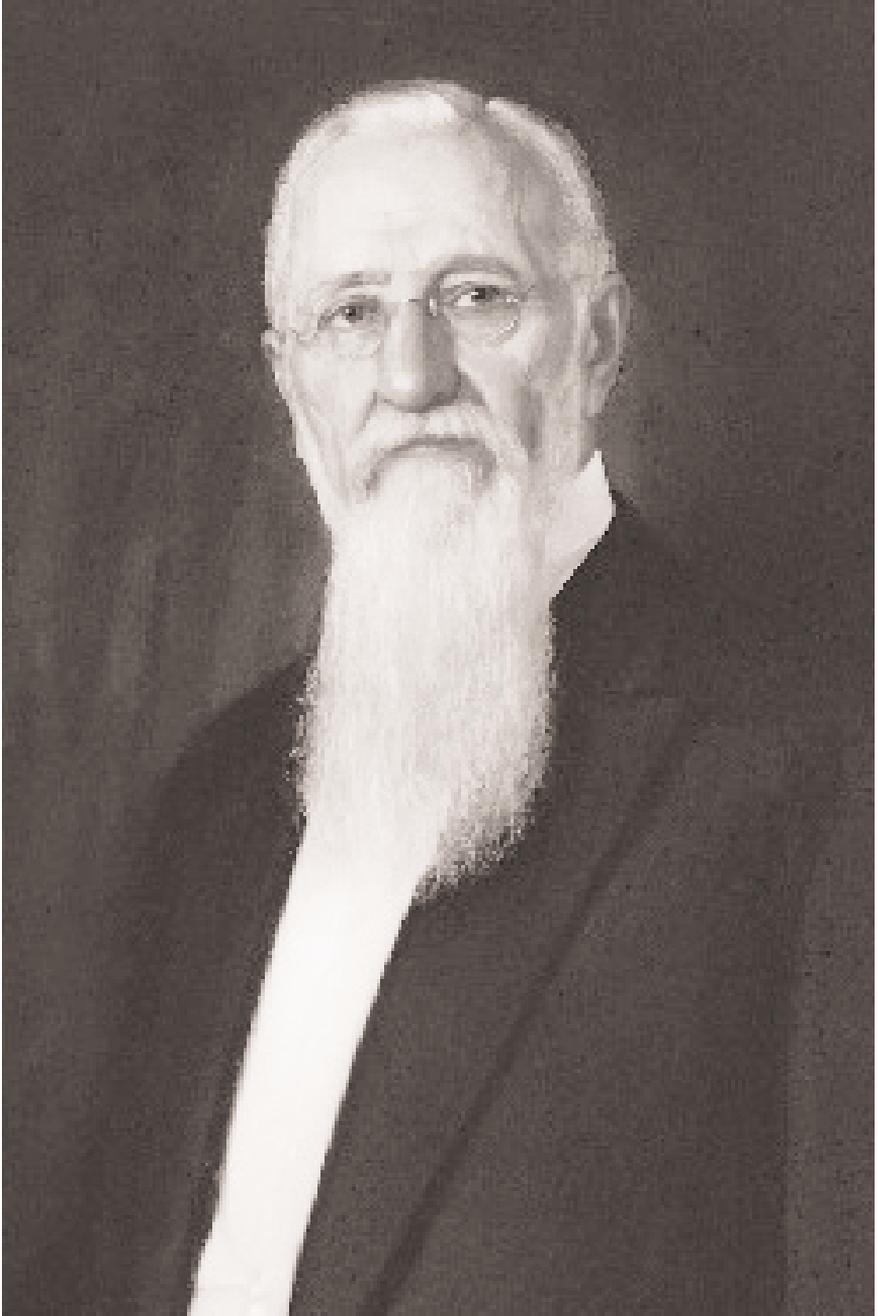
성도들이 1838~39년 겨울 동안 미주리 주에서 추방될 당시, 조셉은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기였다. 그의 부친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모친은 병세가 심해져 “침상에 누운 상태로 32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밀레니얼 스타, 1840년 6월, 40~41쪽) 메리의 여동생 머시 필딩 톰슨이 갓난 아기인 자기 딸과 더불어 어린 조셉 에프 스미스를 먹이고 보살폈다. 성도들은 일리노이 주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었고, 조셉은 처음 8년을 대부분 나부에서 보냈다. 나부는 성도들이 미시시피강 득에다 세운 도시였다. 이곳에서 그는 스미스가와 성도들로 구성된 환경에 둘러싸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지식으로 양육되었다. 그는 후일 이렇게 회고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신성함을 믿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 저는 아버지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으며, … 저는 어린 시절과 그후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읍니다.”(복음 교리, 450쪽)

조셉 에프의 부친 하이람은 교회가 조직된 이래, 또한 그 이전에 예언자 요셉이 몰몬경을 번역할 동안에도 그를 도와 회복의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예언자는 특별히 나부에 있으면서 형 하이람에게 많은 것을 의지했으며, 하이람은 그곳에서 계시에 의해 교회 축복사 및 대관장 보조로 부름을 받았다. 예언자는 하이람이 “양의 온순함과 옫의 온전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교회사, 2:338)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했다.

조셉 에프는 부친과 마찬가지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큰 사랑과 충성심을 키워 나갔다. 그는 후일 자신의 삼촌에 대한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이야기 하면서, 요셉이 회복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일에 대해 간증했다. “그분은 기쁨과 환희와 사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 또 어린이들과 함께 놀 때는 단순하면서도 천진 난만한 게임에 마냥 즐거워 하시곤 했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및 아들과 교통하시고 천사들과 이야기하셨으며, 그분들은 삼촌을 방문하셔서 삼촌에게 축복과 은사 및 권능의 열쇠를 부여하셨습니다.”(브라이언 에이치 스투이 편집,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및 그 외의 사람들의 설교집, 제5권(1987~92년), 5:29)

조셉 에프가 채 6살이 되지 않아 부친 하이람과 삼촌 요셉이 하나님 왕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이들은 1844년 6월 27일 사나운 폭도에게 살해당했다. 나부는 “과거에 대한 무척 성스러운, 그와 동시에 고귀하면서도 무시무시한 기억



조셉 에프 스미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6대 대관장, 그림:에이 쉘츠브래너

이 동시에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부친의 흔적이 있는 거룩한 위안처와 당시의 끔찍한 장면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일은 정직한 세상에 우울함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으며 수많은 사람들 가슴을 비탄과 비애로 채웠습니다.”(조셉 에프 스미스의 일지, 리즈, 1861년 4월 13일, 자필 문서, 5쪽; 역사과 기록 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이람이 죽자 메리와 동생 머시(역시 미망인이었음)는 힘을 합쳐 대가족을 보살폈고, 서부로 이주하는 성도들에 합류할 준비를 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회고에 따르면, 그들은 1846년 가을 중도에서 그 일을 멈춰야 했다. 왜냐하면 폭도들이 그들을 강제로 내몰아 “작은 배로 미시시피 강을 건너 아이오와로 가야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나무 밑에 캠프를 치고 있었을 때 도시를 포격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집에다가 모든 가구를 버려두고 안식처를 떠나와야 했죠.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다 두고 오다보니, 그것들을 다시 보게 될 것 같지가 않더군요.”(테저렛 뉴스 : 주2회 간행물, 1882년 4월 25일, 1쪽) 그의 어머니는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설교집, 2:348) 하고 계속 자녀들을 안심시켰으며, 그녀가 지닌 확신 덕에 자녀들의 신앙 또한 강화되었다. “강 반대 편에서 대포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스미스 대관장은 회고했다. “하지만 저는 나이는 어렸지만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모든 것이 옳다는 것과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테저렛 뉴스 : 주2회 간행물, 1883년 7월 10일, 1쪽)

조셉 에프 스미스는 가족과 서부로 이주하는 동안 어머니가 오직 신앙으로 계속되는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함께 했던 진영의 지도자가 과부는 전체에게 짐만 될 뿐이라고 통명스러운 주장을 하자, 그녀는 자기 몫을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해결하겠다고, 그보다 먼저 계곡에 도착하겠다고 통보했다. 실제로도 그녀는 그렇게 했다. 조셉 에프는 가족을 책임지는 소년으로서 가족한테 소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잃어버린 소 두 마리를 찾았던 일을 결코 잊은 적이 없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나중에 그녀는 “마치 독살이 된듯 멍에에 매여 누워 있던” 소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했으며,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소들은 “일어났고 우리는 함께 나아갔다.”(조셉 에프 스미스의 일지, 18쪽; 역사과 기록 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조셉 에프는 1848년 9월 23일 자기 집 소떼 중 일부를 몰아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9살이었다. 스미스가는 솔트레이크시티 남쪽의 밀크리키라는 곳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어린 조셉 에프는 “마차를 몰고, 소떼를 돌보며, 목재를 운반하고 낫과 탈곡기와 곡식 까부르는 기계 등을 사용해 경작을 하고 관개수를 관리하며 추수하는 일 …[및] 그 밖의 잡다한 일들을 했다.” (편집자란 :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년]를 추모하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9년 1월, 266쪽) 스미스 가족은 작은 통나무 집에서 생활했지만 후일 스미스 대관장은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보다는 그리 나쁜 형편이 아니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38년), 159쪽) 고 회상 한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사치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족이 수확한 모든 것에 대한 십일조를 내는 법을 배웠다.

조셉 에프는 모친의 근면함과 희생,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사랑과 신앙을 늘 가슴에 고이 간직했다. 그는 모친이 2달간 투병하다 51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크게 상심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852년 9월 21일부터 1854년 4월까지 18개월 동안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었다.”고 그는 어린 시절 친구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 “저는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나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며 인도해 줄 인력이나 중력이 없는, 해성이나 작열하는 유성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대네.” 13세 나이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안계신” 그였지만 “친구들마저 다 잃지는” (조셉 에프 스미스가 사무엘 엘 아담스에게, 1888년 5월 11일, *진실과 용기: 조셉 에프 스미스의 서한*, 조셉 필딩 맥콩키 편, 2쪽) 앓았다. 그가 “늘 사랑하고 마음에 기억하는 이모 머시 알 톰슨이” (편집자란—추모하며, 226쪽) 계속해서 그를 보살피 주었고, 그는 브리감 영, 히버 시 킴볼 및 부친의 사촌인 조지 에이 스미스의 따뜻한 배려를 한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조셉 에프는 “이분들의 온전함과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치 친아버지를 사랑하듯 이분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임스 알 클리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6권(1965~75년), 5:92) 라고 이야기했다.

하와이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음

185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대관장단이 조셉 에프가 곧 일단의 선교사들에

합류하기 위해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발표를 하자, 그는 청소년 시절 키워왔던 신앙심을 행사해 그 부름에 “기쁜 마음으로 응했다.” 후일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고했다. “샌드위치 제도에서의 4년간의 선교 사업이 정신적 안정을 회복시켜 주었으며, 그 후의 내 삶을 지배할 율법들과 범위를 확립시켜 주었다.”(조셉 에프 스미스가 사무엘 엘 아담스에게, 2쪽)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는 자신의 16번째 생일 약 6주 전인 1854년 9월 27일, 샌드위치 제도(하와이)에 있는 호노룰루에 도착했다. 마우이 섬으로 배치된 그는 홀로 쿨라에 남아 원주민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나가기 시작했다. 이 젊은 장로는 “진지하게 방언하는 은사를 구했으며,” “이 은사와 열심히 공부한 결과에 따라 섬에 온지 100일만에 제가 여러분에게 모국어로 말을 하듯 그들의 언어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대회 보고, 1900년 4월, 41쪽)라고 회상한다. 언어가 특히 유창한 덕분에 그는 개인적으로 하와이 사람들을 잘 보살필 수가 있었다.

스미스 장로는 나이는 어렸지만 마우이 섬을 관리하라는 지명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하와이 섬의 히로에 있다가 나중에 몰로카이 섬에 있게 되었다. 몰로카이에서 그는 심한 열병에 걸려 3개월을 앓아 눕게 되었는데, 마 마후히라는 한 자매가 마치 자기 아들에게 하듯 정성껏 그를 간호해 주었다. 그녀는 한번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고 그 또한 그랬다. 그로부터 몇 년간 서로 상봉할 때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맞았다. “하와이의 여러 훌륭한 원주민들이 보여준 친절은”(대관장단 메시지, 4:18) 그에게 하나의 축복과 멋진 추억이 되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는 1857년 10월 하와이를 떠나 브리감 영 대관장이 부여한 큰 임무를 받게 되었다. 이어서 그는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났으며 [1860~1863년], 하와이에서 두 번째 선교 사업(1864년)을 했다. 1864년 솔트레이크시티로 귀환한 후에는 교회 역사 사무실에 고용되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 밑에서 일을 했다.

십이사도 정원회 및 대관장단에서 봉사함

그 뒤 1866년 조셉 에프 스미스는 28세의 나이에 영 대관장의 명에 따라 사도에 성임되어 대관장단 보좌로 부름받았다. 그는 영 대관장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명을 계속 전진시키고 그가 일생동안 기초를 놓은 일을 성취하도록 부름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지”(복음 교리, 155쪽)된 사람으로 존경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전력을 다해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대업”(복음 교리, 83쪽)을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당신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가서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하십시오. 반쯤 혹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설교집, 2:280) 이것은 “시온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지상에서 시온의 대업을 이룩하”(복음 교리, 83쪽)는 길이 된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의 기타 임무 외에도, 유럽 선교부장을 두 번 역임한 바 있다(1874~1875년; 1877년).

조셉 에프 스미스는 정식 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어도 많은 어휘를 깨우쳤고 권세와 설득력 있게 말하는 법을 습득했다. 1866년 6월 24일, 그가 솔트레이크 태버내클에서 말씀하였을 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월포드 우드럽 장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분은 오후에 1시간 15분 동안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권세가 그 위에 임했다. 그분은 또 자신의 삼촌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부친 하이람 스미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영을 나타내셨다.”(월포드 우드럽의 일지, 1866년 6월 24일, 역사과 기록 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는 폭넓고 권세있는 설교로 널리 이름을 날렸다. 그는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복음 교리, 180쪽) 성령과 조화를 이루며 가르치고자 했다. 그것은 즉 “완벽한 언어가 아니라 인간에게 활기와 빛을 일깨워 주는 연사의 정신”(복음 교리, 326쪽)으로 가르치려 했다. 그는 언젠가 선교사로 봉사 중인 자신의 아들에게 이러한 글을 썼다. “나는 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와 동료들은 평화의 사자이고 평강과 선의를 사랑하는 자들임을 느끼며, 또한 우리의 사명은 파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굳게 세우는 것임을 느끼게 하기 위해 늘 노력했다.”(조셉 에프 스미스가 사무엘 엘 아담스에게, 1896년 5월 18일, 진실과 용기, 37쪽)

조셉 에프 스미스는 1877년 브리감 영 대관장이 사망한 후 1901년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받기까지, 성도들 영혼 가운데 생명과 빛을 일깨우고 평화와 선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줄곧 노력했다. 이 24년이란 기간 동안 존 테일러와 월포드 우드럽과 로렌즈 스노우가 교회 대관장으로 봉사했는데, 조셉 에프 스미스는 각 대관장단이 승계될 때마다 그 보좌 부름을 받았다. 당시는 말일성도 신앙과 관행

이 큰 오해를 받던 때였으며, 1880년대에는 반대자들은 교회와 회원들에게 대해 거센 법적 투쟁을 걸어오곤 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든 그 밖에 어떤 면으로든 우리가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한데 섞이길 소망하며, 그들과 같아짐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훼방놓길 원하는 것입니다.”(테저렛 뉴스 : 주2회 간행물, 1883년 10월 2일, 1쪽)라고 스미스 대관장이 말씀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대관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적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당부했다. “우리가 부름의 목적을 잊고 올바른 임무에서 벗어나 맞붙 놓기 작전을 펴고, 악에는 악으로 대항하며, 박해를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박해를 하려 한다면, 이는 주님의 훈계와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망각하는 것입니다.”(테저렛 뉴스 : 주2회 간행물, 1882년 11월 7일, 1쪽)라고 그는 가르쳤다. 스미스 대관장은 낙망한 성도들에게 교회의 운명은 “이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것이라는”(테저렛 뉴스 : 주2회 간행물, 1882년 4월 25일, 1쪽)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자신이 섬겼던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끼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확신과 사랑의 표현을 느낄 때면 이내 그것이 마음으로 연결됩니다.”(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365쪽) 그는 모든 경우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유대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에게 있어 남편과 아버지가 되는 것은 가장 막중한 부름이나 같았다. 그는 집에 있으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함께 노래하고 즐기며 웃는 것을 좋아했다. 임무 수행차 멀리 갔을 때도 그는 사랑하는 이들을 보고 싶어 했다. 1885년 4월 1일 하와이에서 그는 자신의 일지에 이러한 기록을 남겼다. “강한 동풍이 불어왔다. 더 추운 나라에서는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고 있을텐데. 이 바람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살포시 불고 있을까 아니면 호되게 몰아붙이고 있을까? 따듯하게는 지내고들 있는지, 혹 춥지는 않을까? ... 주리고 있을까 아니면 식사는 제때 하고 있을까? 친구 혹은 적들 사이에서 평화롭게는 지내는지, 아니면 걱정들을 하고 있진 않을까? 제발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면 좋으련만?”(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283쪽) 그의 아들 조셉 필딩 스미스는 아버지 곁에서 함께 보낸 소중한 순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 적이 있다. “우리는 복음 원리를 토론하

고 오직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지침을 받곤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의 지식의 기초는 진리 위에 놓여졌고, 결국 나 역시도 구속주께서 살아 계시며 요셉 스미스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게 됐다.”(브라이언 에스 킵클리 인용, “인간에게 있어서의 위대함: 조셉 필딩 스미스,” *임프루브먼트 이라*, 1932년 6월, 459쪽)

그는 끊임없이 가족의 물질적이고 영적인 필요 사항들에 유념하였고, 그가 집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자신이 늘 그들과 함께 함을 느끼도록 애썼다. 그는 짧은 메모나 편지나 시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변치않는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39번째 생일을 맞은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동반자에게. 난 당신을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댜오. 내겐 당신이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오. 그리고 당신이 더욱 가까이 있음을 느끼며 ... 20년 전보다 훨씬 더 당신을 사랑하고 있소. 매시간, 매주, 매달, 아니 매해마다 우리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영원한 인봉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굳건하게 합시다.”(*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453쪽)

스미스 대관장은 성전과 가족의 영원한 결속을 가능케 한 성전 의식들을 무척 사랑했다. “무덤 저편에서 우리가 가족이란 조직 속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일성도들 외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상호부조회 총회,” *상호부조회 잡지*, 1917년 6월호, 316쪽) 그는 1853년 4월 6일 14살 때 솔트레이크 성전의 초석이 놓여지는 것을 지켜 보았으며, 53살 때인 1892년 4월 6일에는 이 성전의 관석을 놓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에이치 더블류 나이스빗, “성전 건립,” *컨트리뷰터*, 1892년 4월, 257쪽) 1893년 4월 6일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유타 주 네 번째 성전인 이 웅대한 건물을 헌납하기에 이르렀다. 스미스 대관장은 헌납 의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것은 [커틀랜드 성전과 나부 성전을 포함해] 여섯 번째 성전이지 결코 마지막 성전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설교집*, 3:279) 교회 대관장으로서 그는 캐나다 카드스톤(1913년 7월 27일) 및 하와이의 라이에(1915년 6월 1일)에서 성전 부지를 헌납했다.

교회 대관장으로서의 성역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 서거 일주일 후인 1901년 10월 17일, 십이사도 정원회는 조셉 에프 스미스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6대 대관장으로 성

임하고 성별하였다. 그는 1901년부터 1918년까지 17년간 대관장으로 봉사했다. 교회 대관장으로서 성도들에게 한 첫번째 말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우리가 뜻만 있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분의 영이 많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고, 진리에 대한 지식이 보다 신속히 향상되며, 신앙 안에 좀더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 또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충실함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대회 보고, 1901년 10월, 69~70쪽) 그가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방문하고, 지역 와드에서 우정 증진과 가르침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그 스스로 지칠 줄 모르고 “영원한 진리의 원리들”을 전파하려 했던 것 모두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 가운데 의와 순결함과 거룩함을 기뻐하는”(대회 보고, 1901년 10월, 70쪽) 방법이 되었다. 그는 의롭고 순결하며 거룩한 사람만이 구세주를 도와 “지상의 성결함과 인간 가족의 구원율”(대관장단 메시지, 4:155) 잉태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스미스 대관장 재임 기간동안인 1901년 교회 회원들 수는 스미스 대관장 재임 기간 동안 1901년 278,645명에서 1918년 495,962명으로 증가되었다. 스미스 대관장은 회원들 대부분이 여전히 미국 서부에 살고 있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에 있는 회원들과도 강한 유대 의식을 느꼈다. 그는 1906년 재임 중에 교회 대관장으로는 최초로 유럽을 방문했고, 1910년에 다시 그곳을 찾았으며, 캐나다와 하와이 제도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와 대관장단 보좌들은 회원들에게 “모국 정부에 충실하고 참되며 선량한 시민이 되라”고(대관장단 메시지, 4:165) 권고했다. 또한 “그들의 모국에 남아있으면서 영원히 지속될 회중이 될”(대관장단 메시지, 4:222)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즉 그 이후로 교회 회원들은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유타로 이주할 것을 더 이상 독려받지 않게 된 것이다.

제1세대 성도들은 단합과 영적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리상 그들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킴으로써 시온으로 집합했다. 스미스 대관장은 뒷 세대들에게 신권의 반차와 의식들을 통해 단합의 유산과 영적 힘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스미스 대관장은 어느 것에 비할 바 없는 신권의 권세에 대해 장시간 말씀을 하고 글을 썼다. 그리하여 모든 회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노

력했다. 조셉 에프 스미스가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받던 당시 모임 일정과 공과와 신권 정원회의 효율성은 각 와드별로 서로 차이가 났다. 그렇더라도 스미스 대관장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신권 정원회가 그 의무를 이해하며, 그들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 부름을 영화롭게 하며 … 교회에서의 위치를 최상으로 채우게 되는”(복음 교리, 144쪽) 날이 올 것을 기대했다. 190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스미스 대관장은 “여러 신권 정원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유익과 진보를 위한 새로운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다.”(대회 보고, 1908년 4월, 5쪽)고 발표했다.

아론 신권 정원회는 그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교회의 집사, 교사, 제사직에 성임된 소년들을 보살피야 합니다.”(대회 보고, 1908년 4월, 6쪽)라고 그는 권고했다. 그로부터 몇 년에 걸쳐 감독은 청소년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 중 상당수는 현재도 표준 관행이 되고 있다. 아론 신권 정원회와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는 정규 주례, 연중 신권 모임이 굳게 자리를 잡음에 따라 더한층 강화되었으며, 교회의 본부 위원회는 신권 정원회를 위한 통일된 교과 과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스미스 대관장은 가정 복음 교육에 큰 비중을 두었다. “교사가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을 행하여,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미덕과 명예, 단결, 사랑, 그리고 시온의 대업을 믿는 신앙과 성실함을 훈계하(는) … 교사의 의무보다 더 거룩하고 필요한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복음 교리, 169쪽) 교회의 가족들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그와 대관장단 보좌는 1915년 주례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권장했다.

이 시기는 또한 보조 조직들에게 있어 중요한 진전을 보였던 기간이기도 했다. 주일 학교 본부 위원회와 청남 청녀 및 초등 협회 관련 조직들은 통일된 교과 과정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스미스 대관장은 각 조직의 공과는 청소년 회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칙을 보다 잘 이해하고, 또 폭 넓은 경험을 얻게 하”(복음 교리, 357쪽)였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에게 여가 시간을 늘려주는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한 조치로 청남을 위해서는 보이 스카우트 프로그램이 채택되었고, 청녀용으로는 새로운 꿀벌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1902년 이래 스테

이크에 자매들을 위한 공과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해 온 상호 부조회도 1914년 어 일괄된 공과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으며, 1916년에는 방문 교사를 위한 특별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와같은 혁신적 노력에 힘입어 상호 부조회 잡지(릴리프 소사이어티 매거진)도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는 또 상호 부조회 자매들로 하여금 보다 잘 “시온의 어머니와 딸들의 영적인 복리와 구원을 보살펴 주”(복음 교리, 350쪽)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했다. 스미스 대관장에게 있어 이러한 보조 조직들이 신권 조직들과 협력하면서 회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우정 증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기구를 위해 굳건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데저렛 뉴스, 1892년 1월 9일, 70쪽)

교회를 향해 쏟아지는 오해와 박해는 조셉 에프 스미스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상 모략자들이 하는 노력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간접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 우리는 세상이 우리와 친숙해지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교리를 배우고 신앙과 목적 및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조직에 대해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대회 보고, 1908년 10월, 3쪽)

스미스 대관장의 소망이 점차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했고, 교회는 미국 내외에서 더 큰 존경을 받게 되었다. 솔트레이크시티를 찾는 관광객에게 교회가 믿는 바와 역사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교회는 1902년 템플 스퀘어에 최초의 방문자 센터를 설립했다. 그 한 해 동안만 Bureau of Information and Church Literature(교회의 정보 및 출판국)에서 일하는 스물 다섯 명의 자원 봉사자들은 15만명이 넘는 수가 방문을 하는 바람에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1904년에 들어 이 부서는 더 많은 인력과 큰 빌딩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1911년 태버내클 합창단이 미국 동부와 중서부의 스물 다섯 개 도시에서 순회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미 합중국 대통령과 초청객들을 위한 백악관 특별 음악회도 그 중 하나였다.

스미스 대관장은 “주님은” 회원들의 “향상된 충실함”과 “신앙 안에서 좀더 완전하게 자릴 잡겠다는” 의지에 비례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더욱 높고

훌륭하게 만드실 것이”(대회 보고, 1901년 10월, 70쪽)라고 약속했다. 그는 그런 이유에서 말일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와 교리에다 좀더 깊게 뿌리를 내리라고 계속해서 권고해 나갔다. 스미스 대관장은 요셉 스미스의 “교회사”를 다시 출판하기 시작했으며 교회 기록 보관소를 위해 개척자들의 일기와 원고를 수집하는 일을 장려했다. 또한 교회 직원들에게는 말일성도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역사적인 장소들을 구입하도록 허가했다. 이 가운데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 스미스가 1844년 순교당했던 일리노이 주 카테지 감옥(1903년),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 소재 성전 부지 일부(1904년), 1805년 요셉 스미스가 출생한 버몬트의 농장(1905년), 뉴욕 주 맨체스터에 있는 요셉 스미스 일세의 농장, 예언자 요셉이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본 숲 속 장소(1907년)도 포함되어 있었다. 스미스 대관장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장소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사명을 인정하여 받아들인 여러분이나 저 모두에게 소중한 거룩한 곳입니다.”(대회 보고, 1906년 10월, 5쪽)라고 간증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말일성도들에게 “그들의 눈 앞에서 행해지더라도 한듯 영원한 세계의 장막을 걷어올린 데”(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83년 2월 27일, 1쪽) 대해 예언자 요셉을 존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스미스 대관장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광대한 진리를 이해해 가르치려고 애썼다. 가족과 친구에게 보낸 그의 편지, 교회 잡지에 난 질의에 대해 그가 한 응답과 사설 및 설교 말씀들은 교리를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를 비롯한 대관장의 보좌들은 중추 교리들이 교회 회원들이나 그밖의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에 대한 분명한 해설집을 작성해 발간했다. “인류의 기원”(1909년 11월)(“인류의 기원, 교회 대관장단 저,” 임프루브먼트 이라, 1909년 11월, 75~81쪽)과 “아버지와 아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에 의한 교리 해설”(1916년 6월)(“아버지와 아들: 교회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에 의한 교리 해설,” 임프루브먼트 이라, 1916년 8월, 934~42쪽)은 말일성도들에게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및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참 본질을 가르치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 화평케 하는 자와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모범을 통하여 의로움을 전파했”(복음 교리, 369쪽)다고 스미스 대관장은 말씀했다. 그는 열 다섯 살 때 부터 여든 살에 사망하기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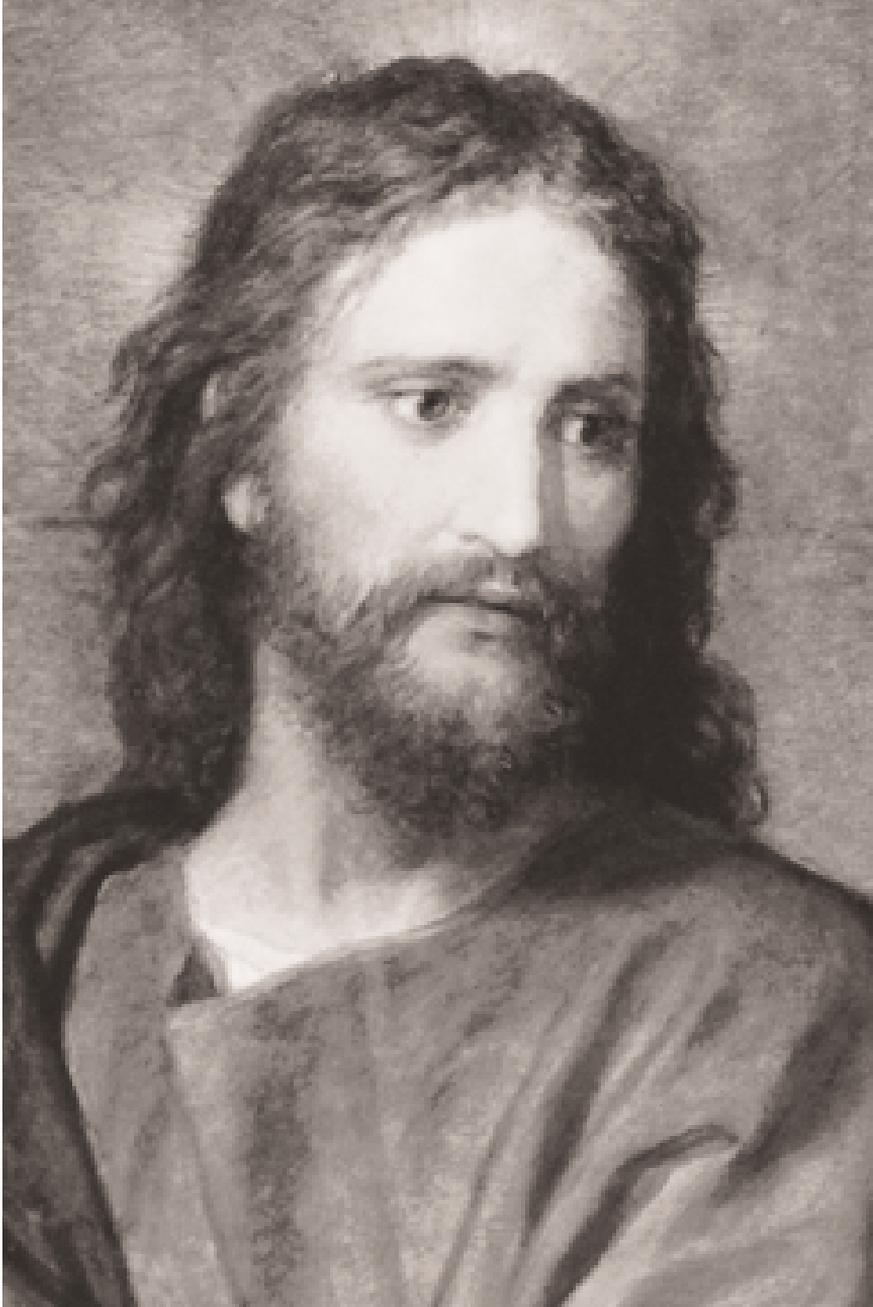
지, 수백 번에 달하는 복음 말씀과 설교를 함으로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의 가르치는 능력에 대해 찰스 더블류 나블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의를 전하는 자로서 그에 견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은 내가 들어 본 사람 가운데 가장 강하고 능력있고 명백하고 호소력을 지닌 분입니다. 그로부터 나온 살아 있는 빛과 불과 같은 말씀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복음 교리, 478쪽)

조셉 에프 스미스는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예언자인 자신의 경고와 가르침에 유의할 때 마음이 흐뭇했다. 그에게는 “의와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전진해 나가려는 성도들의 의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졌다. (대회 보고, 1901년 10월, 70쪽) 그는 자신의 겸손함과 가르치는 능력으로 그 길을 인도했다. 1916년 그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다. “저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저 배울 뿐입니다. 저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날마다 달마다 해를 거듭해 가며 참 진리를 배워, 하나님께서 아시듯 그것을 알게 되어 구원받으며, 그분 면전에서 승영하는 순간이 오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대회 보고, 1916년 4월, 4쪽) 그는 언제나 대담함과 굳은 확신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그 중에도 특히 동정심이 많아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가 아끼는 하와이인 동료 중 한 사람이었던 콜레카 부인은 그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자 사랑으로 가득찬 열린 마음의 소유자”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306쪽)라며 그를 칭송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지” (복음 교리, 5쪽)를 열심히 노력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모범을 통하여 의로움을 전파” (복음 교리, 369쪽)하는 법을 배웠다.

스미스 대관장은 생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영에 대해 특별히 민감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육체적으로는 병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영적인 상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견고할 뿐만 아니라 유지되고 성장 및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18년 4월, 2쪽)라고 1918년 4월에 그는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여섯 달 후인 1918년 10월 3일, 그는 방에 앉아 경전을 상고하면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무한하신 속죄의 희생” (교리와 성약 138:2)에 대해 깊이 생각하던 중에, 구세주께서 돌아가셔서 그 육신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 죽은 자들을 방문하신 사실에 대해 놀라운 시현을 보게 되었다. 이 계시는 후일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이라고 부르게 됐으며, 교리와 성약 138편으로 경전에 포함되었

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가져다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전파했던 한 예언자의 생애에 있어 절정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 인류의 성스러운 기원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간, 순종과 거룩한 의식들, 사랑에 찬 감사 및 충실한 헌신—이 모든 것들은 스미스 대관장이 하나의 실타래를 엮듯이 계속 추구해 나갔던 주제들이다. 그는 특정의 한 복음 원리를 생명과 구원에 관한 전체 계획과 분리해 말씀한 적이 거의 없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중요성에 늘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한번의 설교로 때로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도 충만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바로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또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부응하여 그분들과 같아지려는 소망을 통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악을 행했을 때보다 선을 행하면서 더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설교집, 3:218)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림 : 하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원의 일부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우리 각자는 성신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반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구세주의 특별한 증인, 사도, 대관장단 보좌 및 교회 대관장으로 봉사했다. 국내외의 설교 연단에서, 교회의 평의회에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가 남긴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다 쏟은 마음과 혼에 대해 대변해 주고 있다. 그의 말씀은 설득력이 있었고 메시지는 간결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이나 지금까지 써어진 모든 책의 간증에 관계없이 제 마음 속에 영을 받아 왔으며,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앞에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의 구속주는 살아 계시며, 만일 제가 성실하다면 그를 대면하게 되고 지상에서 부활된 몸으로 그와 함께 설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증거를 받아 왔다는 사실을 간증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이 간증은 진실합니다.”(복음 교리, 406쪽)

그가 생을 마감하는 날 솔트레이크시티 묘지에서 특별한 장례식이 진행됐는데, 거기서 태버내클 합창단원들은 추도의 표시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인 “내 구주 살아 계시다”(찬송가 68장)를 불렀다. 그에게 있어 이 구절은 그의 신앙의 정수이자 예언적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저는 구세주께서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온 몸으로 느낍니다. 저는 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것에 대하여 만족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존재를 느끼는 것처럼 저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복음 교리, 64쪽)

다음 간증은 스미스 대관장이 1896년 10월 18일 웨버 스테이크 대회에서 한 말씀에서 발췌한 것이다.(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896년 11월 17일, 1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구세주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의 신성에 대한 증거임

우리는 신약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구세주에 관한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출생하셨고, 여러 형제들 틈에서 어떻게 성인으로서 성장하셨으며, 기름 부음의 권세에 의해 그가 어린 시절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고 그 사명은 무엇이었으며, 그분이 어떻게 해서 회당과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박사들을 가르쳤고, 그분에게 죄를 씌우려 하는 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리둥절하게 만드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이 병자를 고치셨고, 장님에게는 시력을 병어리에는 청각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문둥병자를 깨끗이 고치셨고 절름발이가 기뻐 뿔 수 있게 하셨던 권세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르치신 교리들에 대해 익히 알고 있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가르치신 교리, 즉 사람은 악의로 자신을 이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하며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 이상의 다른 어떤 증거가 필요없는 것처럼 늘 생각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생존해 계셨을 때만 해도 세상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마태복음 5:39)는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지배적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태복음 5:39). 이 교리는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속성과는 조화가 되지 않는 교리였습니다. … 따라서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와 같은 교리를 가르칠 수가 없고 위로부터 임하는 영감과 권능없이 생활 중에 그것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태복음 5:3~6)

산상 수훈을 읽어 보십시오(마태복음 5~7장 참조), 그런 다음 그것이 인간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초월해 그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은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이셨던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교리로서, 만일 인간이 이에 따라 산다면 그는 죽지 않겠고, 만일 인간이 이에 따라 걷게 된다면 기쁨의 길을 걸을 것이며, 인간이 이를 순종한다면 그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역시 그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분께서 받으신 시험의 날, 즉 그분이 자신의 제자와 증인으로 택한 사람이 배반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그의 원수들에게로 등을 돌렸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사람, 폭력을 금했던 사람, 악한 행동이나 사악한 짓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번도 언성을 높이거나 손을 쳐든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 검과 몽치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죄인으로 잡아 거짓 재판을 통해 넘겨주어 그분을 사형에 처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번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와같은 의로운 원리들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돌을 집어 그에게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요한복음 10:32) 그분은 그들에게 악한 일을 하시지 않았으며, 그분이 하신 일은 모두 선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려했습니다. 화가 난 베드로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자,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태복음

26:52) 주님은 시련 가운데에서 조롱받고 매맞고 가시관을 받으시고 욕설을 들으셨어도 맞받아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겸손하게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분께 가하도록 허락하신 고통들을 겪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교리가 시험대에 오를지도 모를 상황에 처해지셨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분은 자신의 가르침이 참됨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는 순간에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저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이나?고 감히 묻겠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인간으로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순간에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권세와 영, 사랑, 자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것처럼 부당한 가혹 행위를 가해온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당부할 수 있었던 존재는 바로 하나님 못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간증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증거가 이것 말고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세상의 구속주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 가운데 세상을 구속할 바로 그 원리들을 가르치셨고 그 실례가 되셨습니다 …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물로 드렸음

예수님은 …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시신은 친구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내려져, 찢긴 다음 깨끗한 세마포에 싸여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간단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요한복음 10:17~18) 그분은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

든 사람이 살리라(고린도전서 15:22 참조)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일 죄가 한 사람의 범법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고 이 범법의 결과가 자신의 행동과는 상관 없이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되었다면, 한 사람의 행동에 의한 이러한 결과로부터 인류가 벗어나야 함은 옳고 타당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태초부터 마련된 계획이었으며, 그에는 오직 의만 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그분을 고소한 악인들과 그분이 가르치신 진실된 원리들에 눈과 마음을 닫아 버린 사람에 의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경전을 보면 예수님이 장사되신 후, 그 주 첫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바위 무덤을 찾아가 보니, 돌은 굴러나가고 그분은 사라지고 안 계셨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편에” (요한복음 20:12)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한복음 20:13~17)

곧이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로 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으며 그분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잠시 다음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 천사 둘을 보았으며 그 후에 부활하신 구속주를 보았다는 것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국의 사자들의 간증, 즉 구속주께서 살아나셨다는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마리아의 말은 간증으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논박을 하시겠습니까? 마리아의 간증을 의심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그분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따라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 (누가복음 24:16)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그리 슬퍼하는지 묻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누가복음 24:18) 점차적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분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예수께서 살아나셨음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었고 손가락은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에 넣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도 도마와 아주 흡사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은 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도마는 그와 함께 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27~29)

우리는 성신의 권세로 구속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 수 있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보살피시면서, 그들이 속은 것이 아니고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 불사

불멸과 영생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육안으로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지 몰라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귀로도 들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감각들은 속임수에 약합니다 ... 하지만 저는 전능하신 분께서 인간에게 그 자신을 보이실 때 그분은 성신의 권세로써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육안이나 육신의 귀를 통해 그러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분은 사람의 육신을 떠나서 사람에게 말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분은 영한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하시면서 성신의 권세로써 진리를 증거하신다면 ...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시듯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저 믿기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진리는 여러분이 잘못 알거나 속을 수도 있는 육체의 감각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 온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살아 있는 영혼에, 그리고 인간이라는 영원한 존재에 말씀해 오신 중요한 진리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시듯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영안과 이해의 눈을 열어 주심으로써 그분이 주님이시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에 그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에 따라 제자들은 다음 찬송가의 작사가가 말하듯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 기쁨 주는 이 말씀

내 구주 살아 계시다”(“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증거를 받은 사람의 영혼에 다가 올 기쁨과 흐뭇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도저히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느낌일 뿐입니다. 인간의 불사 불멸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

신으로부터 이러한 증거를 받은 자의 느낌은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신은 귀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 영에다, 제 살아 있는 영원한 부분에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계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구속주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나아가서, 저는 이 지상에서 그분을 뵈게 될 것이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가 아니라, 권세와 영광 속에 영의 음성에 귀기울이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에 대항해 진리에 맞서고 이해의 마음을 닫아 버리는 악인들과 죄인들에게 보응하시려 지상을 다시 방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판받되 귀의 청각이나 눈의 시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또한 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입니다....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제게 밝혀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의심의 틈이 사라질 때까지 저의 온 영혼을 이와 같은 간증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시아 대륙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간증이 있는가 하면, 이 대륙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간증 또한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에게는 교리와 성약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간증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들 외에도, ... 우리는 마음속에 성신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신의 영감에 따라 이러한 간증을 얻는 사람은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실이 아닌 것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성신의 증거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구속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저는 구속주께서 살아 계심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가르침 즉 그리스도의 교리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속하여 승영에 이르게 하고 인간을 다

시 하나님 면전으로 데려다 주도록 준비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받아 기뻐하는 특권을 갖게 되길 간구드립니다.

학습을 위한 제언

- 구세주의 생애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 어떤 사건이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증을 얻게 해 주었는가?
- 예수 그리스도는 박해를 받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갚았는가?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교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따를 수 있는가? (또한 마태복음 5:38~47 참조)
-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의 유익을 실제로 시험하” (엘마서 34:4)라는 권고를 산상 수훈과 관련해 스미스 대관장이 말씀한 구절에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마태복음 5:3~6 참조)
- 온유함이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을 개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어디 있는가?
-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어떤 면에서 “사랑, 자비, 친절 및 용서”를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시련과 시험의 시기 동안 어떻게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막달라 마리아의 간증에 따라 여러분의 간증은 어느 만큼이나 강화되었는가?(요한복음 20:11~18 참조)
- 도마는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우리와 아주 흡사한”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요한복음 20:29)라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 여러분은 구세주에 대한 스미스 대관장의 간증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 구세주에 관한 스미스 대관장의 간증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갖게 하는가? 그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성신권을 회복하도록 그의 권능이 부여된 도구” (복음 교리, 436쪽)라고 말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

하나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선택하셔서 그가
충만한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도록 하셨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는 어린 시절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키도록 선택받았다는 간증을 얻었다. 수년이 흐른 후 스미스 대관장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제 가정만큼이나, 그의 가정에 친숙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확고한 믿음을 저의 거룩하신 어머니로부터 받았으며, 그러한 믿음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혹은 수세기에 걸쳐 보아도 다른 어느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영감에 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놓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던 것입니다.”(복음 교리, 450쪽)

조셉 에프 스미스는 대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와 교회의 성장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들을 구입하도록 허락했다. 이에는 버몬트 주 샤론에 있는 예언자의 출생지, 일리노이주의 카테지 감옥 및 뉴욕 주 맨체스터 소재 요셉 스미스 일세의 농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예언자의 업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에게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권세로 들리워져, 말일에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았고, 이 경륜의 시대에 충만한 복음을 세상에 계시하였으며, 하나님의 신권을 회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인간이 아버지

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이러한 사실이 그의 권능에 의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복음 교리, 152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였음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도구였으며, 그에게 하늘과 땅에서 맺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곧 성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권의 권세에 의해 인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의식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개의 복음과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와 성신과 불로써의 침례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진리의 영을 통하여 나타내졌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의식, 즉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하에 영원히 한 가족, 한 혈족으로 모일 수 있는 의식을 위해 이러한 사업의 기초를 놓도록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겸손한 종에게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성약의 구속 아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생에서 결속된 인간의 영원한 결합을 위해,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전당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을 갖게 해 준 하나님의 도구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한 남자가 자기 혼자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없고 충만한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하나님의 도구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적어도 은혜를 입고 있으므로 감사해 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도록 계획되지 않았으니, 주님 안에서 남자는 여자없이 존재할 수 없고 여자는 남자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436~437쪽)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방문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 천사는 그의 이름이 온 나

라에 좋게도 전해지고 나쁘게도 전하여 진다고 말했습니다.(요셉 스미스 2:33 참조) 이러한 예언은 그가 젊었을 때, 즉 교회가 조직되기도 전에, 성취 가능한 실마리가 보이기도 전에 말해졌습니다. 그 당시 그 선언은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행해진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구히 19세기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의 이름은 전세계에 전파되었으며, 현재도 전파되고 계속 전파될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 존경도 받게 되며 경멸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존경받으나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처럼 그의 이름도 점점 퍼져 인간의 자녀들 가운데서 존경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그가 주님의 사업을 행하였고 현재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원리를 위해 살고 가르치다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회복하기 위한 기초를 세웠습니다.(복음 교리, 437쪽)

[요셉 스미스의 이름이] 좋게 불려지는 곳은 그를 통해 세상에 회복된 복음에 열심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나, 복음을 받아들임에 충분히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예언자로서 혹은 영감을 받은 자로서, 그가 가르친 원칙에 순종함을 통해, 성령의 영감에 의해 받아들인 지식을 가지고 그를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찬미하고 존경하며 그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추억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른 어느 사람보다도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들의 삶과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여 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이며, 미래에 대한 이해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 앞에 가리웠던 영원한 장막을 걷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파한 원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구원과 행복과 평화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신의 친척의 복리와 행복과 구원과 승영까지도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 스미스가 종사한 사업은 이 세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다가 올 삶에까지 관계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지상에서 살아온 사람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우리 다음에 올 사람까지 관계되는 것입니다 ... 이것은 한 마을이나 주나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과 백성(의) ... 영역에 걸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438~439쪽)

세상 사람들이 요셉 스미스에 대해 그토록 심한 악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이 제게는 아주 이상하기만 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든 부당하게 대하지 않았 습니다. 제가 그를 잘 아는 이상,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친히 그를 보아 왔고 그의 말씀도 읽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에 대해서도 읽어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한 일에 대해 잘 알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적이 한번도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기쁘게 하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것은, 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악하고 원한에 사무치고 사악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라고 자문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신흥 종교 조직의 협잡꾼이나 옹호자에 대해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셉 스미스라는 이름만 언급하면 거의 매번 화를 내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상할지 모르나, 이것은 요셉에게 지시를 하도록 보내진 하늘의 사자 가운데 한 명이 처음부터 그에게 준 약속의 성취일 뿐입니다 …

…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놓은 사업의 기초는 영원한 진리로 놓여졌습니다. 그것은 전복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폭풍이 그 위를 치고, 비가 쏟아지며, 광풍이 몰아치고, 인간의 마음이 그에 대해 분노와 박해로 휘저어질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서있는 저 언덕처럼 굳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7:24~25 참조) 정직, 미덕, 순결한 생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신앙 및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 믿음의 최고 원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교리가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요셉 스미스 기념비 헌납식 의사록: 버몬트 주 윈저 군 사론, 1905년 12월 23일, 41~42쪽)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구세주의 부활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임

무덤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사건은 결코 중단되거나 멸망될 수 없는, 인간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놓기 위한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소년 요셉에게 나타나신 사실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 선포하고 발표된 그 외의 다른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진실하지 않은 교리를 가르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시 행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는 결코 어떠한 교리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실수나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잘못 이끌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고 말을 들었고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스미스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책임을 지시지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복음 교리, 452쪽)

1820년 봄에 [요셉 스미스는] 최초로 신비스런 하나님의 시현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열 네 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열 네 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에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며, 그러한 어린 연령의 소년이 매우 악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특히 것처럼 커다란 도시의 여러 가지 악습이나 나쁜 친구들의 악영향을 받지 않는 시골 농장에서 태어나 자란 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가 열 네 살이 될 때까지 일을 게을리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는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손으로 땅을 갈고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복음 교리, 440쪽)

그의 영적인 시현에 관해서, 그러한 어린 소년이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간단히 표명한 것에 미리 계획된 음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준 시현은 젊은이의 자신의 마음으로는 결코 꾸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시현에 관해 그 후 요셉 스미스가 한 간증은 젊었을 때처럼 간단하고 솔직하고 알기 쉽고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충심심과 용기와 사랑은 소년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생활의 특징이 되었으며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복음 교리, 446쪽)

비평가들은 예언자 요셉이 본 것이 환상이라고 말하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은 실제의 인물이며, 우리에게 알

려진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사업에 관한 기사 중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한 그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1900년 전에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동료와 함께 생활하고 가르치고 권고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오지 못할 이유라든가 다시 한번 이 지상을 방문하셔서 오늘날의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하나님은 실제의 인물로서 여러분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살과 뼈를 가지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나, 성령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복음 교리, 436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을 통해 몰몬경을 번역했음

열 일곱 살과 열 여덟 살 사이에 그는 또 다른 하늘의 시현을 받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그에게 나타났으며, 그후 4년간 그는 하늘의 사자로부터 방문을 받았습니다 ... 이 천사는 그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 주었고, 때가 이르러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써 지상에서 이룩할 위대한 사업의 성격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1823년부터 1827년 사이에 3년간 모로나이 천사가 행한 과업이었습니다. 1827년 그는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금판을 받았는데, 이것으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감과 은사와 권능을 통하여 몰몬경을 번역했습니다 ...

요셉 스미스가 1827년부터 1830년까지 3년 동안 그의 적을 피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의 임무 완수를 방해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의 손길에서 벗어나며, 몰몬경의 번역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장애와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그는 악해지고 타락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몰몬경 번역을 완료했을 때만 해도 아직 어린 나이의 청년이었으며, 이책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는 세상의 식견이 높은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을 역사적 사실과 예언과 계시와 간증과 교리와 말씀과 원칙 등을 명백히 나타냈던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한 배움이 부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로나이 천사

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교육 기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무식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거짓된 말인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이나 인간의 결합이라도 그보다 훌륭한 예지를 소유한 자는 없으며, 결합된 예지나 나이가 든 사람의 노련함도 그가 행한 바에 필적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는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율법과 영원한 [세계에 관한] 지식을 소유했습니다.(복음 교리, 440~441쪽)

물론경은 한 젊은이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에 의해 번역되었습니다. 학식있거나 유식한 젊은이가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소박하고 순수한 한 소년에 의해 번역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소박하고 순수한 그 소년이 바로 요셉 스미스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고대 미대륙에 살던 주민이 감춘 판에 있던 기록들을 스스로 영어로 옮길 만한 지혜나 지식 또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는 순전히 자신의 지혜로 그 고대 문자들을 번역했다고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그것을 번역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 기념비 헌납식 의사록, 38~39쪽)

예언자 요셉은 예수님을 제외하면 지상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했음

[요셉 스미스는] 젊은 나이로 하늘과 대화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는 충만한 복음이 담긴 물론경과 계시가 담긴 교리와 성약을 세상엔 내어 놓았습니다. 인간에게 성신권을 회복했고 이 세상의 어떤 조직도 비길 수 없고, 모든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만들어 내지 못했고 결코 만들 수 없던 조직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조직하고 확립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뉴욕 주, 오하이오 주, 미주우리 주, 일리노이 주에서 정착지를 건설했으며, 록키 산맥으로 성도들이 모이도록 길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유럽과 섬나라에 전했고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시를 건설했고, 그곳에서 많은 경비를 들여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아 가며 나무 시를 세웠으며, 이만

여명이 이곳에 모였고 이곳에서도 성전을 건립했는데 총 경비는 백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한편, 늙은이들의 편견과 무참한 박해, 폭민 정치, 사방으로부터 그에게 휘몰아치는 모략과 중상에 대항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는 열 네 살부터 스무 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으면서도(교리와 성약 135:3 참조) 적들에 의해 게으르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이룩해 놓은 업적의 천분지 일 정도라도 이루어 놓은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겠습니까?... 요셉 스미스를 제외하고 19세기의 어느 누구도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의식이나 성신권의 열쇠와 권능의 빛을 세상에 밝혀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세 이래 감추어졌던 많은 것들을 나타내 주셨으며 ... 이것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도록 운명지어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성격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442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 인류보다도 더 오래된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의 오래된 진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의 가르침이 새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진리를 버렸던 자들이었으므로, 당연한 사실이나 복음의 원칙은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오래된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고 소위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전시킨 새로운 교리의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떠돌아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일부는 우리 세대에도 새로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요셉의 세대에도 새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언자 요셉이 구 진리의 파괴자가 아니라 회복자라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고 기본적인 복음의 원칙을 포기하고, 현대적인 교리의 유행이나 사상을 좇으려는 것을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복음 교리, 446쪽)

저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성스러운 사업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한 주님의 도구였으며,

또한 인간에게 위임된 그의 권능인 성신권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께 이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명이고, 빛이고,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영예롭고,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복음의 지식의 확신이나 지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언제라도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간증을 받은 사람과, 이 세상에서 제가 사랑하고 아끼고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고 승영을 얻게 해준다는 확신을 줍니다. 저는 지상 생활 후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상에서 저의 임무가 끝났을 때 저는 그들이 거하는 영의 세계에 가기를 원하며, 그들과 함께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러한 방향으로의 소망을 이루고 실현해 주리라는 기대를 갖도록 해준 것은 하나님 아들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러한 복음에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해 왔으며 이것을 헛되이 행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제가 신임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는 살아 계시며, 그는 말일에 지상에 오실 것을 ... 알고 있습니다. (복음 교리, 458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어떠한 면에서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해 주신 것들에 의한 축복을 받았는가?
- 요셉 스미스가 이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간증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요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에서 배운 중요한 진리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여러분은 이 첫번째 시현에서 어떤 중요한 진리들을 배웠는가? 어떻게 첫번째 시현에 관한 간증이 그 외의 다른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초석이 되는가?
- 물론경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많은 일을 했음을 나타내는 것들로 무엇이 있는가?
-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구 진리의 파괴자가 아니라 회복자”였음을 아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강한 간증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과의 교분을 통해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간증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스미스 대관장의 간증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간증을 갖고 있는가?

참되고 충실하며 진지한 기도

진실된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1847년 가을, 아홉 살 난 조셉 에프 스미스와 미망인이 된 그의 어머니 메리 필딩 스미스 및 외삼촌 조셉 필딩은 윈터 쿼터스로 가는 도중 미주리 강변에서 야영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이들은 소 떼 중 제일 좋은 소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조셉 에프와 외삼촌은 소를 찾아 온 사방을 뒤지다, “전신이 땀에 젖고 피곤에 몹시 지쳐 실망한 나머지 기진맥진했다.”고 조셉 에프는 말했다. “이 참담한 고통 속에 제가 제일 먼저 마차로 돌아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다가 다시 어머니가 주님께 간구드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다가갔는데, 그분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버려지는 고통을 겪지 않고, 대신 잃어버린 소떼를 찾아 안전하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셨을 때 저는 그 곁에 서있었습니다. 그분의 소중한 얼굴 모습에서 제가 맨 먼저 찾아 낸 것은 정감어린 미소였고, 저는 비록 낙담한 상태였지만 그것에서 새로운 희망과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밝은 모습으로 조셉과 그의 삼촌에게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준비한 아침 식사를 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난 밖에 나가 소를 찾을 수 있나 알아볼게.” 더 이상 찾아봐야 소용없다는 오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그와 조셉 에프가 식사를 하게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왔다. 메리는 근처에 사는 목동들을 만났는데, 그는 메리가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소떼를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조셉 에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그가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어머니는 계속 가던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곧 조셉 에프와 그의 삼촌에게 오라고 손짓을 했고, 그들은 메리가 서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버드나무에 단단히 매어져 있는 소들을 발견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후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저는 그 일을 통해 처음으로 기도의 효험이 실질적이고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마음에 잇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고, 그 일은 전 생애 동안 제게 위안과 확신과 인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38년), 131~134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기도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알

[저는 여러분이] 기도으로써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한다 해서 특별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성실하고 진실된 기도는 우리가 그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겸손함과 신앙으로 주님에게 간청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의 내적 소망에서 나오는 느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진실되고, 우리가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한다면 그 말이 단순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교리, 196쪽)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옛날 니파이가 행했듯이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린다면 그분께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 스미스가 어린 시절 그분께 다가갔던 방법입니다. 그는 숲으로 가서 무릎꿇고 겸손하게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 진지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단지 입술로만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마십시오. 기도를

외웠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러한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느 시점에서 기도를 시작해서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언급하다가 기도를 끝냅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마쳤을 때, 그 기도가 과연 방의 천장을 공간을 벗어나 하늘에 상달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대회 보고, 1899년 10월, 71~72쪽)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하여 그분의 축복과 사랑을 받으려 합시다. 이것을 지혜롭고 의롭게 행하며 기도할 때는 그분께 계속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간구합시다.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유익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구하여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것을 청하여야 하며 신앙으로 간구하여야 합니다. “바람에 밀리고 솟구치는 바다의 파도처럼 흔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무엇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어느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그를 믿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신앙인 복음의 신앙으로 간구하도록 합시다.(복음 교리, 195쪽)

저는[히버 시 김볼 부대관장님이]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에 크게 인상을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것처럼 기도드리는 것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계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동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아 하나님의 실재를 확인하고자 두리번 거리며 위를 쳐다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복음 교리, 177쪽)

겸손함과 신앙으로 자주 주님 앞에 나아감

우리는 …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우리가 독생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즉 영원하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교리를 아무 의심없이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그 후손들도 태초부터 그분께 기도드렸습니다.(대회 보고, 1916년 10월, 6쪽)

우리가 주님에게 간구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는 은밀하게 들으시지만, 보상을 주실 때는 만인이 다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로 그분께 부르짖을 필요는 없습니다. 길게 늘어놓는 기도로 주님을 지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일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은 주님 앞에 자주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꺼이 그의 이름을 받들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하고, 그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한 문제에 당면해 있다면, 주님에게 곤란한 문제로부터 도와 줄 것을 직접 그리고 특별히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도 없이 흔히 하는 상투적인 말로써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간단한 말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선과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에게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그분은 은밀하게 들으실 수 있으며, 우리가 청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소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무화해서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찾게(마태복음 7:7 참조)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를 기억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를 증거하며, 모든 선한 은사를 주시는 분을 잊지 않도록 하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복음 교리, 198쪽)

주님이 주신 큰 계명을 지켜 항상 주를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매일 받은 축복을 그분께 항상 감사드릴 것을 기억하십시오.(복음 교리, 195쪽)

기도하는 일과 선을 베푸시는 분을 찬미함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권고받았으며,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신권의 권능이나 교회의 직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복음 교리, 184쪽)

굶어죽을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또 그러한 행동은 현명한 일이 못됩니다. 저는 형제들이 병자나 신앙과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현명하고 총명하게 되어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몇 마디의 민

음에 찬 말로 하는 간단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수천 마디의 기도나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것과 똑같이, 24시간 이상 계속되지 않는 금식도 인정하실 것입니다.(복음 교리, 334쪽)

만일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무를 게을리 했다면, 주님께 영을 주시길 간구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실수를 해서 기회를 놓쳤는지 아니면 기회를 잘 활용하지도 못한 채 놓친 것은 아닌지 알아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지의 빛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버리겠다는 각오로,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을 것이고, 자비로써 우리에게로 마음을 향하며,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영향력과 예지로 우리 마음이 밝아지도록, 또한 우리가 자신의 의무를 깨달아 그것을 연기하거나 옆으로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도록 자신있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데저렛 뉴스 [주간], 1875년 12월 8일자, 4쪽)

우리는 생애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상적인 의무를 통하여 기도의 영을 간직하여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제 마음을 강하게 끄는 단순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미약하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미미하겠습니까?(복음 교리, 195쪽)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에게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인간은 배도를 합니까? 왜 그들은 신앙을 잃는 것입니까? 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 방향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것과 주님을 인정하기를 망각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자신의 영을 그들에게서 거둬가시고 그들은 어둠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일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역경의 시기에 주님께 기도하듯, 풍요로울 때도 주님께 간구드리는 사람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설교,” 밀레니얼 스타, 1906년 10월 25일, 674쪽)

가정은 가족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성전임

전형적인 “몰몬”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며, 이에는 종종 경전 읽기와 영적인 노래 부르기가 수반됩니다.(대회 보고, 1907년 4월, 7 쪽)

기도를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게을리 하는 일이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부모들은 가족들을 한데 불러모아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일을 잊습니다. 부모들은 전능하신 분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잊을 정도로 바쁠 때가 자주 있거나 세상살이로 심경이 매우 복잡합니다. 말일성도들 중에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족 기도를 별 것 아닌 일로 여기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게을리 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 어떤 말일성도들은 역경이 찾아왔을 때에만 그분을 기억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분을 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그분은 우리를 잊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불행한 상황 속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기도으로써 그분을 찾으십시오 ...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어둠이 여러분을 덮치더라도 분명히 위안이 여러분에게 찾아 올 것입니다.(브라이언 에이치 스투이 편,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과 그의 두 보좌 및 십이사도 등의 말씀선집, 제5권 [1987~1992년], 2:280)

가장되시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 그들과 함께 머리숙여 주님께 기도하고, 지상의 부모가 미약하고 불순종하고 버릇없는 자녀인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듯이,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친절하심에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영으로 축복하시어,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며, 잘못을 경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망으로 이르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로 계속 가도록 기도하십시오.(복음 교리, 192쪽)

어린 아이가 순수하게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께 축복을 간구하면 아버지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머리에 축복을 부어 답해 주십니다. 어린이는 순수하며 완전히 믿고 자신있게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간단한 원리를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며 필수적인 것입니다.(복음 교리, 193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롭게 하고, 그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분을 불러야 하며, 우리가 사는 매순간을 의로움과 진리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복음 교리, 460~61쪽)

여러분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로써 나아가게 함

우리 각자는 함께 모이면 기도의 영을 갖고 그 영혼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않고 예배의 집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 [기도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은 ... 입으로 아멘함으로써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설교집, 2:365)

사람이 전능하신 분에게서 지혜와 영감의 영을 구할 때 ... 주님은 그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사랑하듯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시여, 제 아내와 아들 존과 그의 아내만 축복해 주소서. 다른 사람 말고 우리 넷만 축복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분께 지혜와 영감을 구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온의 복리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 원리 안에서 우리의 지도자, 권고자, 조언자가 되도록 주님께 서 일으켜 세우신 사람들이 장수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이웃

을 위해 기도드립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설교,” *밀레니얼 스타*, 1897년 11월 11일, 709쪽)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보고 아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계 모범이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108쪽)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분의 종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제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 하나님, 그들을 세상 오점으로부터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온전함을 유지하게 하셔서, 적의 수중에 넘어가 정복당하지 않게 하소서. 또한 그들을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로 인도하여 주소서.” 저는 선교 임지에 있었던 이래로 줄곧 이 기도를 드려왔으며,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설교,” *밀레니얼 스타*, 1906년 11월 1일, 691~692쪽)

[1899년 7월 18일 조셉 에프 스미스는 선교 사업 중인 아들 조셉 필딩 스미스에게 이러한 글을 썼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 너와 네 동반자들을 떠올리며 온마음을 다해 축복의 기도를 드린단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제 아들들과 선교 사업에 나가있는 당신의 모든 종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지지하시며, 그들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들 면전에서 문이 닫힐 때, 은총과 인내심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냉대받을 때 그들을 당신의 소중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잔악한 대접과 학대를 받을 때 당신이 함께 계셔서 당신의 권세로 그들을 보호해 주소서. 당신 종들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그들을 영의 생명과 모든 두려움을 아내는 온전한 사랑으로 먹여 주시옵고, 그들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소서. 그들의 마음에 유용한 지식을 채우며 차고 넘치는 보화로서 당신의 진리를 그 기억 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소서. 그들이 당신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그러시듯 온유하며 낮아지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은혜로운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성역이 지혜와 통찰력, 신중함과 위기 상황에서도 옳게 행하고 말하는 자제력, 분별력과 자비, 진리와 순결함, 영예와 온전함으로 행해지는 것이 되게 하소서. 또한 성스러

운 가먼트로 옷입히소서. 오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은총과 거룩한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당신의 아들과 같아질 수 있는 권능으로 당신의 젊은 종들을 한껏 축복해 주소서. (조셉 에프 스미스가 조셉 필딩 스미스에게, 1899년 7월 18일, 조셉 필딩 스미스 문서 1854~1918년, 역사부 기록보관소,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학습을 위한 제언

- “겸손함과 신앙으로 주님께 간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는가?
-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힐라맨서 10:5 참조) 왜 우리는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좀더 의미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장해가 될 만한 것은 모두” 버리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장애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매일의 일상적인 의무를 통하여 기도의 영을 간직할” 수 있는가?
- 만일 우리가 가족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어떤 “심각한 결과에” 부딪힐 수 있는가?
- 무엇이 어린이의 기도를 효과적이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좀더 어린이의 기도를 닮을 수 있는가?
- “입으로 아멘”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도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지역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축복이 되는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자신의 어머니 메리 필딩 스미스에 대해 “저의 어머니는 성도였고, …
하나님의 순결하고 충실한 여성이었다”고 말씀했다.
(테저렛 뉴스 : 주2회 간행물, 1892년 1월 5일자, 3쪽)



어머니의 고향

가슴에 복음을 담고 있는
어머니들은 자녀를 의와 진리의 길 안에서 인도할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어머니들을 가장 존경했다. 그의 어머니도 그에게 신앙과 결단력의 모범이 되었다. 어머니의 숭고한 영향력에 대해 그는 이렇게 묘사했다. “저는 나부 시절(1839~1846년)의 어머니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부 시를 폭도들이 공격하기 시작하자,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집에서 몇 가지 가재 도구만을 성급히 작은 배에 옮겨 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과 미주리 강 윈터쿼터즈로 가던 도중에 성도들이 겪은 고통도 생각나고, 어머니께서 피곤한 여행 중에도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도 기억합니다 … 저는 마차를 끌 충분한 소떼도 없이 이 계곡으로 오면서 이스라엘 진영과 더불어 이주하는 데 따른 모든 어려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필요한 소떼를 살 수도 없으신 채, 소와 송아지를 멍에로 서로 연결해 마차 두 대를 단단하게 고정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 유타로 출발했으며,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실테지.’ 하지만 그분이 어떤 식으로 길을 열어 주실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이 제 마음에 온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의 모범을 잇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범과 신앙은 늘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숨쉴 때마다, 제 영혼의 모든 느낌은 제 어머니께서 성도이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용솨

음칩니다. 그분은 순결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뢰를 저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려 했고, 황야에서 가난과 빈곤을 맞아 싸우더라도 바벨론에 남아있기보다는 가족을 함께 결속시키려던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것이야말로 어머니와 그 자녀들을 영으로 고취시켰던 정신이라 하겠습니까. 만일 자녀들이 어머니의 본을 보고 따르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러한 어머니의 자식이 될 자격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92년 1월 5일자, 3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어머니의 영향은 세대에서 세대로 퍼져나감

저는 진실된 모성애를 무척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해의 왕국 아래 그 어느 것도 저를 낳아주신 부드럽고 참되고 고귀한 영혼인 제 어머니에 대한 불멸의 사랑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선하셨습니다. 순결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도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충실한 딸이셨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더불어 다 그분 덕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38년], 452쪽)

일반적으로 시온의 어머니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전세계에 살고있는 여성들 중 최고 여성들로서 어디에서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훌륭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보이는 영향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이 자신의 자녀는 물론 그 자녀들의 동료들에게까지 널리 미치는 한 그에 따르는 결과는 훌륭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영향력이 어느 만큼이나 퍼져나가는지 잘 모르십니다. 자녀를 훌륭한 아들 딸로 키워 평생 어머니의 모범과 그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어머니들은 그들의 가슴에다 선과 존귀와 고결함과 의로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어디에 가게 되든 혹은 성인이 되어 어느 사회에 어울려 살게 되든 그들의 생애를 통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보인 모

범의 선한 결과는 감지되기 마련이며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영향력은 자손 대대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데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92년 1월 5일자, 3쪽)

어려서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신성함을 믿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된 성도인 어머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참으로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독생자며,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버지시며, 세상에서 그의 존재를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쾌히 받아들인 어머니로부터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으며, 어머니는 아버지를 존경하시고 완전하심을 믿고 성실하심을 믿었으며, 저는 어린 시절과 그후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러한 믿음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저는 어린 시절에도 마음속에 심각한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 교리, 450쪽)

막중한 책임이 이스라엘 어머니들에게 놓여 있음

모성은 가정에서의 행복과 국가 번영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를 존경하라는 성스러운 의무를 주셨습니다. (복음 교리, 259쪽)

저는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어머니는 항상 말일성도들 가운데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 또한 말일성도들 가운데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상 여성들 중에 말일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성과 아내의 지위에 대한 인식과 똑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이 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우리는 우리는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삽니다. 우리는 현세와 내세 모두를 위해 관계와 친분을 맺습니다. 우리의 애정과 소망은 현세, 즉 필멸의 생 내내, 나아가서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계속 유지되기에 적합한 것이 확인되었고 또 그렇게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대회,” 상호부조회 잡지, 1917년 6월호, 316쪽)

우리는 지상에 시온을 번성시키고 굳건히 건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여러분의 어머니들과 시온의 딸들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지금 어머니이신 분들과 장차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그 딸들이 맡아야 할 임무인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음의 생각과 영감을 훈련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일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어머니의 영에 의해 힘을 얻고 축복을 받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은 가장 오래토록 남게 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만큼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훌륭하고 마음 가운데 복음의 영을 지녔으며 자녀를 마땅히 양육되어야 할 길로 키울 때야 가능합니다.(데저렛 뉴스 : 주2회 간행물, 1892년 1월 5일, 3쪽)

마음에는 자녀가 잘되길만을 바라는 간구로 가득하고 안수로써 성신의 은사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된 우리의 어머니들과 우리 자녀의 어머니들은, 그들이 받아들인 원리들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특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만 한다면, 자기만의 조용한 방으로 가 하나님 앞에 머리숙이고 세상의 다른 어머니들은 할 수 없는 교통을 그분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그들은 자녀를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교양과 훈계와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에게는 한껏 주어진 이와 같은 특권과 축복 및 엔다우먼트를 받지 못한 여타 어머니들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대회 보고, 1912년 4월, 7쪽)

가정을 떠나서는 참다운 행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가정의 영향력을 신성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한 모든 것은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해 온 사람에게는 보람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종종 가정 생활을 다른 생활로 대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정이란 제약을 의미하며 최상의 자유란 가정을 떠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만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가정을 성스러운 조직이 되게 하고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보존시키려는 것보다 더 큰 봉사는 없을 것입니다.

... 어린 시절에 가장 강한 애착심을 갖는 곳은 가정이며 나이가 든 후의 값진 추억은 젊은 시절과 그 행복했던 환경을 연상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270~271쪽)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어린이의 유아 시절에 있어서 제일 가는 훈육 교사이며, 어머니의 영향력과 훈련은 교회나 국가에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보다 큰 통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게 해 줍니다.(복음 교리, 260쪽)

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아들 딸의 생활을 모든 정성을 다하여 세심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저는 제 권능 안에서 가능했다면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기쁨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끼도록 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어머니에게서 흠을 잡을 이유가 없고, 죄 또한 그분들을 지배할 권세가 없을 것입니다.(“상호부조회 대회,” 316~317쪽)

진실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의 흡사함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랑도 참된 어머니의 사랑에 비길 수 없습니다 ... 저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의 자녀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곤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생명이었고 힘이었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 속에 사랑과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모든 정성을 다하여 저를 사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영혼을 다바쳐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일시적인 편안과 축복을 위해 밤낮으로 자신을 희생해 가며 노력하려고 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의무와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셨던 어머니께서는 정작 당신을 위한 시간이나 여가나 유희 또는 휴식 등은 잠시라도 취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열 다섯 살이 되자 저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 방법을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의 생애에 가장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저의 야망과 소망을 끊임없이 지키도록 도와주고, 또 저를 어떤 표준 위에 올려 주었으며, 계속 정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 이러한 원동력은 저를 이 세상에 낳아 주신 어머니가 저를 위해 보여 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판단력에 있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누구나 빠져 들기 쉬운 유혹의 와중에 휩쓸리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던 제가 그러한 유혹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라. 얼마나 어머니가 네 행복을 위해 노력하였는가를 기억하라. 얼마나 그분은 기꺼이 네 행복을 위해 모든 생애를 희생하였는가를 기억하라. 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라 ...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저의 마음가짐은 나와 유혹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으며, 그래서 저는 주님의 도움과 제가 알기에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였고 다른 어느 사람이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신 어머니에 대해 제가 마음속에 간직한 사랑의 도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진실한 어머니는 위협이나 악이 닥쳐올 때 결코 숨지 않으며 자녀들이 그러한 위험 속에 드러나도록 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길은 위로 솟아오르고, 인간이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어떤 위협이 자녀에게 닥친다면 어머니는 곧 그 위험 속에 뛰어듭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를 보호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은 자녀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참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높이 평가하기를 배웠습니다. 저는 참된 어머니의 사랑이란 다른 어떤 사랑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가깝다고 말해 왔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복음 교리, 283~285쪽)

부드럽고 애정어린 사랑의 손길로 타당하거나 또는 부당한 형벌의 아픔을 없애주는 어머니의 치료 기술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이상이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료합니다. 모성의 따스한 손길보다 더 위안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보여 주는 생활의 모범은 사랑이 가르쳐 주는 지혜입니다. (복음 교리, 237쪽)

저와 하늘 사이에서 저의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걱정을 끼쳐 준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고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기꺼이 죽음을 감당하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어머니를 슬프게 하며 실망시켜야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기에 합당한 존경과 미덕과 진리와 완전함을 말로써가 아니라 모범으로 가르쳐 왔는데 어찌 어머니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방향을 취하겠습니까?(복음 교리, 421쪽)

저는 박해와 가난 속에서 저를 낳아 주시고 저를 팔에 안아 주시며, 세상에서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시절을 인내와 자비로움과 진실함으로 이끌어 주신 인자하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느끼는 기쁨을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머니와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복음 교리, 389쪽)

하나님은 시온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심

하나님은 시온의 어머니들과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인 길과 그들을 실족하게 할 범법과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신앙의 모든 권속 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대회 보고, 1907년 4월, 118쪽)

저는 성신의 은사를 부여받아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 ... 이스라엘의 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온의 아들 딸들에게 성신의 권세와 은사를 전하는 권능을 지닌 자들의 안수로써 성신의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모든 어머니에게는 ...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할지 또한 자녀를 인도하고 지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어머니는 계시와 영감과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으니, 그것은 자기 집안을 관리하고 자녀를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예언의 영, 분별의 영 및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여하신 은사라고 생각합니다.(1913년 11월 14일 에이 더블류 맥퀸의 집에서 하신 말씀, 역사부 기록 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저는 하나님의 신권의 반차를 따라 있는 신권 안에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리로 여러 어머니들과 자매님들을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 저는 신권 안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 중에도 신실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와 권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부조회 대회,” 320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스미스 대관장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씀한 것 중 어느 부분이 인상적인가?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머니들에게서 어떤 의로움의 특성들을 보게 되는가?
- 모성이 “가정에서의 행복과 국가 번영의 기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모성과 관련해” 어떤 “성스러운 임무”를 갖고 있는가?
- 영원한 가족에 대한 이해는 어머니와 그 모성에 대한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어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의를 위해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시온의 어머니의 영향에 따라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지금의 부모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어려움을 맞는가? 부모들은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가?
- 스미스 대관장에 따르면, 어떤 영적인 축복이 성신의 은사를 받은 어머니들의 권리로 주어지는가? 어머니들은 이러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함으로써 자녀가 의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가?
-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유혹 사이를 가로막아 주는 방벽”이 될 수 있는가?

경전의 영감과 신성함

교회 회원들은 경전을 충실히 공부하고
표준 경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리에 따라
근면하게 생활해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메리 필딩 스미스는 1848년 솔트레이크 계곡으로의 마차 여행 동안 내내 아들인 조셉 및 다른 가족들과 둘러 앉아 등잔불과 난로 불빛 곁에서 경전을 공부했다. 이와같이 조셉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천막 안에서, 야영지에서, 그리고 초원에서 영적인 교육을 받았다.(에드워드 에이치 앤더슨, “간략한 전기,” *복음 교리*, 483쪽 참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만년에 다음과 같이 회고한 적이 있다. “어렸을 때 저는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주어진 계시가 … 고대 사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증거했을 때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으며 깊이 감동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받았던 그러한 깊은 인상으로 60여 년간의 세월 동안 저는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승인된 종으로서 국내에서 봉사[했습니다].(*복음 교리*, 450쪽)

188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 대관장단은—존 테일러 대관장과 두 보좌인 조지 큐 케논 및 조셉 에프 스미스—값진 진주와 교리와 성약에 추가시킬 몇몇 편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전세계에 내려진 계시로” (“제50차 반연차 대회,” *밀레니얼 스타*, 1880년 11월 15일, 724쪽) 교회 회원들에게 발표했다. 교회 회원들은 만장 일치로 이 계시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 경전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스미스 대관

장에게 있어 경전은 “영적인 부”(복음 교리, 42쪽)의 지속적 원천이 되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가르침의 일부로 경전을 활용했다. 또한 그는 경전을 상고하던 중에 교리와 성약 138편이라고 알려진 훌륭한 계시를 받게 되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경전은 사랑과 영적인 부에 관한 말씀을 전함

세상에 현존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경전을 탐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며 마태복음과 고대 미 대륙의 성도들에게 말해진 대로(니파이삼서) 산에서 그리스도가 행한 설교를 읽으십시오. 이 훌륭한 표준 경전을 공부하고 비길 데 없는 감정의 중요성을 깊이 탐구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철학과 그와 비슷한 윤리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경전은 화평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안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며 인간이 그가 완전 하듯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떤 철학도 예수가 말한 것처럼 “내게로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철학도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말을 하지 않았고 그에게 구원의 힘이 있다고 보장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는 그의 부름은 인간의 모든 아들과 딸에게 주는 것입니다.

말일성도는 그 부름에 답하였습니다. 수천 명이 그들이 겪은 외적인 극심한 시련, 혼란과 다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해를 초월한 안식과 화평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인간도 이런 교리를 말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복음 교리, 118~119쪽)

경전의 영감과 신성을 특히 특징지워 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경전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물문경 하와이어 초판, 1905년.
1915년 하와이 성전 부지 헌납식에서
그에게 증정된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의 하와이어 번역본

기록하게 된 영과 그리고 그 경전을 성실하고 신중하게 읽는 독자에게 경전이 가져다 주는 영적인 부입니다. 그러므로 경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경전이 씌어진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경전은 인간의 영적인 힘을 넓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밝혀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경전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 의하여 연구되어야 합니다.(복음 교리, 42쪽)

인류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늘의 진리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익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들이 얻은 지식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의 발차퀴”를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제가 아는 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없이 주님의 교훈을 실행하고 그분의 교리와 요구 사항을 수행하는 모범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교훈과 교리와 신성한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3쪽)

현대의 경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알려준 증거에 의해 저는 이 책 즉 교리와 성약이 요셉 스미스를 통해 세상에, 특별히 전세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에 따라 이 책(물문경)을 원래 쓰여진 언어, 다시 말하면 금판 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이 책의 표지 안에 있는 말로 번역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이 담겨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함으로써 구원받아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의 영광과 영생을 취하게 할 것입니다.(브라이언 에이치 스투이 편,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과 그의 두 보좌 및 십이사도 등의 말씀 선집, 제5권[1987~1992년], 5:29)

그리스도 자신은 무덤의 장벽을 부수고 죽음을 정복하셨으며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20]가 되셨습니다 … [그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고 증거했으며 그들의 간증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간증은 옳은 것이며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유일한 자료이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고대의 제자의 간증에만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는 우리로 하여금 고대 제자들의 간증의 진실함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물문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하고 정확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륜의 시대의 계시가 들어 있는 교리와 성약을 볼 수도 있으며, 여기에서 명확하고 잘 정의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간증과 올리버 카우드리 및 시드니 리그돈 등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간증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간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76:22~24 참조](복음 교리, 404~405쪽)

[물문경은] 하나님께서 세 명의 목격자에게 이 책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에 의해서 번역되었고 그것이 참되다는 사실을 선언[한 경전입니다.] 예언자 요셉을 제외한 세 명의 목격자가 이것의 참됨을 선언하고 증거했으며, 여덟 명의 목격자는 금판을 만져 보았고, 그 위에 새겨진 글자도 보았으며, 요셉 스미스가 물문경으로 번역된 금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선언했습니다.(복음 교리, 425쪽)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 세상에 내어 놓은 물문경은 독어, 불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웨일스어, 하와이어, 힌두어, 스페인어, 화란어 등으로 번역이 되었으며 또한 다른 언어로도 번역되어, 이 경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이나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준 주님의 약속에 따라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회복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아담의 모든 아들

딸들이 가질 수 있을 때까지 하늘 아래의 모든 국가와 혈족과 백성에게 전해 질 것입니다.(복음 교리, 439쪽)

몰몬경의 성스러운 근원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레이맨인에게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그분의 방법에 따라 그분의 목적을 나타내 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몰몬경에는 이러한 사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행사하시며 이러한 점에 관해서 그분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실지는 높은 사고를 요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의 하나가 바로 몰몬경인 것입니다.(복음 교리, 343~344쪽)

교리와 성약은 세상에 밝혀진 가장 영광스러운 원리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어떤 것은 과거 어느 때 계시된 것보다도 더욱 충만하게 세상에 계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일에 주님께서 세상에 기초가 놓일 때부터 감추어진 보화를 밝히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는 고대 예언자들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며, 주님은 이러한 것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복음 교리, 42쪽)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믿는데, 이는 제가 이 책, 즉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어 있는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셉이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복종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식에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한 제이의 사망과 육신의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명의 신성함에 대해 이 시대의 실제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세상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복음 교리, 452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표준 경전을 공부함

저는 경전 구절들을 읽는 중에 영이 제 마음에 새로운 빛을 주었으며, 그러한 경전들과 친숙하고 수차례 이것들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설어 보이는 듯한 생각과 견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사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늘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영을 소생시키며, 인간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빛과 진리와 지혜와 사랑과 지식의 샘에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일성도들이 성경과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한 인간의 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율법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교회의 지도자적 장로들이 말씀한 바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 자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업과 말씀에 동반되는 영을 지니고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읽었다고 말하기 위해 이것을 읽어서는 안됩니다. 그보다는 거기서 유익을 얻고 가능한 많이 이해하여 진리가 밝혀질 수 있도록 영과 이해력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면서 생명수처럼 솟아나와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심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진리와 빛과 기쁨과 평강의 확실한 원천이 되어 줄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93년 2월 6일자, 2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은 신약 성서에 기록된 말씀들, 특별히 사도들이 기록하고 구세주 스스로도 말씀하신 것들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한 친숙해야 합니다. 말일성도들은 몰몬경을 세밀히 읽고 교리와 성약도 아주 주의깊게 읽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교회의 표준 경전이며, 오

류나 인간의 단순한 말이나 의견이 아니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소설 책이나 어떤 가설 같은 것이 아니라,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것들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진리를 위한 진리는 우리를 오류와 가정과 잘못된 전통과 허위적인 과학과 인간의 허무맹랑한 사고와 세상의 덧없는 철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그렇게 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시다. 진리를 배우고 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오류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오류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것입니다.

…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의 허무맹랑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그러한 경전들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당 수의 훌륭한 분들은 오늘날 출간되고 있는 소위 인기 소설들은 읽지만 주님의 말씀은 읽을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대부분 아름답지만, 뿌리없이 줄기 위에 피어난 꽃 같은 미사여구와 잘 짜여진 문장이나 감정만으로 표현된 경우도 그 중에는 많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표준 경전으로 채택된 책들에서 참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것보다는 세상의 몇몇 인기 작가들이 쓴 것들을 훨씬 많이 읽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 본질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녀들에게 계시해주신 신권의 의식들과 통치의 원리들도 전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서, 물문경, 교리와 성약보다는 소설에 대해 더 많이 압니다. 그렇습니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독서,” *청녀 일지*, 1917년 8월, 412~413쪽)

참으로 놀랍게도, 복음에 관한 아주 간단한 사실을 알기 위해 계속해서 수많은 질의가 교회 대관장단이나 그외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 즉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및 성서에 있는 계시에 아주 명백히 나타나 있는 사항들을 문의하는 수백 통의 질의서와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것은 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해가 가능한 내용들 같습니다.(대회 보고, 1915년 4월, 138쪽)

복음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각자가 이 사실을 이해하며 이것을 자녀들에게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알려 주려는 모든 우리의 노력을 참으로 가치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일은 매일 가정에서 훈계와 가르침과 모범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직장에 나가기 전에 성경과 몰몬경, 교리와 성약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분씩 읽도록 하십시오. 가정이나 공적인 곳에서도 자신을 영적으로 살찌우도록 노력하십시오.(복음 교리, 271~272쪽)

학습을 위한 제언

- 경전은 어떤 방법으로 “화평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안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는가? 경전은 여러분이 화평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 “[경전이] 쓰여진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얼마 만큼 “강화”시켜 주는가?
- 여러분은 경전을 공부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경전을 공부해야 하는가?
- 여러분은 몰몬경, 교리와 성약, 혹은 값진 진주 중 특히 어느 구절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간증을 크게 키울 수 있었는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부름에 대한 간증을 강화시켜 준 구절을 무엇이었는가?
-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날 어떤 방법으로 몰몬경 백성들의 후손들 사이에 나타내 졌는가?

-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세상에 밝혀진 가장 영광스러운 원리” 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원리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 경전을 아주 신중하게 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얼마나 성공적으로 경전을 읽고 연구했는가?
-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신과 가족이 경전 공부보다는 대중적인 책이나 텔레비전 및 기타 오락에다 우선 순위를 두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 매일 개인 및 가족이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전 공부를 개인 혹은 가족의 바쁜 일과 속에 포함시켜 왔는가?

신앙 : 모든 의의 근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 종교의 첫번째 원리이자 모든 의의 근본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는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단순하고도 불변하는 진리들에다 두었다. 어린 시절 조셉 에프 스미스는 자신의 의무와 의로움에 대한 어머니의 헌신 덕택에 신앙이 크게 강화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린 시절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의 모친은 미망인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 봄, 우리가 감자를 캐고 있을 때, 모친은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감자를 고르게 하여 십일조 사무실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자가 귀했습니다. 우리가 십일조 사무실에 도착하여 감자를 내리려고 하는데 한 직원이 나와서 저의 모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스미스 자매님, 자매님이 십일조를 내셔야 한다니 참으로 딱하십니다.” … 그는 저의 모친에게 십일조를 낸다고 꾸짖고 현명하지 못하거나 분별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십일조 사무실의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친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 형제님은 저에게 주어질 축복을 부인하겠어요? 제가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면 주님은 저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십일조는 주님의 율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또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친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으므로 변영하였습니다 … 그리고 미망인이신 모친은 자기의 이름이 주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되게 하였습니다. 모친은 하나님 집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모친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으므로 [또한 의무를 빠뜨리지 않았으므로] 어떤 복음 의식도 그녀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복음 교리, 205~206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함

우리는 우리의 주이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며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믿으며, 마음과 종교적인 신앙과 우리 존재 자체로 그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 주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받아들입니다.(복음 교리, 126~127쪽)

… 첫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계시받은 종교의 첫째 되는 원리이며 모든 의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가 유일한 최고의 통치자며 독립된 존재이고, 그 안에 모든 충만함과 온전함과 갖가지 선한 은사와 원리가 독자적으로 거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다른 이성적 존재의 신앙이 생명과 구원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그가 위대한 만유의 창조주라는 것과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 존재인 그의 영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 편, 신앙 강화 [1985년], 10쪽 참조)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세주이고 새로운 성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아버지와 아들의 기록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영원히” 같음을 증거하는 성신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복음 교리, 93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는 죄 사함을 받고 죽은 후에 승영을 얻고 죽음으로부터 영생에로의 부활을 위한 우리의 소망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교리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확고하고 강력하게 해주며, 하나님



그림 : 텔 파슨, 빈 무덤. 조셉 에프 스미스는 “하나님[과] … 그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속주이고 새로운 성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 성신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복음 교리, 93쪽)고 가르쳤다.

아들의 성스러운 사명을 의심의 여지없이 믿게 해줍니다.(복음 교리, 436쪽)

바울은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히브리서 11:1 참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함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간을 그들 앞의 모든 지식과 모든 충만함과 모든 충실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이 복음 원리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는 생명과 구원, 권세에 대해 무엇인가를 이제 알기 시작한 단계일 뿐입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여러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조금인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사회적 평강과 희락을 위해 필요한 이러한 작은 복음 원리들에 따라 생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을 잘 관리하도록 계시된 이 작은 원리들을 실천하기 위한 신앙도 거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내시지 않고 참아주시면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우리를 가르치심으로써, 결국 우리들이 예전에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그 신앙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신앙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심히 뜨거운 풀무 불을 수 그러들게도 했습니다 …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 우리들에게 권세있는 원리인 생명과 구원에 관한 원리들을 가르치려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슬픔의 깊은 심연으로부터 나와, 저속한 여건에서 벗어나, 높은 단계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에 대한 지식을 향해 우뚝서길 가르치고 계십니다.(브라이언 에이치 스투이 편집,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및 그 외의 사람들의 설교집, 제5권[1987~92년], 2:299~300, 일부 첨가)

진실로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 안에 모든 온전함이 거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지식이 많지 않을지 모르나, 실로 그렇다는 것을 신앙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계시된 종교의 첫째되는 원리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사람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시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앙 없이는 여러 세계가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그것들은 나뭇대로의 위치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인간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 설교,” 밀레니얼 스타, 1895년 9월 26일, 609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매우 간결한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으므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강한 신앙을 행사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그들의 종교적 확신을 무리없이 지닐 수 있습니다. (복음 교리, 8쪽)

어떠한 사람의 신앙, 어떠한 사람의 종교, 세상의 어떠한 종교 단체도 진리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종교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헛된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진리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라는 인물을 통하여 세워진 주님의 이 위대한 사업에 배어 있어, 이 사업의 기초와 근간이 모두 진리로 가득 차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음 교리, 1쪽)

하나님의 은사인 신앙은 순종으로 얻게 됨

신앙은 다른 모든 축복과 마찬가지로 항상 순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스스로 신앙을 크게 강화시키고자 하는 교회 회원은 하나님이 뜻에 따르는 율법과 일치하는 교회의 모든 의례와 의식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인간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더욱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큰 신앙은 큰 권세를 뜻하는 것이며, 인간이 커다란 신앙으로 얻은 모든 권세를 행사할 기회를 이 지상에서 얻지 못한다면, 현세는 아니더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 교리, 190쪽, 일부 변경)

신앙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신앙은 은사입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는 신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대회 보고, 1903년 10월, 4쪽)

교회의 주된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복지도 포함시켜 전해야 할 중

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신앙은 물론 행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좋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사람이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도와주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복음 교리, 212쪽)

우리는 매주, 매일, 매시, 매 순간마다 종교를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믿고 행함으로써 신앙을 강화시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증가되고, 지식이 향상되며,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대업을 보다 잘 수호할 수 있습니다.(복음 교리, 75쪽)

시온에서 자녀를 갖고 계시며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믿는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십시오.(복음 교리, 264쪽)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역경의 시기에 우리를 지지해 줄 것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신앙과 신뢰, 그리고 그의 사업이 승리한다는 확신이 필수적입니다.(복음 교리, 141쪽)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해 예리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말일성도도 하나님의 공의, 그분의 존재와 자비에 대한 깊은 확신과 분명한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려면 그러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자신 안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예리하고도 흔들림없는 확신이 있는지 자문하게 합시다. 주님의 목적과 절대적인 공의와 자비, 혹은 그분의 복음의 구원의 권세와 그분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놓는 일이 ... 발생할 것 같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굳게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며, 여러분은 좀더 강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그 기초가 튼튼하여 하나님에 대해 변치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와같은 강력한 [신앙의] 기동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화를 잃었을 때, 심지어 자녀를 여의는 극한 상황이 임했을 때도, 읊은 전능하신 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궁극적으로 자신의 선을 함께 나누는 신앙에 대한 또 하나의 실례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야말로 아버지로서는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했던 인물로서, 우리는 그에게서 이처럼 혹독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절대 신앙의 사례를 보게 됩니다 … 그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향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과 신앙과 확신은 계시된 종교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신의 약속을 최대한 성취시키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배웠으며, 우리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해야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축복받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창세기 22:17~17)

오늘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성도들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룬다는 실질적인 지식이 없는 한, 그들은 시련 가운데 지칠 것이며 박해로 쓰러질 것입니다 …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영혼 가운데 불타오르면, 어떤 일이 다가오든 결국에 가서는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없이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

앞에서 인용한 사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신앙의 표준에

최소한이라도 접근하질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두었어야만 합니다. 분명 그것은 자기 자신 말고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시온의 청소년들 앞에서 가르쳐, 그들 마음에도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고 신앙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게 할 진리를 강력하게 붙여넣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그들을 이 모임에 함께 모이게 했듯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물론경을 출현시켰을 때, 커틀랜드에서, 시온(미주우리 주 잭슨 군)에서, 나부에서, 출애굽이라는 시련의 시기에,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에 대해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안에서의 자비로 헤아려볼 수 있을 것이고, 과거의 고통과 쓰라린 아픔이 그의 백성들의 복리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대하여 강하고 흔들림없는 확신으로 가득차 성약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이러한 교훈을 배워 자신의 영혼 안에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게 하여, 사망과 지옥이 방해를 놓더라도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에서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절대 신뢰하는 것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확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분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편집자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3년 11월, 53~56쪽)

여성은 연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체적으로는 연약할지 모르나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는 여성을 어떤 남성이 감히 필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여성들은 믿음이 있기에 그들의 아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보며 사탄이 고안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참아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안전과 신성함과 도덕과 신념에 있어서 남성과 필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319쪽)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서 압도해오는 반대 세력 앞에 확고하게 서는 것이 신앙의 용기입니다. 신앙의 용기는 발전의 용기입니다. 그 신

성한 특성을 소유한 사람은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만약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조용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만을 지닌 단순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높은 율법과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복음 교리, 111쪽)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

고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감” [엘마서 12:34; 교성 84:23~24 참조]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의 계획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속이려는 자들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리임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쳐 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복음 교리, 53쪽)

성신의 도움이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속주라는 것과 또한 자기가 추구하는 길이나 행하는 일이나 신앙 등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며, 그러한 것을 통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길이 없게 됩니다.(복음 교리, 94쪽)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는 한은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두고,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서 떼어 주 하나님에게 “아버지여,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42 참조]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그 권세와 영광 속에 세워질 것입니다. 죄와 사탄은 속박되어 지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이런 상태에 까지 이르지 못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복음 교리, 234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 종교의 근본”인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엘마서 32:21 참조)
- 신앙은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풍요롭고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신앙과 일(노력)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어떻게 하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는가?
- 역경을 참아내기 위해 모든 말일성도들이 주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자비” 및 “그분 복음의 구원의 권세”를 완전히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는 아브라함, 욥, 이 경륜의 시대의 초기 지도자들 및 회원들의 모범으로부터 신앙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어느 만큼 강해지고 축복을 받았는가?
-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 “신앙의 용기”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왜 우리는 영생의 은사를 얻기 위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기꺼이 희생해야만 하는가?
-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회개와 침례에 관한 영광스러운 사업

회개와 침례는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데 필수적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는 1852년 5월 21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북동쪽 외곽에 있는 크리크 시티에서 침례받았다. 침례 의식은 대관장단의 일원이자 조셉의 순교당한 부친과 가까운 친구인 히버 시 김볼 부대관장이 집행했다. 그 날 일에 대해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저는 영혼 깊숙이 제가 죄를 지었다면—분명히 저는 죄가 없지 않았습니까—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으며 제 마음은 감동을 받아 발 밑의 미미한 곤충도 죽일 수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나 무엇에 대하여나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이 새로워진 것을 느꼈고 바른 일을 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영혼에는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례 받을 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이 있었으며, 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저를 받아들이셨다는 증거가 되었으며, 영원히 증거가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89쪽)

스미스 대관장은 평생 동안 침례시에 맺은 성약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이 성약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저는 회개의 원리를 시험해보고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원리를 믿습니다. 만일 제가 제 형제를 언짢게 할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해를 준 형제에게 가서 저의 죄를 회개하고 그와 화해를 하기 전엔 결코 마음이 편하거나 어떤 속박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짐을 벗어버리

고 죄를 회개한 데서 오는 좋은 결과를 곧 맛보게 될 것입니다.”(데저렛 뉴스 : 주2회 간행물, 1893년 1월 3일자, 2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회개와 침례는 복음의 참된 원리임

저는 복음의 원리,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 성신의 은사를 얻기 위한 안수례 등의 원리가 항상 참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영원히 참되며, 인간의 자녀라면 누구이거나, 어디에 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 어떠한 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가결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같은 원리를 선포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고대로부터 대대로 이 원리를 전하였을 뿐 아니라, 이 말일에도 성도들은 그와 같은 간증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고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참되며, 우리는 이에 순종하여야 합니다.(복음 교리, 3쪽)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정직하고 공정하라는 것 뿐이며,” 그러한 사람은 승영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 참조]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그가 아무리 선하고 존경받을만 하며 정직하더라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양의 우리의 문을 통과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상속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교훈과 모범 속의 복음,” 밀레니얼 스타, 1906년 3월 15일, 162쪽)

죄를 회개하는 것은 영원한 원리이며, “살인하지 말지니라” 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복음 원리입니다.

권능을 지닌 자에 의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제정하시어 명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도 그 율법에 순종하셨으며 의의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원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복음 교리, 10쪽)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죄의 회개, 그후 그리스도와 더불어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물 속, 즉 물로 된 무덤에 매장되었다가 주님이 죽음에서 삶으로 부활하셨을 때와 같이 다시 물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 침수로써의 침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침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자녀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입니다.(대회 보고, 1911년 10월, 6쪽)

진실된 회개만이 하나님께 용납됨

인간은 의로움으로 구원되고 하나님 왕국에 승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시듯이 빛 가운데 생활하여, 그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 그의 영광과 승영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복음 교리, 224쪽)

회개는 잘못된 행위를 슬퍼하는 것입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그것이 부족하면 어떠한 목적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면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누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완전히 생활을 바꾸어 악을 선으로, 악덕을 미덕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에 대하여 가능한 한 보상을 하고 부채를 갚고 하나님과 인간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이며, 영화로운 회개의 작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심신의 의지와 모든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니다.(복음 교리, 93쪽)

회개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

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겸비해야 하며, 겉으로만 하는 척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테저렛 이브닝 뉴스, 1870년 12월 13일, 2쪽)

누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는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저는 약점과 불완전 한 데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여러분처럼 저도 많은 약점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러분보다 제가 더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 아직까지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두 번째 되는 이 원리에 따른 생활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활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행한 설교자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러한 사실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브라이언 에이치 스투이 편집,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및 그 외의 사람들의 설교집, 제5권(1987~1992년), 2:300)

살인자나 자살자나 간음자나 거짓말한 자나 이 생에서 철저히 악을 행하였던 자에게, 단순히 복음이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지 않았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복음의 지식을 얻지 못하고 죽은 자는 그 지식을 지녀야 하며, 빛을 거스르는 죄를 범한 자는 자신의 범법과 자기가 복음으로부터 이탈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장로이든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이든지 모두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자나 죽은 자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다만 회개와 생명의 구원을 받아 들이는 원리로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복음 교리, 88쪽)

회개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 우리는 … 회개의 영을 주님께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얻었으면, 그 속삭임에 귀기울이십시오. 그리하여 주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에게서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하늘로부터 구하고 기대하는 그 용서를 우리에게 간청하는 이들에게 자비와 관용으로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

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6권[1965~1975년], 3:243)

생명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고, 회개를 하면 용서의 기회가 따르며, 용서를 해주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따르게 되어, 우리를 구원하여 승영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가도록 준비시켜 주는 이러한 원리를 완전히 알 수 있게 합니다.(복음 교리, 26쪽)

우리는 침례로써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감

이와 같이 회개한 다음에는 복음의 필수적인 원리의 하나인 침례가 필요 합니다. 누구든지 침례받지 않으면 복음의 성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례“, 즉 “물을 뿌리는 것”은 침례가 아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침례란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권능을 가진 자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의 권능에 의하지 않는 침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와 부활의 상징이므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하여 그와 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것이 되며, 주께서 받아주시지도 않으려니와, 그 본래의 목적이 되는 죄 사함의 효력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참으로 회개하여 신의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안수례로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복음 교리, 93~94쪽)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받게 되며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순종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합니다.(복음 교리, 128쪽)

말일성도 부모의 책임은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복음의 첫째 원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나 죄 사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침례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261쪽)

권능있는 자가 행하는,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는 참된 원리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르치셨고 그에 순종하셨기 때문이며,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성취하시길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많아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 즉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대회 보고, 1912년 4월, 9쪽)

예수는 스스로 침례 의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만찬의 성찬을 정하였고, 그것을 성임하여 지키셨으며,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밖의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니고데모에게도 침례를 크게 강조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요한복음 3:1~5 참조) (복음 교리, 189쪽)

우리 회원들 중에 성신권의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의 권능을 지닌 분이 하는 일은 ... 허식이나 세상적인 의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 안의 권능으로 충분히, 가장 중요한 일인 모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행함에 있어 집행하는 사람은 스스로나 자기의 개인적인 권능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권능의 대리자로 말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 우리는 침례 의식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세워진 질서의 단순성은 여러 의식의 신성한 특성을 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해 줍니다.(복음 교리, 130~31쪽)

하나님은 회개하여 침례받고 계속 충실한 자가 승영에 이르도록 하실것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음에 올 세상에 속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힘으로 얻을 수 있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주어진 특정한 의식이나 율법 및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인간의 예지나 지혜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일성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음의 축복이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부여되었으며, 침례와 회개로써 죄 사유함을 얻었으며, 오직 계속해서 충실하게 생활함으로써 영생에 관한 축복과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복음 교

리, 45쪽)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있고, 불안정한 무덤으로부터 새로운 삶 가운데 일어나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악한 일을 중지하며 …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인간 앞에 정직하면, 여러분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이러한 계명을 지킨다고 확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떨어지지 않고 오를 것이요, 남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남을 인도할 것이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민족 앞에 그들을 높이고 칭찬할 것이며, 그들을 인정하실 것이며 그의 자녀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간증입니다.(복음 교리, 281~282쪽)

살아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에 관한 지식은 그분의 모든 계명, 신앙, 죄의 회개,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인간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권능자의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에 순종함으로써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정하신 반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돈의 집이 아닙니다.(대관장단 메시지, 5:9)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던 장벽이 무너져 주님이 다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교통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것들을 잘 알게 될까요? 당신이 속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러한 분 모두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한 다음, 가서 침례받고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영이 당신에게 우리의 간증이 참됨을 증거해 줄 것이며, 당신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증인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러듯 당신도 담대하게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데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68년 12월 1일, 2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인가? 침례보다 회개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어떤 영향이 오는가? 나중에 회개하겠다는 생각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 회개의 원리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가져다 주는가?(모로나이서 7:41 참조) 어떤 면에서 회개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가능성”으로 보아도 무방한가?
-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침례준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는가?(교리와 성약 20:73 참조) 여러분은 침례받았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의 침례식에 참석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 침례 의식에서는 “허식이나 세상적인 의식”보다 침례를 주는 신권의 권세가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침례 의식의 단순성을 보전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은 회개와 침례를 통해 어떤 지식과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한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우리는 침례받을 때 어떤 성약을 맺게 되는가?(모사이야서 18:8~10; 교리와 성약 20:37 참조) 여러분은 침례 받은 이래 구세주와 맺은 성약을 어느 만큼 존중해 왔는가?

성신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 증거하며
모든 진리에 대한 확실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1854년 4월 교회 연차 대회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은 조셉 에프 스미스에게 샌드위치 제도(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주었다. 조셉의 나이 15살 때 일어났다. 그는 모친이 부름받기 얼마 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고아가 되었다. 그 기간에 쓴 그의 일지는 그가 위안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성신에 의지하는 법을 배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1856년 2월 8일 하와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마친 후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영이 충만했다.” 1856년 3월 19일 또 한 차례의 말씀을 마친 후에는 “처음으로 성도들이 눈물을 보였다.”라고 기록했다. 한편 3월 30일에는 “그리고 나서 제가 일어나 말씀을 하려 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렸다 ... 성도들도 나와 함께 잠시 동안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 같은 해 6월 29일자 일지에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충만한 권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종일 우리와 함께 했다 ... 영이 제게 주님 사업에 대해 증거해 주었으므로 저는 기쁨에 넘쳤다.”(조셉 에프 스미스 일지, 1856년, 역사부 기록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후일 조셉 에프 스미스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첫번째 선교 사업에서 저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하거나 전하는 간증뿐만 아니라 무척이나 친절하시고 자애로우신 어머니께서 받은 가르침을 믿어 왔습니다. 또한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 성서를 읽어서 이해한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저는 성신의 영감을 통해, 제가 읽고 배운 것을 좀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은 제 마음 속에 하나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졌으며, 저는 그에 대해 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만큼이나 절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데저렛 뉴스 : 주2회 간행물, 1878년 1월 29일자, 1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성신의 은사는 변함없는 증거임

성신은 영적인 존재이며, 그는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성신의 은사는 인간에게 부여하는 합당한 권능의 행위입니다. 성신은 몸소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으며,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는 자들을 방문할 것이나 그에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교리와 성약 130:22~23 참조] (복음 교리, 57쪽)

“성신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여 침례받은 자에게 인봉된 특별한 증거이며, “변함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일시적인 영향력으로 누러질 수 있으며, 이에 의해 거룩한 빛과 권능이 어떤 특별한 목적과 경우에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확인에 의해 부여되는 성신의 은사는 영원한 증거이자 더 높은 은사입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6권(1965~1975년), 5:4)

[성신의 은사는 어떻게 얻게 될까요?] 그 방법이 분명하게 명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가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감정, 어리석음, 부당성을 버리고, 덕을 갖추고 정직하며, 다른 사람과 하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진리의 원리를 지켜 생활하겠다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으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권능을 소유한 자에게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복음의 의식을 수행할 때 우리는 신권의 권능으로 옷입은 자의 안수례로써 성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과 하나님의 권능—보혜사—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간증하고 “아버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 주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굳게 다져 우리가 어떠한 교리에도 요동치 않게 되며, 그 교리가 하나님의 것인지 인간의 것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에베소서 4:14; 요한복음 7:17 참조)(복음 교리, 55쪽)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인간에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즉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진리를 증거하는 성신, 즉 이 영과 예지는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서 합당한 상태에 이를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니파이삼서 28:11 참조) 그러면 그들은 인간의 자녀의 머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자의 안수례에 의하여 은사를 받습니다.(복음 교리, 62쪽)

성신의 “은사” 또는 나타나심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다면, 어느 때든지 성신의 진리의 빛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복음 교리, 56쪽)

성신은 우리의 계속적인 전진을 밝혀 주는 등불임

성신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나 그를 증거하며, 진리를 믿는 자들을 확신시켜 주며, 지나간 그의 모습을 회상케 하며 현재나 앞으로 이를 것을 보여 주거나 계시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26)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한복음 16:13) (복음 교리, 94쪽)

자녀에게 …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며 과거의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나타내 보여 주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다 분명히 보여 주어 진리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빛 가운데서 의로운 행동을 하고, 그리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피가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줄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말일성도의 책임입니다.(복음 교리, 261쪽)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표시되어 있으니, 그것은 즉 하나님 면전으로 다시

데려다 줄 험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계속적인 전진에 빛을 밝혀주는 등불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혹은 그 후에 받게 되는 성신입니다. 우리가 비틀거리거나 길을 잘못 들면, 우리의 등불은 희미하게 타다가 마침내는 불꽃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계시의 원천이신 보혜사는 우리를 떠나고 어둠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니, 그 어둠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빛에 비례해 어둠이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름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신의 권속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잊게 될 때까지, 어둠은 우리 안에서 계속 도를 더해 갈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 주2회 간행물, 1876년 11월 28일, 1쪽)

성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것을 밝혀 주고, 그들이 개종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며, 모든 진리에 대한 확실하고 안전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날마다 그들을 진리와 기쁨으로 채워주면서 평생 동안 동반자로서 그들 안에서 변함없는 증거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참아내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며 관대하게 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은사, 즉 값진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계속 의에 목말라 합니다. 성신의 도움 없이는 어떤 사람도 험착하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얼른 보면 선과 악, 진실된 것과 속임수를 서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일성도들은 순결하고 올바르게 생활하여 성신이 그들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신은 의의 원리 위에서만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성신을 받을 수 없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빈부 귀천 또는 학식에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모두의 특권입니다. (테저렛 뉴스 : 주2회 간행물, 1876년 11월 28일, 1쪽)

성신은 의로운 사람, 그들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만 내려집니다 ... 말일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누리는 특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고, 시온을 건설하며, 지상에 진리와 의를 세우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 앞에 놓이게 되는 장애물을 넘어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부에 성을 쌓고 이기적이 되며, 물질적인 생활에만 탐닉하고, 재물만을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에게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떠나가, 그들은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47쪽)

여러분은 안수를 통해 성신의 은사를 받은 후, 영원한 복음이 요구하는 바에 순종했고 세상으로부터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영의 증거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복리에 관한, 또한 하나님의 사업의 궁극적인 승리에 관한 아버지의 의사와 뜻을 분별하는 능력 역시 여러분의 특권이라 하겠습니까.(데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84년 4월 22일, 1쪽)

성신의 권세를 통해 우리는 거듭남

구세주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 참조]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진실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 무지를 벗어나 진리로 태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그와 같이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고친 장님보다 더 심한 장님이니, 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복음 교리, 90쪽)

오늘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을 소유한 자에 의한 침수로써의 침례로 용서와 죄 사유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변화가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거듭나는 것이며 이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을 때 자기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는 … 죄 사유함을 위해 침례받을 때 경험한 성신의 권능과 영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순수한 평화와 사랑과 빛의 느낌이었습니다 …

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때와 똑같은 정신과 불

붙는 열의를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 같은 증거, 그 같은 새로운 탄생, 그 같은 마음의 변화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을 그르치거나 많은 실수를 범하거나 때로는 참된 표준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회개하였고 자주 주님의 손에서 용서를 구하여 오늘날까지도 침례로써 죄 사유함을 받았을 때, 우리 영혼에 깃들었던 열의와 목적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것이 영혼을 지배하는 감정과 정서가 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노하기도 하고, 그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나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즉시 이성을 되찾고, 암흑의 권세로부터 빠져 나와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행한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령의 증거와 진리에 의하여 생겨난 크고 간절한 소망이 다시 영혼을 지배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이며 저는 이것이 진실됨을 압니다.(복음 교리, 88~90쪽)

성신의 증거를 받은 후 고의로 성신을 부인하고 대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함

합당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로 빛과 성신을 받은 사람은 그에게 거스르거나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성신과 진리의 영,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증거함에 대해 죄를 범하는 것과 의식적으로 그를 부인하며 그를 받아들인 후에 그에 대항하는 처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394쪽)

어느 누구도 무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그러한 죄를 짓게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되어야 하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여야 하며, 빛과 권세와 지식과 이해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람이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신이 받아들인 지식을 범하며, 이것을 발로 짓밟고 그리스도를 다시 욕보이며, 그분의 속죄를 부인하고, 부활의 권세를 부정하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기적을 부인하고, 마음으로 “그것은 진리가 아냐”라고 하며, 영의 증거를 받아

들인 후에 진리의 부인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 그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데저렛 이브닝 뉴스, 1895년 2월 9일자, 9쪽)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후] 왜 [제자들은] 구세주의 지상에서의 사명에 대하여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것을 것처럼 잊고 소홀히 여겼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한 가지 중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위로부터 능력”을 [누가복음 24:49 참조] 입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성신의 은사를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

제자들이 “성신의 은사” 또는 “위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듯이…, 그 과정은 전혀 달랐했을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신의 은사를 받고, 그것의 능력과 간증을 그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밤이 오기 전에 받았다면(마태복음 26:69~75 참조),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빛과 지식”을 거스른 것이며, “성신을 거스른” 죄를 범하여,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 후에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성신의 증거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제자들 또는 사도들도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었으며, 예수께서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큰 은사를 그들에게 부여했던 것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온 날 저녁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22 참조] (복음 교리, 18~19쪽)

부활하신 구세주께서는 지구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였으며, 약속에 응하여 보혜사가 임하여 그들의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였고 그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였으며, 그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이 거룩하신 분의 영감력이 항상 동반하여 구세주로부터 부름받은 막중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게 해주었습니다. (복음 교리, 92쪽)

비상한 총명과 학식을 소유한 다소 사람 사울은, 가마리엘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완전한 율법의 방법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는 성도를 죽이고 많은 남녀를 묶어 옥에 가뒀습니다. 순교자 스테반이 피를 흘렸을 때 사울은 그를 죽인 사람의 옷을 자기 발 아래 두고 그의 죽음을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쟁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

니라”[사도행전 8:3]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당할 때 그는 그들에게 언성을 높여 소리쳤으며, 그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뺨박하였”[사도행전 26:11]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니 이는 그가 성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복음 교리, 393~394쪽)

지구상의 누군가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은 그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었거나 알게 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 여러분과 저는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신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증거를 받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안전한 토대 위에 있는데,—만일 잘 돌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것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위험에 빠집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신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 만일 그렇게 한다면, 살아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그분의 영을 거둬가실 것이며, 여러분은 자신이 받아들인 빛과 지식에 저항하는 자로 판정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멸망의 자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둘째 사망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테저렛 이브닝 뉴스, 1985년 2월 9일자, 9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성신의 일시적인 영향력 혹은 나타나심과 성신의 은사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모로나이서 10:4 참조) 성신의 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은사를 존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 성신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요한복음 16:13 참조) 성신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진리에 관해 증거해 주었는가?
- 등불이 성신의 영향력에 대한 좋은 상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등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하게 빛나며 불타오르도록 할 수 있는가?
- 생활 가운데 성신의 영향력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성신이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법을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 구세주께서 말하신 거듭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한복음 3:5 참조) 이 거듭남에 대해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이러한 느낌을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엘마서 5:14~16, 26 참조)
- 어떤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잘 돌보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것들”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선교 사업에 대한 우리의 의무

선교사들은 전세계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영생의 소중한 씨를 뿌린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는 1854년 10월 20일 하와이에 도착한 직후에, 부친의 사촌이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며 그를 장로로 성임한 조지 에이 스미스에게 편지를 썼다. 이 젊은 선교사는 주님의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맹세했다. “저는 제가 관계된 이 대업을 위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언제나 헤쳐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끝까지 충실한 사람으로 입증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간구합니다.”(조지 앨버트 스미스 기록 문서, 1834~1875년, 역사부 기록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3쪽) 그의 신앙은 여러 번 시험받게 되었다.

[선교사 시절] 한번은 불이 나 그가 가진 것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이 중에는 “의복, 물문경 초판본(유럽판)과 교리와 성약도 있었는데, 이것은 축복사인 하이람 스미스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 장로는 이 책 중 하나에다 자신의 장로 증서를 넣어두었다. 집이 가재 도구들과 더불어 소실되면서 스미스 장로의 트렁크와 그 안에 들어있던 소지품은 선교사 증서를 빼고 모두 다 재로 변했다. 놀랍게도 이 증서는 가장자리만 조금 그을렸뿐 원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선교사 증서를 넣어둔 책은 완전히 다 타고 없었는데, 이 증서는 한 단어도 없어지지 않았다. 책들은 물론이고 스미스 장로가 꼬박꼬박 기록했던 일지도 다 소실됐다.

이 일에서 [후일에 가서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선교사들의 옷이 타버렸으므로 조셉 에프 스미

스와 그의 동반자는 잠시 동안 정장 한 벌을 갖고 함께 나누어 입어야 했다. 한 장로가 집에 있는 동안 나머지 한 장로는 이 옷을 입고 모임에 갔다. 그런 다음에 반대로, 다른 장로가 집에 남고 그 동반자가 그 양복을 입고 모임에 갔다. “물론 계속은 아니고 잠시 동안만 그랬죠. 아무튼 그 후에도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고통받던 장로들이 힘들고 곤혹스러웠던 임지를 벗어나 게 될 때 까지 말이죠.”(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38년), 183~34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선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통할 수 있게 생활해야 함

전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장로들이 꼭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는 인류의 복지와 구원을 위한 겸손, 온유함, 거짓없는 사랑과 지상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평화와 의로움을 확립하려는 열망 등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리에게 주신 그의 약속이나 말씀에 의지하려는 정신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인간의 지혜를 배워도 좋지만 그러한 지혜가 겸손하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자격을 갖추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18)

복음을 전파하러 세상에 나가는 장로들은 복음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정신은 겸손과 온유와 여러분이 하도록 설정한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진정한 헌신의 정신입니다. 만일 그것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 성스러운 일에 헌신해야 하며, 그러한 특별한 일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주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 함께 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323쪽)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그 일만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성약의 사역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장로는 기도를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가 만일 임무를 다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코 그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선의 것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 놓는다면, 그는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주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그분을 인정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설교,” *밀레니얼 스타*, 1906년 10월 25일, 674쪽)

선교사는 자신의 마음속에 성신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줄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창한 말이나 웅변으로 개종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진리나 주님의 영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알므로써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324쪽)

선교사는 자신의 성약에 정직하고 유덕하며 성실해야 함

스스로 복음에 순종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약속하게 하는 일을 위해 세상에 보내진다면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개종 사업을 위해 내보낸다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엄격히 지키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적용될 뿐 아니라 지혜의 말씀에도 적용됩니다. 어린 시절에 거칠고 고집 세고 사나웠던 사람이라도, 나이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회개를 해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결실을 맺었다면 부름을 받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322쪽)

우리는 ... 세상 속에 깊이 몰들지 않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제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저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이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약과, 부인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 정직하고 유덕하며 성실하기 바랍니다. 우선 많이 알건 모르건 간에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속



1858년 하와이 선교부에서 막 귀환한 후 19살 때 쯤의 조셉 에프 스미스

에 그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며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활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러워지거나 타락하지 않았으며 그들로부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복음 교리, 322~323쪽)

우리 젊은이들은 세상에 만연된 사악함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고상하지 못하며 자신을 이상한 장소로 이끌었던 호기심으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멸망의 첫발을 들여놓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젊은이들은 선교부에 있든, 가정에 있든, 모든 불명예의 소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합시다. 그러한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지식으로 더 훌륭하고 강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인식하면 의무를 망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며,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들이 미덕이나 위치를 위협하려고 할지도 모를 그러한 유혹들을 피하게 하십시오.(복음 교리, 339쪽)

훌륭한 선교사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교성이 있어서 그의 우정이 변함없고 빛이 나며, 암흑 속에 있는 사람이 관심과 확신을 얻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사리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친해야 하며, 그들을 알아야 하며, 그들의 신임을 얻어야 하며, 그로 하여금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 그에게 선을 베풀고 축복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정을 가지며 적의를 갖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와드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하도록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자격을 갖추게 하십시오. (복음 교리, 323~324쪽)

선교사는 영에 의해 간결하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야 함

우리의 장로들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떠나도록 부름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종파와 싸우지 말라고 배웠으며,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써 그들이 원한다면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하라는 가르침을 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평화의 씨를 뿌리러 파송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지식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육신의 몸을 가진 독생자의 충만한 복음이 다시 이 세상에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도록 파송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스러운 권능을 인류에게 회복하셨으며, 이로써 그들은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식을 행할 수 있으며, 그들이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이러한 의식을 행하도록 권능을 주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장로들은 죄를 회개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파견되며, 의를 전파하도록 파견되며, 인류 가운데 생(명)과 우정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 집니다. 모든 사람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파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조직(하셨고) …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며 창설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파송됩니다. (복음 교리, 324쪽)

실제 선교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이의 마음속에 “무엇을 말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종종 떠오릅니다. 이와 동시에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까?” 하는 질문도 생깁니다 … 어떤 특별한 법칙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경험으로 보아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면밀한 연구로써 복음의 원칙을 배웠으면, 겸손한 마음과 짧고 명료한 말로 자만심이나 과장됨이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인간에게 전해야 합니다. 만일 젊은 선교사가 웅변가가 되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시간과 장소에 합당해야 한다는 점을 장로들에게 인식시키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선교 지역은 그러한 웅변 수련 장소가 아닙니다. 복음이란 능숙한 말솜씨나 논쟁으로는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없으며, 합당하고 뜻이 있고, 마음의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겸손하고 합리적인 말로써 간단한 진리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일깨우려면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정신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화를 나누거나 면담을 하거나 공적인 장소에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신은 과장된 말이나 웅변식의 과도한 표현으로 자신의 의도한 바를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습

니다. 그는 억지로 기쁨을 주[길] 원하나 진실로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복음 교리, 325~326쪽)

혼자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에 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2:11 참조] 영감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려 하는 것은 헛된 짓에 불과합니다. 성신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성스러운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대의 제사들은 인간의 자녀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구세주와 동행하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나가서 전파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신이 그들 위에 부어져 마음에 활력을 얻고 이해력이 넓혀지며, 그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심어져서, 자신들이 찾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전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설교,” *밀레니얼 스타*, 1895년 9월 19일, 593쪽)

장로 개개인은 주로 그가 받아야 하는 부름의 영의 인도에 따릅니다. 만일 그가 정열과 근면의 정신인 그러한 정신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곧 무력하고 게으르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는 매일 시간을 내서 복음의 원칙과 교회의 신학에 관해 연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깊이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읽고 반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웅변적인 효과와 수사학적인 과시를 위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로들은 국내나 국외에서 회중 앞에 설 기회가 있을 때 완전하게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말할 가치가 있고 기억할 만한 생각 등으로 꽉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감이 청중에게 필요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 주며 그의 말씀에 권위를 더해 줄 것입니다.(복음 교리, 329쪽)

일반적으로 말일성도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부에 나가 있는 장로들은 교회 문제에 관해 논쟁적인 토론을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과열된 토론장에서 찾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공감적인 말로 표현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 진리에 대한 간증은 단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을 채워주는 지식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의 첫째 원리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을 가르치도록 보내지며, 그 외의 신학적인 교리는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난해한 질문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거나 심오한 내용을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갖게 하는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부름받은 책임에 어느 정도 적합하게 되려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능한 한 주님의 방법을 따라 가르쳐야 하는데,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인도하고, 간단한 설명과 설득을 하여야 하며, 강제로 확신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무가치한 토론은 그대로 놔두십시오. 교회의 표준 경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해한 교리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가 주된 관심사가 되면 안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거리가감이 생기게 되며 주님의 영광은 멀어지고 맙니다.(복음 교리, 330쪽)

선교 사업은 외국에서 처럼 국내에서도 필요함

해외에서 훌륭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국한 많은 청년들이 교회의 관리 역원의 무관심의 대상이 되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다시 무성의와 무관심속에 버려지며, 심지어 교회 직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방황하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선교사 정신을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업에 활동적이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마음속에 복음의 정신을 더 잘 지키고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더욱 유용한 형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해외에서처럼 국내에서도, 특히 시온에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사악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주의한 태도나 습관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신앙과 훌륭한 욕망에 찬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국한 형제들은 가능한 한 국내에 있는 젊고 경험

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스스로 구세주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귀환 선교사는 어떤 소년이 악습에 빠져 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 그가 살고 있는 와드나 스테이크의 관리 역원과 접촉해서 그를 구해 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껴야 하며,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젊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발휘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하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 확고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복음 교리, 335쪽)

선교 사업 임지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시야가 넓어지고, 힘이 재충전되며, 어느 방향으로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향상되고, 좀더 헌신적인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사람을 더 강하고 유능한 시민으로 만들어 줍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 있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선교 사업에 매진하면서 최선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부과된 특별한 임무 수행에 바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집으로 귀환을 해도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그는 여전히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게 되는 사람들 틈에 다시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귀환 선교사는 용감한 가슴과 강한 마음과 기꺼이 일하려는 손을 원하는 곳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특질은 선에 반대되는 것, 즉 단순히 악한 것만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긍정적인 선을 향해 방향이 잘 잡힌 적극적인 에너지, 다시 말하면 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귀환하는 선교사에게 주는 권고,” *밀레니얼 스타*, 1913년 10월 2일, 646~647쪽)

영생이라는 귀중한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고백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와 일치하며, 우리의 행동이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합시다. 어느 면에서든 이러한 열매들이 신앙에 관한 우리의 고백을 좇지 않는 한, 교회의 장로 또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사업의 진전에 장애물이 되고, 충실한 성도들에게도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도움이 안됨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구원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231~232쪽)

학습을 위한 제언

- “겸손, 온유함, 거짓없는 사랑이” 선교사에게 꼭 필요한 자격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밖의 어떤 자질이 장로와 자매들로 하여금 유능한 선교사가 되게 하는가?(교리와 성약 4편 참조) 우리는 이와 유사한 성품을 통해 유능한 회원 선교사가 되는 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 선교사 자신을 “세상의 오염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은 그렇게 하는 선교사들을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시는가?
-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비회원 친구들과 이웃의 신뢰를 얻어 그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임을 알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비회원 친구들과 좀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는가?
- 선교사는 어떤 진리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 선교사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논쟁, 격론, 결실 없는 토론 등을 활용하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영으로 단순하게 가르치는 것이 더 큰 권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00:5~8 참조)
- 선교사는 어떻게 “부름의 영”을 키울 수 있는가? 우리는 회원들로서 어떻게 “정열과 근면의 정신”을 함양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 어떤 방법으로 귀환 선교사는 “계속해서 선교사 정신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가? 귀환 선교사가 “주님의 사업에 활동적”으로 되도록 교회 지도자들과 그 외에 교회 회원들이 도울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귀환 선교사는 “많은 사람을 구하며 그들을 진리 가운데 확고하게 설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육체적 사망에서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인류가 무조건적으로 육체적 사망을 이기고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부활과 불사 불멸의 은사를 가져다 준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는 선교사 시절을 포함해 일평생 구원에 관한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이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전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이라고 가르쳤다.

우리 구세주의 속죄는 무조건적으로 육체적 사망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과 불사불멸의 은사를 제공해 준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고 만일 우리가 회개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승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사망도 극복한다. 이번 장에서는 속죄의 무조건적 측면을 다루고, 조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는 1901년 4월 29일 애칭으로 “엘리보”라고 부르던 19살 난 딸 엘리스가 죽자, 아들에게 구속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담은 편지를 써서 전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던 엘리보의 유품과 동생들이 남긴 것들이 묻힌 흙 속에다 마음을 묻고 있구나 …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곁에 떠난 자녀들이 그분의 거룩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다. 그 아이들은 곧 흙에서 일어나 불사불멸과 영생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귀중한 확신과 영광스러운 소망이 없다면, 인생은 아무 살 가치도 없게 될테지, 아마도 그것은 불명예스럽고 저주하고 싶은 허망한 몸부림에 불과할 것이다. “오, 기쁨 주는 이 말씀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조셉 에프 스미스가 조셉 알 스미스

에게, 1901년 5월 14일, 역사부 기록 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영광스러운 구속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그의 신성한 구원의 사명, 구속, 그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행한 기이하고 영광스러운 구속을 믿습니다.(복음 교리, 127쪽)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때까지 그의 모든 사업을 완수하지 못했으며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도 그것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상에 왔던 목적을 완수했으나 그의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언제 이 일을 성취하겠습니까? 그 때는 그가 멸망의 자식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우리 조상 아담의 모든 아들 딸들을 구원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복음 교리, 401쪽)

예수 그리스도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참된 표준이자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셨고, 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어떤 경우든 사악함, 불신앙, 어리석음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부활 후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권세를 소유하시듯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임했다고 선포하셨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의 오른 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만형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브라이언 에이치 스투이 편집,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및 그외의 사람들의 설교집, 제5권 [1987~1992년], 5:54)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고 승영될 수 있는 이름은 하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복음 교리, 37쪽)

기본이 되는 구원의 계획에는 몇 가지 위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되심과 우리 주 구세주의 구속의 효험과 말일에 이루어진 복음의

회복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복음 교리, 109쪽)

아담의 타락은 세상에 죽음을 가져왔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포만이 아닙니다. 이것에는 인생의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진리가 깃들여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사람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얻기 위하여, 바꾸어 말하면, 우리 영혼에 육신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멸의 육체를 갖기 위한 첫 단계이며, 죽음이 그 둘째 단계인 것입니다. 죽음이란 영원한 발전에 이르는 길의 한 과정이며 비록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히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이에 대해 어떠한 것이라도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죽음이란 축복인 동시에 필연적인 것이며 ...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얻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복음 교리, 266~267쪽)

사람(아담)이 이 지구의 요소들을 취하지 말 것이며 만일 그렇게 하면 그가 땅, 즉 흙이 될 것이라고 하신 하늘의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금단의 열매를” 취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대로, 그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임하게 하셨습니다.(“말일성도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름,” 물론 문학 스크랩 북, 제2권(발간일 모름), 2:555)

죽음은 인간이 범한 율법의 형벌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임이라” [모세서 3:17]는 하나님의 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육신의 인간은 이 형벌을 받았으며 인간은 모두 그것에 대해 속수 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복음 교리, 18쪽)

우리에게는 사망의 씨앗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필멸의 인간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근원도 있으므로 사실상 우리는 불사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생명, 힘, 예지, 능력을 주는 영과, 그 영이 거할 집이 되고 영의 형태에 맞추어져 있고 그 필요성에 따라 조정되어 영과 조

화를 이루어 활동하고, 영의 뜻에 순종하는 육신을 지닌 이중적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인간을 이룹니다. 육신은 영에 존속되어 있으며, 영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 영은 필멸의 상태에서 육신에 해당되고 육신을 다스리는 율법에 따르게 됩니다. 이 육신의 내부에는 약함과 패망의 씨앗이 들어 있어, 그것이 완전히 무르익거나 미숙한 채 떨어지게 되면 경전의 말씀대로 “육신의 사망”을 겪게 됩니다.(복음 교리, 422쪽)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지, 세상에서의 그의 출신이 귀하건 천하건 가난하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의 하루하루는 주님께서 헤아리고 계시며, 때가 되면 결국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거운 마음이나 맥이 빠진 모습으로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살다가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저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서 저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퍼할 것도 없으며 저를 슬프게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현세에서 저에게 용기를 주며, 기쁨과 평안과 희망과 위로를 주도록 계획하는 것이며,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주님의 면전에서 구원과 승영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친구나 친척의 죽음에 대해 눈물을 흘릴만큼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남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 곧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마음속에 인간의 자녀들에 대한 동정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울 때 그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즐거워 할 때 함께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음이 닥친다는 이유로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육체의 사망인 일시적인 죽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들은 … 아담의 범법으로 죽음이 찾아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하여 생명이 주어졌으며, 비록 그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복음 교리, 388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부활을 통해 육체적 사망을 극복함

자유의지를 행사함이 없이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원래 사망은 우리가 일부러 끌어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초의 부모의 범법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사망을 가져 올 능력이 없는 인간은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 올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복음교리, 69쪽)

예수 그리스도(는) …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다시 일어나셨던 것처럼 아담의 저주가 미치게 되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듯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은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 검든 희든, 속박에 매어 있든 자유롭든, 학식이 있든 무식하든, 늙었든 젊든 관계없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21~22; 엘마서 11:44 참조) 우리의 첫번째 조상인 아담의 타락으로 오게 된 죽음은 하나님 아들의 부활을 통해 제거되었으므로, 여러분이나 저는 죽음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복음교리, 469쪽)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옆구리를 찢리셨고 몸에서 피를 흘렸고, 십자가에서 신음하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 형겁에 싸여서 아무도 놓이지 않았던 새 무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복음 교리, 422쪽)

그리스도 자신은 무덤의 장벽을 부수고 죽음을 정복하셨으며 “잠자는 자의 첫 열매”(고린도전서 15:20)가 되셨습니다.(복음 교리, 404쪽)

그분은 이 세상에 … 이중의 권세를 갖고 오셨으니, 하나는 어머니에서 받은 죽을 권세요, 다른 하나는 만일 그분이 원하셨다면 가능한, 죽음에 대항하는 권세로서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영원히 살 권세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할 권세 모두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리하

여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고통을 겪으셨다 무덤에서 나와 새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분이 부활하신 존재로서 불사불멸과 영생으로 옷입혀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분께 순종하면 무덤에서 나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예로운 존재로든 불명예스러운 존재로든 아무튼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던 안하던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할 필멸의 죽음의 단계를 피할 수가 없고, 이 육신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을 피하거나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듯이 모든 인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일성도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름,” 2:58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여 준 죽음에서 삶으로의 부활 형태가 가장 진실하다고 분명히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삶으로 부활하는 다른 어떤 형태도 믿지 않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도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할 수 있었으니, 그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박혔던 예수였으며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아들딸과 여러분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 교리, 395쪽)

그들은 무덤에서 나오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들의 육체가 다시 일어나 그들의 영이 육체 안에 들어가 다시는 분해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영원 불멸의 상태를 즐길 날이 올 것입니다. (복음 교리, 410쪽)

이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사라지거나 존재하기를 그치질 않고, 부활의 날에 이러한 원소들은 뼈와 뼈, 살과 살로서 다시 결합될 것입니다. 육신은 안식하도록 놓여진 그대로 나올 것이니, 이는 무덤 안에서는 성장이나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놓여졌던 대로 일어날 것이며, 회복의 법칙에 따라 완전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계속 커나가고 발전할 것이며, 육신은 부활 후에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편집자란: 부활에 관하여,”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4년 6월, 623~624쪽)

영과 육은 결합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살았던 것과 똑같은 육신

을 입고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회복의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의 육신을 죽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구가 된 모든 기관이나 팔, 다리 및 사고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불구의 몸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로 생긴 몸이 그대로 회복될 것입니다. 팔 다리나, 모든 연결하는 조직이 원 상태로 부활될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영생토록 서로 알고 사귀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406~407쪽)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헤어져야 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사실이며,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있을 때 사귀던 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그것은 영혼이나 존재가 다르든지, 같은 존재가 다른 형태로 나타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현세에서 사는 동안 알고 사귀었던 자와 똑같은 개체, 똑같은 모습과 형상,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나 흉터나 불구 등을 언제까지나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로써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형은 사라질 것이고, 결점은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에 이를 정도의 완전한 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인간을 완전케 하기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21쪽)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영원한 진보의 단계와 성취를 알고 있으므로 오직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자들만이 영의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승영에 이른 영혼만이 지정된 영생의 과정에서 성숙한 경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들로부터 태어난 영들은, 올바른 순서에 따라 영화롭게 된 부모가 승영을 얻을 때 거처 온 여러 단계와 상태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64쪽)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도록 허락된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가 비록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며, 비록 우리가 죽어 분해되어 우리의 육신을 구성했던 원소로 화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원소는

다시 각 위치로 회복되며 재조직되고, 구세주께서 우리 앞에서 그랬듯이 우리는 다시 살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복음 교리, 417쪽)

학습을 위한 제언

-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구원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 속죄의 실제성과 권세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 인간은 어떤 면에서 “이중적 존재”인가?(교리와 성약 88:15~16 참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육체적 사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죽음이 영원한 발전에 이르는 길의 한 과정”임을 아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 어떤 교리가 우리들이 육체적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삶 가운데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왜 우리는 “살다가 죽고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는가?
-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의 권세를 소유하”셨는가?
- 부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육신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는가? 이러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 어느 날엔가 우리는 죽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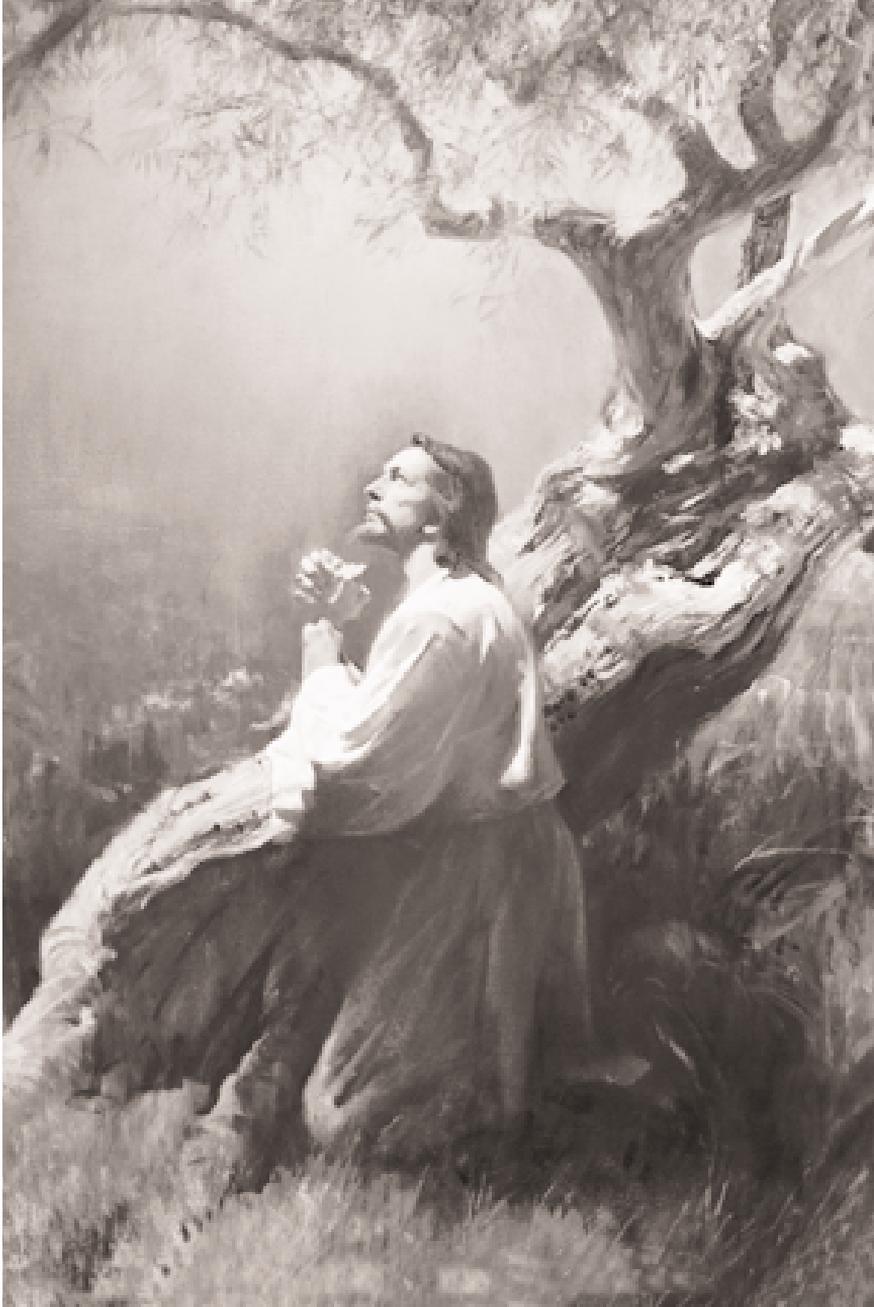


그림: 해리 앤더슨, *겟세마네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를 통해 모든 인류를 육체적 사망에서 구속하셨다.
또한 그분은 회개한 자를 죄에서 구속하시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한 자를 영적 사망에서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회개하여 충실하게 된 자를
영적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는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현재 나는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에 합당하게 되길 소망한다.”(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38년), 180~181쪽) 하와이에서 봉사하던 초기에, 이 어린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성결케 하며 위안을 주는 권세에 대해 영적인 경험을 했다. 그는 자신의 선교 사업에 대해 “심한 중압감을 느꼈으며” “가난과 예지와 지식의 부족이라는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고 말했다.

꿈에서 저는 여행을 하고 있었으며 너무 늦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여 빨리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빨리 달려갔습니다. 저는 단지 손수건으로 싸여진 작은 보따리를 갖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이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 빨리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저는 훌륭한 저택에 도달했습니다. 이 저택은 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고 훌륭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목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향해 빨리 뛰어가다가 “목욕탕”이라고 씌어진 표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목욕탕으로 들어가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벌의 희고 깨끗한 가먼트가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그와 같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먼트는 깨끗했으며 저는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보이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고 그 문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저를 약간 책망하는 듯이 바라보면서 하시는 첫 마디는 이러했습니다. “조셉, 너는 너무 늦었구나.” 그러나 저는 자신을 갖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깨끗합니다.”

“... 그 당시 제가 보았던 시현과 목격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 앞에 선하고 깨끗하고 올바르며 제 안에 선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복음 교리, 497~499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아담의 타락으로 영적인 사망이 세상에 들어옴

저는 육체의 사망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죽음인 영적인 사망에 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주님의 율법을 범해 사탄에게 복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 이것이 첫번째 사망입니다. 비록 살아 있으나 하나님과 빛과 진리 앞에 죽었으니 영적으로 사망한 것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망입니다.(복음 교리, 392쪽)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고로 [아담은]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놓여졌을 때 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분의 면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듯 그분과 동행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상황은 바로 이

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 ”그런고로 … [저들은]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첫 번 사망이라.”[교리와 성약 29:41 참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담이 스스로 놓여있던 위치에서 자신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탄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 그는 “영적으로 죽음을 당해”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없었다면, 그의 사망은 그로부터 구속되는 희망은 전혀 없는 영속적이고, 끝이 없는, 영원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테저렛 이브닝 뉴스*, 1895년 2월 9일, 9쪽)

아무도 죄를 짓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지 않고](로마서 6:4 참조),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되며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어 원하는 바에 따라 선 또는 악을 택하고 빛 혹은 어둠 가운데 걷게 하셨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수 있게 성임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면전에서의 영생과 영광에 합당함을 증명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일성도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름,” *몰몬 문학 스크랩 북*, 제2권[발행일 모름], 2:563)

아무도 죄를 짓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공의로우신 심판관에 의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전능하신 주님이 정하[신 대로] … 거듭나지 않고는 [영적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복음 교리*, 224쪽)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그를 섬기거나 섬기지 않거나, 옳은 일을 행하거나 그른 일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이 특권은 인종이나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에게 공동으로 주신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다 같이 이러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떠한 사람도 이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지 않

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세계에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여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대하여 엄격하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리느니라” [창세기 4:7] …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없이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한편, 인간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자녀들에게 죄사함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주 앞에서 바르게 서지 않는 한 온 세상은 죄에 빠져 정죄받게 됩니다. (복음 교리, 45~46쪽)

그리스도의 속죄는 회개와 순종을 통해 우리를 영적인 사망에서 구속함

주님은 태초에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셨고,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 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 그는 희생의 율법을 주시고 구세주를 세워주시어 다시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와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상에 놓여지기 전에 전능하신 분이 선택하여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이 주어진 율법을 범하여 타락했고, 주님은 인간에게 희생의 율법을 주셨으며 그 목적은 절정의 때에 일어날 위대한 일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의 자녀는 구속과 부활의 권능으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 교리, 181쪽)

[아담의] 구속을 위해 마련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에게 임한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날 길에 대해 그가 배우게 될 때까지 육체적 사망을 겪지 않도록 전능자가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와서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쳤으며, 절정의 시기에 와서 죽음을 이기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타락으로부터, 사탄의 수중에서 구속하실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 즉 세상의 구속주를 그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 그 밖의 누군가가 그를 도

와야 했습니다. 그의 것보다 더 높은 그 외의 권세가 그가 처한 상황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탄의 영향하에 있었고, 그는 무력했고 스스로는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에게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날 탈출구가 주어졌습니다. 이 탈출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의 회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에 관한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과 관련해 그에게 임한 첫번째 사망 즉 완전한 죽음인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속되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취해 영적으로 죽게 되기 전에 그랬듯이, 비록 그가 살아서 움직이고 자기 존재를 갖고 있었으며 자기의 개체와 조직을 갖고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구속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테저렛 이브닝 뉴스, 1895년 2월 9일, 9쪽)*

아담은 ... 그리스도의 피와 신앙과 하나님의 명에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속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편으로 아담은 첫째 사망에서 구속되어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전능자의 은혜로 영원한 증식과 진보의 계획으로 다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테저렛 이브닝 뉴스, 1895년 2월 9일, 9쪽)*

주께서 인간을 다시 그의 면전으로 가게 하여 그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승영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과 죄로부터의 구속의 계획을 세상에 계시하셨다면, 그것은 참으로 변경할 수 없는 법칙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시어 계시하신 계획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면전으로 승영될 수 없고, 그의 왕국에서 충만한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음 교리, 6쪽)*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조화를 이뤄 생활하고 우리 마음이 그분과 우리의 맏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스러운 구속주이신 분을 향한다면, 그분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질뿐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서 구속받거나 구속되어질 수 있으며,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93년 2월 6일, 2쪽)*

저는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회개를 통해 구제하기 위하여 성스럽게 임명되어서 지상에 보내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담의 [죄로] 범법

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겪게 될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복음 교리, 381쪽)

죄를 범했을 경우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보상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보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어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간구하여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죄의 결과로부터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그리고 바른 일을 행하여 주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보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을 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누가 보상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써 회개하는 자의 죄가 씻겨질 수 있으며,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이사야 1:18 참조) 씻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복음 교리, 91쪽)

우리는 속죄와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될 수 있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나 물 문경이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주어진 계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의 왕국의 율법에 복종하거나 따를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며, 달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는 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며, 또한 별의 왕국의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자는 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영광의 왕국이 아닌 왕국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410쪽)

무덤에 누워있는 모든 육체가 나오게 될 것이나, 첫 부활이나 첫 부활의 아침에 다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일부는 마지막 부활에 나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그들이 육신으로 있을 때 행한 행동에 따라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선한 일을 했다면 좋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했었다면 [그들은] 주님의 면전에서 추방될 것입니다.(테저렛 이브닝 뉴스, 1895년 2월 9일, 9쪽)

우리는 살게 되며 그런 후 다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대하지 않으며, 우리는 삶과 불멸과 영광과 승영을 기대하며 이러한 것이 해의 왕국의 영광에 의해 살리심을 받게 되어 이러한 것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승영의 상태이며, 만일 우리가 복음의 성약에 충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아무도 우리로부터 그러한 영광을 빼앗지 못합니다.(복음 교리, 403쪽)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충만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완전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왕과 제사장이 되며, 영광과 성역과 승영과 왕자와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시고 발전시킨 모든 권능과 속성을 잇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승화된 위치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육체적인 경험과 시련을 거칠 필요는 없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만형인 예수의 도움으로 우리 자신의 합당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복음 교리, 399쪽)

인간은 의로움으로 구원되고 하나님 왕국에 승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계시듯이 빛 가운데 생활하여, 그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되어 그의 영광과 승영을 받게 되어야 합니다.(복음 교리, 224쪽)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를 기억함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로 희생 제물을 바치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구세주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몸소 행하신 속죄가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 계명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후로 항상 이것을 취하여 주를 기억하고, 그들을 구속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와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기로 성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영원이 성령이 함께 하고 계속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참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는 증거로 성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복음 교리, 96쪽)

죄지은 자를 위해 죄없이 지냈으며, 죄인이 범한 율법의 형벌에 따른 “불의한 자를 위한 의로운 자”인 예수가 와서 고통받았을 때, 희생의 율법은 성취되었고 그는 우리가 “주님의 성찬”이라고 부르는 다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 바친 큰 희생인 그의 생명과 사명, 죽음과 부활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 저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희생의 율법은 인자가 처음 오시기 전에 살았던 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인 반면에, 이 율법은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글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것을 범하게 되면 형벌이 따르는 것이므로, 우리는 성스럽게 그것을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고린도전서 11:25~29 참조) (복음 교리, 182~183쪽)

주님의 성찬은 … 기타 모든 복음의 의식이 그러하듯이, 모든 믿는 자들이 준수해야 할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복음의 권세를 통해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복음이 전파된 지상의 거민들에 의해 또 다른 의식으로 기억됐던 것이며, 동물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절정의 시기에 행해질 위대한 희생의 전형적인 모형이었습니다.(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78년 2월 19일, 1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속죄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구속의 권세를 강하게 느껴 보았는가?
- 영적인 사망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육체의 사망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망인” 이유는 무엇인가?

- 만일 아담과 그 후손을 위해 “탈출구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결과가 임했겠는가?(니파이이서 9:6~9 참조)
- 우리가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구세주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영적인 사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지지르는 잘못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으로써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이와 똑같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았는가?
-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로 지금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가?(모세서 6:64~68 참조) “해의 왕국에서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게 되”(교리와 성약 88:28~29 참조)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
-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 성찬을 취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극복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늘 구세주를 기억할 수 있는가? 성찬을 존중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속죄의 은사를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대업에서 용감함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업에서 용감해야 하며
우리의 성약과 하나님과 시온의 사업에 충실해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는 19살 밖에 안된 나이인 1857년 가을, 하와이 선교부를 떠나 귀환 길에 올랐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 베르나르디노를 경유해 귀가했다. “남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대열의 마차로 단거리를 여행한 후 야영을 했습니다. 그때 몇 명의 반몰몬 무뢰한들이 말을 타고 야영지로 쳐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몰몬을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고 위협했습니다. 조셉 에프는 나무를 주우러 야영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의 성도들이 조심스럽게 개울로 내려와 나무 덩굴 속에 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들에게서 들키지 않도록 도망을 갈까? 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의 팔에 나무를 잔뜩 안고 야영불을 피워 놓은 곳으로 올라가자, 손에 권총을 든 어떤 괴한이 “몰몬”을 저주하면서 큰 소리로 조셉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도 몰몬이냐?”

그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소. 철저하고 순수한 진짜 몰몬이오.” 그러자 그 악한은 그의 손을 덥석 잡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 사람이오. 자, 악수합시다. 젊은 친구여, 나는 확신을 가진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반갑소.” (찰스 더블류 니블리, “회고,” 복음 교리, 475쪽)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어떤 장애나 난관 앞에서도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았다. 절친한 친구이자 교회 관리 감독이었던 찰스 더블류 니블리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분보다 인간됨과 의와 공의와 자비의 원리에 더 충실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그릇에 담겨 있는 위대한 마음은 그 시대에 지상을 거쳐 간 인간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순수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찰스 더블류 니블리, “회고,” 복음 교리, 482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성약과 하나님과 시온의 사업에 충실해야 함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참된 신앙을 간직하십시오. 우리는 성약에 진실되고 하나님에게 진실되어야 하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서로에게 진실되고 시온의 이익에 진실되어야 합니다 ... 하나님 왕국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 백성에게 진실된 사람, 스스로 순수하며 세상에 흠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받들어 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며 그가 자유를 누리거나 감방에 감금되어 있거나 땅에서 번영하게 됩니다. 그가 어디에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잘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238쪽)

우리는 종교에 관한 한 오늘날의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종교를 값싸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종교에 대해서 좀 알게 되어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일성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살아 있는 종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종교는 일요일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종교이며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평일에도 성실하고 강하게 봉사할 의무를 요구합니다. 저는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인간에 의해 제정된 종교나 일요일만의 종교에는 마음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저의 종교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나한테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제 영혼 속에 있지 않다면, 만일 제가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저의 모든 나날, 일요일은 물론 평일까지도, 공적인 장소는 물론 은밀한 곳에서도, 외국과 국내에서나 어디에서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교요, 선함을 위한 종교요, 의롭고 순결하며, 친절하며, 믿음과 구원이 있고, 하나님 왕국에서 승영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종교로서, 평생 동안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종교가 아니라면, 그러한 종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종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애정에서 그들의 애정으로 그것을 가르쳐야 하며, 교회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신념과 성실함과 확신으로 그들을 고무시킬 수 있습니다.(복음 교리, 357~358쪽)

반대 세력 앞에 굳게 서는 것이 우리 의무임

참된 지도자의 높은 자질 중의 하나는 높은 수준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용기와 지도력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이 확신을 성실하게 추구하고 지키는 올바른 과정을 결정하게 하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에게 용기를 요구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 용기란 그들이 육체적인 위협을 맞설 수 있다는 점에서의 용기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정직한 확신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의 용기입니다.(복음 교리, 140~141쪽)

말일성도 중의 일부가 원리를 희생시켜 가면서 “몰론 정신”을 대중화하려고 하고 있어 유감입니다. 그들은 우리 종교를 다른 사람들의 교리와 요청에 맞추려 합니다. 그들은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 그러한 형제들은 세상적인 이론은 복음 원리에 일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 말일성도가 되려면 세상적인 목표와 즐거움을 희생해야 합니다. 이는 충실함, 강직한 성품, 진리에 대한 사랑, 원리에 대한 충실, 진리가 승리할 것임을 보고자 하는 열망 등을 요구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 대중적이지 않을 때도 종종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죄와 세상적인 것에

대한 끝없는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진리를 정립시키고, 특성을 발전시키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원리들을 순수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편집자란: 인기가 아닌 원리,”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6년 7월, 731쪽, 733쪽)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과 싸우고 그릇된 것에 대항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여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악한 인간이 분명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운명에 처해질 때까지는 이웃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대업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대업은 실패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최대로 이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실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용감한 인간의 용기는 있으나 신앙의 용기는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우와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는 두려움 없이 일했고 신성한 메시지를 전했으며 원수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바울을 이겼습니다. 그는 죄수로 끌려가 법관들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투옥당하여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는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는 신앙의 용기였습니다. 그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에베소서 6장 13절에 기록된 감동적인 말씀을 읽어 봅시다. 이 서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대업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진리의 대의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하고, 인간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악을 견디며, 그들의 악행에 압도된 후에도 견디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굴복해서도 안됩니다. 위대한 대의는 한 세대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서 압



그림: 로버트 바렛,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바울에 대해 “투옥당하여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는 신앙의 용기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복음 교리, 111쪽)

도되는 반대 세력 앞에 확고하게 서는 것이 신앙의 용기입니다. 신앙의 용기는 발전의 용기입니다. 그 신성한 특성을 소유한 사람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만약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조용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만을 지닌 단순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높은 율법과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은 대항하는 것을 멈추고 시련을 회피합니다. ... 이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역사를 읽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역사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써만 보기 때문에 인간의 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완전한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 없이는 공포와 염려로 가득 차게 되어 침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악에 휩싸일 때도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복음 교리,

110~111쪽)

세상과 세상의 어리석음과 죄악에서 벗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기 위해서는 용기, 인격, 독립심, 뛰어난 예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하지 않은 것, 그들을 찬양하고 아첨하지 않는 것이나, 그들을 명예롭지 않게 하거나 욕되게 하는 것은 기피하기 때문입니다.(복음 교리, 189쪽)

이 복음의 영이 저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제가 가난과, 시련과, 박해를 받아 시달리며 혹은 죽음을 겪게 된다 해도, 나와 저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율법을 지키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는 순종을 통하여 축복받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기억하는 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리를 지지하고 그에 성실한 자들 들어 올려 지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와 영원토록 진리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십니다.(복음 교리, 225쪽)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업에서 용감한 용사가 될 수 있음

오늘 오후에 형제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우리의 몇몇 친구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옛날을 돌아보면서 영 대관장님, 히버 시 김블, 윌라드 리차즈, 조지 에이 스미스, 올슨 프렛, 팔리 프렛, 존 테일러 대관장님, 에라스투스 스노우, 오하이오와 미주우리 및 일리노이에서 박해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정든 집에서 쫓겨나 결국은 광야로 내몰린 그 외 수천 명의 충실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친 발을 쉬게 할 장소를 찾게 될 것이라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약속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집과 친척과 친구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예견에 관한한 언젠가는 안식처에 이를 것이라는 희미한 전망을 갖고 모두를 떠나 무겁고 지친 발걸음으로 평원을 터벅터벅 건넜어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없는 확신과 그분 말씀을 믿는 확고한 신앙은 꼭 유지했습니다. 그러한 장면들을 떠올려 보노라면 그 모든 것들을 겪어낸 충실한 선남선녀들을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은 길에서도 기진하지 않았고,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진리에서 눈을 돌리지도 않았습

니다. 시련이 클수록, 여행이 힘들수록, 장애물이 클수록, 그들은 더욱 굳세지고 결의 또한 강해졌습니다.(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98년 8월 9일자, 1쪽)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내 오는 동안 60여년 이상을 브리감 영, 허버 시 킴블, 윌라드 리차즈, 조제 에이 스미스, 제레디아아 엠 그랜트, 다니엘 에이치 웰스, 존 테일러, 조지 큐 케넌, 윌포드 우드럽과 그의 보좌들 및 로렌 조 스노우와 그의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칠십인 및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제사들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생존해 있지 않다는 저의 간증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오고, 정원회나 기도회에서 함께 하고, 이 나라의 이 마을 저 마을을 하계 여행하며, 평원을 함께 횡단하며 친분을 맺어 왔으므로, 것처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그들의 말씀을 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된 사람, 순결한 사람,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임을 간증합니다. (복음 교리, 153쪽)

여기에 상호부조회 일을 하는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 여기에 상호향상회에 관련있는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초등 협회와 주일 학교 일에 관계하고 있는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 우리는 그분들께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은 스스로 진리를 알고 있으므로 다른 누구에게서 빛을 빌려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들의 온전함에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며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주님의] 사업을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들 중 대부분을 알고 있고, 그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대회 보고, 1906년 10월, 9쪽)

언제나 적극적이고 도움을 많이 주는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은 주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필요한 시기에 어디에서나 불쌍한 자를 돕고,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며, 과부와 고아들을 방문하고, 소중한 지침을 전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6권(1965~1975년), 4:296)

히버 시 김볼 부대관장님은 하나님의 고귀한 종이었습니다. 강철과 같이 진실되고 정제된 금과 같이 순수하였습니다. 적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리한 통찰력과 예언자의 영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간증에 용감하였고 요셉 스미스의 일생 동안 변함없는 친구로 그의 거룩한 부름과 사명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살아 있는 권능에 의하여 성임되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복음 교리*, 178쪽)

저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임무를 수행해 온 십이사도 형제님들은 하나님 왕국의 발전을 위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시온의 건설을 위한 의견과 노력에 있어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그들은 말일성도들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고, 진리에 대한 간증에 있어서 용감하며, 진지하고 용기있게 시온의 유익을 돌보고 있습니다.(대회 보고, 1906년 4월, 2쪽)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간구합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평강이 있고, 여러분 안에 진리에 대한 사랑이 풍요롭게 거하길 간구합니다. 덕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장식하길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직하게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있어 용감하시길 간구합니다. 용감한 자는 그분의 상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대회 보고, 1906년 4월, 8쪽)

학습을 위한 제언

-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있어서 “용감하다” 함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일상 생활 가운데 어떻게 우리 종교와 하나님에게 충실하려는 뜻을 보일 수가 있는가?
- 그리스도의 종교가 단지 “일요일만의 종교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그들이 진정으로 느끼

도록 하면서” 종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가?

- 우리는 교회 회원들로서 어떤 식으로 원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복음을 “대중화” 시키려 하게 되는가?
- 우리는 어떻게 원리에 대한 충실함을 희생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 적절한 관용을 보여 줄 수 있는가?
- 우리는 자녀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용기, 원리에 대한 충실함, 복음에 따라 용감하게 생활하는 것과 같은 원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 어떤 방법으로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은 용기있게 간증하였는가? 우리는 이 지도자들에게서 용기와 용감해지는 것에 대해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 “신앙의 용기”란 무엇인가? 어느 때 여러분은 반대 세력 앞에서 이러한 용기를 보였는가?
- 어떻게 하면 용기있게 우리의 교회 부름을 수행할 수 있는가?
- 용감하게 복음 생활을 할 때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오는 축복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교리와 성약 14:7 참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있어서 용감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결과로는 무엇이 있는가?(교리와 성약 76:79 참조)

속지 않기 위해 진리에 충실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순수하고 참된 원리들을 지키고
속이는 자들의 위선과 오류를 피해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는 영국 선교부에서 귀환한지 다섯 달만에 브리감 영 대관장으로부터 하와이 제도에서 선교 사업을 다시 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그의 세 번째 선교 사업이었다. 영 대관장은 하와이어에 유창한 그를 십이사도 정원회 소속의 에스라 티 벤슨과 로렌조 스노우 두 장로의 통역사로 봉사하게 했다. 1864년 봄 이들이 하와이를 떠날 때, 조셉 에프 스미스의 나이는 24살이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당시 선교 사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 사기꾼의 속임수를 중지시키라는 임무를 띄고 있었습니다 … 그는 교리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세와 권능에 대해 교활한 꾸밈새로 교회의 원주민 회원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교회를 재조직하고 십이사도와 그 외 역원들을 성임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 자리들을 돈을 받고 팔았고, 자신이 왕과 제사장 같은 통치자라면서 그곳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우리는 그와 대면하여 비행을 나무라며 교화시키려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는 완강하게 개심을 거부했고 회개하려 들지 않아 결국은 교회에서 떨어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에게 속은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온 힘을 다하였으며, 하나님의 축복에 힘입어 우리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6권[1965~ 75년], 4:20~21) 계속해서 벤슨 장로와 스노우 장로가 하와

이 제도를 떠난 후, 조셉 에프 스미스는 다음 겨울까지 그곳에 남아 교회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이 배도자에 의해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기에 회개하고자 하는 교회 회원들을 상담했다. 스미스 대판장은 그 나머지 생애 동안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인식하고 그에 저항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말일성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리에 충실해야 함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 혹은 비밀 조직도 전능하신 분의 목적을 뒤엎거나 그분 사업의 궤도를 바꿔놓기에 충분한 힘과 권세로 결집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만큼 충분한 경험을 해두었어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결의를 하고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들은 자신들이 교회 안에 놀라운 개혁을 가져오겠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전체 교인들이 자신의 표준, 즉 교회가 생긴 이래 그때까지 교인들을 결집시킨 구심점이었던 표준을 버리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자”를 따르리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목자의 실제 음성이 어떤지를 알아 낯선 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권위도 없으면서 그런 척하는 사람의 권고를 경청하지도 않습니다. 교인들은 그러한 사람을 절대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일성도는 복음의 영에 대해 알고, 진리의 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무에 대해 배웠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리에 충실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과 맞서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사업에 대항하기 위해 동원되거나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단순히 증오나 악을 행하거나 진리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나 의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자들의 음성에 속았고, 헛된 영향력에 현혹됐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속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저항하고 주님의 사업과 싸우기 위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래왔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자신이 본

첫 시현을 밝힌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의 적, 진리와 덕성과 영예와 순결한 삶의 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적, 하나님과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직접적인 계시와 영감에 대항하는 적들이 이 사업에 반기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의의 친구, 계시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진리의 친구, 의로운 생활과 순수한 삶의 친구 혹은 의에 헌신적이며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여 이해할 만큼 도량이 넓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온의 대업에 대항하려 동원된 이들과 같은 사람들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시온의 대업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계시와, 빛과 예지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간을 인도하는 영과 인간을 결속시켜 자신의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그와 같이 자기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원리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909년 4월, 3~4쪽)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함

어떤 사람은 주님의 권능을 인간의 힘에 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이 있으며 심지어 학교 교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경전의 영감한 내용을 믿지 못하게 하며,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임을 믿지 못하게 하며, 악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같은 기적을 행하신 사실을 단지 신화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으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것도 다만 신화라고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간증은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없으며 모든 사물은 자연의 법칙대로 저절로 생긴다는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복음 교리, 338쪽)

말일성도 가운데 복음의 진리로 가장된 거짓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개 다음의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 그들은 게으름과 나태가 무지의 근원이 된 가망없는 무식자나 거의 독서나 연구를 하지 않는 사람,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게으름으로 발전하기 쉬운 무서운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이며,

둘째,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며 생활하려 하며, 자기 행동을 자신이 심판하려고 하는 자만심에 가득 찬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은 첫번째의 무식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게으름과 자만심을 피하십시오.(복음 교리, 339쪽)

하나님께서 말일에 지상에 멸망되지 않을 그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 율법의 집, 조화의 집이며, 무지와 이기심으로 안정된 성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 집을 혼란시키려 한다면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며, 그들은 예언자의 권능과 다른 영적인 자비와 은사에 계속 거역할 것이지만, 말일성도들은 이러한 영향력에 휩쓸려서는 안되며 그러한 성격이나 그들의 이론에 의해서 혼란에 빠져서도 안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교회의 행정과 영속성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과오나 오용이나 실수를 바로잡는 모든 방법을 갖고 있으며 무정부 상태나 혁명조차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보하는 과정에 의하여, 즉 발전과 지식, 지혜, 인내, 자비를 키움으로써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관리 정원회는 항상 그러한 사람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러한 확고한 지혜나 의로움이나 양심적인 의무 수행이 교회 행정을 위임받은 사람의 정책을 특징지어 주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복음 교리, 346쪽)

하이람 페이지 때부터(교리와 성약 28편) 여러 시기에 걸쳐 거짓 영이 교회 회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범범으로 인해 손쉽게 사탄의 제물이 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교회의 규칙과 여러 의식을 엄격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거짓 영에 의해 실족되기도 합니다. 거짓 영은 거룩한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모방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저는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조차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힘

들게 합니다.(마태복음 24:24) 사탄은 “빛의 천사”로 보이도록 자기 자신을 변형시켰습니다.(고린도후서 11:14; 니파이서 9:9)

시현, 꿈, 방언, 느낌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 혹은 영감이 이미 인정된 교회의 계시에 조화되지 않거나 교회를 구성하는 권위 체계와 어긋나는 어떤 것을 전달할 때, 말일성도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또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지시는 교회 예언자를 통해 계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충실한 회원은 그들 자신이나 가족 및 그들이 관리하도록 지명되거나 성임된 사람들을 위한 성신의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한편 교회 대관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권능이거나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대관장단 메시지, 4:285)

성령의 은사와 성신권의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권고하며 신앙심을 높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장님에게 기적을 행하는 흉내를 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만합니다. 애굽의 마술사가 어떠한 노력으로 모세와 아론의 임무의 신성함에 대해서 바로를 속이려 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

그리스도는 큰 심판의 날에 관한 예언에서 기적을 행하는 힘은 악마에게서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태복음 7:22~23)

미신의 좋지 못한 위험과 영향은 미신 그 자체보다는 미신을 쫓는 사람이 그 미신을 믿으려고 하는 열의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남자이든 여자든 자신이 악마의 영향과 수단에 의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악마가 순수한 남자나 여자에게 특히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들이 미신에 대해 생각한다면 미신에 쉽게 굴복하게 됩니다. 미신 그 자체에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만큼의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342쪽)

특정한 복음 원리만을 선호하는 것을 피함

형제 자매 여러분, 특정한 복음 원리만을 선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악습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위험한 것입니다. 훌륭한 모든 교리나 계명이 중요하며, 구속력이 있고 인간을 구해 주는 만큼 이러한 악습은 다른 사람들을 손상시키고 위축시키는 부당한 원리나 개념을 제시해 주므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악습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구속주의 복음의 그릇된 면을 보여 주며, 그 원리와 가르침의 조화를 깨뜨립니다. 관점도 자연스럽지 못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모든 원리와 행위는 인간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중 어느 하나만을 부당하게 앞세우고, 다른 것을 모두 숨기고 감추는 것은 현명치 못하고 위험한 처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해력을 가리기 때문에 구원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러한 견해는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든지, 시야를 좁히고 영적인 통찰력을 약화시키며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 결과 것처럼 사악함과 정신적인 시야가 축소되는 고통을 받은 사람은 악의 유혹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되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생각이 막혀 형제를 그릇된 길로 이끌게 되고 배도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정한 복음 원리에 몰두해 있는 성도들은 같은 복음 교리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쉽습니다. 머리 속에 지혜의 말씀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밖의 복음 교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너그러운 생각을 지니고 있는 다른 모든 교회 회원들의 결점을 찾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이 “저는 당신보다 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특정한 율법에 따라 완전하게 생활하지 않는 형제나 자매에 대하여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은 동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기본이 되는 구원의 계획에는 몇 가지 위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시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되심과 우리 주 구세주의 구속의 효험과 말일에 이루어진 복음의 회복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전하지 못한 일을 절대적으로 금한다거나, 우리의 “수확”에 대한 십일조를 정확하게 낸다거나[마태복음 23:23 참조], 기타 외적인 의식을 준수한다 해도 이와 같이 필수적인 교리에 대한 신앙이 부족한 것을 보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침례 자체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108~109쪽)

진리를 소유하면 죄와 어둠에서 자유롭게 됨

우리가 속지 않고 실수에 이끌리지 않고, 인간의 교활한 변덕이나 거짓 교리로 이리저리 이끌리지 않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에도 있다고[마태복음 24:23 참조] 하는 거짓말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인간 사이의 대화의 참된 질서를 제정하셨으며, 이것을 교회 내에도 확립하셨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에 따라서 속지 않도록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에 거스르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346쪽)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열심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함으로써 서서히 안전하게 악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복음 교리, 340쪽)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사람은 그러한 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을 간직하는 것은 모든 악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보호해 주는 방패가 됩니다.(복음 교리, 343쪽)

저는 대부분의 말일성도가 신앙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일성도 대부분은 진리와 오류,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에서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우며 마음속에 예지와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철학자나 과학자 같은 이들의 허무 맹랑한 주장에 우선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간결하고 순수하고 참된 원리들을 따를 만큼 충분한 지각의 소유자들로 생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

하신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월한 과학이나 철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17)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일성도는 그들이 진리를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진리가 아닌 것이면 무엇이든 피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의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1~32 참조)

저는 말일성도,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원리를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그들이 진리를 소유함으로써 죄로부터, 오류로부터, 암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대회 보고, 1911년 4월, 7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어떻게 우리는 “거짓 목자의 음성에 속”지 않으며 진실된 목자의 음성을 알아볼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진리 편에 설” 수 있게 하는가?
-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업에 저항하도록 동원된” 영향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
- 오늘날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인간의 힘에 국한시키려” 하고 있는가?
- 교만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오류로 이끌 수 있는가? 어떻게 게으름도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 수 있는가? “게으르고 교만한 자들”에 의한 “거짓 교리의 전파”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예언자의 권능을 위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은 어떤 경고를 주셨는가?(교리와 성약 42:11 참조)
- 특정한 복음 교리만을 선호하는 것이 개인이나 교회에 위협할 수 있는 이유

는 무엇인가? “외적인 의식”을 엄격히 준수한다 해도 이것이 “필수적인 교리”에 대한 신앙의 부족을 적절히 보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짓 교리에 속아 이리저리 이끌리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성신의 은사를 사용해 선악을 구별하고 모든 악한 영향력에 저항할 수 있는가?

충실한 시민이 됨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법을 준수하고,
교회 회원됨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시민됨을 존중해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개인적 삶은 훌륭한 시민됨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의 모범 자체였다. 그는 1865년에서 1882년까지 유타 준주 의회 의원직을 몇 차례 연임했다. 1867년에는 시 평의회에서 봉사했고, 유타 주 헌법의 기초를 세운 1895년 연차 총회에 참석했던 의원 중 일원이기도 했다.

나부에서 있었던 폭도들의 광란의 목격자이기도 했던 스미스 대관장은 시민 사회에서의 법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다. 그와 대관장단의 두 보좌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살고있든 법을 지키고 충성한 시민이 되며 정부에 한 서약에 충실하라고 권고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6권(1965~1975년), 4:165.) 언젠가 한번 정부 관리 한 사람이 유타 주 헌법에 대한 경멸을 표하자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응수했다. “말일성도는 그러한 생각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정부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은 곧 파멸인 것입니다. 그것은 폭민 정치이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 우리는 더 이상 … 그러한 정신에 굴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헌법이나 국법을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어떠한 사고 방식에 대하여서도 단호히 대항할 것입니다.”(복음 교리, 366~367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말일성도는 국가에 충성함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고 인간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 왕국에서의 자격과 우리가 사는 국가의 ... 시민이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고, 우리는 태초부터 그랬듯이 계속 성장할 것이며, 미래의 성장은 과거보다도 더욱 커지며 촉진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372쪽)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주법 및 국법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들의 머리가 되고 정의를 행사하며 법을 집행하도록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또한 국가에 충성하고 의와 정직과 명예에 충실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로 인하여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훌륭하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대관장단 매시지, 5:55)

매사에 말일성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 훌륭한 말일성도는 그가 영국, 미국, 화란, 독일, 또는 세상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 훌륭한 시민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가 훌륭한 말일성도라면 자신을 낳아주었거나 그 자신이 고국으로 선택한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 하나님 왕국의 시민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우수한 자들 가운데 우뚝서야 합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 설교," 밀레니얼 스타, 1906년 9월 27일, 610쪽)

저는 시온의 번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시민임은 물론 우리가 거주하는 국가의 ... 시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주 및 우리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 우리는 기꺼이 조국의 전투에 나가 싸웠고, 조국의 명예를 수호했으며, 조국의 훌륭한 명성을 보전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충성할 것을 제안합니다.(대회 보고, 1905년 4월, 46쪽)

만일 애국심과 충성심이 평화로울 때는 정의롭고 절제하고 자비롭고 근면

하고 유덕한 생활로 나타나고, 시련의 시기에는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인내하고 현실적인 혹은 망상에 잡힌 악행에 합법적인 수단으로만 저항하고 국가의 법에 대한 궁극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며, 전시에는 기꺼이 나라를 위해 전투에 나가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질이라면, “몰몬”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애국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대관장단 메시지, 4:150)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간구합니다. 저는 말일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정직하고 올바르고 참되고 성실하다고 알고 있는 말일성도를 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든 최고의 시민이며, 그는 어느 마을, 어느 주, 어느 국가에 있든지 선량한 시민입니다. 실로 그는 최고 훌륭한 시민입니다. 참된 말일성도는 훌륭한 남편이요, 아버지요, 이웃이요, 시민으로서, 모든 면에서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대회 보고, 1910년 4월, 8쪽)

의는 한 나라를 승영에 이르게 함

전형적인 “몰몬” 가정은 가족의 성전입니다 … 이곳에서는 전체적으로 의를 구성하는 도덕적 교훈과 종교적 진리가 가르쳐지며 강조됩니다. 의는 한 나라를 승영에 이르게 하고 누구에게든 불명예스러운 죄를 막아줍니다 … 이곳은 우리의 아들딸이 있는 곳으로서, 여러분은 그들을 어느 경우든 [남과] 구별되도록 할 것입니다. 즉 진리를 존중하고, 연장자를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을 사랑하며, 조국에 충성하고, 법을 존중하며, 세련된 태도를 갖고, 마지막으로, … 마음이 순수하고 행동이 순결하게 할 것입니다. “몰몬”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놓고 그들은 기독교적 덕성이라는 측면에서나 또한 이나라든 다른 어떤 나라의 지역 사회에서든 훌륭한 시민 자격이 되는 여러 측면에서나, 남과 비교될 것이라 말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자화자찬이 아닐 것입니다.(대관장단 메시지, 4:147)

“몰몬 정신”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끈임없이 도덕을 가르치며, 가정의 순수함을 지키고, 권능있는 자와 정부를 존경하며, 교육을 육성하고, 남자와 여자를 고양시키는 우리의 종교는, 범죄를 비난하며, 포악한 행위에 대해 모든 방법으로 맞서 싸울 것입니다.(대관장단 메시지, 4:154)

“몰몬 정신”은 세상의 선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범적인 말일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적인 “몰몬” 어머니 슬하에서 자라 안전한 위치를 가졌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덕과 온전함과 정직과 유능함과 종교적 가르침이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이같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춤으로써,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마태복음 5:16〕 하십시오.(“편집자란: 의회와 몰몬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3년 4월, 473쪽)

주님이 우리 정부를 축복하시고,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분에게 용납될 수 있는 일을 할 권세를 지닌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대회 보고, 1908년 10월, 127쪽)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교리를 고수함

교회 회원들은 거룩한 계시에 의해 다음의 명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국법을 범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국법을 어길 필요가 없으니라.”(교리와 성약 58:21) (*대관장단 메시지*, 4:181)

교회의 율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

“보라, 너희가 저의 손에서 받은 율법은 곧 교회의 율법이니, 이 사실로 미루어 저의 율법을 세상에 들어낼 지어다.”(교리와 성약 58:23)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제정한 규칙이나 법, 혹은 교회가 받은 계시는 어느 것도 국가를 위해 공표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율법과 계시는 오직 교회라는 조직만을 위한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교리를 고수합니다. 즉 교회가 정사에 개입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치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의 독립성과 절대적 자유 원칙을 지지합니다. 만일 어느 때든 이와 같은 교리와 상충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 정착된 교회의 원리와 정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리와 정책상 다음 사항을 지지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절대적 분리; 교회에 의한 국가 지배 금지; 국정에 교회의 개입 금지; 교회의 기능 혹은 종교의 자유 행사에 국가의 개입 금지;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교회 권위로부터의 개인의 절대 자유; 법 앞에 모든 교회의 평등.(*대관장단 메시지*, 4:153)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교회 회원들은 자의에 따라 정당에 소속됩니다 ... 그들은 이런 식 혹은 저런 방법으로 투표하라는 요구 내지는 당부를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그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거부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볼 때, 그들이 국내의 혹은 지상의 어떤 사람 못지않게 매사에 충실하고 이성적이며 잘 교육받았고 정직하며 근면하고 덕이 있으며 도덕적이고 검소하며 합당한 한, 그렇게 거부당할 이유가 없습니다.(“편집자란: 그럴 듯한 이유,”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3년 6월, 626쪽)

우리는 하나님 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현존하는 권력에 순복함

“물론” 교회 표준 경전의 하나인 성경은 지상에 신성한 통치가 확립될 것이라는 예측과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의의 통치가 도래해 전 지구로 확대돼 나갈 것이라는 예언과 약속도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실로 그래야만 합니다. 그 왕국의 전초 단계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 원리와 의식과 권위와 은사는 하늘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하나님 아들의 우주적인 통치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도록 준비하는 힘과 권세를 소유한 영적인 “하늘 왕국”입니다.(*대관장단 메시지*, 4:81)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로 지상에 임하여, 전세계 모든 왕국들이 눈에 보이는 거룩한 제국으로 결집돼, 부활하신 메시야가 그것을 지배하시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물론들”로 하여금 국가 또는 기타 지상의 정부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우리는 신성한 계시에 대한 믿음 또는 하나님 왕국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국가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어느 정도 약화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 거룩한 왕국이 세워질지,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라고 기도하는 여타 기독교인들보다 많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 [교리와 성약 58:22]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는 현존하는 권력에 순복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기에, 국가에 대해 더욱 강한 충성심과 충실함을 갖게 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4:154)

학습을 위한 제언

- 왜 말일성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 충성해야 하는가?(교리와 성약 134:5 참조) 비록 어떤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을 보일 수 있는가?
-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그들이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
- 우리는 시민으로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왜 충실한 말일성도는 “어느 나라 시민이든 최고의 시민이” 되어야 하는가?
- 개인적인 의로움이 어떻게 한 나라를 승영에 이르게 하는가? 개인적인 의로움이 훌륭한 시민됨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의로움은 공직을 추구하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행사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교리와 성약 134:7, 9 참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않는 개인적 자유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이란 어떠한 것이며, 누가 이 왕국에 순종하게 되는가?

어린 아이의 구원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되기 전에 죽는 어린 아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어린이의 죽음에 수반되는 고통과 고독감과 사랑에 대해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린 아이의 구원에 관한 그의 가르침은 영감적이고 거듭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1869년과 1898년 사이에 그는 아홉 자녀의 죽음을 지켜 보아야 했다.

1870년 6월 6일 첫 아이인 머시 조세핀이 죽자,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했다.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딸 아이는 제 마음의 등불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 애가 죽기 전 아침, 그 애와 온 밤을 꼬박 새운 후—사실 전 밤마다 딸 아이를 보살폈죠—그 애에게 말했습니다. 내 귀여운 강아지가 간밤에 안 잤구나.’ 그 애는 머리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잘거야.’ 오, 그 몇 마디 안되는 말이 얼마나 제 마음에 깊게 와닿던지! 저는 비록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말은 곧 죽음의 잠을 의미하는 또다른 소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딸 아이는 잠을 잤습니다. 아, 마침내, 제 마음의 등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제 영혼에 새겨진 천국의 이미지가 거의 떠나갔습니다 … 너는 내 마음에 직접 다가온 하늘의 최고 선물이었다.”(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38년), 456~457쪽)

1879년 7월 6일 조셉 에프 스미스는 자신의 일지에다 딸 론다를 잃은 슬픔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난 그 애를 베개로 받치고 함께 마루를 거닐었다. 다시 생기가 솟아 한 시간 가량 그대로 있더니, 새벽 1시 40분에 내 품에

서 숨을 거두었다. 우리가 얼마나 비통해 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번으로 가족 가운데 다섯이 죽음을 맞았다. 모두들 끔찍히도 사랑하던 아이들이었건만! 오, 하나님, 이 시련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소서!” (진실과 용기: 조셉 에프 스미스 서신, 조셉 필딩 맥콩키 편(발행일 모름), 56쪽)

하지만 그는 구세주의 속죄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무고하다는 사실을 앎으로써 위안을 받았다. 1898년 3월 17일 딸 루스가 죽었을 때 그는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았다. “오, 이것이 바로 천국이네! 저는 그 아이를 반갑게 맞는 내 어머니의 따뜻한 팔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속된] 내 사랑스런 아기의 영화스러운 영을 안아주는 것을 보네. 오, 저의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시현에 대해 감사드리나이다!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도 모두 아버지의 집에 모였으니, 유아처럼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라 성결케 된 영들의 모든 권능과 영광과 위엄 속에 함께 하고 있나이다! 예지와 기쁨과 은총과 진리로 충만하여라.”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463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되기 전에 죽는 어린 아이는 구속받음

복음에서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하고 유아로서 순진할 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구원받으며, 사탄도 그들 지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어떤 사망도 그들을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되며 우리의 첫째 조상의 타락을 통하여 지상에 죽음이 온 것과 똑같이 구원됩니다 …

우리의 사랑하는 벗들이 그들의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낼 때, 비록 그 슬픔은 크겠지만 이는 잠시 동안이며, 그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편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또한 아이들이 죄없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은 하나님의 품안에 안길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과 승영을 받을 것이며, 그들에게 속한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법칙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해 왔으나 자신을 돌보며 인생의 법칙을 이

해하는 데 충분한 예지와 지혜를 갖지 못하고 죽은 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자비와 법칙으로 그들이 육신의 몸으로 살도록 허용되었다면 얻고 즐겼을 모든 것이 차후에 그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아무 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한 생각과 함께 저는 이미 죽은 저의 자녀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로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을 잃었으나 자녀를 잃은 부모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느껴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느껴왔으나 이러한 원칙을 알고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현재 있는 그의 말씀이나 약속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미래에도 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이며, 저의 기쁨은 충만할 것입니다. 저는 제게 합당하게 위임되었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축복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받기에 합당한 모든 은사나 축복을 일시적으로나 영구히 누리겠으며 저는 이 모든 것에 뺏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여 마음속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찌니이다” (욥기 1:21 참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이나 친척, 친구 및 우리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영고 성쇠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어야 합니다. (복음 교리, 411~413쪽)

부활 후 아이의 육신은 영의 크기에 맞도록 장성할 것임

어린 아이가 장사되는 것을 볼 때, 그가 헤아릴 수 없는 영구한 세월을 어린 아이로 지내게 된다면 만족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린 아이는 항상 어린 아이의 상태로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유아로 묻힌 어린 아이는 묻혔을 때의 상태로 부활하여 그때부터 성장하게 된다고 밝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는 날로부터 육체가 자라기 시작하여,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상관없이 그 영의 상태에까지 이르도록 완전히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영혼이 열망하는 바를 소유하였다면, 이것보다 못한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고대의 한 예언자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는 그가 절정의 시기에 오게 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분이라고 선포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가 그 예언자에게 나타나셨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성한 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상은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을 장성한 영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킨 것과 똑같은 형상입니다.(복음 교리, 22~23쪽)

육신을 입으려고 세상에 나오는 모든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며, 육체와 분리된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육신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의 세계에서나 지상의 세계에서 아들이나 딸이 즐길 수 있는 예지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한복음 4:24)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의 육체처럼 만질 수 있는 살과 뼈를 가진 육신을 소유하고 있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와 같으며, 모든 인간은 육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이 이 세상에서 성숙하는지 혹은 다음에 오는 세상까지 기다렸다가 성숙하는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에 의하면 육신은 일시적으로나 영원히 완전한 영의 상태까지 발전하게 되며,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성인이 되게 기르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어도 후에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완전한 결실을 맛보게 함으로써 그런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일을 할 때에는 그 결과에 실패가 없다는 확실한 지식이 따릅니다. 반면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는 그 결과를 모릅니다.(복음 교리, 412~413쪽)

어린 아이의 영은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불멸의 영이었으며, 육신의 사망이 있는 후 영은 그가 오기 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만일 육신의 몸으로 성인이 되도록 자랐거나 육체가 완전한 영의 상태까지 발전했다면, 어린 아이의 영은 그 모습으로써 나타났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자녀를 보게 된다면, 그는 여러분이 알아 볼 수 있는 어린 아이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어떤 중요한 진리를 전하는 사자의 몸으로 나타난다면, 마치 에드워드 헌터 감독의 아들(어렸을 때 죽음)

처럼 완전히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의 아버지에게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헌터 감독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하이람 형제님,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는 그가 어린 아이였을 때 헤어졌는데, 그는 완전히 다 자란 몸으로 그것도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젊은이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저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니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축복사인 하이람 스미스)께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완전히 성장한 상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아이도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완전히 성장된 모습을 갖고 있으며,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같은 모습을 소유하게 되며, 그들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여 부활한 후에도 역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일찍 죽은 유아는 부활시에 어린아이로 나타난다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잃은 어머니를 가리켜 “당신은 부활한 후에 그 영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그의 아들을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후에는 회복과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저의 영혼에 많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러한 원칙이 나타내진 것을 감사합니다.(복음 교리, 414쪽)

죽은 어린 아이는 만사가 형통함

만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에 대한 간증을 받아 왔다면, 이미 죽은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들의 상태를 개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다시 지상에 부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으니, 이것은 인간은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하며, 세상에 퍼져 있는 악에 싸여 있는 한 모험이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미

래의 번영, 행복, 승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책임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복음 교리, 411쪽)

지금과 같이 사별의 슬픔과 비탄에 잠겨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직접적인 위안이 될 말을 무엇인가 해준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와 같은 슬픔은 세월이 가야 하고, 선한 영의 영향력이 비탄에 잠긴 사람의 마음에 임해야 완전히 해소될 수 있으며, 그들은 이에 의해 장래에 대한 희망속에 위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저는 죽음보다 훨씬 심각한 것들이 아주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현재의 느낌과 시각과 이해력에 따라, 저는 내 자녀 모두가 성인으로 성장해 세상의 유해한 관행에 따라 스스로 타락하고, 복음과 하나님을 잊으며, 생명과 구원에 관한 계획을 망각하고, 다가올 세상에서의 영원한 보상과 승영에 대한 유일한 소망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저는 그들 모두가 순진무구한 채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83년 4월 24일, 1쪽)

우리는 충실하면 장막 저편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다시 하나가 될 것임

예언자 엘리야는 자녀들의 마음에 그들의 아비에게 주어진 약속을 심어 주도록 임명된 자였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온 땅이 황폐하게 되도록 저주로 그 땅을 치시지 않도록, 죽은 자의 구속과 자녀들을 그들의 부모에게 매이게 하는 인봉을 위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성전에서 행해질 위대한 사업을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복음 교리, 432쪽)

만일 살면서 진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내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을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우리들이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 통과할 수 없는 심연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 진리 안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영원한 진리의 원리들을 소유하는 가운데 영원한 세계의 보상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며, 영광과 불사불멸과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으로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슬픔 가운데 삶의 여러 부분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잠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장막

저편으로 갑니다. 하지만 먼저 간 사람들을 다시 만나, 영원토록 서로 교제하며 즐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헤어짐은 잠시뿐입니다. 그때는 어떤 권세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권의 권세로 재결합된 이상 우리는 서로 함께 하겠다는 주장, 즉 명백한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상실감, 슬픔, 고통, 어려움, 과부나 고아가 되는 것, 기타 여러 가지 인생의 변천을 겪더라도, 이생에서 잠시 동안 헤어지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분리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테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83년 4월 24일, 1쪽)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과 비슷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과 마찬가지로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때가 이르러 스스로 영혼의 임시 거처인 생명을 가진 몸으로 지상에 오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육신을 가졌으며, 그가 죽음을 맛보았듯이 우리도 죽음을 맛보며,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듯이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들을 만날 수 있고 친척이나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사실임을 저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리고 부지런히 간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해하신 것처럼 저의 기도와 헌신에 대한 응답으로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복음 교리, 388~389쪽)

[하와이 주 오아후의 조셉 에이치 딘 장로에게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쓴 글:] 장로님의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동정심을 표합니다. 저는 어떻게 동정심을 전해야 하는지를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나 자신도 그와 똑같이 가슴 아픈 경험을 해야 했으니까요. 장로님께 글을 쓸까 했지만 스스로 판단해 보고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선 어디 멀고 조용하고 한적한 데로 숨고 싶은 마음만 더 들뿐이죠. 하나님의 시선 외에는 저를 볼 사람이 없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곳에서 나 혼자 하나님만이 아시는 슬픔을 느끼면서요... 세월이 흐르면 위대하신 상처의 치유자께서 내 영혼을 매만지실 수 있겠지요, 저는 장로님도 저와 똑같은 느낌이 드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쓰라린 슬픔의 첫 순간이 지나가고

시간과 운명에 의해 영혼이 달래지고 나면, 동병상련의 슬픔 속에서도 애정 어린 위안의 말이 이심전심으로 심금을 울려 줄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추한 요소들에 어디 한 점 더럽혀지지 않은 채 나아 온 후, 곧 지상에서 불려 간 순진한 어린 아이들은 순결하고 성스럽게 자기들이 왔던 그분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며, 우리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분의 희생에 의해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에서 내 온 마음을 다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합당하게 생활하여 당신이 같이 계시는 집에서 제 천진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진실과 용기: 조셉 에프 스미스 서신, 57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되기 전에 죽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교리와 성약 29:46 참조) 이것은 우리가 어린 자녀의 죽음을 슬퍼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위안과 희망을 안겨 주는가?
- 만일 어린 아이가 죽는다면, 그의 영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이 아이의 육신은 언제 장성할 것인가?
- 어린아이가 자라다가 일찍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녀가 어려서 죽은 의로운 부모에게는 내세에서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 구원의 계획에 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어린 자녀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과 도움이 될까?
- 성전의 인봉 의식은 자녀가 죽는 경우 그 부모들에게 어떤 위안과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죽은 자녀들과 재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애정어린 위안의 말”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에게 어떤 위안을 안겨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면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1860년대의 조셉 에프 스미스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자 브리감 영 대관장의 보좌였다.

신권, 신성한 통치권

신권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축복하기 위해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이요, 권세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는 28세까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평의회의 서기로 봉사하고 있었다. 1866년 7월 1일, 평의회의 정규적인 기도 모임이 폐회되었을 때 브리감 영 대관장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발표하였다. “저는 영이 저에게 시키는 대로 할 때 일이 잘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형제를 사도의 직분에 성임하고 또한 저의 보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부름에 관한 그들의 느낌을 이야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모든 형제들은 “마음에서 우러난 승인”으로 영 대관장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손을 조셉 에프 스미스의 머리 위에 얹었으며,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셉 에프 스미스 형제여, 우리는 그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신권의 권능으로 그대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도와 지상의 온 나라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 성임하노라. 우리는 그대의 머리 위에 이 사도의 직분에 따르는 모든 권능과 권세, 그리고 열쇠를 인봉하노라. 또한 우리는 그대를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의 대관장단의 보좌로 성임하노라. 이 모든 축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신권의 권능으로 그대 위에 인봉하노라. 아멘”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938년], 227쪽.)

1867년 10월 8일, 조셉 에프 스미스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되고 성별되었으며, 이것은 교회의 여러 관리 신권 평의회의

일원으로서 평생에 걸친 봉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50년이 넘는 봉사 기간 동안, 그는 신권 및 교회 행정에서의 그의 경험과 지혜를 통하여 전세계의 교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신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권능임

거룩한 신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여 주신 권능으로, 이 권능으로 인간은 마치 천사가 이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도 있으며, 이 권능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힘을 인간이 갖게 되며, 이 권능으로 인간이 그 권세를 행사하여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되며 또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율법, 경전, 그리고 신성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 그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권능이며, 다가올 미래에도 그분께서 세상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권능입니다. (복음 교리, 5판 [1939년], 140~141쪽)

신권의 권능과 권리와 관련하여 많은 내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 및 조직과 관련된 원대한 원리이며, 이것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에너지와 힘이 다스려져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통치 원리입니다 ...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이 이 지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복음의 소리를 듣는 특권과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특권을 갖게될 때까지 인간의 자녀들이 시온을 건설하고 지상의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그들의 다스림과 인도를 위하여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한 회복하여 주신 권능인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2년 8월 23일, 6쪽)

멜기세덱 신권 또는 성신권은 ... 개개인 또는 교회의 신권을 구성하는 ... 정원회가 적법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입니다. 또는 움직이고, 지시하며, 감독하며, 다스리거나 관리하는 매개체, 권리 또는 권능으로 신회에 주어진 것으로, 주님의 가르침과 교회로의 가입, 영적 및 물질적 인도, 통치와 승영을 목적으로 인간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복음 교리, 170쪽)

주님께서서는 이 지상에 신권을 충만하게 … 하늘로부터 온 직접적인 계시와 계명으로 세우셨습니다 … 그분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고, 인간의 지혜와 학식, 그리고 이해를 초월하는 질서 또는 통치 체계를 제정하셨는데,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간의 마음이 거룩한 신권의 아름다움과 권세, 그리고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신권의 작용과 신권의 정당한 권능, 신권의 범위 및 권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보이지만, 영의 빛에 의해 그것은 쉽게 이해됩니다.(복음 교리, 38쪽)

인간이 아무리 불완전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권능의 옷이 입혀져 있어, 이 권능으로 그들은 아버지과 아들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으며, 그들이 그분의 종으로서 그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그의 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들이 말한 것을 존귀하게 여기시어서 이를 성취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분께서 주신 권능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 물론 모든 것들이 의로운 가운데 행해져야만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존귀하게 여기실 것을 불의하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하시는 것처럼 틀림없이 그 일을 인정하실 것입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2년 8월 23일, 6쪽)

그 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분의 신권을 조직하셨으며, 어떤 특정한 개인들과 평의회 및 정원회에 권능을 부여하셨기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실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복음 교리, 42쪽)

비록 신권이 남성에게만 부여된 것이나,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그 축복을 받게 됨

신권은 본래 족장의 반차에서 행사되었습니다. 그것을 지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권세를 부권의 권리로 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순종을 가장 먼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창조자라는 사실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 거룩한 신권을 지닌 사람은 그분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사람이 권능이 없이는 그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명과 성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러한 영예는 그분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권세를 주시는 계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 그 영예를 갖지 못합니다.(복음 교리, 147쪽.)

족장의 반차는 신성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계속될 것입니다 …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서 이 반차와 권능을 이해하여야만 하며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하여 의도하신 바, 곧 그분의 자녀들이 가장 높은 승영에 이르도록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는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복음 교리, 258쪽)

남자가 신권을 통하여 어떠한 영예나 특권, 또는 영광을 얻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모든 영예는 그 아내의 영예이며, 또한 그의 축복은 그 아내의 축복이며, 그의 영광은 그 아내의 영광인데, 이는 그들이 서로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11:11]. 다르게 표현하면, 남자는 여자 없이는 영광이나 영예 또는 승영을 얻지 못하며, 여자도 남자 없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두 존재가 서로를 보완하여 온전한 하나를 만드는 관계입니다 …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남자도 행하여 같은 수준의 탁월함과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신권이 남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 남자가 … 신권의 권세와 영예가 부여된 직접적인 대상이며, 신권이 작용하는 활동적인 매개체인 반면에 여자는 그 유익과 축복, 권세, 권리, 특권을 남자를 보완하는 존재로서 남자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 남자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권세가 여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권세가 남자에게 주어지지도 않습니다.(수사 영 게이트에게 보낸 편지, 1888년 7월 7일, 진리와 용기: 조셉 에프 스미스 서한집. 조셉 에프 필딩 맥콩키 편집, 11~12쪽)

비록 신권의 권능을 지니고 있는 남자들이 우두머리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여겨지고 있기는 하지만, 남자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만큼 여자도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더 나아가 우리가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또한 여자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이는 여자가 남자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 인류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전 6권 (1965~1975), 제 5권 80쪽.)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신권의 열쇠가 요구됨

일반적으로 신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권능입니다. 신권의 어느 직분에라도 성임된 모든 사람은 그에게 위임된 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능 아래 수행되는 모든 행위는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질서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시하는 권세가 신권의 열쇠를 구성합니다. 한 시대에 오직 한 사람, 곧 예언자이자 교회의 대관장만이 충분한 가운데 열쇠를 지니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 권세의 일부를 위임할 수가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사람은 그 특정한 일에 관한 열쇠를 지니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장, 스테이크 부장, 와드의 감독, 선교부장, 정원회 회장은 각각 그 특정 조직체 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은 이러한 특별한 지명에 의하여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장로 정원회의 회장이 그 정원회의 회원 보다 더 큰 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 정원회에서 일어나는 공식적인 일을 지시하는 권세, 다시 말하면 그 사업의 그 부분에 대한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125쪽.)

대관장은 하나님의 대변자이며, 계시자이며, 번역자, 선견자, 그리고 전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이 거룩한 신권의 열쇠 — 하나님의 성전의 문, 그리고 산 자의 구원과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집의 의식의 문을 여는 열쇠를 지니고 있는 이가 바로 그 분이십니다.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서 정식으로 권능을 받고 임명

된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인봉의 권세를 가진 이가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신권의 반차입니다.(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7년 4월 27일, 1쪽)

신권은 사랑의 율법으로 다스림

주님께서서는 조직에 관한 위대한 원리를 계시하여 주셨는데, 이것으로 그분의 교회가 다스려져야 하며, 이 원리를 주님께서 친히 교회에 세워 주셨는데, 그것은 거룩한 신권의 권능이며, 대신권의 권능이며, 사도와 칠십인, 그리고 장로의 권능이며, 그 다음으로는 소신권의 조직으로 감독, 제사, 교사, 그리고 집사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교회에 이러한 조직들을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해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주님께서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데 필요한 가르침과 권고, 인도, 계시, 그리고 영감을 위하여 이러한 조직에서 유익한 것들을 갖고, 따라서 그들이 생활에서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대회 보고, 1911년 10월, 7쪽)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참음과 참된 사랑, 또 선한 뜻에 의해 행동의 동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체 조직은 자율의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양보의 원리 그리고 잘못 행하기 보다는 잘못을 기꺼이 참아내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땅에서는 평화요, 인간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 참된 사랑, 그리고 용서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연관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이 지배하는 교회이기는 하나, 그 율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복음 교리, 131쪽.)

어느 누구도 억압받아서 안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정도든지 간에 불의하게 신권의 권능을 행사하고 사용할 수가 없으며, 그렇게 할 경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서는 안됩니다.(복음 교리, 136쪽.)

교회에서 권능을 지닌 직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버지와 같은 마음, 형제와 같은 마음이 담긴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통치자나,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독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비난과 부당한 비판이 아니라, 친절과 거짓없는 사랑, 온유한 영, 설득과 모범을 보여 그들이 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음과 신뢰, 그리고 사랑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과 그들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의로움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행하는 말과 교훈과 모범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칩니다. 제가 우리의 머리되시는 분을 따르듯이 저를 따르십시오.(복음 교리, 137쪽)

거룩한 신권의 권세와 권능을 존중함

우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회복된 거룩한 신권을 받아들이고 또 존중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진리를 옹호하고 또 교회를 지지하며, 지식과 선행, 주님의 목적에 충실함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을 발전시키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합당하게 다스리는 데에 필수적이며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다스림, 우리 가족의 다스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물질적 및 영적인 문제의 다스림에 대하여 필수적입니다.(대회 보고, 1912년 4월, 9쪽.)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거룩한 신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부여하여 주신 권세와 권능을 존중하십시오. 그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그 신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위임된 신성한 권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 하나님의 아들의 신권은 어떤 정도든지 간에 불의하게 행사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권세, 덕, 그리고 권능은 타락하고 영혼이 하나님과 그 이웃을 향하여 충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 하늘에서 요구하시는 바에 따름으로써 신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

람에게는 그 힘과 권세가 머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복음 교리, 145쪽.)

여러분은 이 신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 신권을 지니고 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집행할 권리와 권능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 대해 가지고 계신 소망과 사랑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열쇠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주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것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복음 교리, 149쪽)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신권을 스스로가 존중하게 되면, 여러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회 내에서 다양한 부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닌 신권을 여러분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149쪽)

말일성도와 말일성도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륜의 시대에 하늘에서 계시된 권능의 이러한 신성한 원리를 가버이 여기는 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이며 또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하게 지녀야만 합니다. 무릇 그것을 지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책임이라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또 존경해야만 합니다. 청남과 청녀,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원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 그것이 신성하며, 소홀히 여기거나 가버이 언급하면 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권능을 경시할 때 어두움과 배도로 인도되며 하나님의 집에서 받는 모든 권리와 특권에서 단절됩니다. 이는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리고 모든 신성한 장소에서 복음의 의식이 집행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없이는 그러한 의식들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권능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 권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능에 합당하게 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된 은사에 합당하게 되도록 생활해야 합니다.(복음 교리, 129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신권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신권의 권능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는가?

- 우리는 어떻게 “신권의 작용을 이해” 할 수 있게 되는가?
- 하나님에게 속한 남자와 여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신권의 축복과 권세, 그리고 특권을 취하게 되는가?
- 신권은 여러분의 생활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가? 신권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가?
- 신권의 열쇠란 무엇인가? 그것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가?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누가 이 열쇠를 지니고 있는가?
- 신권 소유자는 어떤 영으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가? (교성 121:41~46 참조) 신권 소유자가 “거짓 없는 사랑”과 “온유함”을 보여 줄 때, 그는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
- 우리는 어떻게 신권을 존중하고 또 그것을 신성하게 지닐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 신성한 권능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는가?
- 신권 권능을 행사하고 또 존중하는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세주의 모범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림 : 칼 블로흐,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구세주께서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4:5~30 참조)

생명과 구원의 위대한 계획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승영을 누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주셨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1874년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에 도착한 직후 36회 생일에 즈음해서, 조셉 에프 스미스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축고, 을씨년스럽고 쓸쓸한 날씨는 내가 태어났을 때의 어두운 시기에 딱 어울리는 날씨였다. 당시 부친 하이람과 삼촌 요셉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었고 성도들은 무자비한 폭도들에 의해 미주리에 있는 그들의 거처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내 영혼의 밝은 햇살조차도 그 파란만장한 시절의 우울하고 음침한 기억에 의해 내 영혼에 드리어져 있던 어두운 그늘을 완전하게 털어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그분의 부드러운 섭리는 뚜렷하게 나의 어린 시절부터 펼쳐졌으며, 나의 나날은 겸손, 그리고 지혜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더욱더 좋아졌다. 시간이 흐르고 또 경험이 쌓임에 따라 내 인생의 목적이 점점 더 명확해져 갔다.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거나 또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다. 영혼의 구원, 그리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가족의 구원이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일기, 1874년 11월 13일, 프란시스 엠 기번스의 조셉 에프 스미스: 축복사, 설교자, 하나님의 예언자에서 인용함 [1984], 98쪽.)

지식과 확신으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 가르치고 증거하였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생명과 구원의 위대한 계획만큼 저에게나 인간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복음 교리, 제 5판 [1939], 10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승영할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음

전능하신 주님께서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물의 근원을 만드셨으며, 그분의 자녀이며, 소산인 우리는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오도록 계획하셨으며, 또 우리의 존재 목적도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그분처럼 되며,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순수한 예지로 가득 차 그분과 같이 우리가 승영하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우리가 부름을 받아 행할 천체에서 통치권과 권세를 지니게 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리에 대해 증거를 드리는데 이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 진리를 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알고 또 느끼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복음 교리, 5쪽)

인간은 그가 이 생에서 행하였던 행위에 대하여 오는 생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곳에서 그에게 맡겨졌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신 우리 영의 아버지와 우리의 주님 앞에서 답변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분의 위대한 목적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몇 달 또는 몇 년간 살기 위해 온 것도 아니며,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다가 죽어 세상을 떠나 멸망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서는 결코 이와 같이 인간이 짧은 기간 동안 헛되이 불완전하게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복음 교리, 21~22쪽)

우리가 이곳에 와야 할 필요성, 육신을 얻어야 하는 중요성, 후손에게서 성취되어야 할 영광, 신성한 속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우리가 부여받은 자유의지등을 행사하면서 저울에 달린 듯이 시련과 시험을 거쳐 얻게되는 원대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만물 보다 낮아진 후에 만물 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으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만형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상에 오기 전에 알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결코 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복음 교리, 12쪽)

태초에 하늘에서 계획되어 인자가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영감을 통하여 시대에서 저 시대를 통해 전하여져 내려온 생명과

구원의 위대한 계획만큼 저에게나 인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이는 이 복음과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첫번째 부모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구속의 계획, 그리고 신성한 권능에 의해 인간의 자녀들에게 시대를 통하여 계시된, 사망과 죄로부터의 구원의 계획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으며, 그것은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거기에는 중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빼버려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들의 구원 및 승영을 위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이들의 지혜로 고안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온 세대를 통하여 같은 복음, 생명과 구원의 같은 계획, 같은 의식,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세상의 죄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바쳐져야 하는 위대한 희생을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때로부터 이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전하여져 내려왔습니다.(복음 교리, 10쪽)

그것은 오는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 말일에 전능하신 분께서 인간에게 회복하여 주신 생명의 계획인데, 이는 주님께서 이 백성이 이 생의 축복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오는 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반드시 구원받도록, 그들이 죄와 그 영향 및 결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기초를 여기에서 반드시 놓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 눈물의 계곡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복음 교리, 66~67쪽)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종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으며, 친히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들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에게 계명과 율법, 복음,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 이 계획은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 뿐만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원리에 대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게될 승영, 영광, 권세 및 지배력을 담고 있습니다.(대회 보고, 1909년 10월, 3쪽)

우리는 영생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기 위해 지상에 왔음

지상에서의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갖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며 [로마서 8:14~17 참조], 하나님에 대한 왕과 제사장이 되며, 영광과 지배력, 승영, 보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니시고 발전시키신 모든 권세와 속성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승영의 위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상 생활의 경험 또는 시험의 나날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만형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합당성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복음 교리, 399쪽)

이곳에서의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지상에서 의를 행하고, 사악함을 정복하여 우리의 발 아래 놓으며, 죄와 우리 영혼의 대적을 정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과 보여주신 그분의 영감으로 빈약하고 타락한 인간성이 지닌 불완전함과 약점을 극복하며, 나아가 지상에서 주님의 참 성도와 종이 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223쪽)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존재의 끝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존재하였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에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영은 이 시험의 나날을 거치면서 얻은 추가적인 잇점을 가지고 과거에 그랬던 것 처럼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와서 우리 위에 육신을 입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것 같이 무덤 밖으로 나오며, 또 그분께서 하신 것 같이 불멸의 몸을 얻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육신이 불멸의 것이 되었던듯이 우리의 육신이 불멸의 것이 되어야 하며, 또한 영과 육신이 다시 결합하여 살아있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의 존재가 되기 위함입니다.(복음 교리, 30~31쪽)

제가 이 존재의 단계에서 떠나게 되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준 모든 은사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허락받는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충실하다면, 저에게 기쁨을 주며 저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계획되거나 의도된 것으로 어느 한 가지라도 제가 받지 못할 것이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 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을 영원히 갖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영원히 인정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복음 교리, 60쪽)

주님께서 이 시대에 계시하여 주신 복음의 원리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며, 이 지구가 창조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어리석음을 극복하기 위함이며, 미래에 있을 영생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

그러므로 충실하고 겸손합시다. 그리스도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며,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 그리고 육신의 약점을 버리며, 온 사랑과 충심으로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충만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매달리며, 끝까지 계속하여 굳건합시다.(복음 교리, 78쪽)

우리가 존재하는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지는 것임

저는 구세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살아계신 변함없는 모범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그분께서 행하신 사업을 행하라는 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머리되시는 이를 따른 것과 같이 우리는 그분을 따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어,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복음 교리, 12쪽)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어떻게 잘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흠없이—결점이 없고, 순수한 육신으로 머무셨던 그분의 형상과 일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모범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완전성의 표준,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순종에 대한 표준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복음 교리, 241~242쪽)

이제껏 예수님의 교리보다 완벽한 교리는 없었습니다. … 그분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이 생에서 겪게 되는 질곡의 모든 여정을 거쳐 그분의 왕국에 있는 결코 끝이 없는 승영과 영광, 그리고 그곳의 새로운 생활로 이르는 구원

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

참으로 영혼을 만족시키는 이러한 간증을 받고, 안식을 취하고, 평안에 이르는 길을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찾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공정하고, 자비로우며, 용서하고, 인간의 영혼을 발전시키도록 계획된 모든 선한 행동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는 말씀이 인간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주는 그분의 외침입니다.(복음 교리, 118~119쪽)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모범이 되시며, 그분께서 인간의 구속주가 되도록 예임되었던 것 처럼 인류도 그분과 같이 되도록 예임되었다고 믿습니다 …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수도 있으며, 지식과 예지, 지혜와 권세를 지니는 면에서도 그분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오게된 원대한 목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함인데, 이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복음 교리, 16~17쪽)

하나님의 아들을 따릅시다. 주님을 우리의 모범과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그분을 닮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사업을 행하십시오. 완전하셨으며 죄가 없으셨던 그분처럼 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그분처럼 되십시오.(복음 교리, 180쪽)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승영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하늘 아래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복음 교리, 3쪽)

이 시험의 나날을 거치고, 충실하여 복음의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에서 구속을 받으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은 사람은 천사들보다 작은 자가 아니라 더욱 큰 자들입니다.(복음 교리, 17쪽)

우리는 무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에 동의하여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결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끝날까지 계속될 영원한 성약입니다 … 우리가 영원이라는 끝없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의무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아무런 즐거움이나 의무감이 되지 않을 때를 이 현세에서와 영원에서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락을 취하고, 그분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원리에 입각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우리의 왕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방법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은 그밖의 다른 방법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복음 교리, 188쪽)

하나님께서 가르키신 길 이외에서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야고보서 1:17]신 생명의 아버지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영생에 대한 소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과 승영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걱정과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복음 교리, 460쪽)

모든 축복, 특권, 영광 또는 승영은 이와 같은 것들이 약속되어 있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얻어지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율법을 따르면, 그에 따른 보상을 얻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기초하여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복음 교리, 401쪽)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처음에는 완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않으셨으나, 은혜에 은혜를 받으셨으며, 계속하여 더 많이 받으셔서 결국에는 충만함을 받으시었습니다. (교성 93:11~13 참조) 인간의 자녀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합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충만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예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이른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않으셨으나, 신앙과 지식, 이해력과 은혜가 증대되어, 충만함을 받으시었다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조금씩 조금씩,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받아서, 예수께서 충만함을 받으신 것처럼,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분과 함께 승영에

이르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복음 교리, 63쪽)

저는 지금이나 이후로나 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구원 다음으로는 저의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얻게 해주는 것으로 이 지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희생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수고이며, 영생을 얻기 위한 겨냥이며, 충만한 기쁨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 그가 곧 부자”(교리와 성약 6:7) 입니다.(조셉 에프 스미스가 한 아들에게, 1907년, 조셉 필딩 스미스 편,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에서 인용 [1938], 454쪽)

학습을 위한 제언

-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이는 누구인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가?
- 이 지상에서의 우리 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활에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 주님께서는 왜 모든 경륜의 시대에 이와 똑같은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여 주셨는가? “오는 생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반드시 구원받도록” 복음 계획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가?
- 어째서 우리는 모두 육신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교리와 성약 93:33~34 참조)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육신을 사용할 수 있는가?
- 어떤 방법으로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 되시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현세와 영원에서 당면한 의무가 되는가? 주님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의무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가?
- “은혜에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교리와 성약 93:12 또한 참조).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조금씩 조금씩,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받아서” 더욱더 구세주처럼 성장하여 왔는가?
-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여진 희생이라면 어떤 희생도 헛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숙과 순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결케 되고
결혼 성약의 신성을 존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1875년 유럽 선교부의 선교부장이었던 조셉 에프 스미스 선교부장은 순결의 법을 깨뜨린 한 선교사를 해임해야 했을 때 몹시 슬펐다. 그는 그 젊은이가 겪은 후회와 비통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선교 사업을 거의 마치거나 또는 평생을 명예롭게 그리고 충실하게 생활할 수도 있으나, 마지막 순간에, 그 한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엮고 또 파멸시키며 인생이라는 컵 속의 달콤한 모든 것을 쓰디쓴 참혹함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은 다름아닌 단순한 범죄 행위, 또는 범죄, 또는 어리석음, 또는 실수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스미스 선교부장은 그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도록 도움을 주신 주님의 보호의 손길에 대한 자신의 감사함을 이어서 깊이 생각하여 보았다. “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굽어 살피주셔서 … 세상의 치명적인 죄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제 자신의 약점과 실수하기 쉬운 상황에서도 저를 보호하여 주시며 크나큰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는 “동료들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진리에 대한 정직한 자부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사랑”으로 생활할 수 있음을 기뻐하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제 자신을 위하여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잘못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 편집 [1938년], 450~451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순결은 지상의 사람들에게 힘과 권세를 가져다 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이 이 세상을 내려다 보고 계심과 이 지상에 엎드려 있고, 실수하며, 연약한 그분의 자녀들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의해 이곳에 왔으며 우리가 일시적인 기분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는 필멸의 몸이 갖는 열망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음을 믿습니다.(복음 교리, 제5판 [1939년], 281쪽)

개인적인 순결과 합당한 생각은 ... 모든 합당한 행동의 기초입니다. 저는 모든 젊은이들이 이런 관습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와 젊은 시절을 주님께 봉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장, 발전, 진보, 자존심, 존경, 사람에 대한 존경과 찬양이 젊은 시절의 그러한 진로에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놀라운 모범을 세우셔서 일찍부터 아버지의 사업에 관여하셨습니다 ... 예언자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순수함과 자존심으로 스스로를 훌륭하게 준비시켜 하나님의 속삭임에 파장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복음 교리, 302쪽)

순결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힘과 권세를 가져다 주는 이유에는 분명히 인간의 지성을 넘어 그보다 높은 차원의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복음 교리, 246쪽)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필멸의 생에서 하나의 표준이 있음을 믿습니다. 만일 생활에서 순결이 소홀이 여겨진다면, 마치 홍수를 조절하는 수문이 열렸을 때의 강물처럼, 모든 다른 위험이 우리에게 밀려들 것입니다.(복음 교리, 282쪽)

성적인 죄의 사악함을 엄숙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대수롭게 얹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가증한 일이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옥의 문처럼 이것을 피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죄가 낳은 사악한 결과는 부도덕, 범죄, 비참함, 질병의 면에서 너무도 명백하여서 남녀노소

로 막론하고 그것을 인지하여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세상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 남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증오하고, 피하며, 그중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행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는 그것들이 사람을 연약하게 하고, 힘을 빼앗으며,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며, 그리고 사람이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또 하나님의 면전에 있기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복음 교리, 247쪽)

우리는 성적인 죄가 개인적인 범죄의 범주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우리는 “간음하지 말찌니라” [출애굽기 20:14]라는 말씀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나 마음에 간음하는 자는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요, 신앙을 부인하며”(교리와 성약 63:16)라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복음 교리, 279쪽)

많은 육체적인 질병과 같이, 성적인 범죄도 다른 많은 일련의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과음이 육체에 미치는 결과로서 육체 조직을 퇴화시키고, 치명적인 기능 장애가 따르며, 그래서 이에 따라 올 수 있는 심신이상에 대해 육신을 민감하게 만들며, 이와 동시에 저항력을 떨어뜨려 심지어는 치명적인 결핍증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부정이라는 것도 영혼을 다양한 영적인 병폐에 노출시켜, 영혼에서 저항력과 회복력을 빼앗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간음한 세대는 그들에게 가르쳐지는 진리에 귀기울이지 않았으며, 가슴과 마음에 병이 든 상태로 표적을 구하고 또 구원의 메시지 보다는 의미없고 쓸데 없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4) (복음 교리, 279쪽)

부정은 범법을 한 사람에게 그 형벌을 부과할 뿐만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 형벌을 삼대 사대까지 뻗치게 하며, 또 범법자를 파산시킬 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그 직계 가족 관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연루시키고, 가족의 유대를 분열시키며, 부모의 가슴을 상하게 하며, 그들의 생활을 깊고 크나큰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복음 교리, 303~304쪽)

순결의 법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자녀에게 지극히 중요한 것임

순결의 법은 자녀들이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들 생활의

모든 것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주신 순결의 법, 미덕과 순수의 법을 범하는 것에 대해 두려운 형벌을 부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시행이 되면,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순결하지 않고 또 더럽고 흠있는 사람은 잘리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이 순결하며 순전하고 또 흠없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남성이 그러한 여성 만큼이나 순결하고 또 유덕한 것 역시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복음 교리, 245쪽)

나쁜 행동이나 어리석음을 범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야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질책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 사람이 전 생애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기 보다는 뒤늦게라도 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만 … 인생에서 뒤늦게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행동과 죄를 회개하는 것은 후회와 고통이 따릅니다.(복음 교리, 303쪽.)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 사회에서 남자 보다는 여자에게 더 엄하게 정죄되고 있다는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이러한 매우 사악하고 비겁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이 아니라 어떤 구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의 범법은 그 보응을 받는 것이 확실한데 그것이 즉시 나타날 지 아니면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날 지 모르지만 고통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의 비행으로 인한 죄의 결과에 있어서 남성은 몇 배의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은 고상함과 덕을 거스린 죄 그리고 그 범죄에 참여한 약자에게 종종 뒤집어 씌우기도 한 짐에 대한 책임을 대부분 지게 됩니다 …

우리는 고대의 예언자 니파이가 말한 “나 주 하나님은 여인의 순결을 기뻐함이라. 음행은 내 앞에 가증하도다. 만군의 주가 이르시니라.” (야곱서 2:28)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확언으로 받아들입니다.(복음 교리, 278쪽)

우리는 매음 행위와 온갖 형태의 부도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높이는 바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라도 부도덕을 행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적인 부도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극악무도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온갖 방법의 추행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바입니다.(복음 교리, 281쪽)

우리의 결혼 서약은 가장 신성한 것임

이성간의 합법적인 성적 결합은 종족 보존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보다 높은 기능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사랑으로 영감받은 동반자 관계만이 보증하여 줄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보다 고귀한 특성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에 관하여 경전에 나타난 거룩하신 뜻과 계명은 명확합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아니며, 따라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니라”라는 명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18, 24 참조)

결혼 생활이 영예로운 것이라는 개념은 고대의 사도가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실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4 참조) …

성적인 결합은 결혼 상태에서 합법적인 것이며, 그리고 만일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함께 한다면, 명예롭고 또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결합이 없다면, 성적인 방종은 인격을 타락시키는 죄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배적인 악인 부정”,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7년 6월호, 739쪽)

오늘날 사악함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문명 사회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하나의 큰 원인을 들자면 결혼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시야에서 결혼의 신성함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기껏해야 사회적인 계약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더 심하게는 우연한 일 또는 일시적인 충동, 또는 열정을 만족시키는 수단 정도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약의 신성함이 무시되거나 또는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대다수 세상 사람들의 현재와 같은 도덕적 상황에서는 결혼 서약을 경시하는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복음 교리, 246쪽)

결혼 서약을 저버리는 것은 그에 부수되는 수많은 해악을 끼쳐 결국은 이혼의 원인이 되며, 여러 면에서 수치와 불명예로 아무 죄가 없는 자녀들에게도 불행을 안겨주게 됩니다. 간음의 끔찍한 결과는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졌거나 또는 죄스런 비밀을 외투 밑에 살짝 가려 놓든, 그 결과는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육신을 입기 위해 이 지상으로 오는 불멸의 영은 성적인 부도덕이라는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부모를 통하여 건전하게 태어날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복음 교리, 278쪽)

순결을 범하는 범죄는 신성한 성약을 깬으로써 증가됨

기존의 율법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순결의 법을 실제로 범한 외에도, 분명히 성약을 범할 때는 이중 위반에 대한 형벌이 이 세상이나 또는 다가오는 세상에서 그에 상응하여 커질 것이며 또 더욱 가혹할 것입니다.(복음 교리, 280쪽)

녹색에는 다른 어떤 색상 보다도 더 많은 색조가 들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나쁜 행동 보다도 성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관계와 연관된 죄에 더욱 많은 등급이 따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순결을 범하는 죄는 대부분 중대한 범법에 포함되나,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죄는 신성한 성약을 깬으로써, 심화되며, 때로는 여기에 기만, 협박, 또는 실제적인 폭력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은 비난을 받고 없어야 마땅하지만, 약혼 상태에 있는 한 젊은 한 쌍이 방심하는 순간에 미처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죄에 빠져버린 경우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 신성한 성약을 맺고 자신의 이웃에 있는 한 여인의 정조를 교활한 술책이나 완력으로 빼앗으려는 비열한 의도를 성취한 사람의 범법 사이에는 그 의도와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있어 그 의도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결과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 [성약을 맺은 그 사람의 경우] 에는, 다른 사람들도 피해막심하게 관련되게 되며,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아무 죄없는 사람들도 비애를 맛보게 되며,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전체적으로 보아, 잘못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는 물론이고,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경우에 그것들을 원상태로 회복하거나 올바르게 만드는 것은 범법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복음 교리, 278~280쪽)

복음은 순결의 법을 준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줌

순결을 원하지 않는 자는 부도덕하고 또 참으로 사악한 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순결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순결하고 정숙하며, 선하고 참되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부도덕하고 또 사악한 사람들의 가슴에도, 적어도 가끔씩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영혼 속에 심어져 있는 신성의 불꽃이 여전히 가지지 않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들을 선으로 인도하며 또 선한 것을 사랑하도록 애쓰는 신성한 영감을 단지 흘끗 쳐다만 볼 정도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 선하고 순결한 것을 보고도 그것에 대한 모든 생각과 칭송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선하고 순수하게 될 수 있다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타락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설사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악에 대해 자포자기하여, 스스로 기회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으며, 회개가 있는 곳에는 용서의 기회가 있습니다.(복음 교리, 25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성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질병에 대해 만병 통치약이며, 성적인 죄가 주는 무서운 고통에 대해 특별히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배적인 악인 부정”, 743쪽)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침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물의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났으며, 물과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또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외설적인 것을 피하고, 부도덕한 것을 그치고, 성적으로나 또는 다른 면에서 모독적인 것을 그치며,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진리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다면, 여러분께서는 높임을 받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이러한 계명들을 확실하게 준수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앞에 내세우실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여러분이건 또는 다른 사람이건 관계없이,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것이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도할 것이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상의 나라들 앞에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봉인을 그들 위에 놓으실 것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간증입니다.(복음 교리, 281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주님께서 주신 순결의 법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순결은 사람들에게 “힘과 권세”를 가져다 주는가?
-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인 순결과 합당한 생각”을 우리 안에 키울 수 있는가? 개인적인 순결이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가?
- 순결의 법을 범하는 것이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다음으로 첫째가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앨마서 39:5 참조)
- 순결의 법을 범하였을 때 따르게 되는 “다른 많은 일련의 질병”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가? 순결의 법을 범하는 것은 범법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가?
-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온갖 방법의 외설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 어떠한 목적으로 “이성간의 합법적인 성적 결합”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가?
- 결혼 생활의 신성함을 소홀히 하는 것은 왜 “가증함의 홍수가 문명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현상의 “큰 요인”이 되는가?
- 순결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신성한 성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이중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가? 이러한 이중 범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 자신을 순결하게 하며 또 순결의 법을 준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가?

절약, 번영의 기초

우리는 빛을 청산하고 부를 저축해야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욱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1918년 조셉 에프 스미스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항상 무일푼”이었던 자신의 젊은 시절에 크리스마스 때에 있었던 경험을 회상하였다. 그는 결혼 초기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 당시 어떤 사람에게도 빛을 지지 않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였단다.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정말로 부지런히” 일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아이들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밖으로 나갔다. “나는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또 그 크리스마스 날을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날로 만들어 주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돈이라고는 단 한 푼도 없었지. 나는 큰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며 상점 진열장을 들여다 보다가 …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앉아 그만 어린 아이처럼 쏟아지는 슬픔이 마음의 고통을 덜어줄 때까지 흐느껴 울었다…”

“그러한 시련을 겪은 후에, 내 인생의 길은 보다 순탄하여졌다. 나는 상황을 개선시키기 시작했으며, 열심히 일하고, 엄격히 근검 절약하고, 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형편이 크게 나아졌다.” (“편집자 후기 : 비망록 - 조셉 필딩 스미스”,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9년 1월호, 266~267쪽)

스미스 대관장과 가까이서 일하였던 찰스 더블류 니블리 감독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분은 항상 지출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 그분은 부채를 싫어하였으며 또 마지막 한 푼까지도 채무를 그토록 신속하게 갚는 사람을 저는 이제껏 보지 못하였습니다. … 그분은 부채를 단호하게 반대하였으며,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그런 면에서 연관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 스스로도 자신

의 개인적인 일로 빚을 지지 않으려 하셨으며, 그분은 ‘물건값을 즉시 치루어라.’라는 오래된 격언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찰스 더블류 니블리, “회고”, 복음 교리, 제 5판 [1939], 467쪽)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면서 복음의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구원하고 또 그들을 이곳에서 번영케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종교는 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또 다가오는 세상에서 승영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일성도들의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몰몬교의 진실”, 서부: 신구 태평양 시대의 잡지, 1905년 9월호, 242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빚을 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자유롭게 될 것임

이제, 저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바는 바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버는 것 이상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빌리고, 자신의 집과 농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저당잡혀서 이웃에게 생활이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길치장 꾸미기에 급급하며 또 자신의 사업을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용 대부로 경영하면서 서로 경쟁을 해왔습니다...

... 적어도 자신의 걸을 최소한 우리의 이웃과 같게 보이려고 재물을 빌려온 이들이 ...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고, 나아가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얼마간의 돈을 저축하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대륙에서 가장 독립적인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저는 우리가 1달러 가치의 상품을 살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1달러를 내든지 아니면 일 달러 가치의 다른 물건을 내는 것을 ... 보고 싶고, 그리고 가정에서 불편함이 없이 또는 우리와 자녀들이 저당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신용대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족쇄를 그 자신과 그 가족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

부채에 빠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장잡히고 또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큼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행복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껏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입에 따라 생활하여



경제적인 자립심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척자 성도들은 ZCMI와 같은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야 하며, 우리가 진 빛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기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뒤따라 쌓을 수 있는 기초를 놓아야만 합니다. 제가 세상의 재정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리타분하고, 진보적이지 못하고 또는 이와 유사한 비난을 공공연하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멸적인 별명들이 자신의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할 것을 감히 말씀드리는 저에게 이처럼 경멸적인 언사를 퍼붓고 있습니다. … 때때로 우리는 불가피하게 부채를 져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저의 자녀들이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속박의 상태로 되는 것이 현재의 세대 또는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믿어 본 적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주간 *테저렛*, 1893년 8월 19일, 282쪽)

만일 빛을 지는 해악이 … 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말일성도에게 아주 분명하게 인식된다면 그 결과 시온에는 얼마나 축복된 상태가 임하겠습니까! 참으로 저당의 부담과 이에 수반되는 불행이 단지 돈을 위해서 자기의 집이나 토지를 저당으로 제공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의 속박과 끔찍함을 일이 끝난 후에 확실히 느끼게 되는 만큼 그 행위가 있기 전에 철저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복음 *교리*, 277쪽)

번영의 시기에 … 말일성도들이 부채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저는 저의 형제나 이웃, 또는 사업상의 거래자들에게 진 저의 채무를 지불하기 위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먼저 주님께 진 저의 채무를 갚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이웃에게 빚을 지고 있었을 경우, 제가 주님께 대한 저의 정직한 책임을 충족시킨 후에야, 이것을 무시한 채로 이웃의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빚을 갚을 수가 있었고, 여러분도 이와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번영하기를 바라고 또 자유로운 남자와 여자가 되며 자유로운 백성이 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올바른 책임을 완수하고 그 후에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을 충족시켜 주십시오.(복음 *교리*, 232쪽)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경제적이 되는 것을 연구하고 또 절약을 실천할 때이며, 또 빛에서 스스로를 자유케 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백성이 될 때입니다. … 만일 우리가 말일성도로서 오직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우리의 부를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반전될 것이며, 우리의 수고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땅은 풍요롭게 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며 또 그것으

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총을 그분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비용을 줄일 때입니다. 지금은 낭비를 대폭 줄이고, 세상적인 작은 즐거움도 억제할 때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을 보이도록 합시다. 서로를 비난하지 맙시다. ...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에게 몇 푼의 돈을 빚지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그를 취하여 그가 여러분에게 빚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며, 또 그가 여러분에게 얼마간을 기다려 달라고 간청하는데도 그를 옥에 넣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구세주께서 주신 비유를 기억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된 사랑을 지니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마태복음 18:23~35 참조) (주간 데저렛, 1893년 8월 19일, 283쪽)

빚을 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재산을 잘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빨리 부채에서 벗어나서,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이는 이 방법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이 그분의 교회의 백성들에게 성취될 것이며, 또 이 방법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과 농장을 저당 잡히거나 또는 여러분의 감당할 능력 이상으로 빚을 지고 있는 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지나쳤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과 신용이 손상될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 교리, 269쪽)

말일성도들은 그들의 가정을 위협에 빠뜨리지 말고, 재정적인 투기의 제안에 처자식을 올려 놓은 일이 없게 하라는 경고를 종종 받아 왔으며, 지금도 진지하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 만일 말일성도들이 과거에 주어진 현명한 권고와 교훈에 귀기울인다면, 투기와 부의 축적을 위한 밀천 마련을 위하여 집과 사업 장소, 운하와 농장을 저당잡히는,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럴듯한 유희 앞에서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

여기에서 주어진 권고는 건축회사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월부 또는 다른 주기적인 지불 방법에 의하여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투기를 목적으로 저장을 잡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근검절약하는 습관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반면에 투기는 너무도 흔히 낭비의 정신을 갖게 합니다. (복음 교리, 276쪽)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물들어 보일 정도로 투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민망스럽습니다. ... 개개인들이 그들 주위로 부를 끌어모으고 또 이에 자연스럽게 따르

는 근심 걱정으로 헝सा이게 되면 그들이 가장 가난할 때 의지하던 것처럼, 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도 참으로 의지하여야 하는 하나님을 ... 잊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83년 5월 1일, 1쪽)

이곳에 빛을 내어 투기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빛을 지게 되어, 스스로를 채무관계에 빠지기 전에, 그 일을 보류하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또 세심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능한 한 빛을 지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빛을 갚으십시오.(대회 보고, 1911년 10월, 128~129쪽)

돈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소중히 관리하고 또 현명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돈을 어떻게 소중히 관리해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돈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것이며, 또 돈은 마치 아침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사용되어 없어질 것입니다.(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84년 8월 8일, 1쪽)

저는 말일성도들에게 빛에서 자유롭게 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 달라는 권고를 다시 드리는 바입니다. 빛에서 빠져나오시고, 빛을 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03년 10월, 5쪽)

우리는 돈과 쾌락 추구를 사랑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 그것은 대단한 약점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관계없이, 자신을 위해 일하며, 자신의 바램을 충족시키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악한 결과에 관계없이, 사람은 자신의 야망,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키려는 욕망,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충족시키려 애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오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세주와 다르게 만들고, 그를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분리시키며,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만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인간이 지닌 여러 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6년 1월 21일, 1쪽)

현명한 사람은 ... 쾌락 추구라는 살아있는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신의 진

로를 잡으려 합니다. 그는 유행하는 쾌락 추구의 물결에 맞추어 살기 위하여 자동차나 다른 값비싼 물건을 사서 채무의 속박에 묶이거나 빚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쾌락 및 흥미 추구와 그리고 대단히 부자인 사람만이 살 수 있지만, 부자라도 그렇게 해서 안되는 일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불법적인 계획에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부도덕이 자라나게 됩니다. 부를 얻기 위하여 불공정한 많은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으며, 쾌락 추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하여 심지어는 친구와 이웃에게 속임수와 거짓말, 기만 행위를 빈번하게 자행하기도 합니다.(복음 교리, 292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돈을 사랑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저울에 달리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부유한 백성이 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유한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일만 악의 뿌리"이라는 말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디모데전서 6:10 참조) (주간 데저렛, 1893년 8월 19일, 283쪽)

말일성도들의 가는 길에는 제가 보는 유일한 실제 위험은 부를 소유할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에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허영, 방종과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고 있는 신성한 책임들과 의무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물질적인 축복의 풍성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의 시기에는 주님을 느끼고 싶은 경향을 보이나, 번영의 시기에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83년 5월 1일, 1쪽)

우리가 이웃에게서 위안과 기쁨을 받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이 더욱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상이 처하고 있는 정신과 영향 아래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쾌락을 좇아 무모하게 맹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즐거움을 얻고 있는 동안 그 즐거움을 얻는 방법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면에서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금이나 돈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 세상에서 떠나라는 전갈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는 그들이 소중하게 간직하였던 그들의 부와 그 밖의 모든 것을 뒤에 남겨 놓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금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이는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장막 너머에 닿게 되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들이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즐거움의 근원이 멀리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과 하나님 곧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 들여 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이웃 누구에게라도 상처를 준 일이 없으며, 우리가 부채와 부담을 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과 우리가 세상이나 우리의 이웃에게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이 모든 것 보다 커다란 기쁨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돈은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는 이러한 기쁨을 인간에게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84년 3월 11일, 1쪽; 문구 변경)

세상적인 일에서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함

제가 확신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우리가 경제의 원리를 잘 알기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과 영적인 관심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적인 일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 판단력 및 이해력을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필요 사항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마음 속으로 그것이 필요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이웃이 가진 모든 것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딸이 이웃의 딸과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이 이웃집 아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이 소비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우리도 좋은 집, 값비싼 가구, … 그리고 많은 사치품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제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

… 모든 말일성도들은 배워야만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청소년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존재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그때에는 우리의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 있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서 함께 협력하고 또 올바른 원리 위에서 우리의 사업을 경영한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보다 좋아질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보다 더 형편이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부를 갖게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시온의 건설을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보다 많은 것들을 갖게될 것입니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84년 8월 8일, 1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돈을 저축하고, … 빛을 갠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듯이 속박 상태의 남자와 여자가 아닌 자유로운 남자와 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빛을 지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만일 우리가 도의적으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좋습니다. 저는 갈 준비가 되어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저는 누구에게도 빛이 없으며, 선교사로 나가고 또 우리 가족을 부양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4년 11월 20일, 1쪽)

기근과 질병의 날, 폭풍우와 지진의 날에, 그리고 바다가 그 경계를 넘어 밀어 닥칠 때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우리 생활에서 참된 근검 절약의 원리를 연구하고 실천함으로써, 그리고 공조 체제를 만들고,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돕겠다는 사랑으로써, 또한 다른 이의 힘으로써 곤궁한 상태를 완화시켜 그러한 고통을 누구도 겪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일어서 하나가 됨으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 관해 주신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는 교리와 성약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백성이 모든 백성 중에서 가장 부유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교성 38:39 참조) 이제, 우리가 만일 벌어들인 돈

을 매일같이 다 써버리고, 게다가 이웃에게서 조금씩을 빌린다면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

… 근면하고 절약하고 또 돈을 저축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재물 위에 쌓아 두지 말고 또 돈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재물을 써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위험의 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그 시대의 필수 사항 그리고 이 땅에서 전능하신 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위에 놓여져 있는 책임들을 우리가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간 데저렛, 1893년 8월 19일, 283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우리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번영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탐욕은 어떻게 번영을 파괴할 수 있는가?
- 빛을 피하는 것은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가? 현명하지 못하게 빛을 늘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는가? 현명하지 못하게 빛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어떤 변명을 사용하는가?
- 빛을 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번영의 시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재정적인 임무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충족시켜야만 하는가?
- “주기적인 지불 방법”을 통해 집을 장만해야 할 때도 흔히 있지만, 저당잡히는 것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조심하여야 하는가? “낭비벽”은 어떻게 집과 재정적인 안정을 위협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는가?
- 이기심과 쾌락 추구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 우리는 어떻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기근 … 의 날에” 대비할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여 “전능하신 이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가? 재정적인 준비는 어떻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가?
-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현명한 금전 관리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하나가 됨

거룩한 신권의 권능으로 영원히 인봉되는 남성과 여성은
그들의 충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을 수 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존 테일러 대관장의 보좌로 봉사할 당시, 조셉 에프 스미스는 아내 줄리아나와 함께 하와이를 여행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강철같이 곧고 또 북극성 같이 변함 없고, 언제라도 충실하고 또 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였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 편집 [1938], 453쪽.) 하와이에서 스미스 부대관장은 중병을 앓았는데, 줄리아나가 그를 간호하여 건강을 회복하였다. 몇 달 뒤인 1887년 3월에, 조셉 에프 스미스는 하와이 섬에 남고, 줄리아나와 그 자녀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3월 15일 그는 일지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증기선이 오후 12시에 닷을 올리고 12시 15분에 항구를 벗어나 항해를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멀어져 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스러운 이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배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급히 전망이 좋은 유리한 곳으로 달려가 … 배가 다이어몬드 헤드 뒤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소중하고도 신성한 보물을 신고 물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증기선 오스레일리아 호를 다시 바라 보았다. 혼자 남게 되자, 내 영혼이 눈물을 흘렸으며 나는 눈물샘이 마르도록 울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내 가슴의 보석을 떠나보낸 커다란 고통과 슬픔을 느꼈다.” (프란시스 엠 기번스의 조셉 에프 스미스: 축복사, 설교자, 하나님의 예언자에서 인용 [1984년], 153쪽)

그러한 이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대관장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세상에 나타난 영원한 원리가 주는 권세와 약속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세와 영원을 위한 남편과 아내의 결합입니다 … 요셉 스미스가 그것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세상에 나타내어 보일 때까지 남편과 아내의 결합에 따르는 책임을 누가 이해하였습니까? 그것은 저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만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저를 보다 훌륭한 남성으로, 아니 보다 훌륭한 남편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 그것은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원리로서 제가 지녀야 할 책무를 저에게 보여 주는것입니다.”(대회 보고, 1911년 10월, 8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원한 영광과 승영을 위하여 결혼을 제정하셨음

하나님께서서는 태초에 결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이 결혼이라는 신성한 결합을 통하여 함께 연합되고,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는 완전하지 않도록 계획하셨습니다.(복음 교리, 제 5판 (1939), 243쪽)

남자와 여자가 합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들이 지닌 가장 높고 또한 가장 거룩한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혼을 단지 지상에서 하나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의 변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 이 세상에서 명예와 기쁨을 주고 또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임스 알 클라크편, 전 6권 [1965~1975], 제 4권 147쪽)

[복음은] 남자와 여자를 결혼 생활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도 순수한 영원한 성약으로 결합시키며, 그 결혼 생활은 필수품을 공급하여 주고 또 영혼의 가장 순수하고도 가장 강력한 바람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현세와 영원토록 남편과 아내로 완벽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각입니까!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설교”, 밀레니얼 스타, 1900년 2월 15일, 98쪽)

하나님께서서는 결혼을 권고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아직 불멸의 상태에 있어, 죄가 세상에 있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첫 번째 결혼식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거룩한 결혼 관계라는 결합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이같은 명을 변경하거나 폐하거나 또는 취소하지 않으셨으며, 이 명은 인류의 온 세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림 : 마이클 디아스, 우물가의 리브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필을 찾았다. 리브가가 종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하여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옴으로써, 의롭고 젊은 여인을 찾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그의 기도가 성취되었다.

시행되어 왔습니다.(복음 교리, 246쪽)

[사람들은] … 결혼은 잘못 된 것이며 또한 자녀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는 이기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관념에 점점 더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와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견해 곧 경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28)는 견해를 갖고 있고, 이를 믿으며, 또 이것을 복음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를 명하시고, 승인하여 주셨으며, 이를 제정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교리와 성약 49편 15절은 이런 말로 그것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 (“편집자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결혼”,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2년 7월호, 713쪽)

결혼은 … 복음의 원리 또는 의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중요하지 않게 보이거나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인류의 행복에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에서 불필요한 원리는 없으나, 이 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결혼의 원리 보다도 더 위대한 원리는 없으며, 인간의 행복에 결혼의 원리보다 더 필수적인 원리는 없습니다.(복음 교리, 97쪽)

남편과 아내로서 현세와 영원하도록 하나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임

하나님의 권세인 거룩한 신권의 권능으로 현세와 영원토록 남편과 아내로서 거룩한 결혼 생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합시키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도록” 그들이 함께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8년 9월 10일, 1쪽)

이러한 결혼 의식에 참여하는 남자와 여자는 그 영향이 널리 미치는 특징을 지니며, 또 대단히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증식이 그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에 따라 영원한 행복 또는 영원한 불행이 결정됩니다.(복음 교리, 245쪽)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영원한 결합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 하나님의 권세로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받아들이는 남편은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요구하고 또 아내는 그를 자신의 남편으로 요구할 권리를 갖게 하려 합니다.(복음 교리, 248쪽)

남자와 여자가 별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남자와 여자가 독립적으로 승영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제시된 결합 방식에 따라 함께 묶여야만 합니다. 주 안에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고 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건 관계없이, 그들 혼자서는 또 단독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며, 또 그분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남자와 여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음을 받은 형태인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자 혼자 그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며, 또 남자도 혼자 그곳으로 가지 않을 것이며, 그런 상태로 승영을 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독으로 구원의 등급을 얻을 것이지만, 그들이 승영될 때는 바로 해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승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승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8년 6월 28일, 1쪽)

하나님의 율법과 주님의 집의 질서 밖에서는 현세와 영원토록 완전하여질 수 있는 결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원할 수도 있으며, 그들이 그러한 형식을 거쳐갈 수도 있으나 그것이 신성한 권능에 의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고 또 인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복음 교리, 244쪽)

말일성도는 현세와 영원을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며, 단지 죽음이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을 때까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의 법 아래서, 그리고 다른 종교의 성직자에 의해 집행되는 결혼은 이 생과 관련해서는 영예롭고 또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나, 다음 생에서도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성약이 영원을 위하여 맺어져야만 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권능 아래서 결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결합은 다음 세상에서는 권세가 없거나 또는 유효하지 않게 될 것

입니다. 가족은 영원한 영광의 토대이며 끝없는 왕국의 핵심입니다. 왕국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께서 규정하신 방법대로 그들이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낸다면, 남편은 그 아내를 영원히, 아내는 그 남편을 영원히, 부모는 자녀를 영원히 갖게 될 것입니다.(대관장단 메시지, 제 4권 250쪽)

같은 신앙 안에서,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결혼함

우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되, 올바르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 안에서 결혼하고 또 그 의식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행해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생활하십시오.(복음 교리, 275쪽.)

저는 시온의 젊은이들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고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의 관념과 생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인간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였다가 이혼하고, 받아들였다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따르는 중대한 결과, 즉 이 현재의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으로 향하는 결과가 존재하는데, 바로 이 방편을 통하여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며,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류의 보존 수단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될 것입니다. 미덕이 파괴되어 그 자리를 악과 타락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며, 지구가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272쪽)

독신생활과 핵가족은 최소한의 책임만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의 갖게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신은 노동을 기피하게 합니다. 게으름과 쾌락이 근면과 불굴의 노력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쾌락과 편한 생활에 대한 사랑은 결혼과 그것에 연이어 일어나는 가족의 확대를 하나의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 세월이 흐름에 따라 가정에서의 이러한 손실은 국가가 절실히 느껴야만 하는 손실이 됩니다. 각 개인의 인간적인 행복은 쾌락이나 보살핌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무에서 찾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가 옳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해줄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의 영향을 겪지 않고 그런 사회에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의 본모기를 따르도록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벌써 결혼 생활의 책임을 비웃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결혼을 연기하는 한 가지 변명으로서 야망을 구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뛰어난 몇몇 젊은이들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그들의 학업을 먼저 끝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회에서 그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범은 위험한 것이며, 또 그 변명은 그 합당성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학 생활이 결혼 적령기를 넘어서도 결혼을 미루는 이유에 대한 변명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한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복음 교리, 252쪽)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기도 전에 궁전같이 화려하고, 모든 가구가 딸린 훌륭하고, 또 어느 누구의 집보다도 현대적인 집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는 당연히 기꺼운 마음으로, 바로 지금, 그리고 현재의 여건에서, 함께 결혼이라는 신성한 결합으로 들어가서, 함께 성공에 이르기 위한 자신들의 길을 헤쳐나가며, 장애물과 어려움을 겪고, 둘이 합쳐 함께 성공으로 나아가고, 현실적인 면에서 협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보다 더 잘 배울 것이며, 또한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 더욱 하나가 될 것이며, 주님께서 그들을 더욱 더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복음 교리, 250쪽)

교회 역원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조직의 교사들은, 말일에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대로 결혼의 신성함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결혼의 의무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명예로운 결혼을 바라는 정서가 조성 . . .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의 회원인 젊은 남자 또는 젊은 여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능을 제외시킨 채 결혼하는 것을 막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245쪽)

결혼은 사랑의 원리와 신성한 헌신의 원리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

만일 가정이 순결의 원리, 참된 애정의 원리, 의로움과 정의의 원리 위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가정을 가장 커다란 존경과 고상한 생각이 있는 곳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이 지상에서 그들의 사명을 성취

할 것을 결심한 남편과 그 아내는 가정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아니하며, 또 결코 존재할 수도 없으며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슴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가정과 가족을 이루고 그들 자신만의 왕국을 만드는 것으로 향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영원한 증식과 권세, 영광, 승영과 지배, 끝이 없는 세상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향하게 됩니다.(복음 교리, 273쪽.)

남편과 아내 사이에 완전한 신뢰와 사랑이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 가정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질서와 사랑, 하나됨, 안식, 신뢰, 절대적인 신임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충실함에 관하여 조그마한 의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여자와 남자가 각각 서로의 명예와 미덕에 대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복음 교리, 272쪽)

시온에서는 남성과 여성간에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의도하셨으며 또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을 떼어 놓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고 또 반대되는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결합이 아니라, 분리가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그분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자 후기: 의로운 결혼과 그 반대성”, 청소년 인스트럭터, 1902년 7월 1일, 402쪽)

그러면 이상적인 가정, 곧 말일성도들이 의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가정의 모범은 어떤 것입니까 … ? 그것은 모든 세상적인 관심사가 이차적인 것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을 축복하여 주신 가족을 위해 가장이 헌신하며, 아버지가 가족을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며, 가족들이 아버지를 그들의 가슴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부모 사이에 신뢰, 단합, 사랑, 신성한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자녀에게 모든 즐거움을 주어, 모두가 도덕적이고, 순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곳입니다. (복음 교리, 272~273쪽)

부모는 …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여야 하며,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와 친절함 배려로 대해야만 합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를 최대의 예의와 존경으로 대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결코 모욕해서는 안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로 말해서는 안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최대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 아내 또한 남편을 가장 커다란 존경심과 예의로 대해야만 합니다 …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며, 가정이 지상에서 남편에게 가

장 즐겁고, 가장 축복받은 곳이 되도록 생활하고 처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룩한 장소 안에서 남편,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대회 보고, 1905년 4월, 84~85쪽)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사이, 곧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감정의 차이라는 그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사이에 들어와 서로를 서먹하게 만들도록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도록 허락해서도 안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리와 행복,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때로 남편은 아내에게서 단점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아내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아내는 남편이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느끼기도 하여, 남편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용서가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참된 사랑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약점을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확대시키기 보다는 결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서로의 약점과 결점에 대해 언급하기를 잇기로 하였을 때, 자녀들의 출생과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인한 결합에 의하여 여러분 사이에 굳건히 놓여진 하나됨이 더욱더 확고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약점과 결점을 잇고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물어버리고 여러분이 서로에 대해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는 좋은 점만을 이야기 하고, 서로의 결점을 물어버리고 또 그것들을 확대시키기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까? (“가정이라는 통치체에 대한 설교”, 밀레니얼 스타, 1912년 1월 25일, 49~50쪽)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사랑했고 또 아내의 사랑을 받았던 [한 사람이] - 또한 아내에게 충실하였으며, 아내 역시 아내와 어머니로서 남편과 함께 생활하였던 그녀의 모든 나날 동안 그에게 충실하였던[한 사람이] - 불사불멸과 영생의 옷을 입고 첫 번째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는 특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 생에서 그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관계, 곧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되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승영을 위한 기초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417쪽)

결혼은 신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영광스럽게 된 가정이 존재하는 토대입니다. 그것은 축복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며, 높이 들어올리며,

결국에는 하늘의 부모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또 영원한 생활, 하나가 되는 생활과 영원한 증식으로 인도합니다. (“편집자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결혼”, 717~718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제정하셨는가? 영원한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지닌 “가장 높고 또한 가장 거룩한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 결혼은 왜 “인류의 행복에 가장 핵심적인 것”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가?
- 영원한 증식과 영원한 행복이 어떻게 남편과 아내의 영원한 결합에 따라 결정되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또는 아내를 영원히 갖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가?
- 우리는 왜 성전에서 결혼해야만 하는가?
-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어기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가?
- 어떤 유혹 또는 혼란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을 미루거나 피하도록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결혼할 적당한 때를 알 수 있는가?
-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결혼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 국가가 절실히 겪게 되는 손실이” 된다고 예언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이러한 손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가?
- 부부가 “그들의 장애물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영원한 결혼 성약은 어떻게 그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왜 “절대적인 신임”이 중요한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다른 어떤 속성들이 계발되어야 하는가? 비판, 냉소, 용서하지 않음, 교만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은 어떻게 결혼 관계를 약화시키는가?
-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는가? 부부의 영원한 하나됨을 강화하기 위해 부부는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상호부조회: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신성한 조직

상호부조회는 궁핍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시온의 여성들의 영적인 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한 권능으로 제정되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상호부조회가 “하나님에 의해 신성하게 조직되었고, 신성하게 승인되었으며, 신성하게 설립되고, 신성하게 제정되었다”(상호부조회 본부 위원회 모임 기록, 1914년 3월 17일, 역사과 보관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54쪽.)고 말씀하였다. 그는 상호부조회의 많은 축하 행사와 특별 모임에 참석하여 여성들이 행한 일에 존경과 애정을 갖고 말씀하였다. 1892년 3월 17일, 상호부조회는 보조 조직 설립 25주년 기념을 겸하여 창립 50주년 행사를 가졌다. 솔트레이크 태버나클과 교회 내의 각 지부 및 와드, 스테이크에서 상호부조회 직원들과 신권 지도자들은 상호부조회의 설립과 교회의 여성들이 행했던 오랜 동안의 봉사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모임에 참석한 회중들은 모두 함께 기도에 참여하도록 미리 통보를 받았다. 당시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의 보좌였던 조셉 에프 스미스 부대관장이 태버나클에서 다음과 같은 찬양과 감사의 특별 기도를 드렸다.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나이다 … 당신께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의를 추구하는 소망을 주셨나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시온과 외국 땅, 바다의 섬, 그들이 만나는 모든 장소, 곧 세상 모든 곳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을 …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 당신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

시읍소서.”(모임 기록, 1892년 3월 17일, 233~234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상호부조회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상호부조회라는 조직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강력한 조직입니까. 또 얼마나 큰 책임이 그들 위에 있습니까. (모임 기록, 1914년 3월 17일, 51쪽.)

상호부조회처럼 높은 수준의 신성한 권능으로 조직된 여성 조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직은 사람에게 의해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 이 조직은 여성과 남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신성하게 만들어지고, 신성하게 승인되었으며, 신성하게 설립되고, 신성하게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또다른 것을 조직하지 않는 한, 이 조직과 비교할 수 있는, 또 이 조직과 비교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조직이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그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께서는 바로 이 조직을 조직하였던 똑같은 신권 계통에 따라 그 일을 하실 것이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모임 기록, 1914년 3월 17일, 54~55쪽)

여성들이 클럽을 조직할 수도 있으며, 그들이 협회를 조직할 수도 있으며 또한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하여 내규를 통과시키고, 합의서를 기안하고, 법칙을 세우며, 이와 비슷한 온갖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 가운데 어떠한 것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각 와드에 정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상호부조회와는 비교될 수가 없다는 점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은 세상의 여성들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칭찬할만한 모든 일에서, 거룩한 모든 일에서, 인간의 자녀들을 고양시키고 또한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께서 세상을 인도하고 또 특별히 세상의 여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 먼저 [상호부조회]를 만드시고,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귀하게, 훌륭하게, 그리고 깊이있게 만드십시오. 여러분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곧 최상이 되고, 가장 위대하게 되고, 가장 훌륭하게 되며, 가장 순결하고 또 권리에 대해 가장 헌신적이 되도록 하나님의 예언자의 음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또한 여러분의 특권을 누리고, 여러분의 부름에 속한 모든 것과 여러분

이 주님으로부터 상속받아야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주님의 은사를 얻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모임 기록, 1914년 3월 17일, 55~56쪽)

상호부조회는 궁핍한 자를 돌보고, 위로하며, 교화시켜야 함

저는 우리의 상호부조회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이스라엘의 유익과 시온에 있는 자매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딸들의 복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조직입니다.(대회 보고, 1914년 4월, 3~4쪽)

상호부조회와 관련하여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설립된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의 가장 오래된 보조조직이며, 매우 중요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궁핍한 사람의 필요를 돌볼 뿐만 아니라, 시온의 어머니와 딸들의 영적인 복지 및 구원을 보살펴 주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소홀히 다루어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불행과 재난, 어둠의 권세, 또한 세상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살피는 것도 그 의무의 일부이며, 어쩌면 그 의무의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들 자신과 교회의 모든 여성 회원의 영적인 복지를 보살피는 것이 상호부조회의 의무입니다.(복음 교리, 제 5판 (1939), 350쪽)

우리가 시온의 어머니와 딸들을 발전시켜 주는 이 조직에서 유익과 진리의 영, 성실, 거룩한 사랑, 인내 및 오래 참음, 용서, 자비, 그리고 그밖의 다른 축복된 것들을 찾지 못한다면, 과연 지상의 어디 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의 의무를 행사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억압받고 실패한 사람들, 실수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비의 천사들처럼 여러분의 부름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관여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그 권세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라도, 이 조직이 설립되어 있거나 가까이 있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이 조직, 또 이 조직 안의 여러 다른 다양한 작은 조직이 그곳에 있어 필요한 것

들을 돕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리, 올바른 생활의 원리, 옳은 생활의 원리 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 조직이 가까이 있어 예지를 나누고, 교훈 뿐만 아니라 본보기를 통하여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런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교화 시키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족, 가족의 의무,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간에 존재해야만 하고 또 올바르게 존재하고 있는 책임 등에 관하여 무지하거나 또는 적어도 이해가 부족한 곳에서도, 이 조직이 존재하거나 가까이 있어, 이 조직에 당연히 부여되고 속해있는 권세와 영감으로 그러한 중요한 의무들에 관해 가르침을 나눌 준비와 채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아야 하고 또 자신과 남편을 위하여 가정을 즐겁고 매력적이며 바람직한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도, 이 조직은 존재하여, 이 조직의 일부에서, 그 나이 어린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나누고 또 그 어머니가 자신의 의무를 행하고 또 그것을 잘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상적이고 영양분이 많고 적절한 음식을 마련하는 경험이 부족한 곳이거나 자녀들에게 적절한 영적 가르침과 영적 음식을 줄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도, 그러한 가르침을 나누어 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온의 어머니와 딸들로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여성 상호부조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모임 기록, 1914년 3월 17일, 49~51쪽)

이제까지 보다 더 부지런히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아무런 말없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력을 다해 돕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연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고아와 미망인들을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이 전쟁의 시기에 관하여 상호부조회에 보낸 서한", 상호부조회 잡지, 1917년 7월호, 364쪽)

얼마 전에 외딴 곳에 위치한 한 시온의 스테이크에 속한 한 정착촌을 방문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었는데, 당시 그곳에는 심각한 질병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날을 여행하고 또 늦은 저녁에 그 정착촌에 도착하였으나, 스테이크 부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 몇 가정을 방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자매가 병이 심해 침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가난한

남편은 주위에 많은 어린 아이들의 어머니인 자신의 아내의 심각한 병세 때문에 낮을 잃은 채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매우 궁핍해 보였습니다.

그 때 한 기품있는 여인이 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먹을 수 있도록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과 먹을 것이 담겨져 있는 양동이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정을 물어본 우리는 곧 그 자매가 워드 상호부조회로부터 그 아픈 여성을 돌보고 도와주라는 임무지명을 받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목욕하고 먹고 자도록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청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여성과 그녀의 가족이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또다른 훌륭한 자매가 그녀를 돌보기 위해 그 다음 날 오기로 임무지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녀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건강을 찾을 때까지 이 가난하고 고통받던 가족은 상호부조회 자매들로부터 최선의 돌봄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상호부조회가 잘 조직되고 훈련되어 있어서 그 정착촌에 있는 아픈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살핌과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이 위대한 조직이 하나가 되어 보여주었던 이 모범보다 더 아름다운 모범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영감을 주셔서 교회에 그러한 조직을 세우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위민스 엑스포넌트지, 1903년 5월호, 93쪽)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봉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신앙과 영적인 힘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함

누가 잘 조직되고 또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상호부조회가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물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까지 선한 일의 영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참된 사랑에 찬 것이며 또한 아마도 이처럼 훌륭히 인도되는 참된 사랑 보다도 더 강력하고 또 널리 미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없기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신임과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신임을 얻게 되면, 문이 열려져 그들의 영혼을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과 영적인 탁월함으로 인도되게 되는데 이때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분이 단순한 물질적인 부분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얻는데 필수적인 지적이며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멸망하기 보다는 물질적인 음식이 부족하여 굶거나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원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저에게는 음식과 의복보다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식 모두를 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분의 율법을 준행하고 또 그것에 따라 일관되게 생활한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정직할 것과 유덕할 것을 가르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신성한 사명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고, 또 어머니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양육할 것을 가르치도록 돕는 것은 상호부조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무로, 어쩌면 여러분 자매들에게 지워진 임무, 곧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선을 행하는 여러분의 특권과 특전에는 참으로 그 한계가 없습니다.(위민스 익스포넨트지, 1903년 5월호, 93쪽)

상호부조회에서 행하는 수고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생활, 교회 사람들의 세상적인 필요사항들과 관련된 것들이기는 하나, 그들이 행하는 노력이 물질적인 필요사항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그 노력의 영향은 이 필멸의 한계를 넘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물질적인 욕구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 및 영적인 발전을 돌보는 것도 여러분이 지닌 의무 가운데 일부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선한 행함을 통하여 교회 회원들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위민스 익스포넨트지, 1903년 5월호, 93쪽)

더욱 위대한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바로 남성과 여성의 신앙을 쌓아주는 일, 빛과 예지 그리고 악과 악의 유혹에 맞서는 권세, 사람들의 기만적인 모습과 사람을 속이기 위해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교활하고 간사한 것들을 분별하는 권세를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와 오류, 빛과 어두움,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그 예지, 그 영적인 지식, 곧 영적인 예지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언어야 하는 위대한 것입니다.(모임 기록, 1914년 3월 17일, 57쪽)

어린 소녀 때 교회에 들어와, 초기 말일성도들의 생활에 들어다녔던 시련과 환란, 실망과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미주리와 나부에서 쫓겨나서 밭과 머리를 돌 곳 조차도 없던 이 계곡으로 왔던 ... 엠 아주머니 [에멀린 비 웰즈, 본부 상호부조회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께서 용기를 잃고 낙담하였습니까? 저의 어머니가 용기를 잃고 낙담하였습니까? 빌라트 김볼 (역자주: 히버 시 김볼의 아내) 아주머니가 용기를 잃고 낙담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영혼 속에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빛에 비하면 아주 하찮고 가치없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분들 중 한 분이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명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이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단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께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셨으며, 그분들께서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지상의 어떠한 권세도 그들이 그 진리라고 알고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도 그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경도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추위나 비나 더위도 그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느끼고 알고 있었으며 또 바라고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진리였습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여성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여성들을 여기에 몇 분 아니 많이 모시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 여러분께서 그들을 따라가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습관과 관습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따라 생활하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으며, 그들이 모든 빛과 모든 신앙, 그리고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나, 그것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남성 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

기를 그칠 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가 있게 됩니다 … 그들은 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들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사랑을 그들의 영혼 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모임 기록, 1914년 3월 17일, 58~60쪽)

현명한 결론에 이르고 싶은 여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그것들이 남성들에게 중요한 만큼 여성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이 말일의 위대한 사업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매개로 하여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영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복음 교리, 261쪽)

교회 회원들의 물질적인 복지와 영적인 복지를 위하여 일하고 또 교회 회원들의 영적인 발전과 영적인 유익, 그리고 영적인 생활과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합시다.(모임 기록, 1914년 3월 17일, 63쪽)

상호부조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권과 독립되어 있지 않음

상호부조회의 사업에 관련된 우리의 자매들에게 … 우리의 존경과 완전한 신뢰를 보내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며 앞으로도 교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업무를 권고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신권을 그들이 계속 지지하는 한 주님께서서는 자매님들을 계속 축복하실 것입니다.(대회 보고, 1906년 10월, 9쪽)

저는 … 상호부조회와 … 교회의 모든 다른 조직에게 … 그들 가운데 어떠한 조직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 그들이 신권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는 권고에 귀기울이며 그것을 따르기를 멈춘다면 이러한 조직은 한 순간이라도 주님에게서 받아들여져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조직은 교회의 권세와 권능에 종속되어 있으며, 또한 이것들과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 조직은 신권 및 교회와 독립적으로는 그들 조직 내에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복음 교리, 348쪽)

이 고귀한 대업에 관계하시는 훌륭한 이 모든 여성들에 대한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오직 한 가지 바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생활을 보존하시며, 그들이 시온의 대업에 대한 성실성에서 굳건하고 참되도록 도와

주시며, 그 어떤 것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전진에 타격을 입힐 수 없다는 점과 하늘 왕국 아래서 교회 보다 더 좋은 곳은 절대 없다는 점을 그들의 영혼에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분의 권세, 의로움, 진리, 그리고 신성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 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상호부조회 잡지, 1915년 1월호, 16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어떠한 권능으로 상호부조회는 조직되었는가? 상호부조회가 신성하게 제정되었다는 지식이 어떻게 자매들이 그들의 책임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지식이 어떻게 신권 소유자들이 상호부조회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어떻게 칭찬할 만한 모든 일에서, 고양시키고 또한 깨끗하게 하는 모든 일에서 “세상의 여성들을 인도” 할 수 있는가? (신앙개조 제 13조 참조)
-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어떻게 “억압받고 실패한 사람들 … 마치 자비의 천사들처럼 … 부름을” 성취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아무런 말 없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가?
- 하나의 조직으로서 상호부조회가 어떻게 위로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상호부조회는 어떻게 올바른 생활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 상호부조회는 어떻게 가족의 책임에 대한 여성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가?
- 영적인 것이 더욱 위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훌륭히 인도되는 참된 사랑”과 “자비에 찬 단순한 행위”가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과 영적인 탁월함”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본 장에 묘사되어 있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에 관하여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가졌는가?
- 상호부조회가 어떻게 신권의 지시에 의해 축복을 받고 있는가?
- 상호부조회의 “고귀한 대업”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활에 축복을 주었는가?

우리 영혼 안의 사랑

우리는 궁핍한 사람을 돌보아야 하며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말일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적이거나 영적이거나 서로의 필요사항을 자비와 사랑 (charity)으로 돌볼 것을 간청하였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말일성도는 자신의 의무에 대해 배우는 순간에, 친절과 사랑, 용서의 정신을 가득 채우는 것이 …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15년 4월, 4쪽.)

그가 찰스 더블류 니블리 감독과 함께 교회 대관장으로서 하와이를 방문하였을 때, 그 자신이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찰스 더블류 니블리 감독은 훗날 그 경험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우리가 호놀룰루 부두에 도착하였을 때, 매우 많은 원주민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의 꽃으로 만들어진 꽃목걸이를 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언자에게 많은 꽃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하와이 악대가 그곳에서 환영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 그 사람들이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깊은 사랑, 곧 눈물어린 애정을 보는 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군중 가운데서 가난하고, 늙고, 눈이 먼 여인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90세 가량되는 노령으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몇 개의 바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으며, 그녀의 헌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오세파 이오세파 (역자주: ‘조셉’의 하와이어 발음)라고 외쳤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에, 그는 달려가 그녀를 팔에 안고는, 여러 번 입맞추고 그녀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어머님, 어머님, 저의 사랑하는 어머님’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뺨 위로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돌아서서 말하였습니다. ‘찰리, 내가 소년이었을 적에 아픈 적이 있었는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지. 그때 나를 간호해 주신 분일세. 이분께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서 어머니처럼 나를 보살펴 주셨네.’

“정말이지, 감동스런 순간이었습니다 … 오십여년 전에 그에게 주었던 친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지금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인 몇 개의 바나나를 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이오세파의 손에 쥐어 주었던 그녀는 가난하고 늙었지만 참으로 훌륭하고 고귀한 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찰스 더블류 니블리, “회고”, 복음 교리, 제 5판 [1939년], 519~520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관대함

우리의 주님이요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큰 계명은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37~40]. 서로에게 사랑(charity)과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음식 또는 의복 또는 거처가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향하는 과부의 불평의 음성이 하늘에 상달되지 않도록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아가 집없이 이 백성 가운데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마음의 위로를 받을 기회도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십시오. 참된 사랑이 여러분의 행동과 가슴속에 가득하여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영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위안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에게 위안을 주십시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냉수 한 잔을 주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았나이까’라고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인데, 이는 예지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만일 자신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 주었다면 그것이 모든 영

의 아버지이신 그분께 행한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31~45) (테저렛 뉴스, 1893년 8월 19일, 284쪽)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친형제와 자매들을 존경할 것을 가르쳐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존경할 것을 가르쳐야 하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과 허약한 사람, 불운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여야 합니다.(복음 교리, 254쪽)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왔으며 음식을 구하는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일성도의 일반적인 정서이자 특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몰몬 백성들이 가난하고 불운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자 했으며 또 후하게 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가까이에서 있어 저의 음성을 듣고 어느 곳에서나 자신이 가진 것을 궁핍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말일성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의 집에서 좋은 빵과 버터를 얻어 들고 가다가 (왕이 먹어도 좋을 만한 것들인데, 이는 저의 가족들은 제가 세상에서 이제껏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빵과 버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벗어나서는 그것들을 거리에 던져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도박장이나 술집으로 가려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외모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영의 속삭임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합당한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거부하기 보다는 합당하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보다 좋은 일입니다.(역주: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 많은 비합당한 사람 중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줄 모르니, 판단하지 말고 도와 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임) (대회 보고, 1898년 4월, 47~48쪽)

사랑(charity), 또는 사랑은 존재하는 원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원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다면, 만일 우리가 의기소침해져 있고 또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만일 우리가 인류의 상황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종교의 핵심입니다.(대회 보고, 1917년 4월, 4쪽)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

어떤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있으며 또한 죄의 회개와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사람이 이에 따라 발전하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르기 힘든 언덕을 올라 정상으로 가기 위하여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오랜동안 언덕을 올라 정상으로 가려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리는 아직도 언덕의 기슭을 오르고 있어 정상에 다가서지조차도 못한 상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아주 적은 수의 남성 또는 여성만이 진실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노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은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나는 내 자신을 제일로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우리 모두는 한 혈통이며, 우리는 한 지역 사회의 구성원이고, 또한 한 교회의 회원으로, 한 하나님과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우리 하나 하나는 우리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매일매일의 우리 생활과 매순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나며, 자녀들 가운데서는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입니까? 제가 책을 읽고 또 생명과 구원의 원리를 이해한 방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여야 한다는 점과 우리 자신의 안락, 우리 자신의 편리, 우리 자신의 욕망, 또는 우리 자신의 행복 보다는 우리 이웃, 이와 더불어 우리 친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램, 안락과 행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테저렛 뉴스 : 주 2회 간행물, 1896년 3월 31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자신만을 생각하며 그들의 이웃의 이익과 복지를 고려하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특정하고 개별적인

이익과 축복과 안녕에 스스로를 편협하게 만들어서 “우리 이웃들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해”라고 말하고 싶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것은 말일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복음 교리, 242쪽)

우리가 그것이 실제이거나 허구이거나 관계없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단점, 약점, 또는 결점을 보았다고 생각될 때 친구나 이웃을 만나는 곳에서 그것을 펴 드러 그들의 귀에 들어가게 하기 보다는, 우리가 참된 사랑과 우정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 우리가 불쾌감을 느끼고 있거나 또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정신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그들에게 말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과 불평의 영으로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그들의 가슴이 증오로 가득차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전 6권. [1965~1975년], 제 5권 91쪽)

저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배우고 나면 우정관계가 참되고 감미롭게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함이 없이 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주는 것이 없이 사랑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는 그분의 양을 먹여야 하며 (요한복음 21:15~17 참조), 서로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옹호하며 지지하고 파멸시키지 말아야 하며, 끌어내리지 말아야 하며, 우리 이웃이나 형제들의 약점 또는 결점을 부각시켜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불길에 부채질을 하듯 확대하여 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특별히 오류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빛과 생명, 에너지와 격려가 되게 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제 5권 93쪽)

저의 종교는 제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그들의 옳지 않은 행위를 혐오하거나 그들의 사악함과 마음의 어두움을 지극히 슬퍼 하더라도, 그들은 저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그들은 저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저는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이라는 높은 표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제 안에 저의 이웃 보다도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제의 이웃들에게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복음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모범의 복음”, *밀레니얼 스타*, 1906년 3월 15일, 162쪽)

하나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저희에게 복음의 충만함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복음은 …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는 이러한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을 때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세상에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얽매어 있고, 마음이 관대하지 못하여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면 그 무엇을 위해서도 기꺼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려 합니다 … 우리가 받은 거룩한 복음을 통해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인류의 의무는 모든 남성과 여성들의 결백, 유덕, 명예, 그리고 권리를 마치 우리 스스로의 그것들을 보호하듯이 부지런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조셉 에스 스미스 대관장의 설교”, *밀레니얼 스타*, 1897년 11월 11일, 706~707쪽)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분의 교회에 방편을 마련하셨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충실한 사람들이 궁핍한 시기에 도움을 받고, 양육되고, 또 보살핌을 받도록 그분의 교회에, 교회의 온전한 조직 안에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대회 보고, 1915년 4월, 7쪽)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방편을 제공해 줄 것을 이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회원 서로간의 도움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메시지가 신앙과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물질적인 필요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물질적인 구원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때까지 음식과 필수품을 제공해 주는 금식의 법을 제정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재의 궁핍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교회는 항상 여러 자선 단체로부터 순간적인 도움을 받기 보다는 자립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거나 소진되면 같은 곳에

서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일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의존적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남에게 더 의존하려는 옳지 못한 원리를 가르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현재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고 스스로 자립하게 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와 줄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는 지혜로운 감독에 의해 관리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평한 금식일 계획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현명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교회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 사람들이 한달에 하루 동안 음식과 마시는 것을 삼가라는 요구에 따르고 또한 그 날 먹었을 분량이나 원한다면 그 이상을 가난한 자들에게 바치는 것은 간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성과 예지를 근거로 한 단순하고도 완벽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증명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 육신으로 영의 지배를 받게 하고, 성신과의 교통을 한결 촉진시키며, 세상의 백성들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영적인 힘과 권세를 보증하여 줍니다. 금식에는 항상 기도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데려다 주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정신없이 흐르는 세상적인 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전환시켜 주며, 그들이 실제적이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종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도록 하여서, 아버지가 없는 이들과 미망인을 방문하고 또 스스로를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27 참조].(복음 교리, 212~213쪽)

받아들여질만한 금식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참된 영으로 하는 것이며 금식의 목적이 마음의 완전한 순수성과 의도의 단순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금식이 충만하고도 깊이있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금식이 모든 실제적이고 또한 지적인 오류에 대한 치유책이 될 것이며, 허영심이 사라지고, 동료에 대한 사랑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될 것입니다.(“편집자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2년 12월호, 147쪽)

복음은 우리를 비이기적으로 만들고 또한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기꺼이 희생하도록 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스스로를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이웃 한분한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어 줄 것을 권고드리며, 호소합니다.(대관장단 메시지, 제 5권 53쪽)

저는 우리의 종교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가슴에 복음의 영을 지녀야 하며 또 그것을 즐겨야 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신앙, 소망, 자비, 겸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용서를 우리의 영혼에 가져야 하며, 사람들을 반목과 혼란, 그리고 분열로 이끄는 비난의 영, 불화의 영, 증오의 영을 최선을 다해 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증오를 쫓아내십시오.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잡고 있는 증오, 또는 질시나 질투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보다 그러한 것들을 그들의 영혼에 머물도록 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원한을 품도록 허락한 사람 자신에게 천배 이상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슴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쫓아내도록 합시다.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참되고 또 친절하도록 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참되고 친절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그들이 자녀들에게 참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지를 간절히 염원하도록 합시다. 그들이 교회에서 가족 단위로 단합하도록 하고, 그러한 상황이 시온의 경계 끝까지 넓게 퍼져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복천년의 통치를 갖게될 것이며, 어디에나 땅 위에는 평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은총이 있게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16년 10월, 8쪽)

복음은 하나님과 그분이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구원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진리의 빛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하며 또 우리가 항상 그분의 소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분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는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마련되었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우리 이웃의 복지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전진을 위하여 우리를 비이기적으로 만들며, 우리의 마음을 참을성 있게 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을 크게 키우며, 우리의 마음에서 증오심과 악의, 질시, 그리고 분노를 제거하며, 우리를 평화스럽고, 순종적이며, 가르침을 잘 따르고, 우리 자신의 바램과 어찌면 우리 자신의 관심사까지도 기꺼이 희생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을 희생할 수 없고, 자신의 마음 속으로 “아버지

시여, 저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개심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오류에 사로잡혀 또 세상을 떠다니며 인류 앞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어두움의 그늘에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순종과 십일조”, 밀레니얼 스타, 1893년 1월 20일, 79쪽)

학습을 위한 제언

-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2:37~40 참조). 이 계명들이 그토록 근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랑이란 무엇인가? (모로나이서 7:45~48 참조) 사랑이 우리의 행동에 가득차고 또 우리의 가슴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왜 “사랑이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모로나이서 7:46 참조)
- 불운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노라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알게된 약점을 어떻게 다루어야만 하는가? (누가복음 6:41~42 참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덕을 크게 할 수 있는가?
- 매달마다 금식일을 준수하고 또 금식 헌물을 바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교회가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여러분이 새로운 회원 또는 외로운 회원들을 찾아내거나, 지역 사회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며, 금식 헌물을 더욱 많이 내거나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활동등에 참여하는 노력 등을 통하여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여 본다.
- “우리의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22~23 참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기꺼이 희생할 때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서 증오심과 악의, 질시, 그리고 분노를 제거하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참된 사랑을 품도록 도와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음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그분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주님의 사업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이러한 개인적인 계시, 곧 영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제가 소년으로서 처음으로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을 때, 저는 곧잘 밖으로 나가서 주님께 간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든 놀라운 것을 보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것을 보이시지 않고, 그분께서 저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진리를 알게 하실 때까지, 의심과 두려움이 저에게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진리를, 율례에 율례를, 교훈에 교훈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씩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를 보낼 필요도 없었으며, 천사장의 나팔을 통해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작고 조용한 음성의 속삭임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저에게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와 권세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의 자녀들에게 그들과 함께 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시는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복음 교리, 제 5판 [1939년], 6~7쪽)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증거하였다. “저는 저의 가슴 속에 다른 모든 증거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의 간증을 받았는데, 이는 그것이 저에게, 저의 영혼에, 저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관해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말일에 그분께서 지상에 서실 것이며, 또 그분을 맞을 준비를 갖춘 사람들에게 오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복음 교리, 506~507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사임

우리가 받은 복음의 모든 원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이해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간증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이에 의해 생명과 구원의 원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도록 계획되었습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발행, 1895년 5월 14일, 1쪽)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간증의 은사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두드리면 열릴 것이며, 구하면 주실 것이며,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7~8 참조) 그리고 여러분이 지혜를 원한다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슴 속에 지식과 영의 간증을 원한다면, 그것을 열렬히 찾으십시오.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로서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이며,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대회 보고, 1903년 10월, 4쪽)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원리와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 [간증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 사유함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후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일치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인간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제정하신 방법과 맞추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가슴속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한 사명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증거를 받은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회복된 원리의 참됨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영과 교통을 하고 또 영이 우리

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육적 감각을 통하여 자주 우리와 교통을 하시지 않으시나,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불멸의 부분, 즉 영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영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메시지를 받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설교”, *밀레니얼 스타*, 1906년 9월 6일, 561~562쪽)

우리는 계시에 의하여 [간증의] 이 빛을 얻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의 지혜에 의해 그것을 얻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이해력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전적인 신뢰를 인간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둔다면 진리의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8년 1월 29일, 1쪽)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무시되거나 함당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거두어집니다. 개인과 모든 사람의 발전을 위하여 신성한 은사를 일단 받았으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한 간증이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교리*, 206쪽)

영생의 원리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과 그것의 실천을 통하여 얻어진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령의 계시는 예지와 기쁨, 그리고 행복의 영속적이고 확실한 근원으로 그것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며, 또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의 창조주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6년 11월 28일, 1쪽)

성신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 가슴에 증거함

예수께서는 … 우리의 안내자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관을 쓰겠다고 기대한다면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있으므로 그분께 순종하고 또 우리의 신뢰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행하심, 말씀, 교훈, 그리고 모범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식적인

지성을 지닌 고결하고 정직한 어떠한 남성 또는 여성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 관해 밝히신 신분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이 없이 신약전서의 복음서들, 그리고 구세주에 관해서 그곳에 주어져 있는 간증들을 읽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결하고 정직한 모든 사람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성령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거룩한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간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정직한 마음과 온유한 영으로, 전통과 잘못된 교육에서 나오는 그릇된 개념과 편견을 버리고 영감받은 이러한 기록들을 읽을 때는, 주님의 영은 확신에 차 불타오르는 듯이 확실한 언어로 증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을 읽음으로써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확신과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지식을 나누고 또 이런 간증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그 밖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경, 곧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우리에게 온 “에브라임의 막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책은 또한 주님께 대해 증거하고 있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다른 양”을 방문하여 그들을 한 우리에게 넣고 그들도 그분의 양이 되도록, 그리고 그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대륙의 주민들에 대한 그분의 사명, 그리고 그들과 있었던 일에 관한 기사를 나타내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책 자체가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 이외에도, 우리는 그 책을 번역하고 또 그의 간증을 자신의 피로써 인봉하였던 사람의 다른 간증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그 책이 번역된 출처가 된 판과 그 위에 새겨진 기록을 보았음을 온 세상에 증거한 다른 증인들의 간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두 증인 곧 성경과 물론경이 있으며, 이 두 기록은 똑같은 진리,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죽으셨으나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살아 나서서 무덤을 이기셨다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보충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물론경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책, 곧 우리와 동 시대에 살았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들을 담고 있

는 교리와 성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누웠다가,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무덤 밖으로 나오신 분과 동일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신성한 진리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두 세 증인의 간증으로 우리는 정당화되든지 아니면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를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제가 더 많은 빛 또는 진리를 얻을 수가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빛이 오고 또 제 자신이 그것을 갖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을 때, 저는 그러한 작은 빛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빛과 축복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이후로 우리는 만족을 얻거나 행복해질 수 결코 없습니다...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순종을 통하여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성신이 주어졌으며, 그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 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진리에 관하여 가졌을 수도 있었던 확신을 성신이 확증하여 주며 우리에게 그것의 정확함을 보증해 주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개인적인 지식, 말로써 얻은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들은 것으로 스스로 알게 된 지식을 얻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서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미친한 도구로서 제가 책에서 얻게 된 지식 때문이 아니라, 저에게 온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드립니다. 저는 저의 구속주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육체가 썩더라도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빛이 제게 왔으며, 이런 빛이 저의 가슴과 마음에 있으며, 저는 그 빛에 대해 증거드리며,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에 의해 증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

저 혼자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이같은 간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수 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스스로 그 진리를 알고 있습

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으며,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가슴 속에 증거하는 성신을 받았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로 책에서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씀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스스로 지식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이러한 간결하고 소중한 것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78년 4월 30일, 1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은 그분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도록 우리들에게 영감을 줌

우리는 구세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분 안에서 안전하며, 든든함을 느끼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에게 만일 온 세상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절실히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있으며, 또 그 사람과 사귀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제 영혼의 구세주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으며,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으며, 무덤을 이기셨으며, 우리에게 그분을 따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생명으로 나오셨으며, 그분은 스스로를 구원의 길, 세상의 빛과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으며,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이 비추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듯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제게 영감을 주어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생활의 순수함, 명예, 고결, 정직, 그리고 악이 아닌 의로움을 불어넣고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증거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의 가슴에 이런 확신을 가졌고, 제가 받은 이런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제가 여기에서 멈춘다면, 그것이 어떤 유익을 저에게 주겠습니까? 이런 지식이 저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이

런 지식만으로 어떤 소용이 있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간증을 저의 가슴에 받고, 그것에 대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저의 영혼에 받고서, 제가 여기에서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제 영혼에 있는 바로 그 증거가 저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의 영향력을 우리의 영혼에 유지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행하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승영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에 간증을 갖는 것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명하신 것과 그분께서 행하신 의로운 사업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21)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22~23)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입술로는 그분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입으로는 또는 그 말로는 그분을 영접한다 하면서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명한 것을 행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려 하지 않으며, 죄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침례를 받으려 하지 않고 안수례에 의해 성신의 은사를 받으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우리로 들어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택한 이들과 헤아림을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분께서 여러분을 알지 못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입니다. (야고보서 4:17 참조) 이 구절이 단순히 믿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믿는다면,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어떤 이유로 행치 아니합니까? ...

여러분이 자신의 습관과, 인생의 진로, 여러분의 행동과 행위에서 ... 하나님

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말일성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받은 복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행동이나 행위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악마가 여러분을 이용할 것이며, 그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할 것이며, 그가 여러분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간증”, 임프 르브먼트 이라, 1906년 8월호, 806~8쪽)

우리의 온 가슴과 온 영혼을 다하여 구세주를 사랑함

순수한 간증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강한 지지대였습니다. (브라이언 에이 치 스튜이 편집, 윌포드 우드립 대관장,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의 설교집, 전 5권 (1987~1992), 제 2권 356쪽)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 저의 간증을 전해 드리고 싶은데 이는 저의 온 존재를 지배해 버린 하나의 확신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잡았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의 모든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속주가 되심을 저에게 계시하여 주셨음을 말씀드리는 특권을 갖고 싶습니다. (복음 교리, 458쪽)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온 가슴과 영혼은 완전히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저의 소망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특성과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흠이 없으셨으며, 영생에 이르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인간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무덤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저의 신뢰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마땅히 지녀야 하는 복음의 영을 지녔을 때, 그분에 대한 저의 사랑은 지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며, 그분은 저에게 모든 것에 우선 하시고 최고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하며, 그분께서는 우리의 등대불이시며, 우리의 안내자이시며, 모범이시므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설교집, 제 5권 55~56쪽)

학습을 위한 제언

- 간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는가? 간증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생명과 구원의 원리에 대한 순종”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 여러분의 간증은 어떻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성장하여 왔는가? 성령의 계시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는가?
- 어떤 조건 아래서 간증의 은사가 물러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간증에 영양분을 주어 키울 수 있는가? 우리의 간증에 영양분을 주어 키우는 데 실패하였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 우리는 어떻게 간증의 은사에 대해 감사함을 보일 수 있는가?
-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간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경전에 어떠한 영으로 다가서야 하는가?
- 우리는 어떻게 “말로써 얻은 것이 아니라 ... 스스로 알게”되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개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 성신을 통하여 얻은 간증이 어떻게 다른 모든 증거들을 능가하는가? 성신으로부터 온 증거로 여러분은 언제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가?
- 구세주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의로운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간증이 어떻게 강화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세주의 “영의 영향력을 우리의 영혼에 유지”할 수 있는가?
- 구세주에 대한 스미스 대관장의 강력한 간증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간증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었는가? 우리가 자신의 간증을 할 때, 우리 생각의 중심을 왜 예수 그리스도에 게 두어야만 하는가?

감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을 지지함

우리는 감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의 신권 지도자를 참으로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자신의 신권 지도자를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지지하였다. 그분의 수고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라는 충실한 니파이의 말의 실천의 연속이었다. (니파이일서 3:7)

1873년 10월, 브리감 영 대관장은 선교 사업을 위해 그를 다시 불렀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하였다. “미국 정부로부터 땅을 취득한지 4년이 지났을 때 선교 사업을 하라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 땅의 소유권을 얻어 제 명의로 등기하려면 1년을 더 그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 대관장께서는 제가 유럽으로 선교 사업을 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업을 책임졌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브리감 형제님, 제가 갈 형편이 못됩니다. 저에게 정부에서 얻은 땅이 조금 있는데 제가 지금 떠난다면, 그 땅을 잃게 됩니다.”라고 그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브리감 형제님에게 “좋습니다. 영 대관장님, 대관장님께서 제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의 지도자의 부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땅을 잃게 되었으나, 결코 그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 때문에 그 땅을 잃게 되어 그 책임을 브리감 형제님에게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20만평의 땅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상에 있는 나라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보내어졌습니다. 저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에게서 부름을 받았으므로 제 자신과 개인적인 조그마한 권리와 특권을 생각하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은 대로 나아갔으며, 하나님께

서는 그 부름 가운데서 저를 지지하여 주셨으며 또 축복하여 주셨습니다.”(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6년 4월 28일, 1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의 지도자를 옹호하고 지지하겠다는
성약의 표시로 우리는 손을 들었음

저의 판단에, 교회의 각종 대회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는 그 대회를 통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 교회의 역원들과 현존하는 교회의 조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손을 들어 교회의 역원을 지지한 후에, 그것에 관하여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또한 그저 형식상 거쳐 가는 일처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성약하고 나서 그 계명을 준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성약을 어기는 사람들은 교회의 역원을 옹호하고 지지하겠다는 성약의 표시로 그들의 손을 들었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그 원리는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맺은 성약을 어기는 것입니다.(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5년 5월 14일, 1쪽)

사람이 교회의 역원을 거수하여 지지하고 나서는 그들에게 반대하고 또 그들이 주는 권고를 받아들여 밟아버리는 것은 전능하신 이의 면전에서 심각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브라이언 에이치 스튜이 편집,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및 그 외의 사람들의 설교집, 전 5권 [1987~1992], 제 4권 298쪽)

교회의 역원을 거수하여 지지하며, 그저 단순한 형태로 그 손을 들어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부과된 중요한 의무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음성을 높여 그들을 감리하는 위치에 있는 주님의 종들을 지지하겠다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 하루가 지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 교회의 감리 역원들이 주 안에서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직책에서 해임되는 자들도 지지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 우리가 함께 모여 … 교회의 역원을 지지하며, 나아가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이 지상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옹호하는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룩한 신권 역원들을 말일성도들이 진실하게 그리고 행동으로 존중하고 또 지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강력하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역원을 지지하지 않게 하는 영이 회원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반항 또는 불화의 영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영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도록 허용하다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은 암흑과 배도로 인도될 것입니다.(*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8년 6월 28일, 1쪽)

우리가 교회에서 역원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발표할 목적으로 일 년에 두 번 연차 대회에서 함께 만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이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능, 그 권리, 그리고 그들이 행사하는 특권을 계속해서 갖는 것도 사람들의 지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여성 회원들도 교회의 남성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역원을 거수하여 지지하는 똑같은 특권을 지니고 있으며, 충실한 위치에 있는 한 자매의 거수는 모든 면에서 한 형제의 지지와 동등하게 헤아려집니다.(*복음 교리*, 제 5판 [1939년], 158쪽)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감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총관리 역원을 지지하고 존중함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반면에, 오직 말일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특별한 계명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한 계명입니까? 이러한 계명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감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신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부름과 제가 지닌 신권의 영이 엄격하게 조화를 이루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저를 존중하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교회 회원들의 목소리로 저에게 부여된 신권과 권능을 넘어선다면, 교회의 어떠한 회원도 저를 존중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직분에 따른 의무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1914년 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고
훗날 제 10대 교회 대관장이 된 그의 아들 조셉 필딩 스미스와 함께 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의 모든 회원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기울이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여지고 또 저의 의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능하신 이의 말씀이며 또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경전의 말씀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

“보라, 나의 종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주의 약속이니라.” (교리와 성약 68:4~5)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를 말하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지명하신 통로를 통하여 나타나는 영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것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계명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제가 불의한 가운데 권고를 드린다면, 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백성에게 사악함을 가르칠 수 없으며, 또 그런 상태를 오랫동안 계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어 그의 마음의 비밀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성도들에게 밝혀질 것이며, 그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의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을 역원으로 ... 인정한다면, 그 때에는 그들의 권고를 명심하지 않는 회원은 불쌍해질 것인데 그것은 그가 범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에게 잘못된 권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

...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감리하도록 권세를 맡긴 분들의 입이 막혀서 죄를 나무라거나 가증함을 꾸짖지 못하는 날이 오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망대 위에 있는 파숫군입니다. (에스겔 3:17~19) 사람들 가운데 있는 실수와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며 의무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감으로 그 결과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의로운 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며, 가증함을 꾸짖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6년 1월 21일, 1쪽)

우리는 우리가 지닌 빛에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제 보좌들과의 만장 일치, 우리들의 완전한 동의,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이해를 통하여 제가 어떠한 것이 옳다는 가장 명확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만장 일치가 아니거나 우리가 그것에 관하여 완전하게 동의할 수가 없다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영향을 주게 되는 어떠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거나 또는 그러한 일을 인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뒤에 힘을 갖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의 손을 들어올리고 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대회 보고, 1902년 4월, 86~87쪽)

사람들이 서로에게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들이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의 마음속으로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그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훌륭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는 생각지도 않고 또 그는 너무 많은 결점과 약점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권능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을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 그들이 그 개인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반대하는 강한 감정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품고, 전능하신 이가 의도하신 바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신권의 권능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눈이 스스로 멀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와 [교회 대관장 및 그 보좌들] 사이의 개성 때문에 슬픈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기도로 우리를 지지할 수 없다는 느낌을 그의 마음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 사람이 추구해야 할 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셨으며, 그분의 신권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구름이 점차 거두어지고 또 안개가 사라질 것이며, 주님의 영이 더욱 충만히 다가와 나를 구

출하여 줄 것이며,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하였다면 그 점을 내가 회개하리라는 것을 나는 곧 알 수 있게 될 것인데, 이는 잘못된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83년 6월 26일, 1쪽)

우리의 지역 역원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권고에 귀 기울이임

교회의 대관장단이 교회 전체, 곧 세상에 있는 모든 스테이크, 모든 와드, 그리고 선교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모든 지역을 감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 [스테이크장단]께서는 시온의 스테이크와 그곳에 속해 있는 모든 와드와 지부를 감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올바른 일에서 그들을 지지해 줄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하였을 때, 만일 그 사람들이 그분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그분들의 머리 위가 아닌,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꾸짖고, 의롭지 못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들이 속한 모든 스테이크에서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근면할 것을 권고하고 또 훈계하는 일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 저는 여러분께서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 [스테이크장은] 감리하고, 권고하며, 지시를 하며, 이곳의 사람들이 관심사를 돌볼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 우리는 모범과 교육, 훈계, 질책, 권고, 그리고 권유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또 이해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는 이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는 이가 말하더라도, 그들은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크장단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분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 여러분은 그들을 지지하고 옹호해야 하며, 그들의 권고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사악하게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는 권고에서 실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햇불처럼 서 있기 때문인데, 그저 단순한 햇불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교회의 장으로서 그들의 위치에 서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능하신 이로부터 계시와 지혜를 받으며, 또 이러한 분들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들이 그들의 의무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모든 남자와 여자의 권리입니다.(*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6년 1월 21일, 1쪽)

감독은 자신의 와드에서 역원이며, 감독이 있는 와드에서는 그의 보좌들과 그 와드의 회원들이 그가 속한 회장단의 권능에 속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도 안됩니다. 혹시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는 신권의 통치의 신성한 원리 가운데 하나를 범하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166쪽)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감독에 대한 어떤 신뢰도 없습니다. 저는 감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편파적입니다. 그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 직분에 있는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이와 같은 사실, 곧 [감독과 그의 보좌들이] 그 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뜻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그 곳에 놓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신성한 권능으로 그것을 와드에서의 회장단의 반차로 지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곳에 있는 것이며, 감독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능을 지니고 그 곳에 있는 것입니다…

… 사람이 “저는 말일성도입니다. 복음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통치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실한 교회 회원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제가 감독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그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를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통치의 원리와 신성한 권능에 대한 순종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바로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소동을 일으키고, 유순하지 않고, 다스릴 수 없게 되며, 바람직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공적과 허물에 따라 심판 받게 됩니다.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총 6권 [1965~1975년], 제 5권 83~85쪽)

사람이 자신의 감독이나 그의 보좌 가운데 한 분 아니면 두 사람 모두를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로서 자기 자신을 감독 또는 그의 보좌들, 그리고 교회 전체 회원의 심

판자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언행이 일치하는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그는 [교회에서 이미 배도하여 나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이 교회에서 배도하여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결코 배도한 적이 없다고 그들 마음속에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도하였거나 또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만일 제가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의 감독, 십이사도, 또는 대관장단에 대해 반대의 손을 든다면, 그 순간에 저는 배도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배도했어. 요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 존 테일러도 배도했고, 나만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거야.”라고 말하며 떨어져간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제 자신을 가져다 놓아야만 합니다. 그 위치란 신권의 권능에 반대하여 모반했지만 신앙은 지키려 한다는 그곳입니다. 이 지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시대에서 오직 지명을 받은 한 명 외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83년 6월 26일, 1쪽)

따라서 저는 여러분께 스테이크장단과 여러분의 감독,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감리자의 직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기도로 그들의 직분에 있는 그들을 지지하여 주시고, 여러분께서 모든 선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도울 것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면, 그 일로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6년 3월 31일, 1쪽)

우리의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호의, 신앙, 우정을 보여 주는 증거임

저는 교회에서, 그 책임 영역에서, 그리고 그 부름에서 공식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 회원들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사의 의무가 그가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책임 영역에서는 사도의 의무만큼이나 신성하며,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교회의 관리 정원회의 직분과 그 권고를 존중하는 만큼이나,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교사를 존중해야 하는 커다란 의

무를 지니고 있다는 교리를 지지합니다. 그들은 모두 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시고 또 그들을 그분의 교회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그들의 부름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그들의 직분에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 죄가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148쪽)

우리는 책임있는 직분에 지지되기 위하여 발표된 사람들에게 반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하며 또 결점을 찾는 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리저리 다니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러한 형제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반대하고 싶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양심적인 회원으로서, 경전이 지지하는 대로,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방문하여, 그들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그러한 느낌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느낌을 확대하려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인의 정신으로, 화해와 형제애의 정신으로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 우리 안의 비통한 느낌이 있었다면 그것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 우리의 형제를 반대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리고 시온의 대업을 행하는 형제와 자매들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8년 6월 21일, 1쪽)

저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많은 회중이 이곳에서 손을 들어 보여 주신 만장일치의 지지에 대해 ...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앞에 발표된 모든 총관리 역원과 지역 역원들, 또는 보조 조직 역원들에게 주시는 호의와 신앙 그리고 우정의 표시로, 여러분께서 손을 들어서 주님 및 이웃과 맺으신 서약을 따를 것이라는 표시로, 여러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이 모든 조직의 역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겠다는 표시로, 여러분이 그들을 뒤에서 험담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여러분께서 이유 없이 그들의 결점을 찾지 않겠다는 표시로, 여러분께서 이 역원들의 영향력을 손상시키거나 그들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합법적인 사업을 간섭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그들이 관여하고 있는 선한 사업에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겠다는 표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11년 10월, 130~31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우리의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이 “교회의 각종 대회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인가? 우리의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이 “우리가 맺은 성약”임을 깨닫는 점이 왜 도움이 되는가?
- “그저 단순한 형태”가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를 지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는가?
- “교회의 역원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어떻게 “시온의 망대 위에 있는 파숫군”이 되는가? 그렇다면, 그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의무를 행하는 그들을 지지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07:22 참조).
- 스테이크장단의 책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는 보다 잘 그들을 지지하고 또 옹호할 수 있는가?
- 감독이 와드에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능을 지니고 있음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책임들을 수행하는 감독단을 보다 잘 지지할 수 있는가?
- 가정 복음 교사의 의무가 어떻게 “그가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책임 영역에서 사도의 의무만큼이나 신성”한가? 우리는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를 어떻게 지지하고 존중할 수 있는가?
- 우리의 지도자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가?

교회 대신권의 회장

우리는 거룩한 신권의 열쇠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의 대관장을
지지하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1901년 11월 10일에 열린 특별 대회에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 6대 대관장으로 지지되었다. 이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됨으로써 조셉 에프 스미스가 교회의 대관장이 될 것이라는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이다.(대회 보고, 1901년 10월, 71쪽)

1866년에 브리감 영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네 분의 대관장 곧 브리감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그리고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의 보좌로 봉사하면서, 스미스 대관장은 하나님의 이러한 종들의 “신성한 권능과 … 성실성, 명예, 순결한 생활, 예지, 그리고 그분들의 사명과 부름의 신성”에 대해 여러 번 간증하였다. (복음 교리, 제 5판 [1939년], 152쪽)

그는 교회 대관장으로 17년 동안 온유함과 헌신으로 용감하게 봉사하였다. 그는 성도들에게 “저는 이 사업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며, 주님께서 일하도록 제게 주신 능력대로 겸손하게 노력하여 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제외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 교리, 140쪽)

그는 교회가 신성하게 인도되고 있는 것에 관해 이렇게 증거하였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단 한 순간이라도 인간이 이 교회를 인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요셉의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브리감 영의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백성들 가운데서의 이 사업의 방향은 결코 사람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복음 교리, 70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과 그의 백성을 인도하심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질서있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며 혼란의 집이 아닙니다. 이 집에서는 하나님 그 자신이 맨 위의 우두머리가 되시며, 그분에게 순종하여야만 합니다. 그분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같은 형상이며 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 하나님과 그리스도 다음으로, 지상에는 거룩한 신권에 따르는 권세와 권능의 열쇠를 부여받고 또 대관장단의 권리가 주어진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는 시온의 건설과 백성의 영적 및 세상적 구원과 관계된 모든 일에서 주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복음 교리, 188쪽)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분의 사업을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들을 친히 쓰시는 도구로 만들실 수는 있으나, 그 영광과 명예, 그리고 권세는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또 그분의 시온을 돌보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께 돌려질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나 말일성도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업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간의 사업이 아닙니다. 만일 이 사업이 요셉 스미스의 사업이었다면, 또는 브리검 영의 사업이었다면, 또는 존 테일러나 윌포드 우드럽, 로렌조 스노우의 사업이었다면, 이제까지 받아 왔던 시험을 견디어 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복음 교리, 121쪽)

불확실의 한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고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한 규칙을 세우는 일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시는 [교회 대관장] 존중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보고, 1902년 10월, 87쪽)

세 명의 감리 대제사가 지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에 있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과 성신이라는 하나님께서 신회, 그리고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감리하는 정

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지상에 있는 교회의 머리에 계시며 … 그분들의 유일한 생각은 온 인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들의 한량없는 돌보심은 주님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며, 그분들의 한결같은 노력은 그들을 단합시키고 시온 건설을 돕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와 부름에서 수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898년 4월, 69쪽)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서는 이 교회의 대신권과 또 교회 전체를 관리하는 3 명의 대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22, 64, 65, 66, 67, 91, 92 참조) 그분께서는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열쇠와 복음의 의식의 열쇠, 그리고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회복된 모든 축복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세 명의 대제사로 구성된 회장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세 명의 회장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그렇게 호칭하십니다. (교리와 성약 107:29 참조) 그러나 한 명의 감리 회장이 있으며, 그의 보좌들도 역시 회장입니다.(복음 교리, 159쪽)

교회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대관장단이라 불리우는 평의회이며, 한 명의 회장과 두 명의 보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12 사도가 있는데 이들은 권능에 있어서 대관장단과 동등하지만 대관장단의 지시에 따르고 또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전 6권 [1965~1975년], 제4권 248쪽)

교회의 감리 역원은 “회장”으로 불리워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불리워지고 호칭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대관장단의 보좌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이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107:22, 24, 29 참조) 그러나 교회의 대관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또 비록 “예언자”, “선견자”, 또는 “계시자”라는 높임을 받는 호칭이 특별히 그 한분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또한 각각의 보좌와 각각의 사도들에게 속한 것이라 해도, 그 분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호칭들은 영적인 권세와 기능의 의미를 지니며, 그렇게 흔히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신성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제4권 307쪽)

교회에는 항상 머리가 있으며, 만일 교회의 대관장단이 사망이나 또는 다른 이

유로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교회를 관리할 대관장단의 직분을 맡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세 명의 감리 대제사로 다시 대관장단이 조직될 때까지 교회의 그 다음 머리는 십이사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권의 움직임과 질서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적된 방법에 따라 즉시 대관장단이 재조직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십이사도의 의무입니다. (복음 교리, 160쪽)

대신권의 회장은 거룩한 신권의 열쇠를 지니고 있음

일반적으로 신권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권능입니다. 신권의 어떤 직분이라도 성임된 모든 사람은 그에게 위임된 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능 아래 수행되는 모든 행위는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질서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시하는 권세가 신권의 열쇠를 구성합니다. (복음 교리, 136쪽)

교회의 관리권과 벨기세텍 및 아론 신권에 속하는 모든 열쇠와 권능, 그리고 권세는 교회의 감리 역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거나 교회 대관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가 채울 수 없는 직분이 없으며, 그가 행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9 참조) 그는 축복사의 직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대제사, 사도, 칠십인, 장로, 감독 그리고 제사, 교사, 집사의 직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에 속해 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부름 가운데 어떤 부름에서도, 그리고 모든 부름에서 필요한 때에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음 교리, 158~159쪽)

지상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지닌 사람은 한 시대에 단 한 명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는 그분께서 그것들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떠나게 되자,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위임하여, 베드로가 사도들의 회장 내지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계시를 받으며, 모든 형제들에게 권고를 주는 것은 그의 권리였습니다. 사탄과 사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압도하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박고, 사도들이 돌아가신 후에,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서 거두어졌습니다.… 이 신권의 열쇠가 지상으로부터 거두어진 때



대관장단 (1910년 4월~1911년 10월)
 왼쪽부터 안톤 에이치 린드, 조셉 에프 스미스, 존 헨리 스미스.

로부터 요셉 스미스가 그것들을 받을 때까지,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온을 건설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교회나 사람들을 준비시킬 권능이 있는 그 신권 또는 신권의 열쇠를 지니지 못하였습니다. (복음 교리, 40쪽)

교리와 성약은 “멜기세덱 신권은 관리하는 권한이 있나니, 이 세상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관리하는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 영적인 일을 집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어 교회에서 각 역원이 각자의 부름에서 집행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7:8 참조)

나아가 같은 계시 65절과 66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느 한 사람이 교회의 신권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신권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나니, 저는 교회의 대신권의 대관장이라 불리우리라.

“바꾸어 말하면, 교회의 대신권의 관리 대제사니라.” (복음 교리, 158쪽)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신권이 그 어떤 신권 직분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사람은, 그 신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권능을 지닌 사람에 의해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 그 신권에 속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의식이라도 집행하게 되며, 그 합당한 권능은 교회의 대관장이나 또는

그가 지명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역원은 그의 지시를 받으며, 그는 하나님에게서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주님에게서 선택되어, (교회의 역원들과 회원들을 포함하여) 교회의 신권이 그를 받아들이고 지지할 때 그렇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107:22) (복음 교리, 157쪽)

대관장은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도록 지명되었음

주님께서는 교회의 조직과 권능, 의식 및 교리와 관련하여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의 열쇠를 지니도록 한 시대에 한 명을 지명하셨습니다. 계시의 영은 그 영감을 받는 각 개인의 유익과 이해력을 위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주어지며 또 그 사람이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영역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머리에 계신 사람만이 계명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 또 논쟁을 종료시키도록 지명되었습니다. 보좌들의 도움을 받아, 대관장은 온 세상에 있는 전체 교회를 관리합니다. 따라서 대관장단은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며, 또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권위에 찬 지시를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제 4권 270쪽)

교회의 대관장이 종교 조직에서 율법과 교리 그리고 신성한 계시를 받는 유일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점과 그러한 계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어떤 주제에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올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러한 계시가 무엇을 권고하거나, 무엇을 조언하거나, 무엇을 요구하거나 관계없이 모든 충실한 말일성도의 마음에서 가장 으뜸된다 것을 그들의 신앙의 원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제 4권 154쪽)

어느 한 사람이 그의 형제들, 특별히 감리 직분에 있는 형제들을 다스리고 지시하거나 또는 심판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일어서는 순간에 그 사람을 제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일치, 분열, 그리고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그러한 영에 굴복한 만큼 현명치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드는 순간에, 그들은 그것이 신권의 질서와 이 사업의 영과 정신에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정하신 통로인 신권의 중추 조직, 곧 지정된 통로를 통하여 직접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권능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 교리, 39쪽)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어 그 사람이 이 사업에 지명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같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부른 사람을 지나쳐 다른 사람에게로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한 순간이라도 그러한 발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발상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능하신 이를 모순 덩어리로, 그리고 혼돈과 불일치, 분열을 조장하는 이로 매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지상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83년 6월 26일, 1쪽)

만일 [교회 대관장이] 충실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의 자리에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우두머리, 곧 그분께서 선택하셔서 우두머리에 서도록 하신 이가 그분의 율법을 범하고 또 배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장차 그러한 것으로 이르게 하는 길을 그 사람이 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취하여 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악한 사람이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말하자면, 썩이 오염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일은 그분께서 결코 허락하실 일이 아닙니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83년 6월 26일, 1쪽)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종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임

[이것은]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그분의 마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서 나오는 권고에 따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83년 6월 26일, 1쪽)

하나님의 신권은 그 자리에 올바른 사람, 그의 등에 무거운 짐을 올릴 수 있는 사람, 또 그분 자신의 뜻에서 나오는 권고에 따라 그분의 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밖의 다른 근원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이 매혹적인 악마의 영향력을 향하여 공공연하게 자신을 던지고, 악마의 종이 되기 쉽도록 포기하는 순간에, 그들은 신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인 참된 질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장소 밖으로 나가서 위험한 땅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39쪽)

하나님께서서는 백성들이 보기에 그분의 종들을 귀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의로움 가운데서 그들을 지지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높이 들어올리고, 그들을 그의 면전으로 승영시키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영광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복음 교리, 459쪽)

저는 이 교회의 대관장단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계승한 분들의 신성한 권능에 대해서 간증드립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브리감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럽, 그리고 로렌조 스노우의 성실성, 명예, 순결한 생활, 예지, 그리고 그분들의 사명의 부름의 신성에 대해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에게서 영감을 받아 그들이 부름을 받은 사명을 완수하였으며, 또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과 그분들의 사명, 또한 이 백성, 저의 하나님과 저의 구속주에 대해 제가 생각하도록 하고 그 모든 것들로 저를 이끌어 가는 그 간증과 영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교리, 152쪽)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시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 우편 보좌에 권세와 영광, 위엄 가운데 앉아 계신 그분에 대해 전파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저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으로 맡기신 일들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제가 알고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그분의 백성에 대해 제가 겸손한 성직자와 복음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저의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대회 보고, 1915년 10월, 6~7쪽)

그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저는 그 점을 잊지 말 것을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께 간청드리는데, 이는 그것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일의 사업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머리에 계시며, 그분께서 이 백성을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음 교리, 459쪽)

제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분의 진리를 말씀드릴 때는, 그것은 그분의 영의 임재와 영향에 의해서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영예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결코 제 자신을 위해서 어떤 영예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영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회원이라는

영예, 곧 저의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움직이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다는 영예 외에는 그 어떤 영예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회 보고, 1912년 4월, 137~138쪽)

제가 알고 있는 한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며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며, 주님께서 일하도록 제게 주신 능력대로 겸손하게 노력하여 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빼면 제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국의 왕이 되시며 또 머리가 되십니다. (복음 교리, 140쪽)

학습을 위한 제언

- 누가 교회를 인도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분의 사업을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교회의 회원들이 교회 대관장을 충실하게 따를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교리와 성약 21:4~6 또한 참조) 살아 계신 예언자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는가?
-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그들이 사업을 행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지지할 수 있는가?
-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라는 “높임을 받는 호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호칭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 신권의 열쇠는 무엇인가? 지상에서 모든 신권 열쇠들을 지니고 또 그것들을 행사하는 권능을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교회 대관장을 지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오직 교회 대관장만이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도록 지명되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거짓 예언자와 거짓된 계시를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 교회 대관장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식일을 준수함: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

안식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가장 높으신 이에게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날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말일성도들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중요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시간을 내어 가족을 가르치고 축복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저는 가능하면, 안식일의 교회 모임 사이에 가정에서 제 가족과 함께 앉아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을 방문하며, 그들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될 수 있는 한 안식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러한 목적, 곧 저의 자녀들과 친숙해지고, 그들과 연락을 취하며, 그들이 경전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보내며, 오락이나 농담, 웃음거리나 흥겨움,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임스 알 클라크 편, 전 6권 [1965~1975], 제 5권 17~18쪽)

그는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더럽힌 결과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1898년 6월 12일 일요일, 솔트레이크시티의 태버나클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 모임에 오면서 한 형제 앞을 지나갈 때, 그 형제가 기차역 옆을 지나오면서 그곳에 행락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 만일 그 사람들이 말일성도라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것이며, 그들이 침례의 물가에서 맺은 성약과도 반대되는 것이며, 또 말일성도들에게 허락된 가장 신성한 장

소에서 맺은 성약과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또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 배도를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 해를 초래하게 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8년 6월 28일, 1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주님께서서는 칠일 가운데 하루를 성별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음

하나님께서서는 안식일을 안식의 날, 예배의 날, 아름다운 행위와 겸손, 인내, 그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전능하신 이의 예배를 위한 날로 만드시고 지정하셨습니다.(대회 보고, 1915년 4월, 10쪽)

안식일의 준수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지상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0:8]. (대관장단 메시지, 제 4권 210쪽)

안식일은 안식과 예배의 날이며 주님의 특별한 계명에 의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주어졌고 또 성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자녀에게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복음 교리, 제 5판 [1939년], 216쪽)

칠일 가운데 하루는 예배의 날, 거룩한 생각의 날, 기도와 감사의 날로,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위대하신 대속을 기억하여 주님의 만찬을 취하도록 성별되고 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여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또한 그들이 이렇게 하기를 사랑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안식일 이외의 다른 날에 정당한 방법으로 재활력을 얻고 안식하며 변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합시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8년 6월 28일, 1쪽)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식일을 존중하고 이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안식일에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일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허망한 기쁨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생명과 구원에 관한 기도와 연구, 그리고 명상으로 마음에 안식을 주고 재충전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안식일에 합당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 곳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이를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에게 전해주도록 합시다. 그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대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8년 7월 5일, 1쪽)

안식일을 합당하게 준수하는 것은 모든 말일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평범한 의무이며, 여기에는 청년과 청년 그리고 소년과 소녀가 포함됩니다. 자주 강조되는 이러한 사실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훈계가 필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지역 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주제에 관해 예언자 요셉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들은 매우 간결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는 그 계시들이 구세주의 가르침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간단한 몇 가지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여러분이 일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종교적인 신앙과 의무를 통하여 열의와 열정을 보여주는, 곧 가장 높으신 이에게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는 특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이 모임이나 가정, 또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주님을 위한 예배에 드리도록 요구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안식일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러분께서 주님의 만찬의 성찬을 취하도록



1900년대 초반의 솔트레이크 제20와드 합창단.
 조셉 에스 스미스 대관장은 “성도들의 합창단”이 노래한 음악을, 안식일에 갖는 우리의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생각하였다.

준비된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먼저 주님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금식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 이외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금식과 기도라고 부르신 진정한 뜻입니다. (교리와 성약 59:13~14 참조)

안식일에 이러한 과정이 요구되는 이유가 또한 계시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욱 온전히 흠없이 지키기 위함이며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성도들이 안식일에 기도의 집으로 가서 성찬을 바칠 것이 요구됩니다 (교리와 성약 59:9 참조) …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쟁기질을 하고, 심고, 나르고, 땅을 파는 것은 일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그들이 다른 날에는 너무 바빠 하지 못한 작은 일이나 수리를 하며 하루종일 집주위에 어른거리는 것도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요일 이른 아침에 ... 계곡이나 유원지로 급히 가며 또 아내하고 자녀와 함께 친구를 방문하거나 유흥장소로 갈 때는 신앙과 의무의 열의와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그들은 가장 높으신 이에게 그들의 헌신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즐거움과 오락을 추구하면서 그들의 시간과 관심을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쏟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거룩한 성찬을 취할 때 오는 용서와 예배의 영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소년과 소녀들이 마을 아이스크림 판매대나 식당 근처를 배회하거나 놀이를 즐기며 마차를 타고, 낚시나 사격을 하거나 육체적 운동, 소풍과 야외활동을 하며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해 지는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자신을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흠없이 지키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약속을 그들로부터 빼앗고, 그들에게 기쁨 대신 슬픔을 주며, 의를 행할 때 오는 평안 대신에 불안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복음 교리, 219~220쪽)

우리가 안식일의 그 모든 시간을 우리의 정신을 계발하며 교회에서의 우리의 의무와 교회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율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또 연구하는데 헌신한다면, 우리는 모든 유익을 얻고 또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듯이, 안식일을 존중하여 이를 거룩히 지키는 것이 말일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기도의 집으로 가십시오. 가르침에 귀기울이십시오. 진리에 대해 간증하십시오.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열려있는, 지식과 가르침의 샘에서 마시십시오. 우리가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한데 모으십시오. 노래 몇 곡을 부르도록 합시다. 성경이나 몰몬경, 또는 교리와 성약에서 한 두 장을 읽도록 합시다. 신성한 지식의 학교에서 진보와 관계된 복음의 원리에 관해 토론을 하고 또 칠일 가운데 하루가 이러한 방법으로 채워지도록 합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팔아래 불러모아,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대화

를 하며 그들에게 명예와 정직, 그리고 옳고 신성한 것들에 대한 경건을 가르치며, 연로한 분들과 병약한 분들을 존경할 것과 우리의 문 안에 머무는 손님에게 친절할 것을 가르치는 일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공손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소년들에게 신사가 되라고, 그리고 소녀들에게 귀부인이 되라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귀부인이나 신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된 겸양, 온유, 부드러움, 인내, 그리고 인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친절을 실천하는 소년이나 소녀, 또는 성인 남성이나 성인 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로서 교회 모임 사이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즐거움과 흥미, 그리고 가르침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적당한 시간에 즐거움을 갖도록 하고, 안식일에는 보다 훌륭한 것들을 배우도록 합시다. (*대관장단 메시지*, 제 5권 17~18, 20~21쪽)

토요일 저녁을 주의 날을 예비하는 날로 정함

신성한 주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 변명이 없도록 그들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소년 소녀들이 적절히 오락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중에 갖도록 하고 안식일은 영적인 문화와 예배를 위하여 남겨놓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가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복음 교리*, 221쪽)

토요일 저녁 시간을 안식일을 예비하는 시간으로 하여 사려깊은 대화 및 도움이 되는 독서의 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복음 교리*, 217쪽)

오늘날 … 좋은 계명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토요일에 너무 많은 일을 하여 짜증이 나서 휴식의 날인 안식일에 해야 하는 헌신과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계명입니다.

가정에서, 토요일은 일요일에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집 청소와 여분의 요리, 수선과 여러 가지 수리를 하는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사업 분야에서, 토요일은 주중의 업무 가운데 끝내지 못한 일을 찾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행한 일의 결과를, 우리의 느낌을 예배의 영과 거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고 지쳐서 게으름과 나태한 무관심으로 이끄는 것을 너무도 자주 보게됩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과도하게 힘써 일하여 지쳐버린 남성과 여성은 영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복음 교리, 216쪽)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를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율법 또는 그 계명을 범할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발자취를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칠일 가운데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계명을 계속 범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 자녀들도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365쪽)

주님의 날을 습관적으로 더럽히는 사람과 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공적인 예배와 성찬을 취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이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교회 회원들은 신앙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병이 들 것이며, 영과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며,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에서 그들의 위치, 그리고 순종하고 충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들의 승영을 상실할 것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제 3권 123쪽)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안식일을 존중하지 못하고 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교회 회원은 지금 범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계속 거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리를 알아 그것에 따라 살지 않는 한, 진리를 알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6년 1월 21일, 1쪽)

극장과 다양한 공공 여흥장소가 주님의 계시와는 반대로 안식일에도 문을 열고 있으며, 그런 곳들이 거기에 가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파멸시키는 강력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청소년의 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악과 다른 모든 악에 맞서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여야 하는데, 왜냐하면 부모들의 소홀함으로 인해 자녀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이는 그 부모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제 4권 210쪽)

말일성도들이 이웃에게 정직하고 또 넓은 의미로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만큼이나 안식일을 존중하고 또 안식일에 요구되는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 안식일을 존중하며,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말일성도로서 갖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서 그들의 자녀 앞에 모범을 세우는 것 또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것과 그렇게 할 것을 장려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 자신의 어리석은 행위를 후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8년 6월 28일, 1쪽)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커다란 축복을 받음

일요일은 주중의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이 날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예배의 날로서 인간의 영적인 생활이 풍성하게 되는 날입니다. 나태의 날 곧 육체적 피로 회복의 날은 하나님께서 성임하신 휴식의 날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입니다. 육체적인 탈진과 나태는 예배의 영광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변화와 그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 그 날의 의무와 헌신을 합당하게 준수하는 것은 인간이 안식일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휴식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 교리, 217쪽)

우리의 신앙이 강화될 수 있기를 …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보다는 보다 훌륭한 말일성도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함께 모여 모임을 갖는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 저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마음의 뉘우침이 없이 모임에 오는 습관에 빠져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한 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며,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저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도

가지지 않은채 열의없이 모임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길에 대해 배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주님께 알리기 위해 모임에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일부는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투철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이 뿌린대로 거두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람은 결심을 굳게 하여 일해야 하며, 우리가 함께 일할 때에 각 사람은 기도하는 영을 지녀야 하며, 일하러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자신만을 위하여 나갈 것이 아니라 온 교회 회원을 생각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의 집에서 나가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브리안 에이치 스튜이 편집,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 그의 보좌, 십이사도 및 다른 이들이 전한 설교 모음집, 전 5권 [1987~1992년], 제 2권 364~365쪽)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 일을 하면, 땅의 충만한 것 곧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나무를 기어 오르는 것과 땅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리라. 참으로 음식이나 의복이나 집이나 곡간이나 과수원이나 채소밭이나 포도원 그 어느 것이나 땅에서 나오는 풀이나 좋은 것은” (교리와 성약 59:16~17) 다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며, 육체를 강건케 하며 영혼에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며, 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계명의 하나입니다...

다른 날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운동과 오락을 하고, 안식일에는 휴식을 취하고, 예배하며, 기도의 집으로 가며, 성찬을 취하고, 한 가지 마음으로 우리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려 땅의 충만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또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복음 교리, 219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어떤 목적으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성별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는가? 휴식과 예배의 날을 갖는 것에는 어떤 축복이 따르는가?
- 안식일에 우리의 일에서 떠나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식일에 합당한 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가족들에게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가? (교리와 성약 59:13~14 참조.)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불행과 영의 상실, 그리고 배도로 연결되는가?
- 안식일에 우리 가족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안식일에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옳고 신성한 것들에 대한 경건”을 가르칠 수 있는가?
- 우리들이 토요일에 갖는 활동이 어떻게 우리의 안식일 예배의 질을 더하거나 감할 수 있는가?
- 우리가 일요일 모임에 갈 때 우리의 책임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모임에서 참된 예배의 영을 갖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 우리가 안식일을 존중할 때, 어떤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교리와 성약 59:9~23 참조)



솔트레이크시티에 소재한 1917년 이전의 유타 계보 협회 (오늘날의 가족 역사 도서관의 전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릴리안 카메론, 조셉 크리스텐슨, 조셉 필딩 스미스, 버타 에머리.

우리의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일생을 통하여, 조셉 에프 스미스는 “주님의 사업의 발전을 갈망하며”(대회 보고, 1918년 10월, 2쪽) 하나님의 왕국에서 열심히 봉사하였다.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되었던 특별 대회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다. “우리의 의무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사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굳은 결심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분의 영이 주시는 영감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왕성하게 이 사업을 진척시키는 것입니다.”(대회 보고, 1901년 10월, 69쪽)

그는 전세계에서 늘어가는 와드와 지부에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해 줄 것을 권장하였다. 그가 잉글랜드에서 선교사업을 관리하는 동안, 셰필드 지부 회원이었던 윌리엄 포울러가 하나님의 왕국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이 하였던 일을 말해 주었다. 교회에 가입하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포울러 형제는 복음을 믿는 자신의 신앙과 그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찬송가를 작곡하였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그 찬송가를 처음 불렀던 모임에 계셨다. 그 찬송가는 전세계의 말일성도들에게 친숙하게 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으로 시작되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한사람 한사람의 충실한 성도가 주님의 사업에 기여하는 것을 크게 감사하게 생각했으며 자신의 생을 모든 사람, 곧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해 봉사하기를 갈망했다. 그는 성전 사무장으로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는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성전 사업을 감독하였다. 그리고 그는 훗날 솔트레이크 성전장이 되었다. 1894년에 창설된 유다 계보 협회는 그의 지도 아래 번창하였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는 모든 사람들의 복

지와 구원을 위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바쳐졌다. 그는 그 사명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이 세상에서 산 자의 구원과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하여 일하는 것 만큼 위대하고 영화로운 것은 없습니다.”(복음 교리, 5판 [1939년], 418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음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그 행하신 사명을 이루게 하신 분께서는 또한 제 음성을 듣고 계신 분들과 참으로 세상에 계신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을 보내어 한 가지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 사명은 태만이나 무관심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무지하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루기를 요청하신 사항들을 배우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책무, 그리고 말일에 지상에 회복된 시온의 대업에 대해 지고 있는 책무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복음 교리, 223쪽)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말할 때는, 우리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 전능하신 분께서 이 지상에 제정하신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유익과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생명 과학에서 볼 때 사람이 전적으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세에서나 영원에서나 혼자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개인은 신앙의 가정에서 한 단위가 되며 또 그는 전체에게 맡겨진 책임 가운데서 자신의 몫을 깨달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자신을 세상에서 깨끗하고 때묻지 않게 자신을 지킴으로써,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깨끗하고 때묻지 않게 지키게 돕게 됩니다. (복음 교리, 107쪽)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일 그리고 매시간 살아 있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번 주, 이번 달, 그리고 이 해에 옳은 일을 하도록 요구하며, 또 이후로 매년마다 우리의 종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그리고 의와 진리, 자비, 사랑, 용서, 친절, 단합, 지상에서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의 종교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교리, 360쪽)

우리는 영광스러운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을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과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로 놓으신 모든 것, 아니 그보다 만 배나 되는 것을 바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기에 비교할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모든 것이며,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이며,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유할 가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 교리, 77쪽)

우리 각자는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끝까지 충실하십시오. 여러분께서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의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물러선다면 그 다음에는 범법에 대한 벌칙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승영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족과 친구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영광과 예지, 그리고 끝없는 삶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민과 관심이 이 대업에 집중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사랑이 오직 이 대업만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십시오. (테저렛 뉴스, 1894년 5월 5일, 608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세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인간이 이 생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활용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교리, 73쪽)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교통하며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그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에 그분들을 알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분들을 알고 또 그분들과 교통하기 위하여, 고대에 성도들이 하였던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우리는 그들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축복을 누리며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씩하여 아버지의 지식에 이르고 스스로 그분

에 관해 알 때까지 매일 그분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아는 것도 또는 어떤 사람이 저를 위하여 대신 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나타내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아버지에 대해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해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영의 간증을 지니고 있으며 또 복음의 첫 번째 원리에 대한 지식을 지닌 사람은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으며,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다른 영혼이 그 진리를 믿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도록 인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구원한 것은 복음에 대한 그 사람의 순종과 그 사람 자신의 의로운 행위이지, 그 사람에게 간증을 전한 사람의 순종과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부대관장의 설교”, *필레니얼 스타*, 1895년 9월 19일, 596~597쪽)

여러분은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애정, 그리고 여러분의 온전한 영혼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분의 면전에서 승영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뜻을 포기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8년 8월 9일, 1쪽)

우리는 우리 자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일해야 함

하나님이시여, 제가 저의 가족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또 주 앞에 제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도와 가르침, 합당한 영향을 얻기 위해 저에게 의지하고 있는 저의 가족을 잃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시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제 가족에 대한 관심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 노력하는 동안 제 자신의 가정을 소홀히 하여 미래에 제가 가족을 잃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당연히 큰 고통을 느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때, 주님께서서는 제가 제 가족을 구원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제

가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며, 그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저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자녀들에게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제가 해야 하는 그 일을 완수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한 멀리 저의 힘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교리, 420쪽)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은 선을 행하고, 가증함을 우리의 발 아래로 떨어뜨리며, 의와 순결, 그리고 거룩함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치되거나 다른 백성에게 주어지지 아니할 시온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빛과 힘, 그리고 신앙과 권세의 원천이 되며, 그들을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며, 회복된 복음 및 신권 안에서 그들을 주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한 신자로 만들어 주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자녀들이 이 지식과 신앙 안에서 확실하게 자리잡아 그것으로부터 결코 빛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129~130쪽)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한 영혼은 가정에서 구원을 받은 한 영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역인 바로 가정에서 올바르게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우리 가족에게 행할 필요가 있는 일을 소홀히 한 채 가정에서의 일보다 더 필요하지 않은 일을 행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합시다. (복음 교리, 354쪽)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일해야 함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그리고 의로움과 구속의 대업을 지지합시다. 우리가 서로 시온산에서 구세주의 친구가 되도록,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와 그들이 강하게 되도록 돕고, 의심하는 사람을 북돋우며, 가능한한 그들이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도구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서로를 지지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친절하게 권고합시다. 우리는 인간을 구원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권세는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가야하는 길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동료들에게 교훈 뿐만이 아니라 모범으로서 …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복음 교리, 228쪽)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지식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회개로, 또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순종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일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오류로부터 구원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악으로부터 돌이켜 선을 행하게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복음 교리, 66쪽)

우리의 사명은 구원하는 것이며,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인류를 승화시키는 것이고, 세상에 빛과 진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지상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걷도록 하는 것이며, 그들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존귀케하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67쪽)

우리 영혼의 위대성은 우리 자신만을 위하고 또 생존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우리의 능력보다는 위로와 위안을 주는 능력, 곧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능력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 교리, 237쪽)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패배시키기 보다는 항상 그들이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가 아들 하이람 엠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 1896년 7월 31일, 진리와 용기: 조셉 에프 스미스의 서한, 조셉 필딩 맥콩키 편, 52쪽)

우리의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며,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국에는 복음의 의식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의의 원리, 공의 및 진리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136쪽)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의존하는 모든 사람을 구

원할 때까지는 우리의 사업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시온산에서 구원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해 질 수 없으며, 그들 없이는 우리 또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을 동안 그들의 무지와 그들이 놓였던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해야 할 특정한 일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행할 수 없고 또 “감옥”에서 그들을 풀어내고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고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데 필수적인 의식들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야 합니다. (복음 교리, 401쪽)

우리가 복음 지식 없이 돌아가신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조상들을 돌보아야 하는 일과 예언자 요셉이 강력하게 권고한 우리의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복음을 배울 수 없었으며 또 복음의 지식이 없이 죽어, 지금은 영육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의식이 집행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 곧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행복과 구원, 그리고 구속에 필수적인 것으로 계시된 복음의 신성하고 강력한 의식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속박의 사슬이 그들에게서 풀릴 것이며, 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암흑이 깨끗이 사라져 빛이 그들 위에 비추게 되어, 영의 세계에서 그들을 위하여 이곳에서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 행해진 사업에 대해 듣게 될 것이며 또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 여러분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427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신권을 지닌 형제가 스스로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결코 없으며 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생명이 계속되는 한, 선을 행하는 능력과 시온을 세우고 인간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들을 신속하게 기쁜 마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복음 교리, 169쪽)

학습을 위한 제언

-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함으로써 우

리의 사명을 달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의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가? 주님의 사업이 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선택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결심을 주님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는가?
-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승영”하기 위하여 믿고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것을 하여야 하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애정, 그리고 여러분의 온전한 영혼을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모든 노력을 다한 연후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니파이이서 25:23 참조)
- 우리가 우리 가족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무엇 보다도” 먼저 생각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과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또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 책임들을 성취할 수 있는가? 교회와 다른 곳에서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봉사가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인류를 승영”시키려 노력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복음의 지식이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속박의 사슬”에서 풀어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느낌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가?
- “우리 영혼의 위대성”이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능력”에서 발견되는가? 여러분은 왜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을 하였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학대는 그릇된 것임

우리는 결코 남을 학대해서는 안되면 단지 모두에게 동정심과 부드러움을 보여야한다. 특히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어떤 종류의 학대에도 슬픔을 표시하는 상냥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는 점을 이해하였으며, 그 자신의 인생은 연민과 인내, 사랑과 이해로 표현되는 정직한 삶이었다.

스미스 대관장은 한 행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저는 오늘 오후 모임 때 예배당 통로에서 한 작은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한 어린이가 어머니 옆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어린이를 일으켜 세우더니 그 아이를 그대로 세워 두고는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그러한 행동이 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코 … 예배당이 불쾌한 장소이며 또한 와서 괴롭힘을 당하기 보다는 차라리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느낌이 그 어린이의 마음에 남아서는 안되겠기에 하나님의 집에서는 어린이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 교리, 제 5판 [1939년], 254쪽)

스미스 대관장은 종종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를 가장 큰 친절로 대하라고 권고하였다. 폭력 또는 다른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그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또 자녀들은 가족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도록 모범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서로를 가장 큰 존경과 예의로 대해야 함

우리 스스로를 정복하고 나서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악을 최선을 다해 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성이나 여성의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고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설득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용서, 그리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그 일을 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처럼, 인간의 자녀의 마음과 애정 그리고 영혼을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복음 교리, 227쪽)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서 승영에 합당하게 되기 위하여 사랑, 자비, 용서, 인내, 오래 참음과 끈기, 생각과 행동의 순수함, 예지, 그밖의 모든 면에서 점점 더 그분과 닮아가야 합니다.(복음 교리, 248쪽)

부모는 ...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여야 하며, 항상 서로를 존중하는 예의로 그리고 친절함 배려로 대해야만 합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를 최대의 예의와 존경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결코 모욕해서는 안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로 말해서도 안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최대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아내 또한 남편을 가장 커다란 존경심과 예의로 대해야만 합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 거칠거나 비하 또는 비꼬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헐뜯거나 빗대어 말해서는 안됩니다. 아내는 성가시게 잔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화를 내게 만들거나 불유쾌한 일을 유발시켜서는 안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며, 가정이 지상에서 남편에게 가장 즐겁고, 가장 축복받은 곳이 되도록 생활하고 처신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룩한 장소의 신성한 울타리내에서 남편,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그 자녀들의 마음 속에 조상에 대한 사랑과 그 부모에 대한 존경과 예절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 사이에서의 사랑과 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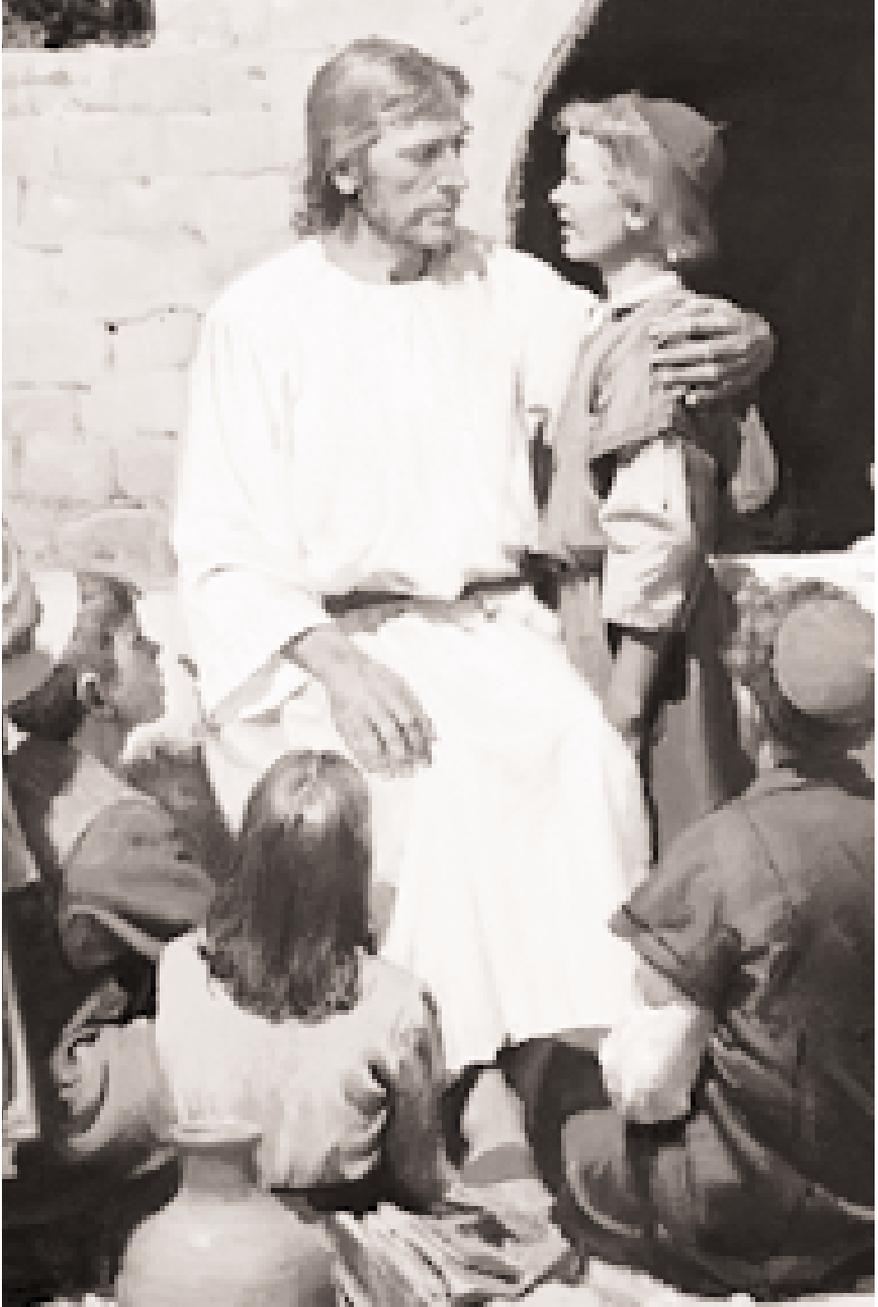


그림:해리 앤더슨, 어린이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마가복음 9:42)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존경이 서서히 자녀들 마음에 스며들게 됩니다. 어린 형제들은 그들의 어린 자매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년들은 서로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소녀들은 서로를 존경하게 될 것이며 소년들과 소녀들은 서로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이 보아온 가정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그 사랑과 그 존경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 올바른 교육의 기초가 가정에서 어린이의 가슴과 마음 속에 놓여진 것입니다. (복음 교리, 255쪽)

남편은 아내를 부드럽게 대해야 함

지혜롭게 그리고 의롭게 행사된다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신에 의해 존중되어 지고 있는, 권능의 열쇠를 갖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신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어머니이며, 여러분에게 소중한 아내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생명 그 자체 보다도 더 귀중한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는 남자가 완전하지 않듯이, 남자 없이는 여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교리, 149쪽)

저는 한 남성이 어떻게 한 여성에게 불친절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그에게 소중한 아내이며 그 자녀의 어머니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굉장히 야만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사람은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복음 교리, 319쪽)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복음의 영감 아래서 그들이 유덕하고, 순수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며, 그들의 남편에게 참되고, 그들의 자녀에게 참되며, 복음에 대한 그들의 확신에 참되었음을 알고 제 영혼은 그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리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데 선택받은 존재로 얼마나 고귀하며,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었습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이며 여러분의 자녀의 어머니를 합당하지 않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과 친절로 대하기를 아내 대하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능한 한 아내의 생활을 편

안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한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아내의 짐을 가볍게 하고,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생활을 즐겁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녀의 어머니와 또한 그 자녀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느끼도록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달리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에게 보살피도록 맡겨진 사람을 그가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그가 올바른 영으로부터 떠났을 때와 그가 그의 의무에서 벗어났을 때 뿐입니다. 남자는 그 아내와 자녀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대회 보고, 1915년 4월, 6~7쪽)

지성인, 사업가들, 항상 생활을 위해 수고하며 그들의 힘과 생각을 그들의 일과 의무에 쏟아야 하는 남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안락한 시간을 즐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 그들이 세상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면서 주님의 영을 지닌다면 그들은 그 자녀의 어머니들 또는 그 자녀들을 소홀히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256쪽)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녀를 멀리하지 않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 충실하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참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여러분 또는 명예와 순결, 또는 진리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슴 가까이에 두어 여러분의 손이 미치는 곳에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의 부모라는 것,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도록 해주시고, 그들을 여러분 가까이에 있도록 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그렇게 멀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을 가정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그들을 여러분의 애정 밖으로 내몰 때 곧 밤의 어두움으로 내몰거나, 타락하거나 악한 사회로 내몰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지루함을 느끼거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들의 천진난만한 소리와 재잘거리는 소리에 싫증내며, “판 데로 가서 놀지 못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자녀들을 몰아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253쪽)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동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동물을 을 잘 달래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함으로써 그들을 인도할 수 있으나, 여러분은 그들이 억지로 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억지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억지로 어떤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강제로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을 하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선택해야 하는 만큼 스스로가 선택하지 않을 때, 자녀들을 선하게 만드려는 노력으로 거친 방법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게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화를 내면서도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자녀보다 더 불쌍하며 더욱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사랑과 친절, 거짓없는 사랑과 설득과 이성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복음 교리, 28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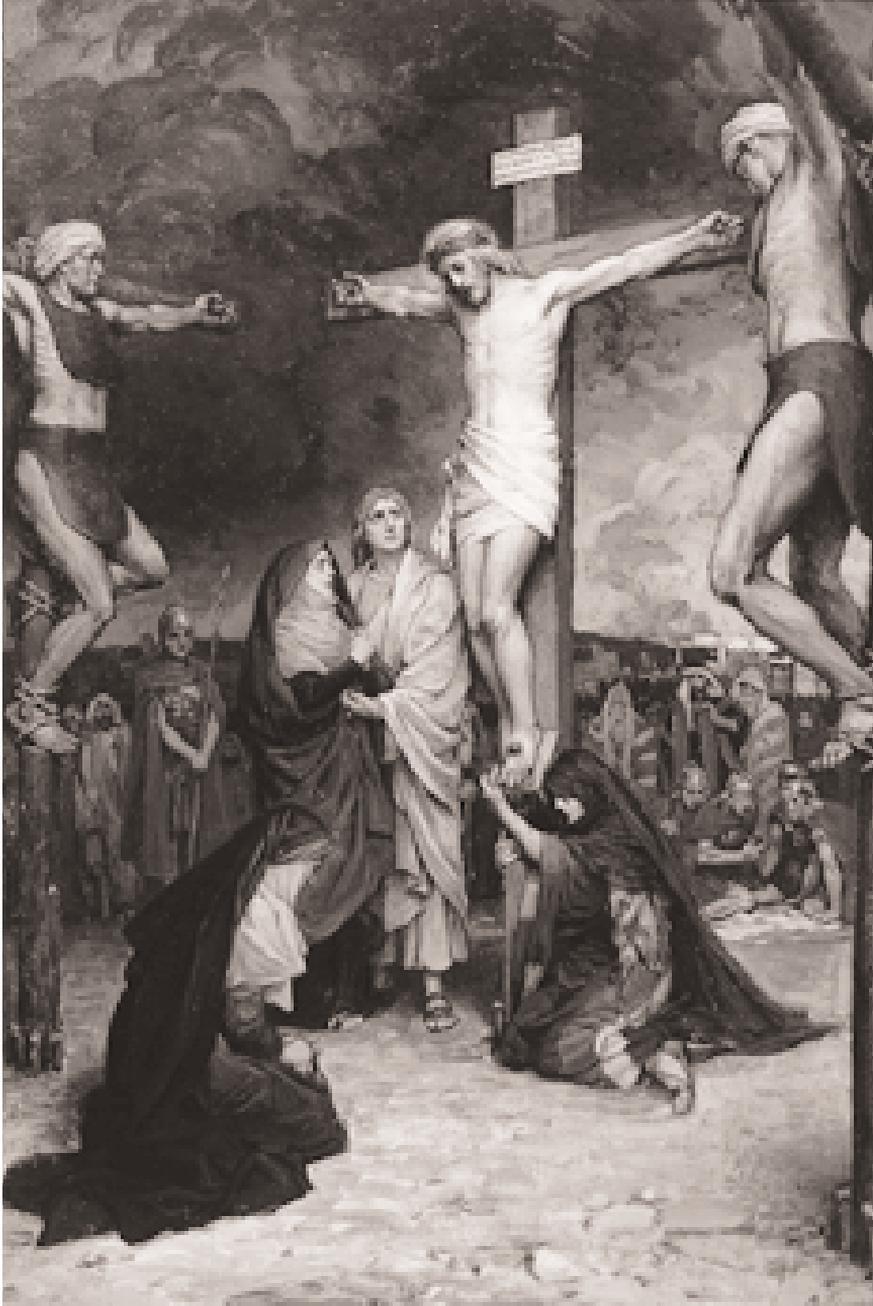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의 원리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여러분께 순종하고 또한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들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사랑을 위하여, 그들이 아무리 고집스럽거나 몇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들에게 말을 할 때는 화를 내서는 안되며, 비난의 정신이 있는 가운데 거칠게 말해서도 안됩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울고 또 가능하다면 그들도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께 부드럽게 느끼도록 하십시오. 매를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마시고, … 이성으로, 설득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십시오. (복음 교리, 285쪽)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당연히 생활해야 하는 방법대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당연히 아내를 대해야 하는 방법대로 아내를 대하십시오. 가정을 가능한 한 편안한 곳으로 만드십시오. 동반자에게 지워진 짐을 최대한으

로 가볍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합당한 모범을 보이십시오. 자녀들이 기도할 때나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음식을 취하기 위해 앉았을 때에, 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이 입는 의복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함께 만날 것을 가르치십시오. (복음 교리, 259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스스로를 정복”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리로 “인도” 할 수 있는가?
-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최대의 예의”와 “가장 커다란 존경심”으로 대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어떤 것인가? 부모가 서로를 존경과 예의로 대할 때, 그들의 행동이 자녀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다른 사람들이 의롭게 생활하도록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교리오 성약 121:41~44 참조) 주님의 권고와 배치되는 학대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멀리 한다면 우리와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를 바로잡으려는 부모는 왜 그 자녀보다 더 큰 잘못을 행한 것인가? 부모가 자녀 때문에 화가 났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구세주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마태복음 19:13~15; 니파이삼서 17:11~24 참조) 어린이를 잘못 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구세주의 경고는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8:1~6 참조)
-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복음의 원리에 가까이 있도록 할 수 있는가?
- 자녀들을 “가슴 가까이” 두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따르는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박해자들에게 악의를 품지 않으시고, 도리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라고 기도하셨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용서와 자비를 보여 주었던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게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일생동안 조셉 에프 스미스는 교회와 그 회원들을 향한 혹독한 박해를 목격하였다. 그는 주님의 사업과 그분의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을 평화적으로 열심히 수행했다. 그는 그의 적들, 그가 “나의 적들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주님의 적들”이라고 표현하였던 사람들에게 거의 대응 하지 않았다. (복음 교리, 제 5판 [1939년], 271쪽)

그의 딸 에디스 엘리노어는 그녀의 청소년 시절에 “언론 매체에서 저의 아버지를 심하게 박해하였던” 때를 회상하였다. “거짓된 기사를 손에 넣은 몇몇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나서 화가 난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날 저녁 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모든 거짓말을 인쇄하여서 상황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띠고 말하였다. “아가야, 그렇게 화내지 말아라. 그들은 털끝만큼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치게 할 뿐이야. 아가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도 스스로를 다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니? (“조셉 에프 스미스를 기억함”에서 인용, 노만 보스워스, *엔사인*, 1983년 6월호, 22쪽)

스미스 대관장은 악을 선으로 갚는 분이였으며 그 자신이 선을 행해야겠다는 좋은 결의에 차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

을 때는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편히 쉴 수가 없었다. 한 번은 그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제가 그렇게 하였다면,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결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혔거나 제가 잘못을 행한 모든 사람들께서는, 만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제가 그런 잘못을 하였는지를 제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과의 그 일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하여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가슴에는 형제들을 향한 악의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과 자비,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렬한 바램만이 있을 뿐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6년 3월 31일자, 9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합당한 생활을 해나감으로써 스스로를 영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 모든 사람들을 영예롭게 하고 사랑과 자선을 베풀 것을 권고하며 청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 곧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것을 권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한 그 다음으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두 번째 율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태복음 22:36~40 참조) 악을 선으로 갚고, 남이 여러분을 욕한다고 남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을 헐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임) 우리는 기꺼이 그들이 스스로 세운 집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다 나은 방법을 보여 주고 … 그들에게 보다 나은 집을 지어 주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참된 기독교 정신으로 친절하게 그들에게 보다 나은 거처로 들어올 것을 권고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복음 교리, 229쪽)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서로를 용서하고, 또한 지금부터 앞으로는 다른 동료를 향하여 악의를 품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으로 … 가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그 사람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친구이든 적이든,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권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성신의 은사를 누리는 사람이 시기, 또는 악의, 또는 양갈음, 또는 동료들 향해 너그럽지 못한 정신을 품고 있는 것은 지극히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나와 그대 사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자라고 말해야 하지만, 그저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영혼 속에 용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말일성도는 그들에게 죄지은 사람보다도 더욱 죄가 많으며 또한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기와 미움을 쫓아버리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느낌을 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라고 외친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일성도가 온종일 간직해야 하는 영입니다. (복음 교리, 229쪽)

만일 저에게 나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면, 저는 기꺼이 그들에게 갈 것이며, 제가 그들을 방문하여 제가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알 때까지는 제 마음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저의 형제를 다치게 한 듯이 보일 때에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기 보다는 그 모든 것을 제가 짊어질 것이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하여 저의 온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며, 잘못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6년 3월 31일자, 9쪽)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의 초점을 악을 주목하는 일에서 선한 것과 순수한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한 사람을 그 안에 실수가 없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고 이끌 면 완전한 그 길에서는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것을 찾으시고, 사람들이 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곳에서는 그 선을 그들에게 쌓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들 안에 선한 것을 키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선한 것을 찾으십시오. 선한 것을 지지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적게 말하십시오. 악한 것을 확대시키거나 출판하며 또는 말로나 필기도구로 악을 퍼뜨리는 것은 아무 이득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선한 것은 없습니다. 악을 묻어버리고 선을 확대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도록 권장하는 것

이 보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인류를 구원하고, 의의 길에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되도록 하고, 심판자로 앉아 악을 행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기 보다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도록 합시다. (복음 교리, 227쪽)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비로워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지니도록 합시다. 우리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12 참조) (복음 교리, 307쪽)

우리의 적에 대해 자비를 지님

시온의 대업을 행하려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자비가 임하도록 합시다. 오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되고, 실수를 저지르며, 어리석으며,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소서. 그들의 마음 속에 당신의 영을 심으시며, 그들의 잘못된 방법과 그들의 어리석음에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또한 그들을 다시 의의 길과 당신의 은총으로 데려가소서.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저를 비방하며 또 저에 대해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곧 저의 적들에게 자비가 있기를 간구하나이다. 그 대신에 하나님, 저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단지 잘못 인도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확실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 그리고 동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저는 세상에서 전력을 다하여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않겠나이다. 저는 그들이 번영으로 향하는 길에 돌 하나도 던지지 않겠나이다. 아닙니다. 우리 백성의 적들과 멸망에 이르는 길을 그들 스스로 포장하여 회개하지 않으며, 죄인줄 알면서도 죄지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또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며 주님의 종에 대해 거짓말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말 것을 저는 저의 형제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들에게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에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홀로 있게 두십시오. 그들 스스로 가게 하십시오. (복음 교리, 307쪽)

제가 저의 친구들을 사랑하듯이 저의 적들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적들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 일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것은 제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의 영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마음을 매우 부드럽게 하셔서 저는 쉽게 심판을 하나님에 손에 맡겼노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 메시지, 제임스 알 클라크 편, 6권. [1965~1975년], 5:97)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는 만인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라는 기도를 통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정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자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적들에 대해 생각하여 보고, 그들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복음의 구원의 권세가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 가능한 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을 하고,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을 지닌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개와 자신의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로써, 깨끗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인류에 대해 어떤 나쁜 감정도 갖고 있지 아니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간섭하지 않는 한 그들을 반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교리에 대하여 싸움을 걸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교회에 대해서도,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닌 사명의 일부도 아니기에,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곳에서 예배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의무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의무를 행하며, 그 계율로서 뿐만 아니라 선한 모범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기만 한다면 그들도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며, 그 빛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을 그들의 이해력 위에 비추도록 합시다. (“간증”,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6년 8월호, 808~809쪽)

주님의 사업에는 적들이 있으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하도록 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이 있었듯이, 주님의 사업에 대해서도 적이 있습니다. 말일성도를 나쁘게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일의 사업과 관계되는 모든 미덕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해 그들의 눈을 닫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거짓과 그릇된 이야기를 마치 홍수처럼 쏟아붓는 ...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 교리, 305쪽)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19)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분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 경멸은 택함 받은 백성의 유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경멸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복음 교리, 307~308쪽)

저는 계시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주님에게서 인정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껏 사악하고 타락한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지 않았던 백성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 교리, 43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의 첫 번째 시현을 선포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의로움의 적, 진리와 미덕, 영예, 도덕적 성실, 그리고 순결한 삶의 적,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적, 하늘에서 오는 직접적인 계시와 하늘에서 인간에게 오는 영감의 적은 이 사업에 반대해 왔습니다. (복음 교리, 337쪽)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저의 적은 제 적이 아니고 제가 섬기고자 노력하는 분의 적입니다. 악마는 저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보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만, 악마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신권을 증오합니다. (복음 교리, 242쪽)

진실로 복음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인간 문제 또는 세상 문제에 대한 장애물이며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인생에 관한 세상적인 방법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장소에 있으며 또한 풍족한 사람들은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분노

하게 합니다. …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충고를 따르게 되면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수행할 우리만의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신성한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멸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복음 교리, 110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위한 여러분의 수고를 늦추지 마십시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대로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은 올바른 길에 있으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이 되도록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반대와 박해 때문에 위험에 처해있지는 않습니다. 내부로부터의 부주의나 죄, 그리고 무관심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각 개인이 옳은 일을 행하는데 실패하거나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교리에 자신의 생활을 맞추는데 실패하는 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만일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한다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실 것이며, 모든 반대는 단지 진리의 지식을 더욱 널리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복음 교리, 375쪽)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듯이(마태복음 18:7 참조), 나는 그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듯이 그들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심한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들을 다루도록 전능하신 이의 손에 기꺼이 맡깁니다. 우리의 일은 이 지상에서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에 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셉을 도구로 하여 산자의 구원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구속과 구원을 위하여 계시하여 주신 위대하고도 영화로운 진리에 대한 지식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306쪽)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시간에 그리고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의 적을] 다루실 것이며, 우리는 단지 우리의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사를 다스리시는 이의 손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교리, 306쪽)

우리는 어떠한 생명체에 대해서든 마음 속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지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나쁘게

말하고 세상에 우리를 허위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악의를 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 사이를 심판하게 하자, 그분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갚으시게하자 (교리와 성약 64:11)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반대의 손을 들지 않고, 반대로 만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와 생활한다면 우리는 친교와 우정의 손길을 펼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악의적이다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그들이 어리석게 행동하였든지, 그들이 그것에 대해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팔을 벌리고 그들을 맞이할 것이며 또한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복음 교리, 2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하였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말일성도가 그들에게 죄지은 사람보다도 더욱 죄가 큰 이유를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64:9~11 참조)
-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확대” 하는 것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 하는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우리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가?
- 왜 우리의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자비와 연민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왜 성도들은 종종 “세상의 경멸”을 경험할 수도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경멸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 왜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반대와 박해에 때문에 위협에” 처해 있지 않은가?
-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 상처받을 때, 왜 우리는 그들이 받을 형벌을 “전능하신 이의 손”에 기꺼이 맡겨야만 하는가?
- 구세주께서는 그의 적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누가복음 23:34 참조) 우리의 적들에게 “친교와 우정의 손길”을 펼치면서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영의 속삭임에 따름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인도를 위해
성신의 영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찰스 더블류 니블리 감독과 함께 미국 동부 지방으로의 여행을 끝내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와이오밍주 그린리버 근처에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나가 기차 끝의 난간으로 걸어나가자 마자 “들어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는 기차 안으로 들어와서 잠시 동안 머뭇거리다가 “아, 어쩌면 단지 내 상상일 뿐일지도 몰라”라고 혼자 말하였다. 그 때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곧바로 그 말에 따라 스미스 대관장은 자리에 앉았다. 바로 그 순간에 기차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기관차와 대부분의 차량이 탈선을 하였다. 끊어진 레일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었다. 니블리 감독은 만일 스미스 대관장이 그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심하게 다쳤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그가 탄 차량이 비록 철로에 있었지만 다른 모든 차량이 흉칙하게 서로 엉켰기 때문이었다.

스미스 대관장은 이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와 같은 음성을 너무도 많이 들었으며,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언제나 유익을 얻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주님의 영과 밀접하게 교통하는 생활을 했고 또 그분의 인생은 너무나 모범적이었고 순결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쉽게 그분의 종에게 친히 나타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9) ...

스미스 대관장의 마음은 하늘의 계시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들을 수 있었고 실제로 들었습니다.” (복음 교리, 5판 [1939년], 480~4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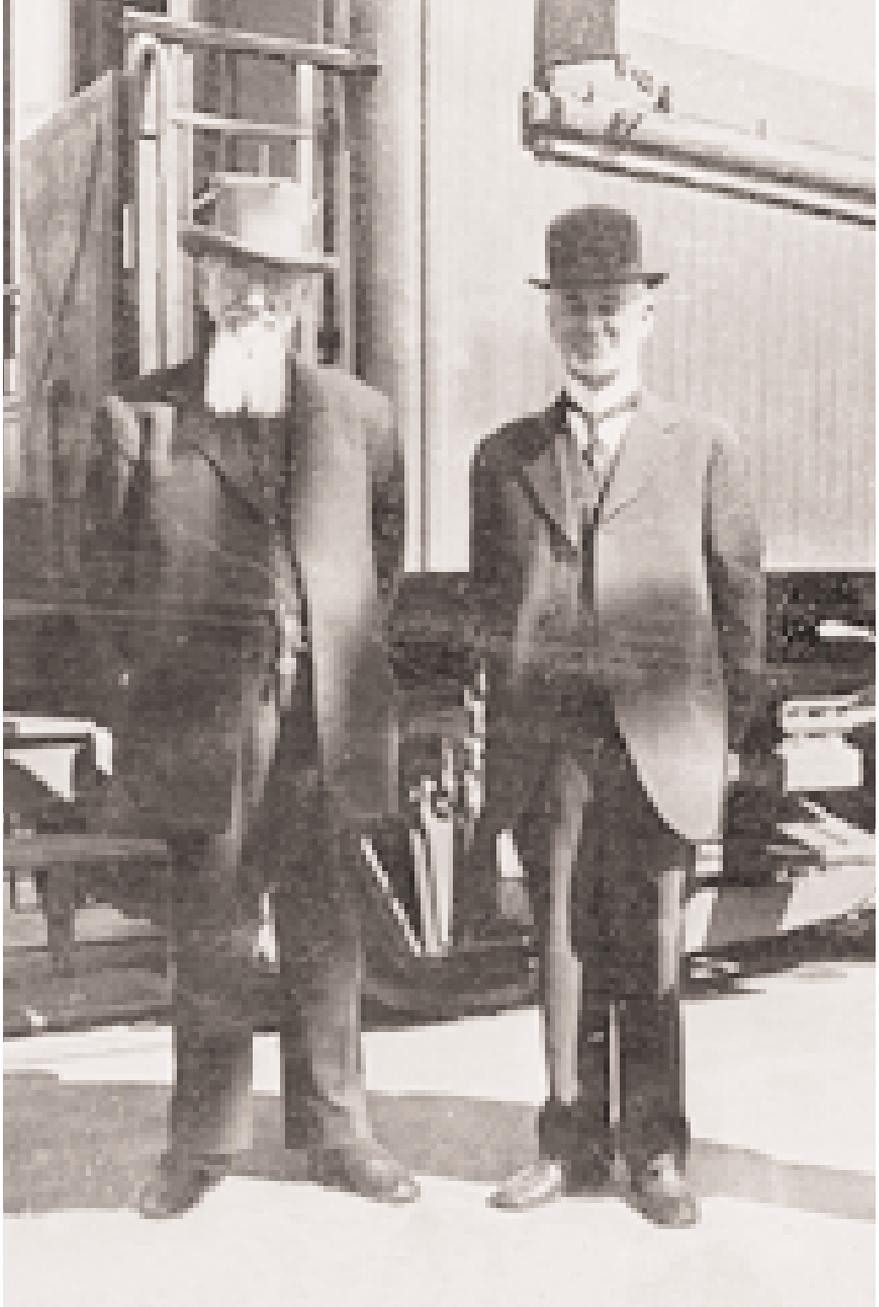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교회의 모든 회원은 성신으로부터 개인적인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영감의 영, 계시의 은사는 단 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에게만 관련된 은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관리 역원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며,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계시의 영을 누리고,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감의 영을 지니는 것은 모든 남자, 모든 여자,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달한 어린이들의 권리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복음 교리, 32쪽)

교회에서 각 사람은 마치 감독이 그의 와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유익을 위하여 계시의 영, 그리고 그 계시의 영이 그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으로 부터의 이해력을 누릴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자녀들이 가야할 길로 그들을 양육하고, 농장과 그의 가축, 동물을 관리하며, 그의 사업을 경영하는 일에서 ... 이러한 은사와 이러한 특권을 행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지혜롭고 신중하며 공정하게 되기 위하여 계시의 영과 영감의 영을 누리는 것은 그의 특권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교리, 32~33쪽)

각 개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충실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준수하고 지킬 것을 권장하기 위한 개인적인 인도를 위하여 영감을 받고 성신의 나타나심을 받는 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계시를 받는 것은 모든 남자와 여자의 특권이기는 하나 그 이상의 목적은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의 형제들, 특별히 관리 직분에 있는 형제들을 다스리고 지시하며 또는 심판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일어서는 순간에 즉시 그 사람을 제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일치, 분열, 그리고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기차역에서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과 찰스 더블류 니블리 감리 감독.
니블리 감독과의 이 기차 여행에서, 스미스 대관장은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부상을 모면하였다.

모든 남성과 여성은 그러한 영에 굴복할 만큼 현명치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복음 교리, 38~39쪽)

우리는 성신의 영향력 아래서 유순하고 순종하는 정신 가운데서 겸손하게 주님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개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원으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관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54쪽)

우리에게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성신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샘처럼 흐르게 하여 의로움과 덕, 그리고 고결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복음 교리, 55~56쪽)

계시는 영의 작고 조용한 음성을 통하여 자주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설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나타나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한 충실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봉사를 시작하였을 때, 저는 곧잘 밖으로 나가서 주님께 간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보여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놀라운 것을 보이시지 않고, 그분께서 저의 머리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진리를 알게 하실 때까지, 의심과 두려움이 저에게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진리를, 율례에 율례를, 교훈에 교훈을,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씩 (니파이이서 28:30 참고) 보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같이 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천사를 보낼 필요도 없었으며, 천사장의 나팔을 통해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고 조용한 음성의 속삭임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제게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와 권세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의 자녀들에게 그들과 함께 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시는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알게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나타나심이 이를 성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교리, 6~7쪽)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매우 위대하거나 놀라운 나타나심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계시를 하늘에서 받지 못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친히 그 모습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준비가 되었거나 원하실 때에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위치에 계신다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며, 여러분은 두려워할 일이 없게될 것이며, 부족한 것이 없게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연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전과 진리의 지식 안에서의 여러분의 성장과 진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계시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밀레니얼 스타, 1905년 4월 6일, 222쪽)

영이 지시하는 것을 행함

저는 주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독립적으로 또는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의 속삭임과 영감이 없이 주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대회 보고, 1912년 10월, 2쪽)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작고 조용한 음성의 속삭임을 듣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하면서,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영이 지시하는 바를 행하도록 합시다. 그 일에 트집을 잡거나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왕국의 적들의 마음에 들거나 또는 그렇지 않거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주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위대한 말일의 사업의 정신과 양립하는 것입니까? 바라는 목적이 이 지상에서 교회를 발전시키고 강화시킬 것 같은 일입니까? 그일이 그 방향에 맞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거나 관계없이 그 일을 하도록 합시다. (복음 교리, 54쪽)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알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요구하시든 가서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옳은 일을 따르고 진리 안에 머물러야 하며 또한 어떤 상황 아래서도 항상 옳은 일을 해야만 하며, 결코 유혹하는 자에게 굴복하거나 옳은 길에

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간증”,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6년 8월호, 808쪽)

“[우리의]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강제적인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들의 뜻을 변경시키도록 강요받아서 안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행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복음 교리, 60쪽)

영에 온순하게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커다란 지식을 얻고 또한 분별의 권세 속에서 성장하게 됨

사람은 그가 지닌 지식에 대하여 예지와 진리의 근본이 되시는 분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덕으로, 영예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는 영의 속삭임과 영혼을 고결하게 하며 밝혀주는 것에 유순하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보다 분명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5쪽)

사람은 진리에 정착하여야 하며, 빌어 온 빛이나 반사된 빛을 통해 어떠한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언제나 같으시고, 영원히 빛을 주시며 또한 복음의 율법에 맞추어 생활하는 개인과 신권 소유자에게 아버지의 영광과 뜻에 관하여 증거하는 성신에게만 의지하여 복음의 지식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어두워질 수 없는 영원한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80쪽)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라야 할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우리가 의롭게 판단하고, 진리와 오류 그리고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지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게, 지극히 의롭게, 그리고 지극히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42쪽)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부터 받은 권고]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교리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와 오류를, 빛과 어두움을, 악과 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heart) 속에 있도록 하며, 그렇게 하여 우리의 마음(mind)이 열리고 밝아지게 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93년 1월 3일, 2쪽)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충실한 말일성도에게는 진리를 알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해의 왕국 아래의 어떠한 권세도 그를 옳은 길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그의 이해력을 어렵게 하거나, 그의 마음을 흐리하거나 그의 신앙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관한 그의 지식을 어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거짓과 오류가 내는 빛보다 더욱 밝은 빛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과 계시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온갖 엉뚱한 생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교리를 알고 있으니,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복음 교리, 6쪽)

우리가 계시된 것에 따라 생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빛과 예지에 더하여 주실 것임

아직도 계시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함당하시다 하는 때에 알려주실 계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것이 저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활 속에서 그것들을 의롭게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되기에 여전히 함당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에는 인간의 자녀에게 결코 계시되어 본 적이 없는 것들로 인하여 걱정을 하거나 초조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만일 사람이 십일조를 내려하고, 그들이 지혜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기도를 드리려 하며, 그들의 생활을 지상에서의 의로운 사업에 헌신하고 또 스스로 복음을 연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려 한다면, 그들은 질문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이 행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리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회 보고, 1916년 10월, 6~7쪽)

우리가 이미 계시된 복음의 계율과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늘에서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날 보다 지혜와 지식, 그리고 권세 면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한 완전의 목표에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오면 더욱 위대한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일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에 충실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아직 충분히 순종하지 않으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에 계명을 더하고, 빛과 예지를 더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 위에 저주를 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영감과 현재의 계시에 따라 생활하며 또한 교회의 각 회원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영이 그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오는 인도에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의무와 그것을 행하는 방법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복음 교리, 33쪽)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존재, 특별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이며, 우리의 모범이시며, 온세상의 생명과 구원의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빛과 예지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결단코 끝이 없는 세상의 영광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길이며,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무릇 그분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께서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사업을 행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할 것이며, 생명의 빛을 그 안에 갖게 될 것입니다. (데저렛 뉴스: 주 2회 간행물, 1882년 1월 31일, 2쪽)

학습을 위한 제언

- “계시의 영”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 우리는 생활의 어떤 분야에서 개인적인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가?
-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타내심” 보다는 작고 조용한 영의 음성을 통하여 자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열왕기상 19:11~12 참고)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 우리가 주님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6:15, 22~23; 9:8~9; 11:12~14 참조)
- 왜 우리는 영의 속삭임에 따르도록 강제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행하는 마음을 기뻐”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는가? 무엇이 영의 속삭임을 받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는가?
- 언제 영이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여러분의 지식이 넓혀지도록 도움을 주었는가?
- “빌어온 빛이나 반사된 빛”에 의지하기 보다는 성령의 속삭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
- 더욱 많은 빛과 예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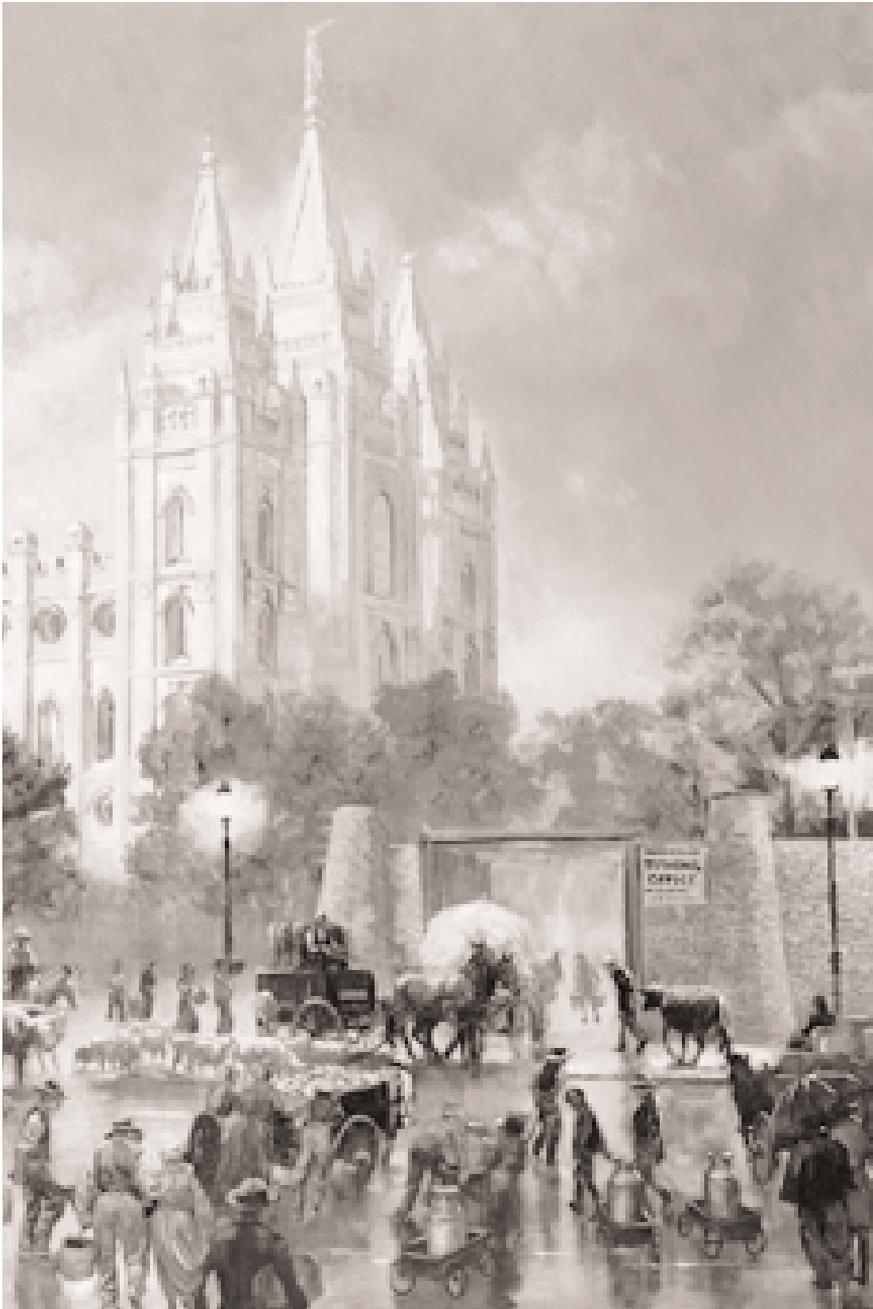


그림 : 글렌 에스 홉킨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솔트레이크 성전 부근에 있는 십일조 사무실로 자신의 십일조- 종종 돈보다는 물품으로 바쳤음-을 가져오는 충실한 개척자 성도들의 그림.

십일조의 법을 지키

십일조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돕는 자로서 그분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1800년대 말, 교회는 백만 달러 이상의 심각한 부채에 직면했다. 이 채무로 인해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1899년 1월 연차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말일성도로서 우리의 의무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십일조의 법뿐 아니라 십일조의 법만큼 중요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의 복지에 있어서 이 십일조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이 주님의 창고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대회 보고, 1899년 10월, 39쪽)

그로부터 7년 후 어느 날, 사무실에서 비하이브 하우스의 집으로 돌아 온 스미스 대관장은 현관 앞에서 딸 레이철을 만났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스미스 대관장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 계실 것 같으니?”

“잘 모르겠어요.”

“언제 돌아오실 건데?”

“모르겠어요, 아빠. 전 잘 몰라요 방금 학교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 얘야.” 그분이 말했습니다. ‘난 네 엄마에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말해 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비록 네가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른다 하더라도 너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구나. 난 내가 네게 해줄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말아야.’ 그분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이 서류가 보이니?’

“‘네.’

“‘이것은 교회가 마침내 부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미스 대관장님은 미소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니!’ (아멜리아 스미스 맥콩키, “할아버지 조셉 에프 스미스”, *엔사인*, 1993년 9월호, 15쪽에서 인용)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십일조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보이는 것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얻은 이익의 십분의 일을 그분의 창고에 넣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시온의 스테이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81년 5월 3일자, 1쪽)

이 원리(십일조)에 의하여 이 교회 회원의 충성심이 시험받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누가 하나님 왕국 편이고 누가 적인지 알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시온의 땅을 하나님께 성결케 하고, 누가 이 원리에 반대하여 스스로 시온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원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지키는지 여부에 따라 우리의 성실 여부가 판가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의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례 혹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복음 교리*, 5판. [1939년], 202쪽)

십일조의 법은 사람들을 개인별로 증명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 원리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시온의 복지와, 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하나님 왕국이 지상에서 발전하는 데 무관심하는 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지상에서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복음의 축복과 의식을 받

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도 게을리 합니다. (복음 교리, 202쪽)

십일조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십일조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십일조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 충실하다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법과 침례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십일조의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교리, 208~209쪽)

과거에 십일조를 내지 않았던 우리들은 따라서 우리가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미래에 이 율법을 지킨다면, 과거에 내지 않았던 십일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시고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관대하시며 친절한 일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복음 교리, 91쪽)

저는 계속해서 말씀해 왔으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은 신앙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금액이 적든지 많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교회 수입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시온의 상속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한 어느 누구도 결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온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일조를 내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교회와 복음 원리에 대한 신앙이 있는 한, 그 안에는 선이 있고 또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행하는 한 사탄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를 타락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설교”, 밀레니얼 스타, 1906년 10월 25일, 674쪽)

십일조의 법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한 세입의 법입니다. 그것 없이는 주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복음 교리, 203쪽)

주님은 ... 십일조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창고에 쌓을 재산을 모아, 가난한 자를 모으고, 복음을 지상의 여러 나라에 전파하고, 매일 주님의 사업에 전념하는 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물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율법이 없이는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없고 성전을 지어 유지할 수도 없으며,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힐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십일조의 법은 교회에 필요한 것이므로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것입니다. (복음 교리, 208쪽)

[십일조]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의 의식을 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천 불의 십일조가 시온의 청소년을 교육시키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며, 교회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수많은 돈이 사용됩니다. 가난한 자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기대하게 됩니다. 교회가 가능한 한 가난하고 나약하며, 도움이 없는 회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은 올바르고 합당한 일입니다. (복음 교리, 208쪽)

주님은 이 재원[십일조]이 어떻게 대관장단과 교회의 고등 평의회(다시 말하면 십이사도) 그리고 관리 감독단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일조는 어떤 방법으로도 한 사람이 사용하거나 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열 여덟 분과 같이, 최소한 지혜와 신앙과 능력을 지닌 18명이 그 운영에 관여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판단과 지혜를 모아 십일조를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권능을 주신 이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 십일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209쪽)

십일조는 주님의 교회 및 성도들의 축복을 위한 주님의 세입의 법임

주님께서서는 ... 특별히 이 교회의 머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침을 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십일조]이 준행되는지 지켜보도록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원리에 대해 강조해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즉 이 백성들이 이 율법의 의무를 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주님의 창고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의 필요 사항은 곧 성도들의 필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교회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부채 여부는 교회의 회원들이 각자의 수입에 맞게 십일조를 바치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의

율법이 백성들 사이에서 잘 준수되는지 지켜보도록 요구하십니다. (대회 보고, 1899년 10월, 41쪽)

저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형제 자매님들께, 오늘날처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이 훌륭한 삶을 영위하고 충실하고 근면했던 때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십일조의 율법이 준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이것은 말일성도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신앙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고 있다는 것이고, 분명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 충실하게 십일조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가지 더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일조를 내는 성도들 여러분의 충실함과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부채를 청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즉시 지불할 수 없는 부채는 한 푼도 없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한 푼의 부채도 없는 상태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빌릴 필요가 없으며, 말일성도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종교에 따라 생활하고 이 십일조의 법을 지킨다면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세입의 법입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도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자진해서 내실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목적으로도 1달러의 기부금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자진해서 내실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불하기 위해 주님의 창고에 충분한 십일조를 갖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것이 주님의 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그분의 참된 정책이며 목표입니다. (대회 보고, 1907년 4월, 7쪽. 문단 첨가)

십일조를 바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것은 그 법에 순종하는 것임

우리는 이 십일조의 원리에 관하여 경전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요구하시어 우리가 그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을 성결케 하여 참으로 시온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 따르는 약속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를 믿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그의 사랑과 축복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탐욕을 꾸짖으시고 땅을 풍성케 하시며, 농부와 양치는 목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가축의 수를 불어나게 하시고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번성하고 풍부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시는지 기꺼이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말라기 3:10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전심을 다하여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함시다.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소홀히 할 것이며,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그의 율법을 기꺼이 순종하고 지킬 때 그들에게 하신 그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 나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굳이 그의 이름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써 뿐만 아니라, 검약을 통해 이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이론 검약, 변영, 발전 그리고 진보를 증거로 간증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절기에 그의 이웃에 있는 많은 농장에서는 잡초가 무성하여 절반이나 삼분의 일밖에 추수를 하지 못한 반면, 그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일하는 지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 그는 십일조를 내고, 헌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지금의 그를 만들어 주셨음을 친구와 이웃에게 떳떳이 간증합니다. 것처럼 번성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땅과 일을 축복하셨으므로, 그가 부를 얻었고, 구하

였던 축복을 보장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주님을 믿는 훌륭한 신앙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 따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음 교리, 203~204쪽)

결론적으로 저는 십일조를 바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큰 부자가 되어 정직한 십일조를 내게 된다면 그 십일조 액수는 큰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오는 축복은 그 십일조로 도움을 받게 되는 가난한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의 분량보다 훨씬 큰 것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축복받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는 일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는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인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쉽게 자신의 십일조를 낼 수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가진 적은 물건이라도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백만 장자가 되거나 크게 부유하게 되면, 그는 보다 이기적이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늘어난 재산으로 많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더욱 크신 친절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인간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십일조를 바치는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람의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개인에게 더 좋은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십일조의 율법에 순종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십일조를 내는 한, 궁핍한 자를 먹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재물들이 주님의 창고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창고에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할 때 그에게 주실 축복을 스스로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회 보고, 1899년 4월, 69쪽. 문단 첨가)

학습을 위한 제언

- 주님의 십일조의 율법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119:3~4 참조) 우리가 십일조를 바칠 때 우리는 어떠한 복음 원리를 실행하는 것인가? 왜 율법에 대한 순종은 십일조를 바치는 것에 대해 “주요한 것”이 되는가?
- 과거에 십일조를 내지 못했으나 지금은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회원들이 있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신의 십일조를 제 때 내지 못하는 이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편협하게 될 수 있는가?
- 십일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십일조는 교회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의 영적 및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 누가 교회의 십일조 기금 분배 방법에 대해 결정하는가? (교리와 성약 120 편 참조)
- 가정에서 십일조를 바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 자신의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말라기 3:10~12 참조) 여러분은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언제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순종을 통한 자유

하나님은 우리가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신 예지와 지혜를 사용할 책임을 우리가 지도록 하실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개인적인 자유의지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믿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자비를 통해 우리를 위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자나 여자 모두가 자신을 굳게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타락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73년 11월 11일, 1쪽)

스미스 대관장은 1904년 미국 상원 의원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서기 전, 교회 회원은 개인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1907년 3월 26일, 대관장단은 “연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에 고함”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은 190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선언문은 말일성도의 많은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 재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단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으며 따라서 그들의 개인적인 책임도 믿습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의 메시지, 6권. [1965~1975년], 4:144; 전체 연설은 143~155쪽에 있음)

스미스 대관장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자유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었으며 또한 이를 가르쳤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은사를 주셨으며,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임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그를 섬기거나 섬기지 않거나, 옳은 일이나 그른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고, 이 특권은 인종이나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다같이 이러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은 어떠한 사람도 이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세계에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여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대하여 엄격하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드리느니라.”(창세기 4:7) (복음 교리, 5판, (1939년), 45쪽)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구세주의 모범을 따를 것인지 루시퍼의 예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후사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신성한 분들이 거하는 왕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따르거나 거절할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이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행하기에 어려운 의무를 할 수 있다고 보시고 우리에게 청하거나 요구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당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과 예지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분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행하는 노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테렐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71년 1월 3일, 2쪽)

주님께선 인간의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만족



그림 : 아놀드 프리버그, 자유의 깃발을 높이 세운 모로나이 총사령관.
물몬경 시대의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권리와 종교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여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도록” (엘마서 46:20) 맹세하기 위해 자유의 깃발 아래로 모여들었다.

을 위해 선을 택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그 앞에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예지와 기회를 사용하고 그 책임을 그분에 앞에서 지게 하셨습니다.(브라이언 에이치 스튜이 편집,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및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의 설교집, 5권. [1897~1892년], 2:297)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심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는 하나님에 의해 간섭받지 않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이 없다면, 그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나 의는 없을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권리에 따른 결과로써 그들은 책임있는 존재가 되며, 따라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때 자신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은 전쟁을 막으시고, 범죄를 예방하시며, 빈곤을 구제하시고, 어두움을 내어쫓으시며, 죄를 극복하시고, 만물을 밝고 아름답고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속성인 자유의지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선택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 빛뿐만 아니라 어둠에 대해서, 진리뿐만 아니라 거짓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율법을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그의 창조물의 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받은 고난에 의해 순종함을 배울 때, 그의 영광과 그의 자녀들의 발전과 승영을 위해 그들의 궁극적인 결과를 통제하실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이 세상에서의 대조적인 경험은 그들의 성품에 교육적인 것이 됩니다. 또한 그것은 옳고 참되며 선한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고양시키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미래에 대한 예지는 그분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간이 행하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그분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대관장단 메시지, 4:325~326쪽)

세상에는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확실한 이유를 찾기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주께서 그 일을 주관하셨음을 인정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주께서 그 일이 일어 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감정과 이기심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다툼하다가 결국 두 사람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정에 주님이 개입하셨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언쟁과 싸움을 하게 된 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의지를 받아 그들 스스로의 예지를 행사하였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각자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이 두 사람이 논쟁을 하고 결국은 그들의 분노가 극도에 이르러 서로 싸우고 심지어 피를 흘리게까지 하도록 계획하시거나 의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은 일을 계획하신 일이 없으며, 우리도 그같은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으니, 옳지 않은 일, 생명과 건강의 율법에 위배되는 일, 현명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일 등을 행할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요건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고집하거나,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리, 52쪽. 문단 첨가됨)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슬픔이나 아픔, 또는 죽음을 맞이 하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이 자유의지가 주님의 영향력으로 주어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에 따르는 그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도 인정합니다. 저는 인간의 약함, 실수, 잘못, 범죄와 연약함,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5:70~71)

성도들의 순교,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의로운 사업에서 떠나 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이탈하는 등의 모든 악행이 자유와 인간의 판단력을 활용한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한량없는 자비로 방편을 마련하셨으며, 인간의 자녀에게 길을 보여 주셔서, 자유의 영역과 인간의 판단력을 활용하는 면에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신앙과 기

도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무엇이 그들의 판단력과 자유를 지지하고 이끌어 주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말일성도들에게 이것이 그들의 특권임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복음 교리, 45쪽)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하나님 왕국은 자유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데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67년 3월 2일, 3쪽)

여러분은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영감에 의해 설립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같이, 통치와 조직에 있어서 완벽함을 지닌 종교 조직이나 다른 조직을 찾아 볼 수 있습니까? 그 조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희망을 꺾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나 권리 또는 특권을 박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노예나 종이 되게 하고 여러분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지적으로 고양시켜주고 신체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까?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 만한 자유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를 신장시켜 주는 것입니까? 따라서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계획과 관련지어 볼 때, 죄와 범법의 속박 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무지의 속박 속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설교 모음집, 5:143)

나는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선택하고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말일성도보다도 더 독자적이며 지적이며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믿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자주적인 성품을 갖추지 않고, 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판단하는 예지나 지혜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오늘날 이 세상 어디서도 훌륭하게 생활하지 못합니다. (복음 교리, 449쪽. 문단 바뀜)

말일성도의 종교는 미래의 행복뿐만 아니라 현재의 행동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으로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하는 지를 가르쳐 주며, 나

아가 다음에 올 세상을 위해 준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교회, 교회의 재산, 종교 교육 그리고 회원들의 교제에 관련 되어 있는 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것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정부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강압할 수 없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4:79)

순종 — 올바른 자유의지의 행사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줌

이 자유의지를 의롭게 행사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개하고, 권능을 지닌 자로부터의 침례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 죄의 영향과 그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밝히신 이 율법에 순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강건한 육신과 정신력을 가지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주어진 기능을 행사하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 외에는 성신의 은사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필수 요건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죄 사유함이나, 성신의 은사나, 하나님의 계시나, 신권을 받을 수 없으며, 신권의 권리, 능력 그리고 특권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상속인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생명과 구원의 계획에 관한 크고 측량할 수 없이 많은 특권으로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이 주어지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경로를 통하여 걸지 않고서는 하늘 아래의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과 특권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과정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일단 받은 후에도 박탈당하거나 영원히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태양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두루 비추입니다. 그러나 성신은 의로운 사람, 그들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에게만 내려줍니다.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내려줍니다. 그러나 신권의 권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에게만 수여되어 그들에게 신권의 교리가 하늘의 이슬처럼 맑게 해줍니다. 지상의 인간은 계시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복음 교리, 46~47쪽. 문단 첨가됨)

가장 큰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완전한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가장 높은 영광의 상태로 인도하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 (야고보서 1:17)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인간을 승영시켜 줍니다. (복음 교리, 75쪽)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승영에 이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거나 누리는 척하는 자유로서,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거나, 진리를 기초로 하고 원칙으로 삼고 있지 않은 자유는 없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인간을 퇴보시키는 것도 참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짐승과 동등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릇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자신보다 더 높은 근원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감을 지니지 않으면, 짐승의 세계보다 더 높은 직감, 더 높은 원리, 더 높은 자극, 더 높은 열망을 지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리, 49쪽)

인간이 필멸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인간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동기를 유발케 하여 애정과 관용과 자비와 사랑을 행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오게 됩니다. (대회 보고, 1903년 10월, 2쪽)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유롭게 됩시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때, 저는 제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행한다면, 저는 그 그릇된 일에 속박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죄를 짓는다면, 저는 그 죄에 속박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다면, 저는 주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유에 관하여, 말씀의 자유에 관하여,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 행동의 자유에 관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지상에서 저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노라고 감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저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만큼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한다면 죄를 지을 자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원한다면, 저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실 수도 있으며, 도박장에 가서 도박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지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만큼의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순간, 저는 죄악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와는 반대로, 제가 술집에 가거나, 카드놀이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들에 대해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며 자유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 모음집, 3:217~218)

우리는 두려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공포로 몰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구 사항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의로워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악함으로 인해 받는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일을 행할 때 따르는 형벌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의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지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직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여러분의 생애 동안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옛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창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되는 것을 바라므로 선택해야 함

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다. (설교 모음집; 3:217~218.)

주님은 인간이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순종하지 않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종들에 의해 소망되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받고 싶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할 순종인 것입니다. (데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73년 11월 11일, 1쪽)

[예수 그리스도)는 예지를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지를 선을 행하시고 세상의 잘못과 조상들의 그릇된 전통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인간은 자유롭게 않는 한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은 모든 의와 모든 권세와 모든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계시며, 그 자유의지를 악이 아니라 선을 위해 행사하십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롭고 순수하며 선해지도록 할 수 없다면, 또한 인간이 죄를 버리고 자신을 극복할 수 없는 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르며 순종했던 사람이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망과 목적에 반대하는 사람은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인간들 사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우리나라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없었다면, 그는 전혀 아들답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42] 우리가 이 영을 소유하고 이 진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아야 되며 그러기 위해 그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요구되어지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설교 모음집, 4:407)

학습을 위한 제언

-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누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가? 왜 자유의지는 축복인가?
-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58:28 참조)
- 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고통받도록 허락되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고, 범죄를 예방하시며, 빈곤을 구제하신다면 우리의 지상 생활의 경험은 어떻게 감소될 것인가? 여러분은 잘못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의 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악을 허용하셨”을 지라도, 그분이 “그의 궁극적인 결과를 통제하실 것”이라는 어떠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8:28, 교리와 성약 98:3 참조)
-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다”는 뜻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부모와 지도자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21:34~46 참조)
- 어떻게 교회는 우리가 진실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돕는가? 죄와 과오는 어떻게 우리를 제한하는가?
-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선택했을 때 어떤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는가? (교리와 성약 130: 2~21 참조)
- 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우리는 구세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1850년, 메리 필딩 스미스와 그녀의 자녀들은 이 단순한 어도비 벽돌집에서 살았다. 이 집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축복을 주었던 복음 진리에 대해 배웠다. 이 집은 현재 올드 테저렛 마을의 “이곳이 바로 유산 공원이다”에 위치하고 있다.

자녀: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녀들을 소중히 양육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덕과 사랑과 고결성을 가르쳐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복음에 대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사랑은 자녀들 즉 자신의 자녀와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저의 귀중한 자녀들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 편집. 조셉 필딩 스미스 [1938년], 449쪽)

교회의 관리 감독이었던 찰스 더블류 니블리는 스미스 대관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대단하셨습니다. 남부 정착지를 경유해서 세인트 조지로 [여행하는] 동안 …, 유년 단원들의 행진이 펼쳐졌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그분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았다면 놀랐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여행지로 출발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로부터 그를 떼어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 모두와 악수하고 이야기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한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런 분이셨지만, 그는 온유함과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다해 그 어린 자녀에게 사랑을 보이고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 … 그 아이를 팔에 안고 마루를 몇 시간이고 서성거리셨습니다.” (찰스 더블류 니블리, “회고”, 복음 교리, 5판 [1939년], 523쪽)

“그는 대가족이었지만, 훌륭한 자신의 가족들을 큰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1918년 11월 10일 그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한 다음의 말씀에 자녀에 대한 그의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아들과 딸들이 보이는구나. 주님의 도움으로 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소한 세상에서 존경할 만큼 키웠으니 난 성공했다. 나는 나의 삶을 가치있게 해주는 나의 전 재산이며 인생의 보석인 너희들을 얻었구나.” (에드워드 에이치 앤더슨, “퇴역 지도자들의 최후”, 복음 교리, 539~540에서 인용)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자녀들에게 모범과 교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함께 생활하는 부부는 그들의 능력, 모범,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녀로 하여금 명예롭고 유덕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 종말에는 자신의 유익과 구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들의 행복과 구원에 관한 한 나보다 더 지지하고 열성적으로 가르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복지에 관하여 나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없는 데서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따라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조건에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를 행하고 모든 면에서 의롭고 그들이 진리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바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성약의 백성을 헤아리실 때 다른 사람보다도 빼어난 사람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교리, 249쪽)

“자녀는 주님의 유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를 “상급” (시편 127:3)이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상급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자녀들을 둔다고 해서 가정 생활이 어려워지고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정과 국가를 번영케 할 성스러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시편 127:4~5) (복음 교리, 260쪽)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로 받아들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지고 있던 신권을 회복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치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구세주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성임하였던 분들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아직 어린 나이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성신권과 하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복음의 의식을 회복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웃을 존경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감독을 존경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가정 복음 교사를 존경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이 들어 몸이 연약해 지신 분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배워온 바와 같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신권, 즉 이스라엘 장로로서 갖고 있는 신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모든 조직을 완전히 유지하고 인간의 복지, 행복, 신화를 유지시키는 힘과 능력을 지닌 지도자를 존경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학교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남성다움 또는 여성다움, 그리고 가치있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과 국법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복음 교리, 263쪽. 문단이 추가됨)

교리와 성약에는, 부모가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들은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거나 진리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서는 그 죄가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68:25, 28) 온 마음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여 그 자녀가 진리로부터 돌아서고 버림받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녀들을 잃어

버려 그들이 배도하게 되고 어둠의 길로 떨어진 데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면, 저는 저의 자녀들도 그곳에 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과 겸손과 순종으로써 저는 이 지상에서 저의 사명을 완수하고, 제 생애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진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자녀들이 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가족이 저와 함께 동행하여, 제가 가는 곳에 그들 또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받은 승영의 모두를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98년 1월 28일, 1쪽. 문단이 첨가됨)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비록 자신들의 모범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은 사소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이웃이나 자녀들에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들 자신들이 비난하고 훈계했던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자녀들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의 그러한 모순된 행동은 자녀들의 감수성을 무디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에서 실족케 할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들 스스로가 행하지 않는 원리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은 악을 행하게 하는 것 말고도 그다지 큰 영향력이나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해 돌아보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지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부분이 되며 계시로서 주어졌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의 부모가 일상 생활에서 그것을 어겼을 때, 자신의 부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따라서 그의 부모가 위선자였으며 복음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택한 부모들은 스스로 무서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충실해야 하며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71년 1월 3일, 2쪽. 문단이 첨가됨)

우리는 사랑과 친절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함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이해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들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는 동물보다도 무력하게 태어납니다. 어린 아기는 태어난 후에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경과 성장하여 온 분위기, 친절, 보아 온 고상한 모범, 어린 마음속에 깃든 어머니, 아버지의 거룩한 영향력,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거룩한 영향력에 좌우됩니다. 특히 환경에 큰 영향을 받으며 부모와 교사가 만들어 주는 데 따라 달라집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랄 때 받아 온 영향력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배우게 하고, 발전하게 하며, 성취하게 하도록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선을 이루게 하는데 거짓없는 사랑보다 더 효과적인 영향력은 없습니다. 매나 폭력으로 다스릴 수 없는 아이도, 거짓 없는 사랑과 동정으로 금방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 어린이를 감정이나 심한 욕설 또는 꾸지람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애정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다스려야 합니다. (복음 교리, 264~265쪽. 문단이 추가됨)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의 유익을 하고 위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들의 신뢰받는 친구라는 사실을 확신시킨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지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소망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불친절하며, 그들이 여러분의 애정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기적이 되며,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여러분이 원하는 바에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데 그 결과 그들은 생각도 조심성도 없이 제 멋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353쪽)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의 정신과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다는 태도로 가르

치고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항적이고 그야말로 통솔하기 힘든 경우라도 사랑으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다면 결국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265쪽)

제 멋대로 자라지 않도록 자녀를 보호함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 현명하지 못하게 관대하거나 분별이 없거나 또는 천박하여 그들이 잘못하는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의로운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욱 사랑하고 옳지 못한 일을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점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그들이 그릇된 길이나 잘못된 행동에 빠지는 것을 앓을 것이라고 믿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것처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릇된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음이 해이해져서 아침, 낮, 저녁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과 어울려 갖가지 오락과 여흥에 젖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참으로 순박하기 때문에 악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혀 무방비 상태이므로 악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복음 교리, 257쪽)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즐거운 곳으로 장소와 공부와 오락을 위해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편의와 기쁨을 위해 훌륭한 책들과 놀이 음악 및 채광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되고 난방 시설이 잘 갖추어진 방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깨끗하고 강인한 신체를 갖고 지혜롭고 존경할 만한 시민이 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말일성도가 되도록 실질적인 지식과 정신적인 영양, 건전한 운동 및 영적인 순화를 주도록 노력했습니까? (복음 교리, 287~288쪽)

우리가 즐기는 오락의 성격이나 종류는 젊은이들의 복지 및 성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온 청년들의 도덕성과 활동력의 보존을 위해 매우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첫째, 오락은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젊은이들은 지나친 환락의 정신과 경솔함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용기를 잃고 낙담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사교적이며 지적인 성격의 오락을 더 많이 개발해 주는 음악회나 젊은이나 노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오락이 지나친 춤보다 바람직합니다.…

둘째, 우리의 오락은 우리의 종교적 박애 정신 및 헌신과 일치해야 합니다.…오락의 문제는 말일성도들의 복지에 상당히 중요성을 가져오므로 모든 와드의 관리 역원은 그에 대해 최선의 배려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오락에 관한 제약을 두지 않고 어디서건, 언제건,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즐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어린 시절에 그들의 오락에 대해 통제를 해야 하며 오락 대신에 갖는 젊은이들의 교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 교리, 290쪽)

자녀들에게 인내와 노동의 가치를 가르침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젊었을 때 자제심을 갖고 근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요람으로부터 가정을 갖고 그들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까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어려서 좋지 못한 습관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나태의 씨앗을 뿌리면 필연적으로 늙어서 가난과 불안정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습니다.…

시온의 부모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근면의 미덕을 배워 일단 책임이 주어지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들 스스로가 생활 전선에 나갈 때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온의 젊은이들은 모름지기 부지런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42:42 참조) 큰 웃음소리, 탐욕, 세상적인 교만, 경솔하고 어리석은 말은 모두 금하셨는데, 이는 주님이 보시기에 온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비통한 슬픔

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교리, 265~266쪽)

노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참된 행복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백만 장자라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에게 직접 노동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소년과 소녀들은 그들이 그러한 조건의 자녀이므로 직접 노동을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적합한 가정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484쪽)

부모로서 자녀가 원하는 바를 전부 들어줄 수 있다면 크게 만족스런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준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무자비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거절하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감보다는 훌륭한 것을 소망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수가 많습니다. 어린이는 바라지 않던 선물을 받게 되면, 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소망에 대한 교육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교육시키는 주님의 방법은 물론 가장 완전합니다. 자녀의 욕망에 대해 교육시키고 지도하는 능력을 지닌 자가 주님의 분별력을 본받는다면, 자녀가 생존 경쟁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방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전에 그것을 오랫동안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을 오랫동안 소망해 왔다는 사실은 그것이 얻어졌을 때 더욱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자연에는 씨뿌리는 시기와 수확의 시기가 있습니다. 만일 자녀들에게 씨를 뿌려 인내와 노력을 통해 서서히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을 가르친다면, 그들이 오랫동안 추구하던 목표에 도달되었을 때는 언제나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267~268쪽)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구세주의 복음 원리 가운데 가르쳐 진리를 잘 알게 되고, 이것을 받아들여 생활하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빛 가운데 걷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고 험악한 길로의

여행을 일찍이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 교리, 266쪽)

학습을 위한 제한

- 우리의 보살핌 아래 맡겨진 어린이들은 어떻게 “주님의 유산”이며 “주님의 상급”(시편 127:3)일 수 있는가? 어린이들은 “가정과 국가를 번영케 할” 어떠한 성스러운 축복을 가져오는가?
- 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르쳐야 하는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다른 중요한 교리와 원리들은 무엇인가? (모사이야서 4:14~15, 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어떻게 이러한 가르침이 행해질 수 있는가?
- 어린이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데 실패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어떠한 것들이 될 수 있는가?
-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결같고 일관성이 있는 것은 왜 중요한가? 부모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일치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왜 사랑은 “어린 아이에게...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되는가?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게 다룰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현명하지 못하게 관대”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명하지 못하게 관대함으로 양육된 아이들의 위험한 점은 무엇인가?
-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족 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 가족 오락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스미스 대관장의 권고에 따를 수 있는가?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인내와 노력”을 통해 훌륭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



유타 주 버날 성전. 1997년, 유인타 스테이크 건물이 유타 버날 성전으로 개조되었음.

신성한 주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고
우리의 생애에서 충실하게 지켜야 할 성약을 맺는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1907년 유타 주 버날의 유인타 스테이크 예배당 헌납식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많은 성도들에게 언젠가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전이 건립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인타 스테이크 역사 기록: 1905~1909, 1907년 8월 25일, 반연차 대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부 기록보관소, 246쪽) 1997년 11월 그 예배당은 개조되어 교회의 51번째 성전인 유타 버날 성전으로 헌납되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와 사명은 성전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은 1845~1846년 겨울, 나부에서 그의 어머니와 이모인 머시 알 톰슨이 “성전에서 많은 일을” 할 때 시작되었다. 후에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나의 부친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봉[되었습니다.]”(복음 교리, 176쪽) 그는 1853년 솔트레이크 성전의 정초식에 참석하였으며, 1893년 성전 헌납식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헌납을 기대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40년 동안의 모든 교회 회원들의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이 성전의 완공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 마침내 저 위대한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신성한 목적으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행사에 가까워 왔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의 메시지, 6권. [1965~1975년], 3:241~242) 그는 1898년부터 1911년까지

솔트레이크 성전의 성전장으로 봉사하였는데, 이 기간 가운데 9년간은 그는 교회 대관장으로도 봉사했다.

스미스 대관장은 세인트 조지, 로간, 그리고 맨타이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였다. 1913년, 그는 캐나다 알버타 주 카드스톤에서 교회의 여섯 번째 성전 부지를 헌납하였다. 그리고 1915년에 그의 사랑하는 마음의 고향이었던 하와이 땅에 성전을 헌납하였는데, 이는 북미 이외 지역의 첫 번째 성전이였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성전 건립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저는 하나님의 집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다른 성전들이 … 주님께 헌납되어야 할 필요성을 예견합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수백 만리를 여행할 필요가 없이 주님의 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01년 4월, 69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성전은 신성한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곳임

우리는 성전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 이 나라에 네 개의 성전을 세웠으며, 이곳에 오기 전에 동부 지역에서 이미 두 개의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전에 그들 중 하나가 세워져 헌납되었으며, 다른 한 곳의 기초가 놓여졌고 그가 순교당할 때까지만 해도 벽은 잘 쌓여져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이 성전은 모든 성도들의 시련과 가난 속에서 준공이 되어 주님께 헌납되었습니다. 성전 의식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성전 내부에서 집행됩니다. … 예언자 자신에 의해 교회에 전달된 똑같은 복음이 오늘날 전파되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같은 의식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복음 교리, 428쪽)

우리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성전을 필요로 하는 여러 곳에 성전이 건립될 날을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임 중의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조상에게 돌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끈으로 맺어져 세대에서 세대가 함께 결합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위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행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리, 428쪽)

성전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전은 산 자와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신성한 의식을 집행하는 장소입니다. 주요한 의식들로써는 침례, 언더우먼트, 결혼, 인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많은 부분은 죽은 자를 위한 의식으로서 이는 대리로 의식이 집행됩니다. 복음을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모든 것에 순종할 경우, 그들에게도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일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낙원에 들어간 주님의 종들에 의해 그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갖고 회개를 한 자들은 이 지상의 대리 의식을 통해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결국 그들은 승영하여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4:249~25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자녀들에게 제시해 준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지상에 살다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순종하면, 복음의 의식들은 그들의 친척이나, 몇 세대 후의 자손들에 의해서 대리로 집행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과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수행될 것이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약속과 필요한 조건들이 이행될 것입니다. (“말일성도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름”. *몰몬경 문학 스크랩 북*, 2권[연도 미상], 2:561~562)

그러므로 말일성도로서 하나님의 집의 의식의 필요성을 모르거나, 복음이 요구하는 모든 의례와 의식에 따르지 않는 남자와 여자는, 말일성도가 이 세대에 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위대한 사업을 알 수 없으며, 인간의 것보다 높은 율법에 순종하여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음 교리, 190쪽)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집의 의식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복음 교리, 5쪽)

우리는 이 지상에서 지내는 불행한 몇 년간의 생활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없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을 통해 모든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인봉의 권세에 의해 안전하게 되지 않는 한, 우

리는 그것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 원리로 안전하게 하지 않는 한, 다음에 올 생에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부인,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친구나 부나, 명예 등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약, 계약, 약속, 의무, 맹세, 이행, 관계, 교제”(교리와 성약 132:7 참조)가 하나님의 권세로 인봉되고 확인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덤에 갈 때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73년 11월 11일자, 1쪽)

하나님의 뜻을 행할 충실한 결심으로 성전에 들어감

한 남자가 ... 감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 그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침례받기를 원했고, 합당하게 추천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을 위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위한 다른 대리 의식들을 받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수행된 직후, 그는 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결심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저는 그 불쌍한 사람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스스로 저버리기 전에,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행했던 수고가 주님께 받아들여질까?” 아마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 관한 한, 그 기록은 보관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 그 의식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올바른 방법과 합당한 권능으로 행해졌으며, 따라서 죽은 자에 관한 그 일이 왜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행했던 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36)

거짓으로 주님의 집의 특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의 축복과 특권을 빼앗기 위해 자신의 실재 모습과 다르게 꾸며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의 축복과 의식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으시다. 그리고 이러한 모

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충실하고 정직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또한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행할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올바른 영의 환경 속에서 머무르는 한, 이 축복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만약 제 마음속에 어떤 형제에게 범죄했거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또는 제가 어떤 교회 회원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를 관리하는 지도자를 모욕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저는 제가 주님의 집에 가기 전에 이것들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제가 여러분께 어떤 잘못을 행하였다면, 또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였다면, 제가 여러분께 저의 약속을 정직하게 지키지 못하였다면, 또는 제가 하나님이나 형제들 보기에 얼마간이라도 제 인격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행하였다면, 저는 하나님의 집에 가려고 하기 전에 가서 배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히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집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되기 위해, 그리고 신성한 장소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는 제가 잘못을 범했을지도 모르는 형제들에 대해 잘못된 것을 모두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 공경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를 공경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공경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올바른 일을 해야 하고, 보상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가족으로 연결되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맺어진 한 가족의 형제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사이가 나쁘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속에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한 사람은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또한 화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며, 각자 이웃의 약점을 확대하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잘못과 약점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 만

일 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특권을 거절당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일이 자신들에게 크게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물어 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이웃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용서하거나 화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집에 가기에 합당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가 성전에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집에 가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만류할 수 있음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집에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그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어지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그분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합당하게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반주간, 1893년 5월 21일자, 2쪽. 단락이 첨가됨.)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함

우리의 종교 또는 영원한 성약과 관련해서, 우리는 결코 타협하거나, 원리를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영원한 반석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국과 권세와 열국이 무너지고 썩어 없어지더라도 존재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간이 영원히 존재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성약을 신성하게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충실할 것이라는 우리의 관심을 유지할 것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2:346~347)

자 이제,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 곧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이었던 것처럼 진실로 주님의 성약의 백성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엄숙한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악과 사악함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해 왔던 일을 알

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그리고 하늘의 천사 앞에서 여러분이 맺은 성약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맺어졌으며, 참으로 말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들이 것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4:186)

과거에 주님께서 제가 그분과 맺은 성약과 여러분과 맺은 성약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셨으므로, ... 그래서 그분의 도움과 축복으로 저는 저의 온 생애를 통해 충실하기를 결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든지 짧은 생을 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저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부끄럼없이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지상에서 내가 행한 일로 하여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저는 여러분이 성약에 충실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침례의 물에서 맺은 성약,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 그리고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모든 의로운 의무에 충실하기를 기원합니다. 말일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나 여자 모두가 사고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사물에 대해 숙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의 과정과 그들이 지지해왔던 원리들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받아들였던 복음의 원리에 대해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한, 결코 충실한 말일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일관성 있고 올바르며 의롭고 모든 면에서 기쁨을 주는 의로운 것만 받아들여시는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로운 것만이 그분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회 보고, 1910년 10월, 3~4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우리는 왜 성전을 짓는가? 우리가 성전에 가고 그곳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므로써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교리와 성약 109:1~23 참조) 성

전에 참석할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한가?

- 사람들은 때때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집의 의식을 소홀히 다루”는가?
- 여러분이 “셀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을 통해 모든 축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전 의식은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성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엄숙함”(교리와 성약 43:34)을 간직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 하나님의 집에 가기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성전에 가기 위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더 잘 준비시킬 수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의 축복과 특권을 빼앗”을 수 없는가?
- 여러분이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어떠한 느낌이 드는가?
- 스미스 대판장이 권고하신 “사고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 경의를 표할 수 있는가?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배우는 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진리를 추구함

우리는 부지런히 진리를 추구하여야 하며,
매일 배우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교리와 성약 93:36)라는 교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영적 그리고 현세적인 진리를 모두 구하도록 격려했다. 스미스 대관장은 계속해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많은 성도들에게 중등학교 과정의 기술 및 종교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그가 제정한 세미나리 프로그램은 오늘날 광범위한 교회 교육 기구의 기초가 되었다. 첫번째 세미나리는 1912년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랜티 고등학교 부근에 개설되었다.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그는 교회 보조 조직인 상호부조회, 주일학교, 초등 협회 및 상호향상회(오늘날의 청남 및 청녀 프로그램)가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다하도록 격려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교회 보조 조직의 어린이 및 성인을 위한 표준 학습 과정을 제정하였으며, 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주례 공과 계획을 실게 했다. 그는 엔사인 잡지 이전에 발행된 임프르브먼트 이라의 편집자로서 오랫동안 봉사하였다. 또한 그는 주일학교 조직을 위해 발행된 주버나일 인스덕터의 편집자로서도 봉사했는데, 이곳에 교회 교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많은 기사와 논설을 게재하였다. 그의 한 친구는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그는 글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종종 임프르브먼트 이라의 기사를 쓰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편집자의 테이블”,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8년 12월호, 174쪽)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일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속죄 하에서 구원 그 자체는 교육의 과정입니다...지식은 영원한 진보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입니다.”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의 메시지*, 6권. [1965~1975년], 4:146~147)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복음에는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음

어떠한 종교 단체 또는 조직에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 이후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함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노력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써,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 사이에 들어 와 자신들의 사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들의 사상이 우리들의 사상의 간결성, 가르침 및 진리와 비교가 되지도 않고, 그러한 것들은 말일성도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심히 그릇된 믿음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경계하여야 합니다. (*복음 교리*, 5판. [1939년], 114쪽)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예지는 더해질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욱 증가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게으름과 부주의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소홀함으로 인한 무서운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 무서운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빛 속에 걷게 되면, 여러분은 인간이 범하는 과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모든 종류의 의심과 그릇된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푸르른 월계수처럼 풍성하고 번창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남



1912년 이 건물에서 교회의 첫번째 세미나리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의 그래니트 고등학교 인근에 있었다.

부로의 여행”,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7년 12월호, 102쪽)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받아들인 특권과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 부나 지상의 감춰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구속을 위해 계시된 간결하고 진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전체적으로 인간 구속에 대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에 전념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외 통신*, *필레니얼 스타*, 1878년 3월 25일, 187쪽)

여러분은 진리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교리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은밀한 방에서 그분께 기도하게 하고 빛을 보내주시라고 간청하게 하고 예수의 교리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즉시 진리의 지식 가운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그들의 영혼에 화평을, 마음에 기쁨을, 그리고 어떤 변화에도 혼란되지

않을 굳은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구하는 자는 널리 보상받게 된다.”(마태복음 6:6 참조)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복음 교리, 117쪽)

인간의 이론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되며, 항상 옳음

우리 젊은이들은 근면한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지식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여러 학설을 필수적으로 현실적인 면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연구 목적을 위한 유익한 발판으로 인식하는 한, 특별히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시되고 이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의로운 길에서 절망으로 인도되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되는 때는 이러한 학설들을 기본적인 진리로써 받아들이게 되는 때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신성한 계시를 갖고 있어 그것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소위 “과학”이라 하는 것도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거듭하여 왔으나, 신성한 계시는 여전히 진리이며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견해는 다수의 긍정적인 견해에 일치되어야 하듯이,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 교회에서 설립한 기관이나 다른 교육 기관에 속하는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원리와 교리에 맞추어 가르쳐야 합니다....

말일성도의 종교는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든 적대적이 아니며, 과학적인 진리 탐구에 대하여서도 적대적이 아닙니다. 대관장단은 성탄절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실증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철학, 인간의 학설, 단순한 공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거룩한 계시나 상식에 위배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고 진정한 도덕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키워 주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어디서든지 받아들입니다.” (“대관장단의 말씀” 데저렛 이브닝 뉴스, 1910년 12월 17일자)

철학 이론을 탐구해 보기로 결심한 젊은이들이 채택해야 할 훌륭한 모토는 모든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것만을 취하도록 주의하여

야 합니다. 진리는 불변하나 철학가들의 이론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알려지지 않은 진리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 과학적인 목적의 발판으로 사용한 것이 내일은 그 목적을 다하고 쓰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겸손히 믿는 자가 영원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 교리, 35~36쪽)

역사를 통하여 과학과 철학은 거듭 변화되어 왔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새로운 과학 및 철학 이론들 소개되고 있으며, 그것은 철학가와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낡은 전통과 신앙과 교리를 대치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며 옳습니다. (복음 교리, 37쪽)

세상적인 야망을 추구하는 데 최고의 목표를 둔 교육은 보다 높은 자유와 건전한 생활을 이끌어 주는 자유롭고 제약없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경험을 익힐수록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우리의 참된 행복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거나 앞으로 더 큰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복음 교리, 320쪽)

우리는 예지 안에서 발전해야 함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항상 배우고 있으며 그러면 직책에 부름받은 교회 회원들에게 부여된 책임, 진리, 의무 등을 합당하게 더 잘 이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책임있는 직책에 부름받은 회원뿐만 아니라 … [모든] 회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아래서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매일 무엇이트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며 위대하고 영화로운 우리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나 그의 성도들이 잠시 동안이



1903년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대학의 말일성도 학생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훌륭한 지식과 사실로 풍성하게 하십시오. … 무지하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복음 교리, 185쪽) 라고 말씀하셨다.

라도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거나 성장을 중지했다거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성실한 의무의 수행과 예지의 한도 내에서 진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복음 교리, 310쪽)

나는 … 악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은 무관심과 쌓벽을 이루는 무지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만일 무지한 자들이 이러한 사실과 그들의 상황에 그토록 무관심하지 않았다면, 현재보다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기 주위에 존재하는 사실들에 대해 너무 자주 눈감아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모든 말일성도 가정의 교훈이나 좌우명이 되어야 할 간단한 진리를 그들의 생활에 적용시키고 배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악, 무관심, 이로 인한 무지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에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 특히 우리들 각자의 행복과 복지에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들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고 흥미를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무지를 없애버려야 하겠습니다. 그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얻은 지식과 이해심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일이나 사업에 적용해야 합니다. (복음 교리, 310~311쪽)

경전의 진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훌륭한 지식과 사실로 풍성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무지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무지하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93:36; 131:6] (복음 교리, 185쪽)

주님의 목적 안에서의 봉사는 진실한 교육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진실로 교육받은 사람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교육으로 불려질 수 있으며, 그의 모든 사업에 열성과 힘을 주게 됩니다. (“귀환 선교사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 필레니얼 스타, 1913년 10월 2일, 646쪽)

여러분의 마음을 고상한 생각에 두십시오. 고결한 화제로 빛내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나 포부를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거부할 만큼 무모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두뇌를 이용하여 최선의 봉사를 하며 어떠한 노력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상실과 악에 빠지지 않고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장 훌륭한 사회를 이루십시오. 항상 친절하고 정중하고 명랑하며, 선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추구하십시오. 인생의 의무를 이해하셔서 여러분들과 사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고 자기 몫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복음 교리, 318쪽)

우리의 모든 교육적인 노력과 현세적인 노력으로써 쇠막대를 잡아야 함

말일성도가 항상 자신들 앞에 현대의 계시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제시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표준으로 인정된 것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쇠막대”라고 아름답게 묘사된 것들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상업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기업 조직들이 사람들을 강하게 통제할 때, ... 말일성도의 의무와 책무를 다른 생활 표준을 위해 쉽게 제쳐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위를 너무 자주 자신들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기업 조직이 예의와 정직과 도덕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행동에 빠지고 적절한 자제력이 부족해진다면 말일성도라고 선언한 사람들은 무심하고 불안정하고 부도덕한 사람들과 함께 목적지도 없이 표류하는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뛰쳐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분명히 말일성도이며 또한 말일성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의 주사위가 어디로 던져지든지, 우리는 결코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도덕적이고 영적인 지침에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몇몇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불행과 타락에 대해 돌이켜 볼 때, 그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함께 어울린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 내디뎠던 그 첫번째 발걸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명백하게 자신의 훌륭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현세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이익을 얻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는 열정의 기간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인기와 영합한 표준으로 인해 높은 도덕적인 표준을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흥분의 물결이 지나가고 나면, 그들은 이리저리 표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때때로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죄와 부도덕 사이에서 무기력하게 놓여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그리고 특히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가 진보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집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고,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대한 의무와 책무 그리고 진실한 종교가 우리에게 부과해 주는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부름과 교제 속에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하나님께 빛지고 있는 중요한 의무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편집자의 생각: 우리 종교의 정체성, 청소년 인스트럭터, 1912년 3월, 144~145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여러분은 어떠한 경험으로 모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함”되었다고 배웠는가?
- 우리가 진리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야기되는 위험은 무엇인가? 진리를 배우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보상은 무엇인가?
- 진리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인간의 이론과 철학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가?
- 단지 “세상적인 야망”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의 위험은 무엇인가?
- 사람들은 어떠한 점에서 “예지의 한도 내에서 향상하고 진보하는 것”을 멈추는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날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130:18~19 참조)
- 진리에 대한 무지는 왜 “악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인가?
- 어떻게 우리는 “이 악을 제거”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여러분은 “시간과 몸과 두뇌를 이용하여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는가? 어떠한 태도와 습관이 여러분이 “인생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가?
-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위”를 우리들의 지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야기되는 위험한 점은 무엇인가?
- “우리의 세상적인 부름과 교제 속에서, …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하나님께 빛지고 있는 중요한 의무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림 : 벨 파스, 왕이 제공한 식사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다니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보다
좋은 음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강건해졌으며, 지혜의 축복을 받았다.

지혜의 말씀: 회원들의 신체적, 영적인 건강을 위한 율법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강화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상하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지혜의 말씀은 흥차, 커피, 담배 그리고 알코올을 금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가르쳤다. 지혜의 말씀에는 성도들의 건강 증진과 영적인 성장에 대한 실제적인 권고가 담겨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성도들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으며 더욱 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 성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그는 때때로 모임에서 교리와 성약 89편 전 부분을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불필요하고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에게 이 계시를 읽어 드리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까 합니다.”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의 메시지*, 6권. [1965~1975년], 4:180~181)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3년 전에 여행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회상해 봅니다. 그 여행자 중에서 한두 명은 정거하는 곳마다 흥차나 커피를 들렀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라고 대꾸하면서 여기에 있는 누구누구도 흥차와 커피를 마셨다.’고 떠들어댔습니다. … 저는 그래서 즉시 네, 여러분은 흥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편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킨다면, 더 위대한 지식의 보화나 숨겨

진 보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멸망의 천사도 이스라엘 자녀에게 했던 대로 우리를 피해갈 것이며 우리를 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 이 금지된 일을 중단하고 주님의 율법을 준수[하도록] … 열심히 간구하겠습니다. (복음 교리, 5판[1939년], 332~333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함

우리는 교리와 성약 89편에 담겨 있는 원리들에 대한 위대한 이론들을 세상에 가르쳐야 하며, 특히 말일성도들에게는 더욱 더 그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일성도들에게 유익과 번영과 도움을 주기 위해 1833년에 주어진 단순한 지혜의 말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키므로써 그들은 주님의 면전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에게 주실 그 이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만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우리의 현세적인 복리와 건강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기호에 대해 우리 자신을 극복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계시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뜻을 보다 충실하게 지킬 수 없을까요? … 모든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킨다면, 지혜의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 독한 음료와 그 밖의 해로운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 지출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상응하여 사람들의 건강, 번영, 그리고 현세적인 구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건강과 현세적인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면, 그는 자신이 행했거나 행할 수 있는 수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어떠한 회원도 술집이나 도박장을 출입함

으로써 스스로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어떠한 회원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며,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행위대로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를 충실히 믿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자신을 교회 회원으로 선언한 사람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에 담겨있는 원리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 이와 같은 불명예를 가져올 사람으로 헤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주님께서는 무절제하게 술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무절제한 음주로 인해 야기되는 가난, 그리고 타락과 파멸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가난과 파괴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초래하는 그러한 무절제한 음주 습관에 빠진 사람들은 인간성의 파멸, 가족 조직의 파멸, 그리고 자신의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남자나 여자 등 모든 회원들은, 굳건하게 이러한 폭음과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결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이나 해로운 습관이나 행동에 굴하지 않는 더욱 깨끗한 사회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

아마 이러한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많은 청중 앞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많은 남녀 노소들이 이러한 습관에 빠져 공공연하게 이를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확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그러한 사람은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과, 주님의 뜻이나 말씀에 귀기울이고 존중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

…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

다. 그러한 간구를 드린 다음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일에 참여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상처입히는 길을 택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기도의 응답을 기대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습관적으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생활과 육체에 악을 가져올 때, 우리의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유해한 습관에 따른 결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초래했고 우리가 행하지 않고도 잘 알 수 있는 악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대관장단의 메시지, 4:179~180; 단락이 첨가됨)

저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풍기거나 불필요한 자극성 음료를 탐닉하는 사람이 자신이 말일성도라고 고백하거나 나아가 교회의 회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볼 때, ... 저의 마음은 몹시 아픕니다. 저의 영혼은 그에 대한 동정과 슬픈 비탄에 빠집니다. 그리고 저는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영예를 주지도 않고 또한 최소한의 유익함도 없는 이와 같은 해로운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타락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지 놀라기만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유혹에게, “내 뒤로 물러나라”고 말하고서 악의 습관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지혜를 가질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이 식욕 또는 헛된 욕망 해로운 습관, 욕구, 또는 열정의 노예라고 느끼는 것은 정말 굴욕적인 일에 틀림없습니다. (대회 보고, 1908년 4월, 4쪽)

**지혜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 술주정뱅이는 그가 마시는 술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차, 커피 그리고 담배의 노예가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들을 자신의 행복에 필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 그들의 행복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또한 그들

의 건강에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것들은 건강에 해로운 것입니다. … 행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직접 실행에 옮김으로써 우리는 그것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교훈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게 되어, 홍수가 나고 폭풍우가 그 집을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데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94년 11월 20일, 1쪽)

세상적인 명예와 이 지상의 사라 없어져 버릴 물질을 추구하며 미친 듯이 돌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며, 정신을 잃을 때까지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쳐 쓰러졌을 때,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흥분제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단 몇 시간 동안이라도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독한 술을 마심으로써 자신을 버티게 합니다. 주부와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지닌 어머니들은 자기가 쓰러질 때까지 애쓴 후에,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흥차 한 잔을 마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은 자신의 기력을 지탱해 주고, 자신의 일상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그녀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순수한 예지가 자극적인 흥차와 알코올의 해로운 영향을 대신한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피곤하고 활기를 잃을 때, 우리의 신체에 해를 입히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해로운 음료와 마약의 도움이나 유해한 기호품에 의지하지 않고서, 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

저는 오히려 노동으로 인해 피곤함을 느끼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저의 신체적 및 영적인 건강의 기본을 해치는 마약이나 약물의 사용으로 그러한 피곤함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되도록 놔두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않는 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을 갖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고, 멸망의 천

사가 우리들을 지나치며, 사악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데저랏 뉴스: 주2회 간행물, 1895년 4월 7일, 1쪽. 단락이 변경됨)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좀더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음

저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제에 관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대목을 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독한 음료는 유익하지 않으며, 담배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위장에도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알고 계셨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를 교회에 주셨으며, 바로 그 “지혜의 말씀”이 주님의 계시에 책에 담겨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 생활의 보존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합당한 율법을 좀더 지킴으로써, 우리는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참으로 순결하고 거룩하신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08년 4월, 4쪽)

세상에 나가서, 정력적이고 신선한 기풍으로 생의 투쟁에 임하는 젊은이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89:18~21 참조] (복음 교리, 216쪽)

이러한 영광스러운 약속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준수하게 해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커다란 보화”나 “숨겨진 보화”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흥차나 커피 혹은 강한 음료나 담배 등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들은 여지없이 그것을 짓밟고 아무런 가치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행동으로 그분을 거슬리게 합니다. 그들은 불상사가 생기며 대개 주님을 욕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병과 고통 속에 남겨 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교리, 332쪽)

그것은 ... 영원히 주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원칙 안에서 우리의 안내자로서 우리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씌어졌으며 나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준수하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정신을 고상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멸망으로부터 구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참새 한 마리라도 그분의 헤아림없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처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구세주이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청력과 장님의 시력을 회복하셨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안을 주셨고, 그의 힘을 보여 주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 이외에는 아무 것도 멸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고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좀더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복음 교리, 332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89:1~4 참조)
- 어떻게 습관적인 물질이나 행동이 우리의 신체를 속박하고 영의 영향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가?
-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종종 어떠한 종류의 “타락과 멸망”이 오는가?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의 권고를 무시할 때, 종종 어떻게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악이나, 유해한 습관과 행동으로써 지배당하지 않은 더욱 깨끗한 지역 사회”를 갖도록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 어떻게 여러분은 “실행에 옮김으로써” 지혜의 말씀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7:17 참조)
- 교리와 성약 89편에 주어진 약속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성취되었던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교리와 성약 89:18~21 참조)
-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을 얻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고귀하게 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멸망의 영들로부터 우리의 사고와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좀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그분의 자녀들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1909년 11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과 대관장단의 보좌들인 존 알 윈더 부대관장과 안톤 에이치 런드 부대관장은 “인간의 기원”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종종 인간의 기원에 대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에 관해” 제기된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교회가 지닌 입장을 밝힌 그 성명서는 시의 적절하고 선에 있어서 생산적이라 믿습니다.” 그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실려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7) 이 간결하고도 명백한 말씀으로 창세기의 영감받은 저자는 인간의 기원에 관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기원, 교회 대관장단 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9년 11월호, 75쪽) 이 장에는 “인간의 기원”의 발췌 부분이 담겨 있다.

스미스 대관장은 종종 문자 그대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실재에 대해 강조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리고 제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한, 저는 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03년 10월, 3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임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

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영들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늘의 천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이 지상에 살게 되며 구속 사업을 이룩할 계획이 제시될 때 천군 무리와 함께 기뻐 노래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 위대한 준비의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사탄이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를 주면 세상의 구세주의 직분을 맡겠다고 제의할 때 우리가 그 천국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을 모반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탄을 거절하고 쫓아내셨으며 예수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그곳에 있었으며,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였고, 이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수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그 일을 이해하였고, 그 일이 우리를 위하여 발표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영들이 육신을 입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지금 그리고 이 지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오게 되어 있는 모든 영들이 지상으로 와서 육신으로서의 사명을 성취하여야 할 때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5판, 86쪽, 단락이 추가됨)

우리는 …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인 인간을 봅니다. 영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에 의하면, 가장 뛰어난 피조물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입니다. 인간은 그의 조직 중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훌륭한 속성, 이성, 그리고 예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분은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와 가장 닮은 가장 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과 목적의 결과입니다. 인간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형상과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거했으며, 죄를 몰랐습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소유와 상속으로서 이 지구를 주셨으며, 그의 통치



그림 : 로웰 브루스 베넷,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
스미스 대관장은 아담이 “인간의 최초의 사람”(모세서 1:34)이라고 가르쳤다.

를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창조의 목적을 다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데저랏 뉴스: 주2회 간행물, 1873년 2월 18일, 2쪽)

경전에는 이 지상에 와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영적 개체로 전세에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는 불사불멸의 존재입니다. 육신은 죽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과 마찬가지로 부활한 상태의 육신은 불사불멸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의 메시지, 6권. [1965~1975년], 4:264)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원래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영과 육신안에 있는 인간은 어떠한 형태였습니까?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 사람을 창조하시되” 물론경에는 보다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 (이더서 3:15)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의 아버지”, “모든 육체의 영의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태초의 인간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히브리서 1:3)이십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지상을 걸으셨으며, 그의 제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으니”(요한복음 14:9) 우리가 사려깊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이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즉, 닮았다는 것)이요, 또한 그의 아버지는 인간의 형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필멸의 지상 생활 동안 뿐만 아니라 그의 탄생 이전 그리고 부활 이후까지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14세의 소년이었던 요셉 스미스가 그의 첫번째 시현을 보았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이러한 두 개체의 형상으로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첫번째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분명 그분은 그 첫번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인간에 관한 내용이 모세서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있던 나의 독생자에게 이르되,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대로 하니 그대로 되니라 … 나 하나님이 나의 형상 곧 내가 지은 나의 독생자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저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니라.”(모세서 2:26~27)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또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아들 중에서 첫번째로 태어나신 장자, 즉 첫번째 영의 자녀입니다. 육적으로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맏형이시며, 우리는 그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 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으로서 뿐만 아니라 육체로서도 그렇습니다. 육신은 단지 영의 옷인 것이며, 영의 보충물입니다. 이 둘이 합쳐 인간이 됩니다.(교리와 성약 88:15 참조) 인간의 영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영은 그 창조물의 형상과 같습니다. 이것은 요셉 스미스에 의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졌습니다. (교리와 성약 77:2)

야렛의 동생이 예수님의 영체를 보았을 때(이더서 3:6~16 참조), 그분은 살과 피를 지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으며,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골로새서 2:9)셨기 때문에 이 지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처럼 “육체, 즉 신체와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인간으로서 나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육신은 그의 영의 형태이며, 영은 분명 적절한 외형, 즉 적합한 육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오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니파

이삼서 1:13) 그분은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영의 충만한 상태만큼 점차 성장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상에 왔고, 이후 계속해서 이 지상에 와야 할 인간처럼, 그분도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이며 우리의 위대한 선조인 아담도, 그리스도처럼 전세에서 영으로서 살았으며, 그리스도처럼 그도 합당한 육체를 입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산 영”이 되었습니다. 전세에 관한 교리는 말일에 분명하고 자세하게 계시되어, 신비한 문제로 남을 뻔한 인간 기원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필멸의 상태로 경험을 맛보기 위해 일시적인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오기 전에, 그는 영으로서 하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숙하게 양육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즉 아담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었던 이후로 이 지상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기 전에 영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담이 이 지상에 있었던 최초의 인간이 아니었으며, 최초의 인간은 하등동물로부터 진화한 것이었다는 몇몇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담이 “모든 인간의 최초의 사람”(모세서 1:34)이었다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그를 우리 인류의 최초의 부모로서 생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태초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랫의 동생에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이나 육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둘 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똑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육신을 입고 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모태 속에서 작은 태아로서 육신을 입고 자신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태아는 유아로 자라는데, 이는 어느 단계에서는 영으로 크게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태어난 후, 어린 아이는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인류의 첫번째 사람이 그의 생을 인간 이하의 상태에서 시작했다거나, 인간이 된 모태 속의 태아 그 이하의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인간의 기원, 교회 대관장단이 설명함”, 77~80쪽. 단락이 추가됨)

우리는 복음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됨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모두 똑같은 속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모든 인간의 자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 영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육신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고 활동하고 존재합니다. 우리가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그에게서 나왔으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따르는 모든 변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성취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인간은 이성적이고, 사색적이며, 기도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력을 바치며, 인간이 합당하게 노력해 나가는 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많이 받게 되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예지와 변영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정력을 약하게 사용하면 그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사라지게 되어 결국 그는 암흑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한 그는 짐승과 마찬가지로 무지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아서 통치력과 권세를 지니고 영원히 진보하여야 합니다. …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어떤 특정한 원리에 순종하고, 특정한 과정을 거치며, 특정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예지를 받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없이는 어느 인간도 지상에서 맡은 그의 사명을 수행하거나 그의 사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영원한 진리의 복음 원리이며, 신앙, 회개, 그리고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의 원리이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늘의 율법 또는 첫째 원리의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리, 57~60쪽)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고, 신성한 속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상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린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는 것처럼,

하늘 부모의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녀들도 측량할 수 없는 오랜 기간에 걸쳐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 교회 대 관장단이 설명함”, 81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이 느낌은 어떠한가? 이러한 이해는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어디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처음으로 들었는가?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 지상에 오게 되었는가?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성과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처럼 육신을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전에 입각한 어떠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간증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 전세의 존재에 대한 교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켜” 주는가?
- 이러한 면에서 인간 기원에 관해 계시된 진리는 인간의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
- 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육신으로서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영광과 영예”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가?
-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교회에서의 봉사

신권 권능의 지시하에 우리의 부름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봉사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사도로서 44년 그리고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9년 동안을 봉사했다. 그는 191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저는 이 아침에 저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충실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는 그때로부터 주어진 모든 부름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봉사해왔다고 말씀하였다.

“내 인생의 경험들을 살펴볼 때,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나 말일성도에게 한 맹세나 약속을 소홀히 생각했거나 그것들을 지지하기에 게을렀던 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로서 나는 그 부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내가 칠십인이 되었을 때, 나는 마음속 깊이 그러한 부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으며, 나의 모든 예지와 열정을 당하여 그러한 성약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의 신권을 소유하고 이러한 부름에 진실하지 못했거나 불성실했던 행동을 했던 경우를 알지 못하며 기억할 수 없습니다. 후에 내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성임되었을 때, 나는 그러한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직책과 형제들과 신앙의 권속과, 하나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이러한 성신권을 받음에 관계되는 성약과 의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부름받은 직책을 수행하는 의무나 약속을 어겨 본 경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에 진실하고 성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 교리, 5판. [1939년], 461쪽)

스미스 대관장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며, 신권의 부름, 교회 보조 조직, 그 밖의 비이기적인 봉사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봉사를 하면서, 그들이 부름받고 지시받는 신권의 권능을 항상 영광되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신권은 봉사의 직분으로 주어짐

신권은 인간의 영예나 칭찬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도록 부름받은 신성한 임무를 지닌 사람들에게 봉사의 직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이신 주님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기도와 금식으로 몸에 기력이 없고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 자신의 당면한 필요 사항에 메시아의 권능과 권세를 사용해 보도록 피는 사탄의 유혹을 견뎌내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인간의 것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그 권리는 몇 가지 직분과 거룩한 신권의 반차로 이루어졌으며, 인간에 의해서 비롯된 권리로 고려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장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배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봉사하겠다고 공언한 한 메시아의 사업에 대한 겸손한 봉사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안톤 에이치 린드, 찰스 더블류 펜로우즈. “명칭”,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4년 4월, 479쪽)

저는 자신의 전 생애 동안 “부름이 주어지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행하는” 장로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부름에 대해 단 한 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으며, 그들의 세상적인 이익들 때문에 단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형제들이 주님과 그 백성들을 위한 봉사를 요청하면 즉시 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절대 멈추지 않는, 준비된 파수꾼처럼 기꺼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일하였으며, 자신들의 수고를 결코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았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끊임없는 만족감을 느끼며 일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항보다 더 중요한 신권의 의무에 있어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기꺼이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데저렛 뉴스* [주간],

1879년 12월 10일, 2쪽)

매주 갖는 신권 정원회 모임은 …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인해 신권의 이해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모든 형제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종으로서 규칙적인 활동의 습관을 익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 메시지*, 6권. (1965~1975년), 4:195)

오 하나님이지여, 거룩한 신권, 고귀한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공의로운 사람들, 영예로운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전세계의 모든 나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신권의 성약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친절하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이 참으로 그분의 충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회 보고, 1911년 10월호, 132쪽)

보조 조직은 모든 사람이 신권의 관리 권능 아래 봉사하도록 함

신권은 가장 높은 곳에 거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신권 조직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제정된 조직과 같은 교회의 모든 조직을 돌보는 것은 신권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제정된 조직에는 우리의 상호부조회, 상호향상회(청남 및 청녀), …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강화시키고 이 땅의 진리와 의로움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모든 조직이 포함됩니다. 와드 내의 지도자나 총관리 직원들은 이러한 조직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상한 돌봄과 배려, 그리고 깊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권은 주님의 백성의 복지와 지상에 시운을 조직하고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제정되며 성립된 이러한 조직들은 이러한 관리 권능을 기대해야 하며, 각자의 입장에서 그 관리 권능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들과 조화롭게 일해야 합니다. (*데저렛 뉴스*[주간], 1892년 1월 9일, 70쪽)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성신권이나 권능에서 분리되거나 그 위나 밖에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호부조회, 상향회, 주일학교 등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적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원들의 유익과 자기 보호와 자립을 위한 회를 조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신권 정원회나 평의회가 아니고 성신권에 의해 조직된 성신권의 지시를 받는 보조 조직입니다. 그들은 신권의 영역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권의 원리를 인정합니다. 어디에서나 그들은 영혼의 현세적, 영적 구원인 선을 성취하려고 존재합니다. (복음 교리, 132쪽)

나는 상호부조회 특별히 그 큰 조직의 본부 직원에게 시온의 여성 가운데 있는 모든 조직을 돌볼 수 있는 파수꾼을 두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모두 그러한 조직의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앞장을 서야 하고, 부름을 영화롭게 수행해야 합니다. (복음 교리, 350쪽)

그러나 이러한 보조 조직을 통하여 우리들은 안내의 손길을 뻗을 수 있으며, 신권의 조직에 의해서 도달하기 어려웠던 많은 젊은 남녀에게 영원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조직은 가장 훌륭한 기초적인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복음 교리, 356~357쪽)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보조 조직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보조 조직들이 게으름을 피우며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진지하게 우리의 의무를 실행할 때에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악마의 수중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회 보고, 1911년 10월, 131~132쪽)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대의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침례를 통해 복음의 성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

으로 시온의 중요성을 증진시키고 지상에서 시온의 목적을 수립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자유의지와 예지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느껴야 함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데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76년 11월 28일, 1쪽)

우리는 모두 사람들의 복지와 구원을 위해 기꺼이 일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의 선을 위해 개인의 소망과 감정을 희생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완전히 수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위대한 의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하다면, 주님의 사랑, 인간의 구원, 지상에서 주님의 왕국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데저렛 뉴스[주간], 1879년 12월 10일, 2쪽)

우리는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신권 정원회가 최선을 다하여 그 의무를 이해하며, 그들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 부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에 속한 예지와 능력에 따라 교회에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날이 이르기를 기대합니다. 그 날이 되면, 현재 보조 조직에서는 그다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님은 태초에 이것을 계획하셨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규 신권 조직을 통하여 모든 필요 사항이 충족되고 만족하도록 마련하셨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조직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들 조직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 해야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그들은 더욱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고 되고 주님의 사업은 더욱 강해지며 더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159~160쪽)

누구나 위대한 말일의 사업에서 자기의 몫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일의 과업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부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존중해야 하는 성신권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들의 의무를 들 수 있으며,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부를 깨끗이 닦아 내어, 마음을 청결히 하고, 생활을 바로잡으며,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때, 우리는 가족과 사회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복음 교리, 152쪽)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십일조를 바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한 종교와 가식없는 신앙을 행사하여 고통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방문하고,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며(야고보서 1:27 참조),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성신권을 존중하며, 지나침이 없고, 가정에서 늘 기도하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들, 그들은 지옥의 권세가 넘나들 수 없는 기초를 쌓게 될 것이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그 집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 집은 영원한 진리의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7:24~27 참조) (복음 교리, 7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신권 권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신권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겸손한 봉사에 대한 약속”이 되는가?
- 교회의 보조 조직의 목적은 무엇인가? 보조 조직은 어떻게 교회의 회원들에게 축복을 주는가? 신권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보조 조직의 역할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 교회에서 우리의 책임과 부름을 서로 지지하고, 영화롭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함”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한 희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이 기꺼이 하고 있는 희생은 무엇인가?
- 우리의 의무에 있어서 “완전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겸손하게 꾸준히 행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가정의 밤을 통해 가족을 강화함

가정의 밤은 가족간의 사랑을 강화시키며
가족 구성원의 마음에 신앙을 강화시켜 준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게 있어서 가족은 참으로 소중하였다. 그는 “신성하게 성임된 가정”이라고 자주 그리고 설득력있게 말씀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왕국, 의로움, 진보, 발전의 근본”은 가정 안에서 확립되어진다고 말씀하였다. (“편집자 소고”, *청소년 인스트럭터*, 1916년 11월호, 739쪽)

1915년에 스미스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번 갖는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으며, 부모들이 이 가정의 밤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시간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했다. 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모, 가정, 교회,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자녀의 의무와 책임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가 부르기, 노래, 기도, 경전 및 양서 읽기, 악기, 가족 토론, 복음 원리 및 생활 윤리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 등에 대해 한 시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을 헌신적인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 메시지*, 6권. [1965~1975년], 5:89)고 가정의 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가정의 밤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스미스 대관장의 강한 신념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었다.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하고도 훌륭한 책임의 하나는 자녀에게 갓난아이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복음의 모든 원리를 가르친다는 것이며, 부모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진리, 덕, 정직, 존경, 고결성 등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복음 교리*, 263

쪽)

1917년에 스미스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가정의 밤은 “많은 가족들이 지켜야 하며,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저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대관장단 메시지, 5:89) 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처음 제정된 가정의 밤 프로그램의 많은 중요한 특징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하나님과 복음의 원리를 사랑하도록 가족에게 가르침

주님의 왕국, 의로움, 진보, 발전, 주님의 왕국에서 영생과 영원한 증식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304 쪽)

전형적인 “몰몬”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모인다는 의미에서 성전인 것입니다. … 여기에 가정에서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도덕적인 개념과 종교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함께 가정에서 가르치고 훈계함으로써, 국가를 강화시키는 의를 이루게 되며, 모든 사람에게 치욕이 되는 죄를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에 고향”, 대회 보고, 1907년 4월, 7쪽)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친구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친구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우정에 충실할 수 있게 하십시오.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합당한 운영을 위해 그의 교회에 회복해 주신 권능을 영화롭게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닙니다.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것처럼 합당하게 조직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집도 질서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대회 보고, 1915년 4월, 5쪽)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종교적인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세속적이 되는 것, 이기주의, 무관심, 가

정에서의 존경심 결여 등이 지금처럼 만연되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랑, 화평, 주님의 영, 친절, 자선, 회생 등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거친 말, 질투, 증오심, 욕설, 외설적인 말과 비방 등을 삼가시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과 권능으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실천으로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고 열성적임을 보여 주어야 하며 여러분이 가르친 바를 몸소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이 전문가를 찾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의 훈계와 모범을 통하여 노변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여러분 스스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우리의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 학교, 조직 등이 가정에서의 가르침이나 훈련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복음 교리, 271쪽)

가정의 밤에서

가족들에게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침

우리는 말일성도들이 교리와 성약 68편 25~28절에 주어진 주님의 계명을 더욱 열심히 지키기를 권고합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해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시온의 주민이나 조직된 시온의 어떤 스테이크에 사는 주민에게도 하나의 율법이 되리라.

“저들의 자녀는 여덟 살이 될 때에 죄 사함을 위하여 침례를 받고 안수를 받아야 하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시온의 자녀들은 또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며 다시 말일성도

들에게 반복하여 주신 다음과 같은 계명을 더욱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이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12)

이러한 계시들은 말일성도들에게 강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계명들이 가정 안에서 가르쳐져야 하며,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가정의 밤“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격려합니다. 이 가정의 밤 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집에 모아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가족의 필요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밤“은 부모, 가정, 교회,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자녀의 의무와 책임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찬송가 부르기, 노래, 기도, 경전 및 양서 읽기, 악기, 가족 토론, 복음 원리 및 생활 윤리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적합한 낭독, 노래, 이야기 및 게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로 준비할 수 있는 종류의 가벼운 다과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식의 구애를 받거나 딱딱한 것은 가능한 피하고, 모든 가족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간에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며, 부모가 자녀에게 경고와 권고의 말을 들려주는 기회가 됩니다. 이 모임은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를 존경하며, 가정의 축복에 감사를 표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고,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며, 그들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 전세계의 모든 교회 보조 조직 지도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가정의 밤을 갖는 저녁이 되면 젊은이들이 가정에 머물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교훈적이고 합당하며 흥미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1891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의 집에서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저의 자녀들과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지상에
 회복된 복음의 지식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의 손실을 보상해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권고에 따르면, 분명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가족간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순종심이 증가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의 마음에 신앙이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을 유혹하는 나쁜 영향이나 유혹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5:89)

전세계의 교회에 일치의 정신, 헌신, 그리고 신앙이 널리 보급됩니다... 가정의 밤 프로그램의 도입은 이러한 면에서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가족간의 레크리에이션, 발전과 즐거움, 순서에 의한 사회, 종교적인 영의 분위기 등을 위한 일주일에 하루 저녁은 이러한 소망했던 면에서 성공적이었으며, 전세계의 모든 곳에서 진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장될 것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5:89)

우리는 시온의 부모로서 우리의 의무들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요구하는 말씀을 교리와 성약에서 읽게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은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며, 그렇게 될 때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68:25, 28 참조)

우리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하고, 시온의 부모로서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과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지상에 회복된 복음의 지식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의 손실을 보상해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견줄 만큼 위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며, 그들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장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영과 자녀들의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이 자녀들의 마음 속에 서서히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98년 6월 28일, 1쪽. 단락이 첨가됨)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진리의 원리를 가르치십시오. 순수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십시오. 주님께 신앙을 구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얻을 수 있

고 그의 왕국의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설교”, 밀레니얼 스타, 1906년 8월 30일, 545~546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어떠한 방법으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근본”을 확립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사회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신권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가?
- 종교적인 헌신을 증가시키고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스미스 대관장은 어떠한 권고를 하였는가?
- 교리와 성약 68편 25~28절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가정의 밤은 부모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가정은 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여러분이 좀더 효과적인 가정의 밤을 갖는 데 어떠한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가? 가정의 밤을 위해 스미스 대관장은 어떠한 지침을 주었는가?
- 가정의 밤을 갖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오는가? 또한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 가족들이 진리로 인도되기 위해 왜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되는가? (요한삼서 1:4, 모사이야서 27:14 참조)
- 남편과 아내는 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이러한 단합을 이룰 수 있는가?



1913년,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의 아담스 워드 예배당에 있는 이 스테인 글래스 창문은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

현대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자주 우리 신앙의 최고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을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복음 교리, 5판, [1939년], 5쪽) 교회 대관장으로 계시는 동안,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과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특히 몇몇 경전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관련된 특정 성구들을 성도들이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1916년 6월 30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의 교리 해설서를 발표하였다. 이 해설서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사이의 사업 목적에 있어서의 일치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각자의 뚜렷한 역할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또한 아버지라는 용어가 경전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양자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 해설서의 몇몇 발췌문들이 스미스 대관장의 다른 가르침들과 함께 이 장에서 인용되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은 “생애 최고이자 궁극적인 수업이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브라이언 에이치 스튜이 편집,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및 그외의 사람들의 설교집, 5권. [1897~1892년], 2:354)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임

영생은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가 우리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경전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3 참조] 저는 말일성도들이, 경전의 가르침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목소리를 통해 계시된 것들을 통해,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배울 수 있고, 하나님과 또한 그가 세상에 보내신 그의 아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대회 보고, 1916년 4월, 4쪽)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세주이고 새로운 성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아버지와 아들의 기록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영원히” 같음을 증거하는 성신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교리, 93쪽)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진 영원한 존재임

하나님께서서는 살과 뼈의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와 같이 조직된 육신을 지닌 존재이십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해도 없는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복음 교리, 59쪽)

나는 하나님은 오직 영이므로, 그는 온 우주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본질로 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든지 임재하실 수 있다는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모두 채우시고 동시에 모든 곳에 임재할 수 있다면 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체로서 동시에 두 곳에 임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물리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모순된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우주에까지 확장됩니다. 그의 능력은 그의 모든 창조물에 미치고, 그의 지식은 모든 것을 이해하며,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복음 교리, 51쪽)

“엘로힘”이라는 승영한 칭호로 불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 그대로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는 영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칭된 여러 가지 면에서 엘로힘은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에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의 교리 주해”,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6년 8월, 934쪽)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습과 형상을 받아 만들어져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는 그분의 모습과 형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독생자를 개인으로나 영적으로 닮았으며,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복음 원리에 순종하는 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현명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그의 형상에 부합되도록 예임 …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리*, 53쪽)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말씀드리고 습니다. 그분은 온 땅의 모든 주민들을 염려하고 계시며 의와 진리의 율법을 지키는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 교리*, 53쪽)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

전능하신 주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행할 것을 지시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의 의무는 그가 요구하시는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73쪽)

경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행함을 받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간결하고 반복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현 상으로 보면, 창조자는 조직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조직하십시오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래 실재했던 것, 즉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궁극적인 원소들을 가져왔다는 의미로 볼 때, 분명히 그분이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소는 영원”(교리와 성약 93:33)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934쪽)

[인간은] 그 자신의 예지와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전능하신 주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주님의 것이며,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리, 57쪽)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것을 다스리는 능력을 인간의 능력에 맞추어 한정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하려는 …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복음 교리, 52쪽)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는 장자이시며,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심

엘로힘의 영의 자녀 가운데 여호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며, 다른 모든 영들은 그의 동생입니다. (복음 교리, 64쪽)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지상에서 육신을 입었거나 앞으로 입게 될 영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러한 영들 중의 한 분입니다. 그 영들이 모두 엘로힘의 아들 딸인 것처럼 그도 아들입니다. (복음 교리, 64쪽)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1) 그는 장자로 태어나신 우리의 만형이십니다. (2) 그는 필멸의 육신을 지니신 어머니와 부활하신 불사 불멸의 영화로운 아버지 사이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3) 그는 인류의 유일한 구속주와 구세주로서 선택되고 예임되었습니다. (4) 그는 죄가 없는 탁월한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941~942쪽)

말일성도는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체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일성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복음 교리, 4쪽)

예수 그리스도는 엘로힘의 영적이며 육체적인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엘로힘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예수 그

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그의 성역을 수행한 그 육체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의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후 부활의 과정을 거쳐, 지금은 우리의 주이시며 구세주로서 영원한 영광 불사 불멸의 육신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935쪽)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무덤의 사슬을 깨뜨리셨고 생명의 영혼으로, 생명의 존재로, 영광 지체를 지닌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셨습니다. 이 영광 육체는 살아 있는 불사 불멸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복음 교리, 59쪽)

하나님 아버지는 곧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아버지이십니다. 필멸의 육신에 불사 불멸을 입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빛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구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친분을 나누어,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길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복음 교리, 26쪽)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느니라]...” [니파이삼서 11:27 참조] 나는 지성을 갖춘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분이라는 뜻으로는 해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은 지식과 지혜와 이해력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권고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성구를 이해하고 있으며, 일부의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거니와 그들은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며, 두 육체요, 각기 별도의 개체이니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이 각기 별도의 개체인 것과 같습니다. (복음 교리, 63쪽)

[아버지와 아들]은 그 속성에서 하나가 되십니다. 그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며,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시며, 자비 안에서 하나가 되시며, 권세 안에서 하나가 되시며, 그들을 강하게 일치시키고,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만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모든 진리와 모든 덕과 모든 의가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설교 모음집, 4:66)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불림

신에 대해 적용되는 “아버지”라는 용어는 간결한 다른 의미들로 신성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934쪽)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아버지이심

여호와, 즉 엘로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그리고 나아가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라 불립니다. (모사이야서 15:4, 16:15, 엘마서 11:38~39, 이더서 4:7 참조) 비슷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사야 9:6, 니파이이서 19:6과 비교)라 불립니다....

... 우리가 또한 여호와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사업에 있어서 엘로힘이신 아버지의 집행인이었습니다. ...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종일관 하늘과 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 그의 창조가 영원한 것이기에, 그는 하늘과 땅의 영원한 아버지로 불리기에 진정 합당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935쪽)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서 고려되는 [또다른] 의미에는 그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영생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에 있습니다. ...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며, 그를 통해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 경륜의 시대에 주어진 많은 계시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 [교리와 성약 11:28, 34:1~3, 35:1~2, 39:1~4, 45:7~8 참조]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요구 사항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 즉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은 우리 주가 태어나기 몇 세기 전에 아빈아다이가 한 다음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 누가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주를 믿으며 저들의 죄 사함을 받는 날을 바라는 자는 모두 저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모사이야서 15:10~13)

인간들은 영감에 찬 말씀의 상태로 하나님께로 태어나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8~10 참조]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은 의로운 일에 훌륭하게 헌신함으로써 승영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76:58, 132:17, 20, 37 참조]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마련하신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과 딸” [교리와 성약 76:24, 또한 고린도전서 4:15, 교리와 성약 84:33~34, 93:21~22 참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대해 분명히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전에는 반박하거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는 시종 일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의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의 자녀가 되며 침례라는 두 번째 탄생을 통하여 그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936~939쪽)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이룹니다. 우리는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물의 성령으로 세상에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식을 통하여 그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양자의 법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복음 교리, 127쪽)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받아들인 종교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새로이 거듭나는 것을 포함하는 회개와 침례와 성신의 은사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가족이 아니며, 하나님과

그의 율법으로부터 이탈된 이방인이니, 인간의 구원과 구속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고안된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현세나 영원한 세상에서 육신으로나 영으로나 이와 같이 타락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83쪽)

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의로움을 행하고, 모든 자의 모범이며 머리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생활의 방편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들어가야 하는 문입니다. (복음 교리, 234쪽)

하늘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고 승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 교리, 3쪽)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에 의해 아버지가 되심

인간 가족과의 모든 관계에서 아들이신 예수는 엘로힘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대표하였으며 지금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로 알려진 전세에서 육신을 입기 전의 상태에서 진실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서 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그가 부활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5:43, 10:25, 30, 14:28, 17:11, 22, 니파이삼서 20:35, 28:10, 교리와 성약 50:43 참조)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그의 아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고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말씀과 행동과 관련된 권세, 권능 및 신격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떠한 것도 엘로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문자 그대로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한 신성한 사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939~940쪽)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구세주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육신의 몸으로 우리 시대에 인간을 방문하셨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성약에 헌신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널리 퍼져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록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는 지식을 위해 과거의 역사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방문하신 시현과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몸으로 그들의 본체와 존재를 선언했고 그들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사업, 즉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한 손길을 뻗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형제 자매에게 드리는 간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이를 증거합니다. (복음 교리, 462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왜 영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가? 우리가 그분들을 아는 것이 우리와 그분들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영화롭게 부활하신 영원하신 존재임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심을 앎으로써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 “창조자는 조직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 어떠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중에서 독특한 분이신가? 구세주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였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면에서 하나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7:22~24 참조)
- 왜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 다 창조자로 불리는가? (모세서 1:32~33 참조)
- 어떻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는가? (모사이아서 5:5~8 참조)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2:3, 4:7~8 참조)
-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버지였는데도 왜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였는가?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계속되는 계시

하나님께서서는 지정하신 경로를 통해 그의 교회에 계속해서 계시를 주시며, 우리는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이전의 다섯 명의 대관장과 마찬가지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교회와 교회 회원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의 생애의 마지막 몇 개월 동안에 그와 하나님 사이에 드리워 있던 장막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얇아졌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은밀한 기도와 명상으로 보냈다. 그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 1918년 10월 4일에 있었던 연차 대회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오늘 아침, 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 감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과 가슴속에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던 것을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홀로 살지는 않았습니니다. 저는 기도와 간구와 신앙과 결심의 영 안에 거해 왔으며, 주님의 영광 끊임없이 교통해 왔습니다.” (대회 보고, 1918년 10월, 2쪽) 후에 교리와 성약 138편이 되었던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그가 받았던 때가 바로 이 때였다.

스미스 대관장은, 그가 교회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겸손히 감사를 표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현재 대관장의 부름을 받고 있는 저에게 많은 영광스러운 것과 많은 원리들을 나타내 보여 주셨으며, 여러 번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말하실 때 제가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그분이 부르실 때 기꺼이 응하고자 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제게 주시고자 할 때 받으려 하는 한,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제게 계시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에 입각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밀레니얼 스타, 1905년 4월 6일, 222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계시를 주심을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계시를 주심을 믿음 우리는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계시를 주신다는 원리를 믿습니다.

위 말씀은 복음의 일부이며, 특별히 이 경륜의 시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복음의 시대와 경륜의 시대에 공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복음을 집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교회도 계속해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지 인간이 아니며, 그리스도와 인간 간의 연결은 직접적이고 계속적인 계시의 원리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습적인 원리가 아니므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또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질 수 없는 것이며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즉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과 그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살아 있는, 생기가 넘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멈추는 순간 교회가 영원히 살아 계신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가 주님의 인도가 없어지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교회는 지속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멈추어 버리고 맙니다. 마치 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선장이나 나침반이나 방향타가 없으면 폭풍우와 파도에 떠밀려 방황하다가 좌초되고 말듯이, 끊임없이 격돌하는 인간의 걱정과 세상적인 관심과 자만과 어리석음의 폭풍우와 파도에 떠밀려 다니다가 마침내 복음을 금전으로 사고 파는 일과 미신의 암초에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 교리, 5판. [1939년], 97쪽)

주님의 종들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인도를 즉시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힘으로 삼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그들이 수행할 일에 대하여 무적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몬이즘”에 입각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밀레니얼 스타*, 1902년 6월 19일, 387~388쪽)

저는 이 말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참되며, 그 가치와 참됨이 영원히 존속할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온 마음을 다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실재와 영향력을 통해 나에게 큰 확신을 주셨으며, 또한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버리려는 소망을 갖도록 나의 영혼을 일깨워 준 영감으로써 내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대회 보고, 1909년 4월, 6쪽)

하나님께서서는 역사의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뜻을 많이 계시해 주심

말일성도들은 … 전세계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을 믿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그의 뜻을 계시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현재 표준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경전은 완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멈추시겠다고 계시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모든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 의하여 새로운 진리를 드러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진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정말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계시가 다른 예언자들에게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녹에게 주어졌던 계시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받은 노아에게도 충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모든 시대를 위해서도 충분한 것이며,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이 모든 시대를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충분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약속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아들 이삭이나 그의 손자 야곱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만으로는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자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노아가 받았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발람이나 바울에게는 그들 이전의 축복사와 예언자들이 받은 계시를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진리와 교훈으로서 유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계시는 참으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다 더 잘 이루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

이며 또한 모든 나라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시가 있어야 할 이유 중에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편집자의 테이블: 현대의 계시”,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2년 8월호, 805~807쪽. 단락이 추가됨)

하나님께서서는 합당하게 택하신 신권 경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계시해 주심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밝히셨으며, 그를 통하여 그는 교회의 첫째 장로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며, 말씀들을 받아들여 이 위대하고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요셉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그분이 알고 계신 사람들이며, 신권에 성임된 모든 사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어떠한 직책에든 임명된 자들은 모두 요셉을 머리로 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로를 통하여 권능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질서이며 그 외의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행하도록 정하신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예언자와 다른 백성들을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굳건하고 충성스럽게 견디어 온 사람들과, 지금도 여전히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한 집단으로서는 결코 불충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누구든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당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몰아내시고 다른 사람을 불러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리, 39쪽)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구성된 역원, 곧 교사든지 감독단이든지 고등 평의원이든지 자기가 소속된 정원이든지 대관장단이든지 어느 역원을 막론하고 그들에게 순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마음속으로 그것을 다짐하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자기 스스로를 신권과 교회의 모든 특권과 축복에서 단절시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세우 놓으신 권능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머리 속에 괴상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영감을 받아 교회를 자신이 인도하기를 열망하며 신권의 심판대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행해야 할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의롭게 판단하고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42쪽)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회원, 즉 어리석지 않을 것 같은 형제들이 스스로 속이는 영의 도구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슬프기 한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신권이 운용되는 것, 신권의 합법적인 권위, 신권의 범위와 권능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빛의 도움을 받게 되면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형제들은 세상에 산재해 있는 속이는 영에게 쉽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믿게 되며, 그 다음 단계로는 자기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히 택함받은 존재라고 스스로 믿게 됩니다. 사람이 이와 같은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말일성도가 이해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종들이 순결한 삶을 영위하고, 그들에게 부여된 신권을 존중하며, 사람들과 신권 소유자들의 음성으로 합당하게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들의 부름과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 그리고 주께서 인간의 자녀에게 또는 그의 교회에게 전해야 하는 말씀이나 지시를 계속해서 주시는 한, 합당하게 임명된 신권의 경로를 통하여 교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적어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 현재의 상태로 존재하는 한, 그는 결코 그 통로를 벗어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물며 신권의 조직이 거의 완성되어 있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으며 심지어 지부의 조직까지도 완성된 시온에서 어느 누구도 교회의 감리 역원에게 지시하는 책임을 맡으려 하거나 혹은 교회를 인도하기 위한 계시를 주기 위하여 스스로 계시자, 예언자, 선견자, 영감받은 자로 행사하려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 교리, 38쪽)

영적이나 세상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시와 인도는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는 권능을 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교회의 성약, 교리 또는 규율,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증명된 진리, 또는 일반 상식 등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교회 회원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나 시현을 보았거나 꿈을 꾸었다고 그럴듯한 [거짓] 주장을 하면서 공론에 관계하게 하거나 어떠한 위험한 생각에 관심을 갖도록 권할 권리는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이 지역 지도자나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질서의 집” (교리와 성약 132:8)



1910년 8월, 스위스 독일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 및 회원들과 함께 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스미스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단결하고 "[자신들] 위에 올리는 하나님의 종의 음성에 귀기울" (복음 교리, 234쪽)일 것을 권고하였다.

입니다. 교회는 한 개인의 은사나 계시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정 한 대회를 통해 교회의 목소리와 거수로써 지지된 거룩한 신권의 질서와 권세에 의해 교회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의 메시지*, 6권. [1965 ~ 1975 년], 4:285~286)

계시의 영은 전 인류라는 가족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음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38:27 참조) 그분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테저렛 뉴스*[주간], 1884년 8월 13일, 466쪽)

만약 우리가 [영의] 영향 하에 행동하고, 계속해서 영의 지시에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쟁, 분쟁, 이기심을 버리게 되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도 열심히 돌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사고 방식의 차이를 보게 되며, 또한 한 사람은 잘되지만 다른 사람은 못되는 일이나, 똑같은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것 등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복음의 그물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불러 모으기 때문이며, 우리는 단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위대한 복음의 계획에 있어서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와 원리들을 배우지만 그것도 불완전하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많은 경험을 했으며 진리에 대한 이해력도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진리 안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위대한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인류를 하나가 되도록 하며,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며, 같은 권고에 지지하게 하며, 똑같은 목소리에 의해 통치받게 하기 위해 계획된 이 위대한 원리들은 무엇입니까? 그 원리들은 계시의 원리,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권능, 사람들의 마음속에 통치하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라는 믿음,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 또는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지식 없이 맹목적으로 이들 원리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테저렛 뉴스(주간), 1867년 3월 6일, 74쪽)

성도들은 단결하고, 그들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종의 음성에 귀기울이게 합시다. 그들의 권고에 귀기울이고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합시다. (복음 교리, 234쪽)

성신과 함께 하여 하나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가장 높은 조직인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 사이에서 하는 것처럼 가장 작고 낮은 가족들도 부지런히 이 영을 찾고 소중히 하도록 합시다. 성신이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의 마음속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속까지 스며들게 합시다. 성신이 같은 와드에 사는 이웃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스테이크장단과 고등 평의원들 사이의 모든 이견과 차이점을 완화시키게 합시다. 성신이 남녀 노소를, 목자와 양들을, 그리고 사람들과 신권 소유자들을 감사와 용서와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게 합시다. 그리하여 이스라

엘이 주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느끼며,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모두 나아올 수 있게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신의 기분좋은 속삭임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하늘의 보물, 천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종종 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이 선포되었으며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3:244)

학습을 위한 제언

-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가 “살아 있는, 생기가 넘치는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 직접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 우리가 현재 표준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경전이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뜻인가? 어떻게 우리는 마음으로 택하신 신권 경로를 통해 보다 많은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는가?
- 노아나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시대에 계시가 계속됨은 왜 중요한 것이었는가?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를 갖게 됨으로써 얻는 축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 계신 예언자는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 왜 교회를 위한 계시는 택하신 신권 경로를 통해서만 와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받았을”지라도, 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권능을 부여해 주지는 못하는가? (교리와 성약 42:11 참조)
- 때때로 교회 회원들은 어떠한 면에서 신권의 권능을 이해하는 데서 미혹되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 회원들은 이러한 면에서 미혹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전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목적과 진리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신의 영향은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는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교리와 성약 38:27 참조)



그림 : 주디스 며, 롯과 나오미.
롯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순결한 생활을 함으로써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우리 자신을 정복함

영원한 행복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나 세상적인 쾌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덕과 순결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오게 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1901년부터 1918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말일성도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세상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일에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부도덕을 목격했고, 신성 모독에 대해 들었으며, 유행하는 많은 세상적인 관습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적인 영향력에 맞서 자제력을 행사하고 도덕적이고 덕스러우며 순결한 생활을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락과 사교적인 여흥 및 신성 모독의 악, 도박, 험담 및 부도덕한 행위를 삼가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그의 말씀의 전반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1916년 9월에 대관장단은 교회의 보조 조직에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킬 필요성이 긴급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장 문제와 그들의 사교적인 관습과 관례에 관한 것입니다.” 대관장단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교회의 보조 조직에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의 메시지*, 6권. [1965~1975년], 5:37)

이러한 조직에 지침을 주는 동시에,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가정의 영향은 … 그 무엇보다도 도덕적, 사회적 또한 복장에 대한 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의 보조 기관에 불과한 그러한 조직들이 행하고 있는 사업을 각 가정에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5:40)

“우리는 우리의 첫째 가는 적을 우리 자신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적을 이기고, 우리 스스로 아버지의 뜻에 따르며, 그가 인간이 구원을 위해 세상에 주신 생명과 구원의 원리에 엄격하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복음 교리, 5판[1939년], 227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 자신을 억제함으로써 구세주를 따름

저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모범은 바로 우리가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모범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분의 예지를 [잘못] 사용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병어리가 말하게 하시고, 귀먹은 자가 듣게 하시며,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고통을 덜어주시는 등 선을 행하셨습니까? 그러한 것이 그가 세상에 보이셨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따르도록 명한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고 고귀한 그와 같은 과정에는 분명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과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쾌락은 단지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입니다. (테저렛 이브닝 뉴스, 1884년 3월 8일, 1쪽)

인간은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 전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억제하지 못할 욕망이나 걱정보다 더 무자비하고 두려운 독재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탐욕스러운 육체적 욕망에 저서 그에 따르게 되면 그 개인이나 사회에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상처와 슬픔을 가져다 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결과나 모범을 보이는 데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또한 경솔한 사람에게 위협하고 해롭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부인하는 것, ... [그리고] 고상한 것을 구하는 열망은 모두 이 생과 내세를 위한 행복인 영원한 행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복음 교리, 221쪽)

나는 외적인 적보다 내적인 적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밖에서 만날 수 있는 명백한 적은 우리의 내부에 숨어 있는 거짓되고 믿지 못할 적보다는 훨씬 무섭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적이란 타락된 인간

성의 약점 중 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며 우리의 사랑을 주님과 그 진리로부터 멀리 해서, 결국은 이 세상이나 다음에 올 세상에서 구제받을 희망이나 가능성조차 갖지 못하게 우리 신앙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싸워 이겨야 할 적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이며 정복하기에 가장 힘든 적입니다. 이것은 무지의 결과이며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난받지 않은 죄나 악의 결과로써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일은 우리의 정욕을 억누르며 우리 내부의 적을 정복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나무라실 때가 없도록 하는 것과 주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우리를 의무의 길로부터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308쪽)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과 육욕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욕적인 욕망,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 매우 해로운 정욕, 부패한 생활, 방탕, 환락 및 모든 종류의 사악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속된 정욕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것이며, 그리하여 결국 스스로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영을 지니고 있다면, 그들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빛과 진리의 복음의 영향력을 온 세상에 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순결함과 미덕과 정직과 진지함과 의를 사랑할 것입니다. (데저렛 이브닝 뉴스, 1884년 3월 8일, 1쪽)

오락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일상에서 변화를 주기 위한 것임

여러분이 어떠한 오락을 가장 잘 즐기며, 그러한 오락이 생활을 지배하게 될 만큼 좋아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복음 교리, 298쪽)

건전한 사회 환경이 우리의 오락을 특징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락 장소

에서 우리가 사귄 사람들의 성격에 적절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와 친구와 교회에 대한 높은 책임감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오락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락 그 자체로는 또 훌륭한 사고 상황에서는 합당하고 건전한 오락도 오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사람들이고 오락 장소가 훌륭한 곳이고 적절한 자제 아래 실시되는 조건이 아니라면 그 오락을 피해야 합니다.

오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하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락의 성격을 경계해야 하며 도를 지나치지 않도록 회수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되며, 많은 시간을 소요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본분과 임무의 부차적인 것이어야 하며, 우리의 희망과 야망을 지배하는 동기나 요인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복음 교리, 289쪽)

지나친 것은 모두 해롭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락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계속 또는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오락에 탐닉하게 된다면, 인간 존재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하게 되고 자신의 의무를 싫어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3:123)

참된 삶으로, 지나침을 피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함

불경스러운 언행과 야비한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대한 죄입니다.

우리는 불경스러운 언행과 야비한 말,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있는 그러한 유형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는 조화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리, 216쪽)

언어도 생각과 마찬가지로 적절치 않은 소리를 할 수 없이 듣게 된 사람에게 직접 해를 주지는 않더라도, 불유쾌한 인상을 남기고 기억나게 합니다. 그 자체로는 적당하지 못한 생각도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에 따라 고상하게 되거나 천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아하지 않은 표현을 피한다면 불경스러운 언행

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교리, 237쪽)

천박하고 불경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몇몇 젊은이들이 빠져 있는 습관은 예절바른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말일성도 자녀들 사이에서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3:112~113)

저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어머니되시는 분, 그리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태어난 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는 제 말씀이 전파될 전세계의 모든 남성들에게 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불경스러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주님을 화나게 하거나 훌륭한 남성과 여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순결에 관한 말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3년 5월, 504쪽)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차지하려 하는 것은 사악한 것임

현대의 사회 악 중에서 도박은 널리 지탄을 받는 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위장을 하여 가정에서나 클럽에서나 자선을 위한 오락회에서, 심지어 교회 건물에서까지도 이것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귀중한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은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한 욕망을 조장시켜 주는 모든 행동은 도박 근성을 갖게 하는 데 효과적이며 그러한 근성은 수많은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진짜 악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1달러를 따겠다고 10센트를 거는 행위는 도박의 전형입니다. (복음 교리, 295쪽)

힘담은 복음의 영에 위배되는 것임

최근에 저는 제 의견을 묻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힘담의 정의를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 관하여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는 한 어떻게 말하든 힘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의 잘못을 말하기보다는 그에게 은밀히 가서 함께 괴로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진실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 해도, 그 사람에게 관한 것을 사

실대로만 말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영과 복음의 본질에서 더 동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을 떨어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판단하기에 어떤 결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충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은 회개의 영으로 가득 차 늘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뜻을 내포한 말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험담인지 아닌지는 대개 말 그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결점을 말하려는 생각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하는 데 험담의 영이 있는지 곧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험담의 문체는 “글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나니”(고린도후서 3:6 참조)라는 격언으로 결정됩니다. (복음 교리, 235~236쪽, 단락이 첨가됨)

부도덕은 모든 사람들이 불찬성한다는 뜻을 표해야 함

복장에 있어서의 천박함은 부모와 모든 지체있는 사람들이 불찬성한다는 뜻을 표해야 합니다. 현대의 복장 스타일에는, 오히려 약식 복식이라 할 스타일에는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고의적인 신체의 노출 행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방종과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끄는 감각적이고 품위를 저하시키는 풍조의 징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복천년의 찬란한 전망이 이러한 도덕적으로 방탕한 시대의 관습과 복장과 오락 등에 의해 위협받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게 합시다. (대관장단 메시지, 4:281)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유행은 도가 지나칠 뿐 아니라 악을 생각나게 하고 있으며,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나 그것을 허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비열한 욕망을 야기하고 음탕한 마음을 갖도록 계획된 것 같습니다. ...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나는 시온의 딸들은 이러한 파괴적인 방법이나 습관이나 유행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데,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비도덕적이며 저

주받을 만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리, 301쪽)

우리는 종종 … 가먼트를 성스럽고 순결하게 보존하지 않고 일부를 끊어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들은 몇몇 자매들이 성스러운 인간의 육체를 치욕스럽게 하는 최신 유행의 괴상한 복장들을 하고 성전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복음 교리, 302쪽)

성도들에게 건전한 춤은 허용됨

우리는 특정한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조건으로 말일성도에게 허용된 오락, 즉 무도회(댄싱 파티)와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시의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는 무도회장(댄싱 홀)이나 그 주변에서는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바깥 끌여안는 것과 욕정을 유발하는 동작 등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춤은 … 완전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4:280~281)

책은 좋은 동반자도 될 수 있고 나쁜 동반자도 될 수 있음

책이란 책을 읽는 모든 사람과 일종의 동반자 관계를 갖게 해주며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 줍니다. 흔히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귀고 노는 친구들에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그들이 읽는 책에는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결국 좋지 못한 책을 읽는 것은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야릇하며, 기괴한 흥미 본위의 소설을 읽는 소년은 스스로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소설 류는 좋지 못한 습관을 갖게 하는 모든 악의 원인이 되어 악한 열매를 맺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함을 없애고 악한 마음을 키워 주는 비정상적이며 불순한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이상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책을 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저질렀음을 발견하게 된다 해도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과 유혹과 싸워야 하는 곳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므로, 그러한 감정과 사고를 순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부모들이 특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인도에 와 있던 한 영국 관리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영국 관리는 책을 꺼내기 위해 책꽂이로 갔습니다. 그의 손이 책 위에 닿는 순간 독사가 그의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손가락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독기는 점점 번져 그의 팔에까지 미쳤으며, 마침내 전신이 부어 올라 며칠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가치가 없고 쓰레기 같은 책에는 항상 독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해로우며 언젠가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성도로 하여금 가정으로 들어오는 모든 책에 주의하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책의 영향력은 인도에서 독사에게 물려받은 영국 관리의 경우처럼 해로우며, 결국에는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리, 293~294쪽)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만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폭넓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지니게 합니다. 회복된 복음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자유, 복음으로 옳은 것을 확신하고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유를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헤쳐 나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교리, 189쪽)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 미덕, 순결한 생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을 바라는 모든 운동을 지지합니다.

…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합당한 모범을 보이지 않아도 됩니까? 깨끗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르고, 덕스러우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 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모범을 보이지 않아도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고, 대장부 같으며, 복음의 모든 원리에 진실하고, 세상과 가정에서 훌륭하게 되지 않아야 합니까? … 우리는 참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4:185~186)

학습을 위한 제언

- 구세주는 어떠한 방법으로 모범과 자제심을 보이셨는가? “우리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적”(모사이야서 3:19 참조)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적을 이기고 구세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가?
- 오락은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서 “지배하는 열정”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오락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는가? 우리의 생활에서 오락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 왜 “천박하고 불경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주위에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에게 알릴 수 있는가?
- 왜 험담은 복음의 영에 위배되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말하는 것 대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인가?
- 수수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오늘날 유행되는 것 중에는 어떻게 “악을 생각나게”하며, 또한 “음탕한 마음”을 갖게 하는가?
- 책에 관한 스미스 대관장의 권고의 말씀은 비디오 테이프, 음악, 텔레비전, 영화, 잡지 및 인터넷과 같은 오늘날의 오락에 어떻게 적용되는가?(교리와 성약 88:118 참조)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용기가 필요한가?
-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니파이삼서 27:27 참조)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조셉 에프 스미스의 아버지인 하이람 스미스는 조셉이 다섯 살이었을 때 순교했지만, 아들인 조셉에게 영원히 지속될 감화를 남겨 주었다.



가정의 가장

모든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의 거룩한 직분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그의 생애 동안, 조셉 에프 스미스는 그의 순교한 아버지 하이람 스미스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1918년 6월 27일, 스미스 대관장은 자신의 부친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진 솔트레이크시티 묘지에서 모임을 감리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지금 생존해 있는 자녀가 35명이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들은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합당한 회원입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업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86명 이상의 손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과 손자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손자녀들을 하나하나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손자녀들도 만날 때마다 입맞춤을 해준답니다.” (‘하이람 스미스의 업적’ 중에서,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8년 860~861쪽)

1970년부터 1972년까지 교회의 대관장으로 봉사했던 그의 아들인 조셉 필딩 스미스는 후에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 고결함과 순수함에 있어서 한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과 타락한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하고 적의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생활의 진실한 상태와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

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 얼마나 그분은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께 진실하고, 벗들에게 진실하며, 서로에게 진실하고, 당신에게 진실하도록 기도해 왔는지요... 그들 모두가 그에게 진실하고 그가 그의 지상 생활 동안 그렇게 충실하게 대표했던, 그리고 그의 전생애 동안 가장 사랑했던 그 근거가 된 가정에 진실해지도록 합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편집. 조셉 필딩 스미스[1938년], 4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가정을 대신할 것은 없음

가정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가정의 기원은 이 세상사의 기원처럼 오래 되었으며 그 사명은 태초로부터 주님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거주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국가는 물론 개인에게도 안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조직인 것입니다.

가정을 떠나 참다운 행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가정의 영향력을 신성하게 하고, 보존하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해 온 사람들에게는 고무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종종 가정 생활을 다른 생활로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정이란 제약을 의미하며 최상의 자유란 가정을 떠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라고 스스로 믿으려 합니다. 봉사하지 않고서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으며, 가정을 성스러운 곳으로 전환시켜 가족 생활을 증진하고 보존하려는 것보다 큰 봉사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책임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 복지를 위한 한 가지 요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향락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사실 향락이란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 실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직장 때문에 가정을 떠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경우가 있지만,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이 현신할 수 있는 영감이 됩니다. (복음 교리, 5판. [1939년], 270쪽)

이상적인 가정에서는 영혼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교양없는 관능적인 쾌락으로 인해 세련된 감정의 성장과 확장이 마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한

목표는 진리와 이상과 영적인 생활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는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인 부와 사랑과 유용성에서 파생되는 고귀한 성취 의식을 창조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값비싼 그림이나 태피스티리(색실로 짠 주단, 벽걸이용 양탄자)나 희귀한 골동품이나 여러 가지 장식품이나 가구나 농장이나 가축들이나 집이나 토지 등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향락이나 안일 등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아름다움, 즉 교양있고, 사랑스러우며, 성실하고, 참된 영들이며 도움을 주는 손이며, 연민의 마음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삶의 작은 문제에까지 신경을 써주는 생각과 행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상적인 가정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교리, 273쪽)

가정에서 관리하는 권능은 가장에게 부여됨

가족 조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 조직이 대신권 소유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경우, 아버지의 권능보다 더 높은 권능은 없습니다. 이 권능은 오래된 것으로, 모든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아 왔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의 가르침에 의해 강조되어 온 것입니다. 족장의 반차는 거룩한 기원에 속한 것으로 현세는 물론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있어서 이러한 반차와 권능을 이해하여 이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자녀들을 가장 높은 승영을 위한 준비와 자질을 갖추게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권능은 권리와 특권은 물론 책임, 실로 엄숙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일상 생활에서 아무리 노력하여도 지나치게 모범적이 될 수 없으며 가족이라는 조직에 있어서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중요한 행동 규칙에 일치하게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권능에는 어떤 축복과 약속이 주어져 있으며, 이 권능을 준수하고 존중하고 이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와 권능을 위하여 세워 주신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할 권리를 갖

게 됩니다. (복음 교리, 257~258쪽)

나는 교회 역원들에게 청소년을 신권 정원회에 부르는 일이나 교회에 속하는 모든 일에 있어 가장과 의논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공경심을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방해하거나 역원에 의해 짓밟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조화를 이루고 선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모든 조치에 단결과 힘과 권능을 확보하면서 성신권의 부름에 교회가 기초를 두고 영속하는 가족과 가정 생활에 대한 지지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교리, 147쪽)

아버지되시는 분들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행하십시오

만약 [아버지들이] 그들의 현세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을 지니고 있다면, 그들은 결코 자녀들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가족들에게 인생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합당한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해야 할 것은 어떠한 일도 하지 마십시오. “아들아,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나를 따르거라. 나의 모범을 따르거라.”라고 말할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어떠한 교회 회원이라도 옳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일과 자녀들이 따르지 않기를 바라는 일을 추구하는 것은 부끄럽고 나약한 일입니다. 그릇된 욕망과 친한 열정에 굴복함으로써, 또한 자신이 하지 않아야 할 일과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지 말도록 금지해야 할 일을 행함으로써,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그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의 완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그 스스로 자신을 금지시키고 장애물을 둔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15년 4월, 7쪽)

형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종교적인 헌신과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나친 속물 근성, 이기주의, 무관심, 가정에서의 경건성 결여 등이 지금처럼 만연되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루 두 번씩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내를 불러 모아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마다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직장에 나가기 전에 성경과 물몬경, 교리와 성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정도씩 읽도록 하십시오. 가정에서나 공적인 곳에서도 자신을 영적으로 살찌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 화평, 주님의 영, 친절, 자선, 희생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거친 말, 질투, 증오심, 욕설, 외설적인 말과 비방 등을 삼가하시고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과 권능으로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실천으로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고 열성적임을 보여 주어야 하며 여러분이 가르친 바를 몸소 실천하는 것을 그들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 교리, 271쪽)

아버지와 어머니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교훈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죄 없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사랑하고 덕을 사랑하도록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으며, 술취하지 않고, 흡연하지 않으며, 독한 음료와 마약과 모든 형태의 악을 피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들을 가르쳐 마음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의 삶과 습관에서 순수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여러분의 의무이자 저의 의무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모든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대회 보고, 1911년 10월, 132쪽)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바르게 생활하고, 부인을 대우하여 아끼고 가능한 한 가정을 편안하게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동반자의 짐을 덜어 주고, 자녀 앞에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아침 저녁 그리고 식탁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도록 가르치며, 그들이 취할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교리, 259쪽)

가족 관계는 영원을 위한 것임

하나님은 인류의 머리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상에 존재하게 하신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명예롭게 하는 일 이상으로 그를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복음 교리, 147쪽)

가족은 모든 참된 정부의 기초입니다. 가정의 관리를 최대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어떠한 경우에서나 그것을 존중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음 교리, 147쪽)

우리가 현세와 영원을 구별하지만 가족이란 조직은 전적으로, 이 세상 현세만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세와 영원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세와 영원토록 가족 조직을 형성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는 현세, 즉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우리의 애정과 소망을 그에 맞추고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일성도를 제외하고는 누가 가족 관계가 무덤을 넘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은 서로 도움을 주며 서로의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서 서로를 알아 볼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이 가족이란 조직은 하나님의 사업의 위대하고 완전한 조직에서 한 단위가 된다는 것과 모든 것은 현세와 영원토록 지속될 운명이란 것을 누가 압니까? (복음 교리, 249쪽)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영화로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과업에 순종하는 가운데 저는 저의 가족과 자녀와 자녀의 자손을 제 곁에 모아, 그 수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즉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권리이며 특권이고, 또한 신권을 소유하고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충실히 수행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의 권리요 특권인 것입니다. (복음 교리, 101쪽)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공동 운명으로 성임하여 주신 일을 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대함이라 하겠습니까.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성공하는 것이 장군이나 정치가로서의 성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복음 교리, 256쪽)

학습을 위한 제언

- 가정에서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것으로 뻗어 나가는 데 가족을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는가? 아버지들은 그의 가족 내에서 어떻게 “정신적인 부”의 의식을 형성해 갈 수 있는가?
- “이상적인 가정의 근본이 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요소들이 개발 되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왜 아버지의 책임인가?
- 어떻게 아내와 자녀들은 가정의 가장을 지지할 수 있는가? 남편과 아버지가 그들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주님은 독신 여성을 위한 신권 축복을 주도록 어떤 방법을 마련하는가?
- 신권 지도자들이 아버지들의 의견을 듣고 존중할 때 어떻게 그들은 강화되고 가족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가?
-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세상적인 것에 대항하고 종교적인 헌신에 대해 가르쳐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우리의 가족 관계가 영원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아버지들은 영원한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림 : 해리 앤더슨, 재림.
말일성도들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위대한 영광을 지니고
다시 지상에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함

우리는 문자 그대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
 그는 하늘로 오르신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땅을 통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구세주의 재림의 현실성에 대해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성도들이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며, 또한 그들이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는 교회는 “구세주의 재림에 대해 특별한 예고자”(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의 메시지*, 6권. [1965~1975년], 4:154)로서, 구세주의 복천년 통치를 위해서 지상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가르쳤다. 구세주의 재림은 “멀지 않았다”라며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표적들이 지금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를 비롯한 대관장단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스러운 그 분결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하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천사들이 죄로부터 이 지상을 깨끗이 하고 추수를 기다리고 있을 동안, 주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려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3:287)

희망과 기쁨의 영으로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오해와 다툼의 시기 동안에 기독교인들을 온통 뒤덮고 있는 오류의 구름이 깨끗이 걷혀지고, 과거의 모든 영감받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위대한 복천년이 빠르게 다가오는 광경이 넓은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천년 그 날의 새벽이 밝아올 때에 그 찬란함과 영광, 그리고 그 빛이 온 세상에 펼쳐지

는 것에 대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4:294)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적에 대하여 예언해 왔음.

만약 사람들이 ... 열국 위에 곧 닥쳐올 심판에 관한 예언자들의 예언, 특히 모로나이 천사가 언급한 부분, 즉 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이야기한 것에 대해 읽게 된다면, 저는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확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최소한의 신앙만 있어도, 이 임박한 심판은 단순히 공리 공론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도 아니며, 그것은 실재의 문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악한 자들과 죄많은 자들에 대한 계획이 완성되면 곧 닥치게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언자들과 영감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공포되어진 것이 아니고, 고대뿐 아니라 현대에도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사자의 음성으로도 공포되어온 것입니다.

1823년 9월 21일에 요셉 스미스를 방문했던 모로나이 천사는 심판에 관한 경전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이 경륜의 시대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의 기초는 이제 문턱에 이를 정도로 가까워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인용한 말씀 중에서도 특히 말라기 3장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 3:1~3, 5)

그런 다음 다시, 모로나이는 말라기서 4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같은 것이라 그 이른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말라기 4:1) 다시 모로나이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말씀이 실린 이사야서 11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이사야 11:4)

다시, 모로나이는 신약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이것은 강력한 말씀이며, 또한 요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로나이는 그 선지자가 바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경전의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디만, 문자 그대로 인자가 이 지상을 통치하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이 머지 않아 성취될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또한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요셉 스미스 2서 36~41 참조)

저는 우리가 이 예언들의 입증을 위하여 조상들의 전통이나, 오직 문자로만 쓰여진 말씀이나, 확실치 못한 방법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때문에,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나 중요성도 상실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온 사자인 하늘의 천사가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예언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관심이 일깨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천사에 의해 인용된 이러한 경전 구절들 중에서 어떤 것은 고대 사도들의 시대에 성취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들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주제에 관한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알기 쉽게 되었습니다. 모로

나이가 요셉 스미스에게 이 경전의 말씀들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다고 선포했지만, 그 말씀들이 모두 성취될 정해진 때가 오면 경전에 언급된 모든 세세한 부분과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집행, 마지막 평화의 통치를 맞이함 등이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사악한 나라들의 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지상에 세워진 왕국과 권좌는 비틀거리며 멸망될 것이지만, 시온은 일어나 그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 옷, 즉 지상에 대한 권세와 지혜와 존엄과 통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빌론은 멸망할 것이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대회 보고, 1880년 4월, 95~96쪽)

의로운 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표적을 마음에 두고 스스로 준비할 것임

이미 발생한 많은 화산 폭발, 지진, 그리고 해일 등이 바로 ... 주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될 것이라고 하신 표적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밤에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트는 나무들이 여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그분의 재림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 주는 확실한 표적들을 주셨습니다. 현명하고 분별있는 사람들은 그 경고를 마음에 새겨 두고, 불시에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준비할 것입니다. 모든 열국에 대한 증인으로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적지 않은 시대의 표적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4:132)

말일성도는 ...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표적으로 재앙이 열방에 임하게 되리라는 경전의 기록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과 지진과 풍랑과 화산과 폭풍우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연의 통치자요 주인이시며, 자연의 율법의 주인으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매사에 있어서 그분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간에게 그분의 능력과 목적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의로써 통치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시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재앙이 면하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혹심한 환난과 전염병

과 재앙과 검과 보복과 맹렬한 불길의 시온에”(교리와 성약 97:26) 보내질 것이란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시온의 백성이 진리의 빛과 구원의 하나님의 길 안에서 행하도록 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혹한 천재 지변을 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려 주셔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을 일깨워 주고, 그들의 보다 나은 성품을 계발시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러한 것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을 알려 주는 표적이며, 사람들에게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여 구세주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구세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몽학 선생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마음에 새길 때, 그들이 참고 견디었던 크고 두려운 고통, 생명의 상실, 고난, 슬픔 등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교리, 5판. [1939년], 51쪽)

저는 … 말일성도들이 자신의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들의 형제들과 맺은 성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들이 지닌 신권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로 떨어지는 첫번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침례로써 주님과 성약을 맺었으나 그 성약을 범한 자들,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성도가 아니고 오히려 죄인인 사람들, 그리고 성약을 깨뜨린 사람들, 그리고 바빌론의 죄악에 참여한 자들은 분명 “자신의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들은 피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4, 교리와 성약 63:34 참조) 이것이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한 제 간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인간의 말씀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시대의 세상에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심판을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과 재림

을 위해 준비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악한 사람들 위에 퍼부어지는 재앙을 피하게 되고, 충실한 종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기도하며, 합당한 자로 헤아림을 받아 영광스러운 왕국에 계시는 주님의 면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회 보고, 1880년 4월, 96쪽)

우리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격동의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공포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신에게 머물지 않도록 생활할 것을 제의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자신을 인도하기 위하여 계시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생활을 하도록 제의합니다.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형제들과 함께 우정을 나누기에 합당하고, 세상 앞에 흠없이 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와 같은 이해의 마음과 태도를 지니고 있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닥치지 않을 문제에 대해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모든 만물 위에 있으므로, 저는 그 곳에서 주님의 손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거나 국가가 국가를 파괴하려고 한다거나 사람들이 자기 동료 인간들의 자유를 말살시키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미흡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뒤따를 결과를 통제하실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궁극적인 선을 위하여 그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복음 교리, 82쪽)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

복음에 순종할 때 세상이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전쟁과 분쟁과 소송을 없앨 것이며, 복천년의 통치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당한 소유자에게 지구의 소유권이 돌아갈 것이며, 의로운 사람들의 상속을 위해 지상이 준비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들이며, 인간이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나오게 될 결과입니다. (데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78년 2월 19일.)

복음은 구원이며, 구원이 없다면 소유할 가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벌거숭이로 왔고, 그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의 절반을 모은다 해도 이 현세의 생활을 연장시키는 일이나 내세의 영생을 얻는 일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여금,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며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도록 가르치며, 그 원리를 행하는 만큼 화평과 의로움이 지상에 널리 퍼질 것이며, 죄와 분쟁, 유혈 및 온갖 종류의 부패가 그치고 땅이 정화되어 하늘에 사는 무리들이 거주하기에 알맞은 곳으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복음 교리, 77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문자 그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상을 통치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 사명의 일부라고 여깁니다. 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성도들은 이 지상의 여러 나라에 참으로 오랫동안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영원한 상속의 땅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땅에 집합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참여할 것입니다. 그들은 현세와 영원토록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까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상기된 이사야는 그들과 그들의 노력을 보고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이사야 2:2) 그것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말일에 성취될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예레미야 3:14~15) ("물문이즘' 에 입각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 밀레니얼 스타,

1902년 6월 19일, 385~386쪽)

주님께서는 … 그분의 백성들이 깨닫게 될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 시각부터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이기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이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한 모든 원수들이 정복될 때까지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적들을 폭력이나 분쟁의 정신이나 전쟁에 의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권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로써 정복하게 됩니다. … 의로운 자의 하나님의 고결한 성약의 백성들의 권세는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또한 이 지상에 권세와 영광으로써 오실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확대되고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03:5~8 참조) (대회 보고, 1902년 4월, 2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파당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분리된 교파가 아닙니다. 오직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신성한 권능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간단하고 정직하게 선언합니다. 반대하면서도 그 반대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며 지상의 나라를 다스리고 전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릴 권세를 지닌 분이 와서 통치하며,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를 맞게 될 때까지 계속 진리일 것입니다. (복음 교리, 126쪽)

학습을 위한 제언

- “고대뿐 아니라 현대에도”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구세주의 재림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 왜 우리에게 재림의 표적들이 주어졌는가? 누가 이러한 것들을 구세주의 재림에 관한 표적으로서 알아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표적들에 관한 정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어떠한 면에서 자연 재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 가? 그러한 재해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우리는 “사악한 사람들 위에 퍼부어질 재난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사람들이 복음의 원리에 순종한다면, 어떤 축복이 세상에 오게 되는가?
 -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악의 결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압”하시는가?
 - 성도들은 마침내 그들의 모든 적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
 - 왜 재림은 “위대하면서” 또한 “두려운” 날이 되는가? (교리와 성약 110:16)
 - 구세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을 돕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림 : 아놀드 프라이버그, 이천 명의 젊은 용사.
힐라맨은 전쟁터에서 자신이 이끌었던 젊은이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목숨보다는 부모들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참으로 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운 자였더라.”(엘머서 56:47)

복음은 고난의 시기의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의 시기의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준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별세하기 수 년 전, 세계 제1차 대전과 관련된 슬픈 소식에 비통해 했다. 교회의 많은 회원들은 서로 반대편에서 서로 참전하게 되었으며, 수백 명의 회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스미스 대관장의 몇몇 아들도 군에서 복무하였으며, 한 아들은 전투에서 두 번이나 부상을 당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대관장단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해 보지만, 우리의 기쁨은 유럽 하늘에 드리운 어두운 전운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에 가득 찬 노래와 경하의 마음 그리고 선한 소망들이 멀리서 울려 퍼지지만 마치 바다 저편에서 소리지르며 밀려오는 무서운 조수처럼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포성과 부상자와 죽어 가는 사람들의 신음 소리에 슬프게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서로가 자신들의 피흘리는 전쟁을 위해 사랑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서로가 평강의 왕의 친구임을 주장하며, 국가는 국가를 대적하고, 형제는 형제를 대적하며,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시기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불멸의 노래를 불렀던 그 천사의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광경은 얼마나 참혹한 광경입니까!”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 메시지*, 6권. [1965~1975년], 4:319)

스미스 대관장은 결국 그의 생전에 생명과 재산의 파멸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개심에 중지부를 찍는 정전 협정 조인에 대한 뉴스를 들었다. 그 정전 협정은 그가 별세하기 불과 8일 전인 1918년 11월 11일에 조인되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만 오게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 후에 교회의 대관장이 된 조셉 필딩 스미스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친절하셨습니다. 그 분보다 더 동정심이 많은 분이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받고, 나약한 사람의 짐을 기꺼이 나누려 하며, 역경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고난을 이겨내신 분을 모든 이스라엘인 중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었으며,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938년], 421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

세상에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배자나 국민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택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말일성도에 의해서 모든 국가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구원의 메시지가 성실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찾아들 날이 멀지 않았으며, 때가 오면 그들은 거짓 기독교뿐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자나 전쟁을 인류의 적으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평화란 오로지 전쟁 준비를 함으로써 올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쟁은 사람들은 의로움과 정의감을 갖도록 훈련하며, 국민의 올바른 의사를 존중하는 지도자를 선택함으로써 오로지 평화를 위한 준비를 통해서만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교리, 5판. [1939년], 382쪽)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사람 가운데 사랑과 선한 마음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주님의 진리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성스러운 그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할 때까지는 이 지상에 마땅히 있어야

할 평화와 사랑의 정신이 임하지 않으며 인간의 지혜만으로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복음 교리, 379쪽)

주님은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인류의 구세주의 교리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와 사랑, 즉 거짓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7~40) 만약 이 지상의 여러 핵심 국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인 이 사랑의 정신이 존재했다면, 만약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마음속 깊이 그 영광스러운 훈계를 받아들였다면, 그와 같은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결코 피흘림이 없었을 것이며, 오늘날 이 지상에 만연한 황폐함과 파괴와 악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아 아무도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사악한 행동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18년 4월, 170쪽)

지구상의 국가들간에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은 하나밖에 없으니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것도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증오를 피하고 사랑을 베풀며, 잘못으로 이끌지 않고 진리로 이끌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고 그의 율법을 따르며,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율법을 중하게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는 주님의 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쟁이 임박해 있고 지상의 국가 간에 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전쟁을 원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중 일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운명을 정하셨거나 계획하신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

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인간이나 지상의 국가 때문에 야기될지 모르는 결과를 주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의 행동 결과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이 행동한 결과대로 거두어들이기 때문입니다.

...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칙입니다. 어떠한 백성들이나 국가에게 전쟁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마지막 한방울의 피까지 다해서 자기의 목숨과 자유와 가정을 수호하는 것은 옳고 정당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유를 수호하는 모든 백성과 전쟁의 참화로부터 처와 자식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방어해야 할 상황에 놓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복음 교리, 379쪽)

군에 입대할 때, 스스로 순결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함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 전투에 임하게 되더라도 무엇보다도 인간애, 사랑, 평화의 정신을 늘 간직하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보존하도록 권고 받아온 그 원리들을 파괴하거나 짓밟거나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적에 대항하여 전투에 임하게 되더라도 모든 인류에게 평화와 선의를 전해야 합니다. 저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될 말일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될 때, 그들은 또한 십자군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위한 성직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적을 멸하려는 목적보다는 인류의 자유를 지키려는 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5:52)

우리의 젊은이들이 입대할 때 유혈과 간음과 사악한 영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세상을 재건하고 유일하게 하는 영, 곧 파괴와 유혈이 아닌 의로운 정신

인 하나님의 영을 갖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전쟁과 유혈의 참극을 피하고 마음속의 투쟁, 불안, 사악함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몰몬경에 나오는 젊은 청년들에 관[한]… 성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들의 생명과 아버지나 어머니의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에 부름 받았을 때 그들은 파괴를 목표로 하지 않고 방어를 목표로 하며,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인류의 평화를 애호하고 죄없는 사람들의 피흘림을 막기 위해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앨마서 56:45~48 참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입대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을까?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잊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성스러운 곳과 침례 물에서 맺은 성약을 잊지 않을까? 그들이 정직하고 고결하며 유덕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갈까? 하는 것들이 바로 제가 걱정하는 문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열에서 인류를 위해 자유의 원리와 건전한 정부를 수호하는 일을 돕고자 … 나아가는 장정들의 행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막사에서든 은밀한 장소에서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전장에 나아가서는 “아버지시여, 제 생명과 영이 당신의 손안에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전쟁터에 나가는 청년들이, 선교사 임명을 받고 출발하는 날 아침에 훌륭한 어머니와 서로 작별하면서 느끼는 마음가짐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그를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 만일 우리 아들들이 복음의 정신과 참된 말일성도의 행동을 실천하면서 세상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최선의 힘으로 이겨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느 사람 못지 않게 피로와 고통을 잘 견딜 것이며, 시험에 들더라도 무난히 이겨 낼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뵈기에 합당합니다. (복음 교리, 383~385쪽)

전쟁에 참가하고 전쟁을 위한 장비를 갖춘 주둔군에게는 전쟁 중에 영예롭게 죽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지 못한 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젊은이가 언제 징집당하는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보다 어떻게 가느냐가 그들의 부모와 복음 안에서 사귀 친구와 친지들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교회 회원으로서 그들의 전 생애동안 세속적인 죄로부터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의로운 원칙에 순종하도록, 정조란 주님께서 주신 최대의 은사 중의 하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생각과 행동이 깨끗한 상태에서 복음의 원칙과 우리 주이신 구세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깨끗하고 충실한 생활을 해야만 우리 구세주의 피흘리심을 통해 약속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교리, 386쪽)

우리는 모든 인류와 함께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함

우리는 말일성도들에게 자신의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도록 권하며, 침례 때 맺은 성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세상의 어리석음에 굴복당하지 않고, 성신의 인도를 구하여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권고드립니다.(대관장단 메시지, 4:211)

새해와 다가올 미래가 온 세상의 주민들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만국 형제애를 실현시키기 위해 하나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싸움, 증오, 이기심, 불륜은 개인의 생활에서 근절되어야 할 악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보잘 것 없거나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비극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미래의 공포는 비켜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세계에 있는 만민들이 형제로서 또한 벗으로서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생활과 고귀한 교제의 빛나는 모범은 20세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평화와 기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율법은 현명하게 행사된 공의와 지혜롭게 적용된 의로움에 기초를 둔 것이었습니다. 빛은 그분의 표준이었고 진리는 그분의 신조였습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5:1~2)

지금 국가간의 임박한 무서운 전쟁 가운데에서 매우 끔찍하게 보여 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잔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무시한 전쟁이란 구름을 꿰뚫고 우리의 왕이요 주님이신 분의 재림에서 영원한 평화의 약속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보게 됩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4:348)

… 저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으며, 구원의 권세와 평화의 권능과 선의, 사랑, 용서의 권능과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복음안에 있으며 그분께 순종함에 있다는 원리를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단호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평화가 오며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교리, 381쪽)

학습을 위한 제언

-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평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두 개의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가정 안팎에서 평화로 이끌어 주는가?
- 군입대하는 회원들이 어떻게 “죽음의 사신이 아닌 생명의 사신”이 될 수 있는가?
- 군에 입대하는 회원들이 어떻게 “복음의 정신과 참된 말일성도의 행동”을 군에 가지고 갈 수 있는가?
- 회원들이 군에 입대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신념이나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욱더] 평화롭게 살기 위해” 서로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 평화와 선으로 사는 데 있어서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은 무엇인가?

성전 봉사를 통하여 돌아가신 조상들을 구속함

우리는 성전 봉사를 통하여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시온산의 구원자가 된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가슴은 무너지며,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 나의 아들, 나의 기쁨, 나의 희망이여!… 오 하나님이지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조셉 스미스의 생애,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38년], 474쪽) 이렇게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그의 장남, 하이람 엠 스미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비탄에 젖었다. 당시 하이람은 45세였다. 6개월 후인 1918년 6월 27일, 스미스 대관장은 그의 아버지 하이람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진 솔트레이크시티 시립 묘지에서, 그의 선친과 숙부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순교 기념 모임을 감리하였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은 분명히 그의 영혼에 감동을 주었음에 틀림없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자신의 죽음을 몇 주 앞두고,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내 방에 앉아 경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한 것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무한한 속죄의 희생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베드로전서 3:18~20, 4:6 참조)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 내가 경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던지라, 나의 이해의 눈이 열렸으며, 나는 크고 작은 죽은 자의 무리를 보았습니다.”(교리와 성약 138:1~2, 5, 11 참조)

그런 다음 그는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보았다. 그것은 교리와 성

약 13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진리를 알려 주었으며, 동시에 그가 수 십년 동안 믿고 가르쳐 왔던 교리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구원하도록 예임되었음

[구세주는] 지상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졌을 뿐만 아니라,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 영옥의 문을 열고 그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예임되고 임명되었던 것입니다.(복음 교리, 5판. [1939년], 418~419쪽)

1918년 10월 3일, 저는 제 방에 앉아 경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한 것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무한하신 속죄와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의 구속주로 온 아들이 보여 주신 무한하고 크신 사랑이었으며,

… 속죄를 통해서 복음의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경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때(베드로 전서 3:18~20; 4:6 참조) 주님의 영이 내가 임하였던지라 나의 이해의 눈이 열렸으며, 나는 크고 작은 죽은 자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의로운 자의 영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간증에 충실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 나는 구원의 때를 기뻐하고 기다리며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어 충실하였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그리고 타락에서 구원 받고 회개의 조건하에서 개인의 죄로부터 풀려 나는 인간의 구속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아들인 십이사도 정원회의 하이람 엠 스미스 장로는
1918년 교리와 성약 제138편이 된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받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음.

제가 이상히 생각하고 있을 동안 눈이 열리고 이해력이 새로워져서 저는 주님께서 악한 영들과 진리를 거부하고 순종치 아니한 영들을 가르치려 그들에게 친히 가신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로운 영들 중에서 택하여 그의 군대를 조직하시고,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진실로 모든 인간의 영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위임하셨으며, 복음은 이렇게 죽은 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택함을 받은 사자들은 나아가 주님의 은혜의 날을 알리고 포로된 자들,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영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죽었거나 예언자들을 배척하며 범법하고 죽은 모든 자에게 전파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38:1~4, 11~12, 18~19, 29~32)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의 모든 사업을 다 완수하지 못했으며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까지도 그것을 다 완수하지 못하셨습니다. 비록 지상에 오셨던 당시의 목적은 다 완수하셨지만 그분의 모든 사업을 다 완수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일을 성취하시겠습니까? 멸망의 자식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우리 조상 아담의 모든 아들 딸을 구원할 때까지는 완수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입니다. (복음 교리, 401쪽)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함께 노력함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하고 우리에게 의존하는 모든 자를 구원한 이후에야 우리의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시온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없이는 죽은 자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또 그들을 대신하여 행해야 할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와 좋지 못한 환경 때문에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지상에

서 해야 할 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의식과 “옥”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심판을 받기에 필수적인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138:33~34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것이 말일성도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 이는 복천년의 통치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이 때에 세상이 창조된 이후 성스러운 예언자의 입으로 선포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며, 진리를 사랑하고 이러한 원리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교육시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죽은 후 그들이 그 일을 이어 받아 완성할 때까지 계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 교리, 401쪽)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는 또한 죽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없이 완전해질 수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 없이 죽은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의 고리로 융접되어 결합될 때까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결합되고 맺어져야 합니다. 그 때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설교”, *밀레니얼 스타*, 1906년 10월 4일, 628~629쪽)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이러한 진리는 이미 옥에 갇힌 영들, 즉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영의 세계로 가버린 자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이람 스미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브리감 영도, 예언자 요셉의 지도하에 이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모든 충실한 사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8:36~37, 51~54 참조) 그들은 이 지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받은 성신권을 가지고 그곳에 갑니다. 그들은 옥에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육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 옥에

간힌 영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옥문을 열어 주기 위하여 가셨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138:27~30 참조) 이들만이 이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이들도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세상을 떠난 장로들은 그들의 임무를 끝마친 것이 아니며 영의 세계에서 그 일을 계속합니다. (교리와 성약 138:57 참조)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그곳에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데, 이는 제가 이러한 모든 일이 좋은 결말을 맺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이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백성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나타내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리, 429쪽)

저는 온 마음을 다하여 구세주께서 선택하신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십이사도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다가 순교당한 그 당시부터 수세기에 걸쳐 영의 세계에 있는 속박당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감옥의 문을 여는 데 종사해 왔다는 사실을 항상 믿어 왔으며 지금도 강한 신념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8:38~50 참조) 저는 그들이 이보다 더 위대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일은 바로 세상을 구하고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암흑과 미신과 무지의 쇄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감옥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하나님의 것과 다음 세상에 있을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면전과 그의 왕국에서 수행될 그의 목적 사이에는 커다란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을 부여받은 자나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임명된 자들은 죽은 후에도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권으로 권리를 계속 행사할 것입니다. (복음 교리, 419쪽)

죽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 의식을 성전에서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시온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

여러분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시온산의 구원자가 될



1913년에 스미스 대관장은 캐나다 앨버타 주 카드스톤에서 성전 부지를 헌납하였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계곡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과 다른 땅에 세워지고 있는 성전은 성스러운 의식을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되고 건립되었습니다. (대회 보고, 1917년 4월, 6쪽)

우리의 죽은 사람들의 구속을 위한 이 위대한 사업은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결합시켜 주는 인봉의 권세입니다. … 모든 의식들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건물에서 수행되도록 계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항상 성전을 지으라는 그분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세상의 역사에서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욱 더 간결하게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대회 보고, 1913년 10월, 9~10쪽)

우리는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곳에 성전이 건립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임 중의 하나는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림으로써(말라기 4:5~6; 교경 2편

참조)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서 그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지고 대대로 내려오는 연결 고리에 알맞게 이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이러한 것이 말일에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임의 하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교리, 428쪽)

물론 영의 구원이란 영옥에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며, 산 자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일을 행한 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촉진되어 영의 세계에서 믿는 자가 모두 구원의 혜택을 얻게 되어야 합니다. 복천년의 위대한 사업은 죽은 자의 구원을 위한 성전 사업이 될 것이라고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업을 행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법을 통하여 계시의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세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서든 선한 자이건 악한 자이건 회개를 할 사람이건 하지 않을 사람이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만 구원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음 교리, 398쪽)

성도들의 성전 사업을 통해 위대한 활동이 분명해 졌습니다. 죽은 자의 구속에 대한 사업의 영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신성한 사랑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선조에 관하여 말한 것 같이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연고”(교리와 성약 128:15 참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죽은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일하도록 명하셨습니다....

... 죽은 자들의 구속을 위해 일하도록 성도들을 움직이는 영은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도 심습니다. 이 영은 계보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데 자신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 성도들은 가능한 한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을 얻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통해 그들이 구속을 얻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이 가장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을 칭찬하

여 마지 않습니다. (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 관장단 메시지*, 6권. [1965~1975년], 4:193~194)

우리는 이 세상에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나무 가지를 갖고 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주님의 말씀과 진리, 곧 죽은 자의 구속과 산 자의 구원을 위하여 말일에 계시된 진리를 선물합니다. (*복음 교리*, 67쪽)

학습을 위한 제언

- 구세주의 “사업”과 “사명”은 무엇인가? 영의 세계에서 구세주께서 이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 영의 세계에서는 선교 사업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누가 선교사들인가?(교리와 성약 138:29~34, 57~59 참조)
- “암흑과 미신과 무지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감옥의 문”을 열어 주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조상에 관한 기록을 찾고 그들이 성전 의식을 받도록 노력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 우리는 어떻게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왜 이 사업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임 중의 하나”인가?
- 성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을 행했거나 그러한 사업이 행해질 수 있도록 성명을 제출했을 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 무엇이 “복천년에 실시할 위대한 사업”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이러한 계획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결성 : 온마음을 다해 우리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함

매일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고 시련을 견뎌므로써
자신의 고결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1918년 11월 10일 대관장으로 지지받았던 17번째 기념일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그의 가족을 불러 모아 그의 인생과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하여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였다.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무엇보다도 지상에서 내가 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말과 나의 약속과 나의 성실을 지키는 것이며, 나의 의무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편. 조셉 필딩 스미스 편저 [1938년], 477쪽)

이것이 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권고의 말씀이었다. 9일 후, 1918년 11월 19일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세상을 떠났다. 유행성 독감이 만연해 공식적인 장례식이 금지되었다. 이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모든 대중 모임, 오락 및 공식적인 모임들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 극장들과 많은 지역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다. 솔트레이크시티 묘지로 향하는 장례 행렬이 사우스 템플 거리에 들어섰을 때, 솔트레이크시티의 많은 시민들, 교회 회원들과 비회원들이 조셉 에프 스미스를 기리기 위해 거리를 가득 메웠다. 그 행렬이 천주교 매텔레인 대성당을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존귀한 지도자를 기리기 위해 대성당 탑에서도 종이 울렸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의를 사랑했다. 그는 진리의 옹호자였다. 그는 그가 가르쳤던 원리 대로 충실히 살았으며, 그와 같은 성실함으로 인해 존경받았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행함으로써 우리의 고결성을 나타내 보임

우리가 따르기로 선택한 종교는 일요일 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말만의 종교도 아닙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 맞게 되는 결과는 그 원리와 필수 요건을 따름으로써, 변함없이 그 계율을 지키고 진리에 성심껏 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 교리, 5판. [1939년], 107쪽)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매일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는 특권은 세계 항상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행위로 진리에 대한 우리의 성실함과 충실함의 표준을 세우고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나니, 우리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이고 자신의 신앙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며 자신의 성약에 진실하며, 자신의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충실한, 많은 사람들과 지역 사회와 한 무리의 백성들을 볼 때,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고 모든 면에서 합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16년 10월, 2쪽)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종교의 가르침대로 매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의로움으로 주님께 봉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요 친구가 되실 것이며, 우리의 적은 우리에게 그의 권세를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데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84년 8월 8일자, 1쪽)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영혼에 항상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모든 선한 것을 주신 분이니, 특히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을 에워싸고 있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사업이나, 돈이나, 그 밖의 세상적인 쾌락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배

하고 사랑함으로써 오는 더 큰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의 메시지*, 6권. [1965~1975년], 5:91)

어느 곳에서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치 인간의 가장 높은 야망은 세상적인 야망의 성취인 양 성공이라는 말을 정의합니다.… 결국, 성공은 그들이 사는 세대에서 사람들이 세운 그 시대의 세상적인 인기있는 일시적인 표준보다는, 인간의 (현세적인 필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필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영원한 복지가 이 세상의 부와 명예에 달려 있다는 생각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아무 유익도 없다(마태복음 16:26 참조)는 구세주가 선언한 위대한 진리가 이 세대에서는 잊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한 대로 성공의 표준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복음 교리*, 114~116쪽)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참된 회원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며,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여호수아 24:15)라고 말했던 것처럼, … 이 교회에서 회원으로서의 우리의 지위의 진실한 척도는, 누가 옳은 일을 행하든지 그른 일을 행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와 함께 하며 그 규칙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데저랏 뉴스: 주2회 간행물*, 1893년 3월 21일자, 2쪽)

올바른 생활의 첫째되는 높은 표준은 진리를 위하여 인간을 선하게 하는 개인적인 책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진실된 사람은 남에게 진실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릇되기조차 하는 대중의 의견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든 대중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책임감 때문입니다. 내적인 생활에 태만한 사람들은 대중의 인도에 의존하여, 온갖 모순으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복음 교리*, 226쪽)

하나님의 영의 열매—참된 종교의 영의 열매—는 화평과 사랑, 덕성과 정직, 고결한 성품,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나 있는 모든 덕에 대한 충실함 등입니다. (*복음 교리*, 68쪽)

우리의 의무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추구하도록 계획하신 가르침에 따라 계속해서 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흘리셨던 주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이 말일의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기 위해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높이 우러르며 존경하십시오. (대회 보고, 1904년 4월, 3쪽)

우리의 고결성은 시련과 시험을 받을 것임

저의 어린 시기와 청소년 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떠돌면서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또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전 생애를 이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도움으로,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함께 할 다른 사람들이나 살 곳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서 베드로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떠나는 것을 보고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6:67~68]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곧고 좁은 길을 따르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가 추구하도록 계획하신 경로이며, 또한 우리는 그에 열심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회피할 수 없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으며 계획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반대 세력과 맞부딪치며 하나님이 우리 수중에 주신 진리의 무기로 그들과 대항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쾌락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식의 뛰어남에 비하면 쓰레기와 같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해보고 증명해보려 합니다. 또한 그분은 그렇게 행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심지어 생명까지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영생을 얻거나 충실함의 보상을 받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82년 4월 25일자, 1쪽. 단락이 추가됨)

저는 제가 시련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제게 지혜와 판단력과 인내와 용기를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저의 신앙을 시험받아 왔다고 진정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받아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인내는 시험받았으며, 저의 사랑도 시험받았으며, 저의 성실성 역시 시험받았습니다. (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97년 4월 27일자, 1쪽)

저는 [우리의 선조 개척자들이] 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성취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 조금씩 인도되었다는 것과 율례에 율례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은 그들의 성실함과 그들의 헌신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죽기까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너머까지도 시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달콤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고난에 비하면 죽음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테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98년 8월 9일자, 1쪽)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때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고대 사도 중에서 유다와 요한을 제외하고는, 순교를 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이 다시 지상에 오실 때까지 살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밖의 제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마 거리로 끌려 다닌 사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던져진 사람,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을 간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이 복음의 영이 나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내가 가난과, 시련과, 박해와 혹은 죽음을 겪게 된다 해도,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율법을 지키게 하옵소서. (복음 교리, 1쪽)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께 봉사하여 고결성을 보임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했던 젊은이에게, 만약 그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마태복음 19:21) 이것은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 있으며, 본질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이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솔트레이크시티의 비하이브 하우스.
그는 1918년 11월 19일 이곳에서 별세했다.

다. 그것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 하나님의 것, 인간의 영혼에 화평과 행복을 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부나 명예나 소유물 앞에 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일성도에게 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남자나 여자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항상,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가서 행하겠나이다” 라고 느껴야 하며,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대회 보고, 1909년 4월, 4~5쪽)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모든 소유를 그에게 바치도록 요구하신다면, 저는 주님께서 신앙을 행사하도록 요구했을 때 욕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인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논쟁하며 설득하려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도 없이 그가 명령받은 일을 행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마 이상한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명하신 일을 순종하는지 보기 위하여 아들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을 시험하셨습니다

다. 마음 속 깊이까지 시험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애정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분의 명령에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결함과 기꺼이 순종하려는 것을 보시고 명령의 시행을 금하셨습니다. (창세기 22:1~18 참조)

자,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처럼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께 여러분의 장자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중 누가 또는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불평하지 않고 그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한 구석에 진정 아끼는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감추고 있다면, 우리는 해의 왕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받기에 합당한지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브라이언 에이치 스투이 편집,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 그의 두 보좌, 십이사도 그외의 사람들의 설교집, 5권. [1897~1892년], 2:279)

옴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그의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스바 사람이 그의 소떼를 빼앗아 가고, 하늘의 불이 그의 양떼를 불사르며, 하늘의 바람이 그의 집과 자녀들을 죽였던 것에 대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로 인해 주님을 욕하거나 모독하거나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21)

... 여기에 모든 신앙, 소망, 자비, 사랑, 노력, 모든 인류에 대한 열망의 기초의 예가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할 것입니다. 그들이 감금되는 고통을 당하고, 핍박받는 고통을 당하며, 가난에 대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이 속속들이 그들을 시험하시며, 그들의 성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힘든 시험을 주실 지라도, 그들은 옴처럼 말해야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1:21)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견디어 내며,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나타내 보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고통받는 그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만한 사랑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만큼 그렇게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 가지고 계신 그 목적만큼 그렇게 웅장하고, 위대하며 고귀한 목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를 행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를 알게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축복할 것입니다. (데저렛 뉴스: 주2회 간행물, 1893년 12월 19일자, 1쪽. 단락이 변경됨)

학습을 위한 제언

- 고결성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행위에서 … 고결성의 표준을 세우는가”?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서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가?
-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사업이나, 돈이나, 그 밖의 세상적인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함으로써 오는 더 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세상적인 부나 명예” 보다도 “기록하고 신성한 것”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 여러분의 생활에서 참된 성공의 표준은 무엇인가? 성공에 대한 어떤 다른 정의가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참된 표준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어떻게 “대중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계시된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다른가?
- 우리가 복음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왜 우리는 종종 시련과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 아브라함과 욥과 같은 충실한 제자들의 모범이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가? 그들의 모범에 의해 어떻게 여러분의 간증이 강화되었는가? 어떤 것들이 시련의 기간 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수 있는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1838~1918). 그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여러분의 충실함과, 성실함, 하나님의 지식을 더 많이 얻는 데 비례하여, 여러분은 순수하고 깨끗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정한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밀레니얼 스타*, 1907년 5월 30일, 349쪽)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영혼에 안식과 화평을 찾는다.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1901년부터 교회의 대관장으로 봉사하였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1918년 11월 19일에 별세했다.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이고, 확고하며, 성실하였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생을 바쳤다. 성도들에게 “제가 우리의 머리되시는 세상의 구속주를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따르십시오.”(대회 보고, 1915년 4월, 5쪽)라고 권유했던 그는 의의 설교자였으며, 하나님의 예언자였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뒤를 이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그의 무덤 헌납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는 처음 그가 대관장단 보좌였을 때부터 그후 교회의 대관장이었던 때까지 36년 동안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그가 진실한 분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나 행동을 했던 적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닮고 싶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곳 그의 무덤 가에 서서 저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그분처럼 친절하며, 사려깊고, 용서하며, 용감하고 고귀하며, 또한 진실하게 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싶으며 참으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싶습니다.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보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주에 대한 강한 간증을 지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부터 그는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던 그 간증에 저는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속주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분과 함께 했던 바로 그 영감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명복을 빌어 주

시길 기원합니다.” (프레스톤 니블리, *교회의 대관장*(1947년), 260~261쪽 인용)

다음의 간증은 스미스 대관장이 1907년 1월 13일에 유타 주 프로보에서 행한 연설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 *밀레니얼 스타*, 1907년 5월 30일, 337~349쪽, 단락이 변경됨)

조셉 에프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주님과 그의 복음에 맡길 때,
우리는 주와 더불어 하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아버지 몰몬의 가르침을 인용한 모로나이의 기록을 읽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 모로나이는 나의 부친 몰몬이 신앙 소망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 몇 가지 말씀을 기록하노라....

“... 나는 교회에 속하여 있어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며, 지금으로부터 주와 더불어 하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때까지 참으로 주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지닌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모로나이서 7:1,3)

주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생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느낄 수 있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간증 안에 확립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에서 승영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곧고 좁은 길에서 어떠한 권세도 저를 실족케 하지 못할 것이며 저는 지금으로부터 천국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때까지,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의 안식에 참여함”이라는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교리로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주님과 또한 그분이 세상에 가르친 복음에 자신의 온 마음을 맡기지 않은 사람은 그 안식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방황하고, 불안정하며, 결의가 굳지 아니하고, 확고한 신앙이 결여되어있으며, 죄와 암흑으로 잘못 인도하고 속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자의 간사함과 유혹

에 의해 허를 찔릴 상태가 되어 큰 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국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은 확고하게 확립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며, 무엇을 할 지 결정되어 있으며, 의심과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누구를 신뢰할 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결심과 목적으로 철저하게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앞에 순수한 생활과 명예롭고 충실하고 정직한 가운데 인간이 걸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사하는 사업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이러한 불안한 마음과 느낌을 거두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확신을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 기뻐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됨을 기뻐합니다.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됨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원리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의 원리에 대해 기뻐합니다. 저는 말일에 이 지상에 회복해 주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계시된 생명과 구원의 원리들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지 않으며,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에 의해서 제정된 높은 도덕적 표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함

... 만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인간은 용서의 영, 사랑의 영, 자비의 영, 그리고 거짓없는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분쟁거리를 찾지 않을 것이며, 또한 약자나, 경솔한 사람들이나, 또는 무식한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식한 사람, 약한 사람, 부양받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자기 자신의 권익과 마찬가지로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가 신성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도 신성하게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미덕, 명예, 성실에 대해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신성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미덕, 명예, 성실에 대해서도 똑같이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표하신 완전이란 높은 도덕적 표준에 단 한번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마땅

히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목표는 그곳에 있으며, 그 표준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삶, 그리고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제정해 주신 그 영광스럽고 고귀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신 그 완전한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고, 우리의 결심을 새로이 하며, 이제부터 더욱 더 성실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노력할 것이고,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모범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한 참된 교리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복음의 영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복음의 영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을 지니며 그 소망이 다른 모든 소망보다 더 우위에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앙에 신앙을, 소망에 지식을, 지식에 지혜와 권세를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 왕국의 승영과 영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만 하면, 그의 진보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권세도 해의 왕국 아래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여호수아처럼,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이 시간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결심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빛과 어둠을, 악과 선을, 그릇된 일과 올바른 일을, 불결한 것과 순수한 것을 분리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순간부터 선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선을 소망하고 악을 피함으로써, 그리고 세상과 타락한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돌아섬으로써,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데 있어 여러분이 부지런한 정도에 비례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더욱 능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인간을 승영시키기 위하여 그의 대망을 높이기 위하여 그의 목적을 높이고 그의 자비, 그의 사랑, 그리고 그의 용서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예언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빛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낮의 빛과 밤의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빛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모로나아서 7:14~15)...

우리는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임

여러분께 다음 성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93:1)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자,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오며”, 그는 “죄를 버리고”, 그는 “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는 “나의 계명을 준행한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줄 알”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교리와 성약 93:2)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습니까 … 육신으로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리었는데 처음부터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다가, 마침내는 충만함을 받으셨다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사람,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생명과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여려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것이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갈 것이며,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성장해 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충만함을 받으셨던 것처럼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교리와 성약 93:11~14 참조)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저의 영혼 속에서 불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영광스런 기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제게 주어진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 즉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과 진리에 대한 지식의 충만함과 지혜에 있어서의 충만함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권세와 통치권과 영광을 갖는데 있어서의 충만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살아야 할 목적과 소망할 대상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에게 내밀고 있는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순종, 충실함, 빛을 받아들임,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제공된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줄 그러한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이 거룩한 복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대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그분과 함께 거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그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르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영원을 통해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나의 영혼에 영감을 주는 이 열망과 소망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가 승영을 얻게 해주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어진 다른 방법을 없으며, 인간이 승영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계시된 다른 계획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 다른 방법이나 계획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계시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계시해 주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은 것보다 더 위대한 빛을 받기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많은 계시가 이미 주어졌으며,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육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영혼에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 흠없이 설 것이다.”라고 담대히 말하지 못하고서, 우리를 찌는 유혹과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에 굴복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며 그분 앞에 흠없이 서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일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 사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표준에 가깝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모든 평화와 행복이 가능하게 됨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에 대한 신앙을 지니십시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종교가 하나님의 종교요, 하나님의 율법이며, 이

지상에 사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 종교는 자기 자신보다 우선되며,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며, 금과 은과 집과 땅보다도 우선되는 것이며, 이 세상의 삶 그 자체보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권리 및 특권에 대해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것인 영생의 은사에 대해 우리는 보장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이며,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속과 구원을 주는 교리이며, 영과 철저히 완벽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교리입니다. 그것은 또한 사업과 지식과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선을 주는 자에 대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활동하고 있는 모든 직업과 모든 자격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평화와 또한 건강의 축복과 사랑이 풍성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잠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3]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속입니다. 죄로부터 구속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채무자나 죄의 포로가 된 자는 노예입니다. 그는 노예이며, 그는 속박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동정하고 연민을 보여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는 죄와 범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지상에 계셨을 때나 오늘날에도 의로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 중 그분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일성도에게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만약 당신이 제게 가르쳐 준 대로, 제가 여러분의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란 하나도 없겠네요. 이제부터 더 이상의 즐거움이란 없겠습니다.” 오, 그렇게 말하는 그대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지상에 거하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즐길 수 있는 모든 정당하고 의로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나의 형제보다 더 충실하다면, 저는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즐거움

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충실함과, 성실함, 하나님의 지식을 더 많이 얻는데 비례하여, 여러분은 순수하고 깨끗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죄의 속박과 악독이 가독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와 낮의 햇빛과 같은 밝은 빛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가 밤의 어둠과 낮의 밝은 빛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학습을 위한 제언

- “주와 더불어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 또한 그분이 세상에 가르친 복음에 자신의 온 마음을 바칠 수 있는가?
- 구세주께서 제정하신 높은 표준에 더 잘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성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구세주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약속은 무엇인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때, 어떻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11:28~30 참조)
- 어떠한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모든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도록 도움이 되었는가? 또한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또한 더욱더 구세주처럼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색 인

ㄱ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 에 대한 사랑, 193~194
- 을 돌보는 상호부조회, 185~187
- 을 위한 금식, 197~198

가정

- 을 대신할 수 없음, 382
- 가족의 성전, 346~347
- 개선할 필요가 있는, 179~181
- 이상적인 -의 근본, 179~181, 382~383
- 행복에 필수적임, 34

가정 복음 교육, 조셉 에프 스미스-에 대해 강조함, xxi

가정의 밤, 345~351

- 동안에 복음을 가르침, 347~348
- 동안에 할 일, 347~348
- 부모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349~350
- 소개, xxi, 345~346
- 순종할 경우 오는 축복, 348

가족

- 과 함께 기도함, 25~26
- 을 바라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 177~179
- 성신과 하나가 됨, 368
- 영원한 -의 결합, 385~386
- 영원한 결혼으로 시작함, 174~177
- 우리의 -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 244~245
- 조셉 에프 스미스-에 대한 사랑, xviii

가족 역사 사업, 가정의 밤, 가정 참조

가족 역사 사업

- 구세주께서는 죽은 자를 위한 일을 시작하셨음, 408~410
- 북천년에서의 -, 414
-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일함, 410~412
- 요셉 스미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선언문, 410~411
- 우리의 책임, 412~414
-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됨, 410~412
- 또한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참조

간증, 201~209

- 성신을 통한, 6~8, 203~205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영감을 줌, 206~207
- 조셉 에프 스미스-을 얻음, 201~202
- 조셉 에프 스미스 그리스도에 대한 -, 1~9, 205, 207~208, 359~360, 430~432
- 하나님의 은사, 202~203

감독, 지지, 215~217

값진 진주, 경전에 더해짐, 39

개척자, 의 용감한 모범, 109~111

거듭남

- 성신을 통해, 71~72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358~359
- 침례를 통해, 60

거수 지지, 211~212

- 거짓 교리, 피함, 115~119
- 건강, 지혜의 말씀 참조
- 검소, 163~172, 또한 재정, 참조
- 게으름, 거짓 교리로 인도함, 115~116
- 결혼 생활, 173~181
 -에 충실함, 158~160
 -의 성약의 성스러움, 158~160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느 것도 끼여들 수 없음, 181~181
 사랑과 헌신으로 -을 함, 179~181
 성전의 중요성, 177~179
 영원한 영광과 승영을 위한, 174~177, 181
 하나님의 계명, 174~177
- 경전,
 값진 진주, 경전에 더해짐, 39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함, 42~44, 204~205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인도됨, 40
 베스트셀러 보다 더 중요함, 45~46
 영적인 부를 추구함, 40~42
 우리 자신에 적용함, 44~45
 자주 읽음, 44~46
 조셉 에프 스미스,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움, 39
- 경제, 재정, -에 대한 지혜 참조
- 계시, 265~272, 362~369
 -를 통해 간증을 얻음, 202~203
 개인적인 -, 366
 계속적인 -, 363~364
 대관장은 교회를 위해 -를 받음, 226~227
 모든 교회 회원들에 대한 -, 266~268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함, 367~368
 성신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 268~269
 순종은 더 큰 -로 인도함, 270~272
- 신권 경로를 통한 -, 116~117, 365~367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직접 주어짐, 363
 현대에도 필요함, 364
- 공익, 하나님의 -에 대한 신뢰, 55~56
- 과학, 신성한 계시는 표준, 315~317
- 교리, 거짓, 또한 거짓 교리 참조
- 교리와 성약
 그리스도를 증거함, 42~44, 204~205
 영광스러운 원리를 계시함, 44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자주 읽음, 44~46
 또한 경전 참조
- 교만, 거짓 교리로 인도함, 115~116
- 교육받은, 교육, 313~321
 과학과 철학의 역할, 315~317
 쇠막대를 잠음, 319~320
 신성한 계시는 표준임, 315~317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함, 317~319
 지속적인 배움이어야 함, 317~319
 추구함, 진리에 대해, 313~321
- 교회와 정부의 분리, 125~127
- 교회의 대관장, 221~229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음, 226~227
 대관장단의 일원, 222~223
 신권의 열쇠를 소유함, 141, 224~225
 조셉 에프 스미스, -이 됨, xix, 221
 지지, 212~215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임, 227~228
 하나님께서는 -통해 교회를 인도하심, 222
- 교회의 대관장단, 222~223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참조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참조

구원에 대한 계획, 구원의 계획 참조

구원의 계획, 147~153

-에 순종함, 152~15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함, 152~153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도움,
151~152

우리의 승영을 위해 계획된, 148~151

국가에 대한 충성심, 123~127

군인들은 항상 의롭게 생활해야 함, 402~404

궁핍한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 참조

금식,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197~198

기도, 21~28

가족과 함께, 25~26

간단히 자주, 23~24

겸손과 신앙으로 드리는 -, 22~25

다른 사람들을 위한 -, 27~28

메어리 필딩 스미스가 잃어버린 소들을 위해,
xiv, 21~22

선교사들을 위해 필요함, 77~78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 22~23

기쁨,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 150

기차에 승차함, 조셉 에프 스미스 영의 속심임을
들음, 265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 95~96

L

남편, 결코 아내를 학대해서는 안됨, 250~253
또한 결혼 참조

노동, -의 가치를 가르침, 301~302

니블리, 찰스 더블류, 163, 192, 265

C

다툼, 선교사는 반드시 피해야 함, 80~83

단합, -으로 이끄는 계시, 367~368

담배, 지혜의 말씀 참조

대관장단, 222~223

도박, 375

돈, 또한 재정, -에 대한 지혜 참조,

ㄹ

레이맨인, 몰몬경에 의해 축복됨, 43~44

레크리에이션

건강한 -이어야 함, 373~374

부모는 어린이들에게 -을 규제해야 함,
299~301

안식일엔 안됨, 233~234

인생의 목적이 아님, 373~374

□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356

마술, 사탄의, 117~118

마음의 변화, 성신을 통한, 71~72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의 가사, 241

멀망, -의 아들, 72~74

멀망의 아들, 72~74

모범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의 용감한-, 119~121

선교 사업에 필요한-, 84

아버지는-을 보여야 함, 384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을 보임, 296~298

우리의 위대한-인 예수 그리스도, 151~152, 427~428

물문경

-의 증인, 43

레인맨인들을 축복함, 43~44

여러 언어로 번역됨, 43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 42~44

요셉 스미스에 의해 번역됨, 16~17

진리를 찾기 위해 자주 읽음, 44~46

또한 경전 참조

무례함,

무지, 가장 큰 악, 317~319

문학, 건전한, 377

H

바울, 신앙의 용기를 지녔음, 107

박해,

교회의, xxi

조셉 에프 스미스-에 대한 용서, 257~258

또한 용서함, 용서 참조

배도, 배도하다

지도자들을 지지하지 않으면-에 빠지게 됨, 217, 226~227, 365~367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은-하지 않을 것임, 277

배움, 또한 교육받은, 교육 참조

베드로

성신을 받았음, 73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함, 412

보조 조직

-의 봉사, 341~344

신권의 지시 하에 봉사함, 341~342

젊은이의 개선을 위한 가르침, 371

조셉 에프 스미스-와 함께 일함, xxi

복음

-을 통해 모든 행복이 가능함, 430~432

-의 회복, 12~14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줌, 399~405

우리를 비이기적이 되게 함, 198~199

복음을 가르침, 선교사가 해야 하는 방법, 80~53

복음의 회복, 12~14

복장, 천박한, 376

복천년, 죽은 자를 위한 구속의 시기, 414

봉사,

보조 조직의, 341~344

신권은-의 성역을 위한 것임, 340~341

조셉 에프 스미스 충실하게 봉사했음, 339~340

또한 사랑 참조

부도덕한 행위, 376

부모, 어린이-의 가르침, 아버지,

어머니 참조

부활

-시의 육신의 모습, 91~92
 속죄가 가능케 해 줌, 89~92
 어린 아이들의 -, 130~132
 예수 그리스도의 -, 406

원수들 - 함, 258, 261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 하심, 422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어머니의 -, 35~36
 학대를 금지함, 250~254
 또한 사랑, 봉사 참조

불, 조셉 에프 스미스, 소유물을 파괴함, 76~77

사명,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242

비난

-대신 좋은 점을 찾음, 259
 교회 지도자에 대한, 215~219
 피함, 195~196
 협담, 375~376

사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아니함, 73~74

사탄

-으로부터의 거짓 계시, 116~117
 기적과 요술을 모방함, 117~118
 세상의 구세주가 되길 바랐음, 332
 진리에 대항해 싸움, 114~115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적, 261~262

빛

-을 피하는 것의 중요성, 163~168
 교회는 - 으로부터 벗어나, 275~276
 또한 재정 참조

산상 수훈, - 은 구세주의 신성함을 확실히 보여
 줌, 2~3



사도, 조셉 에프. - 로 성임, xvi, 137~138

상대

-에 대해 용감하게 일어섬, 106~109
 또한 역경 참조

사도들, 그리스도

-의 순교, 420
 성신을 받았음, 73~74

상호 향상회의 봉사, 341~342

상호부조회, 183~191

-의 봉사, 341~342

궁핍한 자를 도움, 185~187

신권의 지시를 받음, 190

자매들간에 가르치고 신앙을 키움, 185~190

조셉 에프 스미스, 50주년 기념 행사의 기도,
 183

초기 지도자들의 모범, 188~189

하나님에 의해 제정됨, 184

사랑, 192~200

-으로 어린이를 가르침, 298~299
 가난한 자를 위해 금식함, 197, 198
 가난한 자에게 관대함, 193, 194
 가장 위대한 원리, 194
 결혼의 기초, 179~181
 네 몸과 같이 이웃을 - 함, 194, 196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소망을 희생함, 198,
 199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 - 함, 417~419
 비난을 피함, 195~196
 영혼을 시험함, 위대함,

선교 사업, 76~84

귀환 선교사의 책임, 83~84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 80~83

선교사 자질, 77~78

집에서 필요함, 83~84

선교사, 76~84
 겸손함, 77~78
 귀환 선교사의 책입, 83~84
 기도해야 함, 77~78
 단순하게 가르침, 80~83
 분쟁을 피함, 80~83
 사교적이 됨, 80
 영으로 가르침, 77~78, 80~82
 의롭고 순종적이 됨, 78~80
 조셉 에프 스미스 선교사를 위한 기도, 27~28
 조셉 에프 스미스 소지품이 연소됨, 76~77

성공
 -의 정의, 417~418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 386

성신,
 -에 순종함은 더 큰 지식으로 인도함, 270~272
 -을 거스르는 용서받지 못할 죄, 72~74
 -을 통해 거둬냄, 71~72
 -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앎, 57
 -의 은사, 68~69
 -의 직분, 69~71
 모든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인도, 266~268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줌, 368
 선교사는 -으로 가르침, 77~78, 80~82
 악으로부터 보호함, 119~120
 안식일을 어김은 -의 인도를 받을 수 없음, 235~236
 어머니를 인도함, 34, 37
 영의 인도대로 행함, 269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203~205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6~8
 유지하는 방법, 69~71
 작은 목소리를 통해 계시함, 268~269
 조셉 에프 스미스 -의 속삼임을 들음, 265

성신의 은사, 성신 참조

성실함, 416~423
 시련이 올 것임, 419~422
 아브라함이 보여 준 모범, 420~421
 하나님의 것을 우선 순위에 놓음으로써, 417~419

성약
 -에 충실함, 105~106
 성전 -에 충실함, 310~311
 합당하게 -을 맺음, 308~310

성적인 결합, 합법적인 결혼 생활 내에서의, 158~159

성적인 욕망, 순결, 자제심 참조

성적인 죄,
 만연함, 155~157
 성약을 깨뜨릴 때, 더 강한, 159~160
 회개할 수 있음, 160~161
 또한 순결 참조

성전 결혼, 결혼 참조,
 성전, 305~311
 -결혼의 중요성, 174~179
 -에서 맺는 성약에 충실함, 310~311
 가족 역사 사업을 위한 -, 412~414
 구원의 의식을 행하기 위한, 306~308
 들어가기에 합당함, 308~310
 요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된 의식, 12
 조셉 에프 스미스, -에서의 경험, 305~306

성찬, -동안 속죄를 기억함, 101~102

속임
 거짓 가르침을 피함, 115~119

- 진리는 우리를 - 으로부터 자유케 함, 119~120
-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데 필요함, 243~244
- 속죄
 - 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됨, 101
 무조건적임, 86~92
 성찬을 취할 때 기억함, 101~102
 아담의 타락을 극복함, 89~92
 어렸을 때 죽은 사람들을 구속함, 129~130
 영적인 사망을 구속함, 98~100
 육적인 사망을 구속함, 86~92
 조건적임, 95~102
- 솔트레이크 성전, 주춧돌을 놓음, xix
- 쇠막대, - 를 잡음, 교육적으로 추구함, 319~320
- 순결
 - 의 법을 어긴 선교사의 해임, 155
 결혼에 충실함, 158~160
 남자와 여자에게 중요함, 157~158
 성적인 범죄를 회개할 수 있음, 160~161
 성적인 범죄의 사악함, 155~157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함, 402~404
 또한 성적인 죄 참조
- 순교
 고대 제자들의 -, 420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의 -, xii~xiv
- 순종
 - 은 재림을 준비하게 해 줌, 394~396
 더 큰 지식으로 인도함, 270~272
 셀 수 없는 축복을 가져옴, 289~292
 승영에 필수적임, 64~65, 152~153
 신앙에 필수적임, 53~54
 영의 목소리에 대한, 269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에 의해 영감받음, 206~207
- 술, 지혜의 말씀 참조
- 스미스, 라첼, 275~276
- 스미스, 론다, 128
- 스미스, 루스, 129
- 스미스, 머시 조세핀, 128
- 스미스, 메어리 필딩, xi~xii
 - 의 결혼 생활,
 - 의 죽음, xv
 감자로 바친 십일조, 49~50
 경전을 통해 조셉 에프 스미스를 가르쳤음, 39
 병든 소를 위한 기도, xiv, 21~22
 솔트레이크 계곡으로의 여행, xiv~xv, 31
 조셉 에프 스미스 - 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31~37
 조셉 에프 스미스가 죽은 자녀들을 받아들임, 129
- 스미스, 엘리스, 86
- 스미스, 에디스 엘리너, 257
- 스미스, 요셉, 예언자
 - 의 죽음, xii~xiv
 - 의 첫번째 시현, 14~16
 - 의 투옥, 147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인 죽은 자의 구원, 410~411
 몰론경 번역, 16~17
 복음을 회복함, 12~14
 성전 의식을 회복함, 12
 신권을 회복함, 12~14

- 인간의 구원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행함, 17~19
 조셉 에프 스미스-에 대해 간증함, xii, 11~19
 조셉 에프 스미스의 꿈에 나타남, 95~96
- 스미스, 조셉 에프
 “아버지와 아들” 발행, 353
 “인간의 기원” 발행, 331
 -의 죽음, 416
 -의 출생, xi~xii
 -의 침례, 59
 가정의 밤 프로그램 도입, 345~346
 가족에 대한 사랑, xviii, 381
 간증을 얻음, 201~202
 교회 대관장이 됨, xix~221
 교회가 부채를 벗음, 275~276
 교회에서 아이들에 관한 느낌, 249
 구세주에 대한 간증, 1, 359~360, 425~432
 그의 어머니로부터 경전을 배움, 39
 깨끗하게 되는 것에 관한 꿈, 95~96
 나부에서, xii
 능력있게 말함, xvii, xviii
 모든 부름에 충실하게 봉사함, 339~340
 박해자에 대한 용서, xvii~xviii, 257~258
 상호부조회 50주년 기념 행사에서의 기도, 183
 선교 사업의 시련, 76~77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집을 잃음, 210
 선교사인 아들을 위한 기도, 27~28
 성전에 대한 사랑, xviii~xix
 일차 세계 대전 중의 메시지, 399~400
 솔트레이크 계곡으로의 여행, xix~xv, 31
 신성한 부지를 위해 일함, xxii
 십이사도로 성임됨, xvi, 137~138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신앙을 가르쳤던 어머니, 49~50
 아내 줄리아나와의 작별, 173~174
 아들 하이람의 죽음에 관한 느낌, 407
 어머니에 대한 사랑, 31~32, 35~36
 요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 xii, 11~19
 의원들 앞에 나타남, 283
- 잃어버린 소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 xiv, 21~22
 자녀에 대한 사랑, 295~296
 자녀들의 죽음, 86, 128~129, 134
 장례식, 1, 425
 조셉 에프 스미스, 거친 반 물몬주의자에게 대
 답함, 104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받음, 362
 지역 사회 봉사, 122
 지혜의 말씀에 대해 가르침,
 크리스마스 선물을 삼, 163
 하와이로의 선교 사업, xv~xvi, 67
 하와이에서 사기꾼을 멈추게 함, 113
 하와이인 어머니에 대한 사랑, 76
- 스미스, 조지 에이, -에게 보낸 편지, 76
- 스미스, 줄리아나, 173
- 스미스, 하이람,
 -의 순교, xii~xiv, 407
 -의 투옥, 147
 교회 축복사, xii
 죽은 자에게 복음 전파, 411
- 스테이크장, 지지, 215~217
- 승영
 -에 대한 가족 역할, 385~386
 -에 필수적인 회개와 침례, 64~65
 -에 필요한 회생, 57
 -으로 이끄는 구원의 계획, 148~151
 결혼은 우리의 -을 위한 것임, 174~177, 181
 속죄와 충실함을 통한, 100~101
 영의 자손의 부모가 되는데 필요함, 92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가며 성장함, 429~430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함,
 353~354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음,

- 336~337
- 시련, 역경 참조
- 시민
 말일성도는 훌륭한 - 입, xix~xx, 123~125
 충실한 - 이 됨, 122~127
- 시온산의 구원자, 246~247, 412~414
 또한 가족 역사 사업 참조
- 신권, 137~144
 - 의 열쇠, 141, 224~225
 - 평의회는 - 의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함, 343
 - 하에서 보조 조직이 봉사함, 341~342
 봉사를 위한, 340~341, 342~344
 사랑으로 다스림, 141~143
 상호부조회는 - 에서 독립되지 않음, 190
 여자도 또한 축복을 누림, 139~140
 영예롭게 함, 143~144
 요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됨, 12
 정의, 138~139
 조셉 에프 스미스 - 으로 일함, xx
 하나님 - 의 통치, 138~139
- 신권 지도자, 지지, 210~219
 감독 및 스테이크장, 215~217
 거수 지지의 중요성, 211~212
 비난하지 말아야 함, 215~219
 실패, 배도로 이끌, 217
 총관리 역원, 212~215
- 신권 지도자를 지지함, 또한 신권 지도자, 지지함
- 신권의 열쇠, 141, 224~225
- 신성 모독, 374
- 신앙,
 - 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감,
 - 의 모범인 아브라함, 54~55
 - 의 용기, 56, 106~109
 - 의 정의, 50~53
 순종을 통해 얻음, 53~54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지해 줌, 54~56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 53~54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50~5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52
- 심판,
 성신은 의로 인도함, 270
 또한 비난 참조
- 십일조, 275~282
 - 를 바치는 사람은 배도하지 않을 것임, 277
 - 의 율법에 순종함, 276~277
 관리하는 사람, 278
 메어리 필딩 스미스, 감자, 49~50
 바치는 사람에게 축복을 줌, 279~281
 부자가 바치기는 어려움, 281
 부채를 벗어난 교회, 275~276
 주님의 세법, 277~279
-
-
- 아내, 예의바르게 대함, 250~251
 또한 결혼 참조
- 아담
 영적인 사망을 가져오는 타락, 96
 육적인 사망을 가져오는 타락, 87~89
 첫번째 인간, 335~336
- 아담의 타락
 속죄로 극복함, 89~92
 영적인 사망을 가져오는, 96
 육적인 사망을 가져오는, 87~89

아버지,

가정 생활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함, 382~383

가족 의무를 수행함, 384~385

가족을 관리함, 383

모범을 보임, 384

조셉 에프 스미스, 가족에 대한 사랑, 381

진정 위대함, 386

또한 어린이에게 -에 대해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참조

“아버지와 아들”, 교리 주해, 383

아브라함

신앙의 모범, 54~55

희생과 성실의 모범, 420~422

악, 하나님이 허락하신, 286~287

악마, 사탄 참조

악의

누구에 대해서도 -를 품어서는 안됨, 257~263

또한 용서함, 용서 참조

안식,

-으로 이끄는 경진, 40

구세주의 모범을 따름, 427~428

그리스도 안에서의, 425~432

모든 행복은 복음을 통해 가능함, 430~432

신앙을 통해 -에 들어감, 56~57

안식일의 -, 213~234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 426~427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가며 성장함, 429~430

안식일, 230~238

-에 할 일, 231~234

신성 모독은 영을 잃게 함, 235~236

지킴으로써 오는 축복, 237~238

토요일 저녁은 -을 준비하는 시간임, 235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음, 235

애국심, 말일성도의, 123~125

어린이

-들의 구원, 128~134

-에 대한 부모의 책임, 244~245, 296~298

-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 384~385

-에 대한 어머니의 책임, 32~34

-위한 정규적인 레크리에이션, 299~301

-의 부활, 130~132

가르쳐야 할 것, 296~298

또한 어린이에게 ...(-을)를 가르침, 295, 303

모범의 중요성, 296~298

보호함, 고집스럽게 자라는 것으로부터, 299~301

부모는 진리에 대해 전문가가 되어야 함, 346~347

사랑은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298~299

성신의 은사를 가르침, 69

애국심을 가르침, 123~125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32~33

인내와 일하는 것을 가르침, 301~302

조셉 에프 스미스 -에 대한 사랑, 381

존중함, 결코 학대하지 않음, 250~254

주님의 유산, 296

죽은 -들과 다시 만남, 133~134

책임질 수 없는 연령에 죽은 -는 구속됨, 129~130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르침, 346~347

학대하지 말라, 253~254

또한 하나님의 자녀 참조

어머니, 31~37

성신으로부터 도움, 34~37

어린이를 가르치는 책임, 33~34

일찍 죽은 아이들을 양육할 것임, 132

자손에 영향을 미침, 32~33

- 진정한 위대함, 386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 35~36
 학대당하지 않아야 함, 252~253
 또한 어린이, -의 가르침 참조
-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참조
- 여자,
 신권 축복을 누릴 수 있음, 130~140
 용감했던 초기 자매들, 188~189
 학대받지 않아야 함, 252~253
 또한 상호부조회 참조
- 역경
 신앙은 -에 처한 우리를 지지함, 54~56
 우리의 성실을 시험하는, 419~422
 또한 상대 참조
- 영
 육신과 재결합함, 91~92
 죽은 후 어린 아이들의 -, 130~132
 또한 성신 참조
- 영생, 승영 참조
- 영적인 죽음, 사망, 영적인 참조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 425~432
 -에 대한 간증을 얻음, 201~208
 -에 대한 신앙은 필수적임, 50~53
 -에 대해 증거하는 현대의 경전, 42~44
 -와 함께 후사가 됨, 100~101
 -의 침례, 63
 가장 위대한 교사, 42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 148~152
 그의 아버지의 형상대로, 334~335
 독생자,
 부활, 4~6
 산상 수훈은 -의 신성함을 확실히 보여 줌, 2~3
 생애와 가르침은 -의 신성함을 증거해 줌, 2~4
 선을 행하기 위해 자유의지를 행사함, 291~292
 성신이 증거함, 6~8, 69
 성찬은 우리가 속죄를 기억하게 해줌, 101~102
 신성한 권능을 부여받음으로 해서 아버지임, 359~360
 야렛의 동생에게 나타난 영, 335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을 위해 구속함, 129~130
 영이 -에게 복종함, 426~427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속하는 속죄, 95~102
 완전함의 모범, 151~152, 427~428
 용서, 3~4, 260
 육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속하는 속죄, 86~92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가며 성장함, 153, 429~430
 자제심의 모범, 372~373, 383
 장자, 334, 355~356
 전세에서 구세주로 받아들여짐, 331~334
 조셉 에프 스미스 -에 대한 간증, 1~8, 205, 207~208, 359~360, 430~432
 죽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예임됨, 408~410
 충실한 사람들의 아버지임, 357~359
 탄생하기 전, 영이 충분히 성장함, 132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범, 404~405
 하나님과 하나가 됨, 356~357
 하늘과 지상의 아버지임, 357
 또한 재림, 간증 참조
- 예지, 또한 교육받은, 교육 참조
- 옥슨, 메어리 필딩 스미스, -를 위한 기도, xiv, 21~22
 읊, 성실함을 보여 줌, 420

용기
 교회의 대업에 대한, 104~111
 신앙에 대한 용기, 56, 106~109
 조셉 에프 스미스, 거친 반물질론주의자에 대한,
 104
 초기 교회 지도자의 모범, 109~111
 초기 자매들의 모범, 188~189

용서받지 못할 죄, 72~74

용서함, 용서
 서로, 62
 십자가 위에서 구세주의, 3~4
 적에 대한, 257~263
 조셉 에프 스미스 적에 대한 -, xvii~xviii

원수를 사랑함, 259~261

웰스, 에머린 비, 188~189

유타에 집합, 더 이상 권장하지 않음

계보, 가족 역사 사업 참조

육신
 -의 필요성, 148~151
 사람은 -와 영으로 구성됨, 88
 형태, 부활한 상태의, 91~92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함, 153, 429~430

의식, 성전
 구원을 위해 필수적, 306~308
 합당하게 수행함, 308~310

이기심
 결혼과 가족에 대한 소망이 없음, 177~179
 복음이 극복해야 할, 198~199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함, 194~196
 또한 사랑 참조

이웃,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194~196

인간, 영과 육체, 88
 "인간의 기원" 대관장단 성명, 331

인내, 어린이에게 -를 가르침, 301~302

인봉의 권세, 교회의 대관장이 지님, 141

일, 에 대한 가치를 가르침, 301~302

일요일, 안식일 참조



자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참조

자매, 여자 참조

자유
 교회는 -를 침해하지 않음, 288~289
 순종을 통해 오는 위대함, 290~292
 순종을 통한, 283~293
 오직 복음이 유지하는, 400~402
 또한 자유의지 참조

자유의지
 교회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288~289
 선택에 대한 책임, 284~287
 순종은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옴, 289~292
 시온에서 봉사를 위해 -사용함, 342~344
 하나님은 -에 따른 결과를 통제하심, 286
 하나님은 -에 따른 악을 허용하심, 286~287
 하나님의 은사, 그는 -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
 심, 284~287

자제심, 371~379
 구세주는 - 의 모범이 되심, 372~373, 378
 도박을 피함, 375
 신성 모독을 피함, 374
 양서가 아닌 책을 피함, 377
 천박한 춤을 피함, 376~377
 부도덕한 행위를 피함, 376
 협담을 피함, 375~376

 장로, 선교사 참조

 장자, 예수 그리스도 참조

 재난, - 의 목적, 393

 재림, 389~396
 - 시까지 정부에 충실함, 126~127
 - 을 준비하기 위해 순종함, 394~396
 예언자가 예언해 왔음, 390~392
 위험한 시대의 평화, 393~394
 의로운 자는 준비할 것임, 392~394
 재난은 - 의 목적, 392~394

 재정, - 에서의 지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 168~170
 돈은 행복의 진정한 원천은 아님, 168~170
 자유롭기 위해 빛을 지지 않음, 164~168
 저당, 주의를 줌, 164~168
 조셉 에프 스미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를
 소망함, 163
 탐욕을 피함, 170~171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돈을 사용함,
 170~171

 저당, 주의를 줌, 164~168

 적
 - 에 대한 자비, 259~261
 교회의 - 들은 승리하지 못함, 261~262

우리의 - 이 아닌 하나님의, 262
 조셉 에프 스미스, - 을 용서함, xvii~xviii
 하나님의 보호를 떠남, 262~263

 전세, 우리는 - 의 일부였음, 331~334

 전쟁,
 - 중에 의롭게 자신을 지킴, 402~404
 복음만이 방지할 수 있음, 400~402
 조셉 에프 스미스 - 중 메시지, 399~400

 정부
 교회와 국가의 분리, 125~127
 말일성도는 - 를 지지함, 123~127

 조셉 에프 스미스, 자녀의 죽음, 86, 128~129,
 134

 족장의 반차, 139~140, 383

 종교적인 취미, 피함, 118~119

 죄, - 를 지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함, 97

 죽은 자, 또한 가족 역사 사업,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참조

 죽은 자의 구속, 가족 역사 사업, 죽은 자의 구속
 에 관한 시현 참조

 죽은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xxiv, 362, 407~410

 죽음, 영적
 - 을 가져오는 타락, 96
 예수 그리스도는 - 로부터 회개하는 사람을 구
 속함, 95~102

 죽음, 육신
 - 을 가져오는 타락, 87~89

-을 극복한 부활, 89~92
필요성과 축복, 87~89

지식, 순종은 더 큰-으로 인도함, 270~272

지혜의 말씀, 323~329
-에 순종할 때 우리는 좀더 주님과 같이 됨,
327~329
무시함으로써 오는 타락과 파멸, 324~326
순종에 따른 축복, 326~329
우리의 이익과 변명을 위한, 324~326
조셉 에프 스미스 -을 가르침, 323~324

진리

-를 구하고자 노력함, 313~321
복음 안에 모두 포함됨, 314~315
속지 않도록 항상 -에 거함, 113~121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함, 119~120

집, 조셉 에프 스미스,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하여
-을 잃음, 210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는 -임, 355

책

가장 중요한 경전, 45~46
양서이어야 함, 377

천국 평의회, 331~334

첫번째 시현, 부활 이후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14~16

초등학교, 봉사, 341~342

총관리 역원, 지지함, 212~215

춤, 376~377

취미, 종교적인, 포함, 118~119

침례, 59~65
구원에 필수적임, 60~61, 62~6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 358~359
예수님의, 63
의식의 간소화, 63~64
진실한 - 정의, 62~63
침수로써의 -, 61~63



크리스마스, 조셉 에프 스미스, 선물 사기를 소망
함, 163

김볼, 빌라트, 189

김볼, 히버 시
조셉 에프 스미스를 침례함, 59
하나님의 사람, 고귀한 사람, 110



담욕, 170~171

토요일 저녁, 안식일을 준비함, 235

툼슨, 머시 필딩, xii, xv

평화, 399~405
모든 인류와 함께 -를 추구함, 404~405
복음만이 가져다 주는, 400~402
예수, -에 대한 모범, 404~405
위험한 시대의, 393~394

포올러, 윌리엄, 241



하나님 아버지

- 에 대한 신앙이 필요함, 50~53
- 을 아는 것은 영생임, 353~354
- 살과 뼈의 육신, 354~355
-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 356~357
- 예수 그리스도의, 354~356
- 우리 영의, 354~355
- 창조자, 355
- 또한 하나님의 자녀 참조

하나님의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참조

하나님의 자녀, 331~338

-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음,
336~337
- 우리는 - 임, 331~334
-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 334~336

하와이

- 에 대한 사기꾼을 멈추게 함, 113
- 에서의 선교 사업, xv~xvi
- 하와이인 어머니에 대한 사랑, 192~193

학대

- 남편이 - 하지 않아야 할, 250~251
- 부모들이 - 하지 않아야 할, 253~254
- 서로를 존중하며 대함, 250~252
- 조셉 에프 스미스, 교회에서 어린이에 대한 느낌, 249

협담, 또한 비난 참조, 375~376

훈육

- 어린이들에게 친절하게, 253~254
- 또한 자제심 참조

회개, 59~65

- 구원을 위해 필수적, 60~62, 64~65
- 성적인 죄에 대한, 160~161
- 참된 -의 정의, 61~62

희생

-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소망, 198~199
-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 342~344
- 성실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419~422
- 영생을 위해 필수적임, 5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Korean



4 02357 44320 0

35744 320